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

2023. 04. 07.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 약 어 표 】

약어	영문	국문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SE	Private Sector Engagement	민간부문참여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AAAA	Addis Ababa Agenda for Action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CDC	Colonial Development Corporation	영연방 개발 기관
BII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영국 개발금융기관
DCED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공여국위원회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DIB	Development Impact Bond	개발성과연계채권
GIF	Global Innovation Fund	글로벌혁신펀드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민간부문개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국제개발협력청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 개발계획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PSC	Private Sector Collaboration	민간부문 협업
PSP	Private Sector Partnership	민간부문 파트너십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USTDA	United State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미국 무역개발기구
GIZ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독일 국제개발협력기관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DEG	Germ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독일 개발금융기관
AECF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	미국 엔젤투자 교육 재단
KEA	Korea Energy Agency	한국에너지공단
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MIR	Korea Resources Corporation	한국광해광업공단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REWP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IEA 재생에너지분과
EGNRET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그룹
ROD	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RC	Korea Rural Community	한국농어촌공사
K-EC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한국환경공단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Technology Institut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IPS	Innovative Partnership Soultion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K-PPEP	K-eco-Public・Private Environmental Partnership	K-eco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케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 연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VOP	One Village One Product	1촌 1품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국가협력전략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소비자 간 거래
KIC	Korea Innovation Center	워싱턴 한국 혁신 센터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FI	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지능원
G2G	Government-to-Government	정부간 거래
VC	Venture Capital	벤처 캐피탈
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개발금융기관
IFI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	국제금융기관
CoP-PFSD	Community of Practice on Private Fina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실무공동체
IS-FSD	OECD-UNDP Impact Standards for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임팩트 기준
T-H-K Roadmap	Tri Hita Karana Roadmap	T-H-K 로드맵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
DFAT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SAS	Sint Antonius Stichting	네덜란드 재단
PCP	Project Concept Paper	사업 요청서

목 차

국문 요약 ····· i-vi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의 한계 ····· 6

제2장. 무상협력 분야 PSE 개념 및 범위 ····· 7
제1절 무상협력 분야 PSE 개념 ····· 7
1. 국내 연구 PSE의 개념화 ····· 7
2. 국외 연구 PSE의 개념화 ····· 10
3. 소결 ····· 15

제2절 국제사회 PSE 전략 및 사례 ····· 16
1. 해외 공여기관 사례 ····· 17
2. 기업협력 사례 ····· 28
3. 소결과 시사점 ····· 32

제3장. 우리나라 PSE 현황 ····· 34
제1절 PSE 프로그램 현황 ····· 34
1. 타 부처 지원 프로그램 현황 ····· 34
2. KOICA PSE 프로그램 현황 ····· 43
3. 소결 ····· 53

제2절 기업 참여 현황 및 동인 분석 ····· 57
1. 해외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 57
2. KOICA CT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 86
3. 기업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 106
4. 소결 ····· 114

제4장. 혼합금융 ····· 118
제1절 혼합금융 개념 ····· 118
1. 혼합금융의 정의 ····· 118
2. 혼합금융의 실행 원칙 ····· 120

제2절 혼합금융 사례 ····· 125
1. 컨버전스(Convergence) ····· 125
2. 글로벌혁신펀드(Global Innovation Fund) ····· 126

제3절 소결 ····· 133

제5장.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 수립 ····· 135
제1절 PSE 전략과제 ····· 133
1. (전략과제1)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 135
2. (전략과제2) 진출 지원 패키지 신설 및 운영 ····· 137
3. (전략과제3)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 ····· 138
4. (전략과제4) KOICA 내에서 PSE의 주류화 또는 PSD와 PSE의 연계 ····· 139
5. (전략과제5) 금융수단 확보 ····· 140
6. (전략과제6)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 140

제2절 중장기 로드맵 수립 ····· 142
1. 전략 체계 및 목표 ····· 142
2. 단계별 실행과제 ····· 144

제6장. 결론 및 제언 ····· 147

참고 문헌 ····· 148

[별첨 1] 설문조사 문항지 ····· 1-22
[별첨 2]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 1-20

[부록 1] 민간기업 개발협력 참여방안 지침서(가안) ····· 1-32
[부록 2] 중장기 추진전략(안) ····· 1-19

<표 차례>

[표 1] 제3차 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 2
[표 2] 기업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 ····· 9
[표 3] OECD 용어별 기본 개념 ····· 11
[표 4] 호주 DFAT의 PSD 프로그램 유형 ····· 14
[표 5] PSD와 PSE의 구분 ····· 15
[표 6] USAID 참여 예시 ····· 17
[표 7] GIZ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 21
[표 8] GIZ PSE 프로그램 ····· 23
[표 9] BII 투자 기업 사례 ····· 27
[표 10] 기업협력 성공사례 1 ····· 29
[표 11] 기업협력 성공사례 2 ····· 30
[표 12] PSE 발전 가능 사례 1 ····· 30
[표 13] PSE 발전 가능 사례 2 ····· 31
[표 14] 검토 사례별 도출된 시사점 ····· 32
[표 15] ’21년 기준 ODA 시행기관 ····· 34
[표 16] 시행기관별 ODA 산하기관 ····· 35
[표 17] 산업통상자원부 PSE 프로그램 추진현황 ····· 36
[표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PSE 프로그램 추진현황 ····· 38
[표 19] CTS 사업 참여 대상 기업 구분과 조건 ····· 44
[표 20] CTS 사업 단계 및 사업 내용 ····· 44
[표 21] KOICA CTS 사업목록(2015-2022) ····· 46
[표 22] 범 정부 협의체 운영(안) ····· 54
[표 23] 해외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황 57
[표 24] 설문지 구성 ····· 58
[표 25]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 1~3순위 선정 사유 ····· 65
[표 26] 민간기업 성장단계(Life Cycle) ····· 84
[표 27] KOICA CT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황 ····· 86
[표 28] 기업의 PSE 사업 참여를 위해 개선 또는 발전 방향 ····· 93
[표 29] CTS 프로그램에 대해 바라는 점 ····· 99
[표 30]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의 어려운 점 ····· 103
[표 31] 심층인터뷰 참여 대상 및 일정 ····· 107

[표 32] 기업 개요 ····· 108
[표 33] 기업 개요 ····· 112
[표 34] PSE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 ····· 115
[표 35] 혼합금융 개념 유형 ····· 118
[표 36] OECD DAC 혼합금융 5대 원칙 ····· 121
[표 37] OECD-UNDP IS-FSD ····· 123
[표 38] 기금 출처 개괄 ····· 127
[표 39] 각 국가의 정부로부터 출자된 기금 ····· 128
[표 40] 정부 외 출자된 기금 ····· 129
[표 41] GIF 단계별 투자방안 ····· 130
[표 42]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131
[표 43] 진출 지원 패키지 내용 ····· 13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목적 요약 ····· 3
[그림 2] 연구의 범위 ····· 4
[그림 3] 연구의 방법론 요약 ····· 5
[그림 4] 민간부문참여(PSE) 관련 용어에 대한 OECD 정의 ····· 12
[그림 5] DCED가 정의하는 PSE의 주요 요소/유형 ····· 15
[그림 6] PSD와 PSE의 구분과 공통분모 ····· 16
[그림 7] Leverist.de 사업 정보 ····· 20
[그림 8] BII 년도별 포트폴리오 규모 ····· 25
[그림 9] 권역별 BII 포트폴리오 구성 ····· 26
[그림 10] 분야별(Sector) BII 포트폴리오 구성 ····· 26
[그림 11] BII 포트폴리오 내 상품 비중 ····· 28
[그림 12] 민간 참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공여주체의 PSE 전략 및 사례 시사점 33
[그림 13] CTS 참여 단계 ····· 45
[그림 14] CTS 참여 국가 ····· 45
[그림 15] CTS 참여 분야 ····· 46
[그림 16] IBS 프로그램 TRACK ····· 52
[그림 17] IBS 프로그램 지역별 분석 ····· 53
[그림 18] IBS 프로그램 분야별 분석 ····· 53
[그림 19] 민간 참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PSE 프로그램 현황 분석 시사점 56
[그림 20] 기업 업종 ····· 58
[그림 21] 응답 기업 규모 ····· 59
[그림 22] 매출 규모(2017-2021) ····· 59
[그림 23] 해외 진출 계획 ····· 60
[그림 24] 주 진출 대상 지역 ····· 60
[그림 25] 구체적 진출 대상국 ····· 61
[그림 26]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 61
[그림 27] 기업 해외 진출 동인 ····· 62
[그림 28]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 63
[그림 29]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 63
[그림 30]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1순위) ····· 64
[그림 31]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2순위) ····· 64

[그림 32]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3순위) ····· 64
[그림 33]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 66
[그림 34]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인 ····· 67
[그림 35]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웠던 점 ····· 67
[그림 36]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은 혜택 ····· 68
[그림 37] 개발도상국 진출 의향 ····· 69
[그림 38] 주 진출 대상 지역 ····· 70
[그림 39] 구체적 진출 대상 개도국 ····· 70
[그림 40]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 71
[그림 4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 72
[그림 42]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인지도 ····· 73
[그림 43] 향후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의향 ····· 74
[그림 44]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유 ····· 74
[그림 45]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시 예상 시너지 효과 ····· 75
[그림 46]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인 ····· 76
[그림 47]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 77
[그림 48]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형태 ····· 78
[그림 49]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동인 ····· 78
[그림 50]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 79
[그림 51]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효과성 ····· 80
[그림 52] 추후 지원 확대 필요 사항 ····· 80
[그림 53]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장애요인 ····· 81
[그림 54]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ODA 용어 인식 ····· 82
[그림 55]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ODA 연보 인식 ····· 83
[그림 56] 민간기업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개발효과성 인식 ····· 83
[그림 57] 응답 기업 성장단계 자가 진단 ····· 85
[그림 58] 응답 기업 해외진출 결정 시기 성장단계 자가 진단 ····· 85
[그림 59] 기업 업종 ····· 88
[그림 60] 매출 규모(2017-2021) ····· 88
[그림 61] 해외 진출 계획 ····· 89
[그림 62] 주 진출 대상 지역 ····· 89
[그림 63] 기업 해외 진출 동인 ····· 90
[그림 64]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 ····· 91
[그림 65] PSE 참여 사업 규모 ····· 91

[그림 66]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 92
[그림 67] 사업 기간 ····· 92
[그림 68] PSE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 ····· 93
[그림 69] 향후 PSE 사업 참여 의향 ····· 94
[그림 70] 향후 PSE 사업 비즈니스 모델 ····· 94
[그림 71]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희망 규모 ····· 95
[그림 72]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희망 권역 ····· 95
[그림 73]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선호하는 지원수단 ····· 96
[그림 74] 향후 PSE 사업 참여 사유 ····· 96
[그림 75] CTS 참여 목적 ····· 97
[그림 76] CTS 두 단계 이상 지원 경험 여부 ····· 98
[그림 77] CTS 두 단계 이상 참여 사유 ····· 98
[그림 78]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 99
[그림 79] 해외진출 창업 참여 프로그램 ····· 100
[그림 80]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동인 ····· 100
[그림 81]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101
[그림 82] 향후 프로그램 참여 동인 ····· 101
[그림 83]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 ····· 102
[그림 84]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규모 ····· 102
[그림 85]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간 ····· 102
[그림 86]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권역 ····· 103
[그림 87]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형태 ····· 103
[그림 88]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분야 ····· 103
[그림 89]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방법 이해 ····· 104
[그림 90] 무상협력 분야의 PSE 이해 ····· 104
[그림 91] 국제개발협력, ODA 연보 인식 ····· 105
[그림 92]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 ····· 106
[그림 93] 민간 참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시사점 ·117
[그림 94] OECD 혼합금융 정의 ····· 119
[그림 95] T-H-K 로드맵 시행 5대 원칙 ····· 122
[그림 96] 컨버전스의 대표적 회원 기구 ····· 126
[그림 97] GIF 파트너/참여기관 ····· 127
[그림 98] 기금 출처(Income) ····· 128
[그림 99] 국가별 정부 출자 기금 ····· 128

[그림 100] GIF 그룹의 조직과 구성 ····· 133
[그림 101] 민간 참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혼합금융 시사점 ····· 134
[그림 102] PSE 프로그램 시행기관별 MAPPING ····· 135
[그림 103] 민간기업의 단계별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 ····· 136
[그림 104] 최종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 및 과제 ····· 141

국문요약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는 1990년대 말 주요 공여국들의 ODA가 정체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가 공식화한 개념으로, 추가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개발목표를 결합한 접근방식이다. 이를 기점으로, 주요 공여주체들은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민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PSE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채택된 이후에는 2015년까지 M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 제1차 개발재원총회와 2008년 카타르 도하 제2차 개발재원총회를 개최하고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기존 MDGs를 대체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새롭게 제안되자, 아디스아바바 제3차 개발재원총회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을 강조하는 ‘AAAA(Addis Ababa Agenda for Action,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무상 ODA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자 PSE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및 협력 확대를 위해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민간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무상협력을 시행하는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PSE 전략 및 정책을 모두 종합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꾀하고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PSE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한 PSE 개념화(제2장 1절), 국제사회 전략 및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안) 제시(제2장 2절), 민간기업 대상 동인 분석(제3장 2절), 우리나라 PSE 프로그램 현황 및 기업지원 플랫폼 분석(제3장 1절), 국내외 PSE 프로그램 성과 심층분석, PSE 중장기 과제·이행전략 제시 및 결과 종합(제5장)의 총 6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 1절에서는 PSE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주로 PSE와 혼용되는 용어인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과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및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PSE는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며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PSD는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또는 민간 영리/비영리 조직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PSE와 PSD 모두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PSE는 민간투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주체의 협력국 내 기업활동을 의미한다면, PSD는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협력국 내 민간부문 개발을 핵심요소로 하는 활동이기에 이는 매우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제2장 2절에서는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PSE 전략 및 적용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민간기업이 참여한 사업 중 PSE 성공 사례와 PSE 발전 가능한 사례로 구분하여 추가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분석한 전략과 사례를 간략히 정리하면, 미국의 경우 자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PSE 전략과 원칙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에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등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PSE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이 주목표임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파트너 국가의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국 또는 유럽 기업이 진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 또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BII(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라는 인프라 투자 개발 금융기관이 직접 주요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의 PSE 전략과는 다르게 사업의 초기 발굴 및 기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금융에 주안점을 둔 투자적 관점 및 금융 접근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3장 1절에서는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PSE 전략 및 사례분석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PSE 프로그램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ODA 시행부처의 다양한 PSE 정책과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KOICA가 민간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도입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 내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및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까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정부 주도 PSE 프로그램의 경우, 각 부처의 PSE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어 상호 경험 공유가 미약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기존 PSE 프로그램들은 정부의 공모-기업의 제안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인해 PSE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음을 시사한다.

앞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실제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비대면 심층인터뷰를 적극 실시하

였으며, 제3장 2절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현황 및 동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해외 진출 관심 기업과 KOICA CTS 및 IB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포함한 표집단을 선정하고, CTS와 IBS 프로그램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조사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문항 또한 정부 주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개도국 특화 PSE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세부 구성을 분리하였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미하는 PSE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동인과 필요 지원 우선순위 등을 나누어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86개 기업을 기준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범주화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범주화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없으나,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있는 기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있으나,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없는 기업,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은 본 연구의 결과 도출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지원 영역,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전략 및 장/중/단기 이행 과제 설정에 필요한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은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1억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을 신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례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의 비전과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3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PSE 프로그램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를 통한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혼합금융 제도화 관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OECD DAC가 정의한 혼합금융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개념 유형을 다루고, 혼합금융의 실행원칙을 검토하였다.

OECD DAC가 정의한 혼합금융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재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DAC 외에도 주요 주체인 DFI 실무그룹(Working Group), 컨버전스(Convergence), 유럽연합(EU)이 정의하는 혼합금융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개념 유형 간의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OECD DAC가 정의한 혼합금융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며, 국제사회 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혼합금융 개념 중에서도 유일하게 양허성 재원이 아니더라도 혼합금융 투입으로 포함하여 정의하는 유형이었다. 이와 반대로 DFI 실무그룹이 정의하는 혼합금융 거래 조건에는 양허적 재원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DFI의 자체적인 추가 재원이라하더라도 민간투자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여 양허적 투입에 의해 유인된다고 해석한다. 다음으로 컨버전스가 정의하는 혼합금융은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을 투입으로 해석하며, 위험수익(Risk-return)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로 보아 양허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SDGs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투입하는 증여(Grant)적 재원이 국제금융기관(IFIs) 또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결합되는 것을 혼합금융으로 정의한다.

혼합금융의 실행 원칙으로는 OECD DAC가 2017년 고위급회의에서 승인한 '혼합금융 5대 원칙', 2018년 채택한 'Tri Hita Karana Roadmap', 2020년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실무공동체', 그리고 2021년 혼합금융 성과 측정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임팩트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금융의 주요 논점은 △민간 재원을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원확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약탈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 방안을 의미하는 '책무성', 두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혼합금융에 대한 논의들을 보다 자세히 연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절에서는 컨버전스와 글로벌혁신펀드의 혼합금융 적용 사례까지 추가로 살펴보았다. 컨버전스는 2016년 공식 설립된 혼합금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개발도상국 내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SDGs를 달성하고자 현시점 기준 약 206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 자선 부문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혼합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혼합금융 관련 DB 구축, △혁신적 혼합금융 수단 디자인 펀딩 프로그램 기획 등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한다. 글로벌혁신펀드는 2014년 UN 총회에서 공식 출범되어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다자투자펀드이며, 벤처캐피털 접근법을 통해 투자대상을 신중히 선택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에 단계별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즉, 공공은 민간의 금융지원과 기업활동이 개도국 환경에서 활성화되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며, 리스크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생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 지향성을 강조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제6장에서는 상기 제2, 3, 4장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KOICA PSE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여러 정부부처 PSE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무상협력 분야 PSE 프로그램을 기업의 비즈니스 단계별로 분류하고, 기업이 알맞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경험 및 활용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양질의 비즈니스 모델이 KOICA PSE 프로그램으로 유입되고, 보다 완성도 높은 PSE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PSE 관련 인지도가 낮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PSE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전파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망한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 수요 발굴, △PSE 전략 워크숍, △PSE 컨설팅, △해외 진출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 진출 지원 패키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전략으로는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진출 지원 패키지는 공공의 조직 내에서 단기간 안에 체계화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물론이고, 개발협력과 비즈니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개발도상국 시장이 매우 낯선 것과 더불어 개발효과성까지 고려하기란 태생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KOICA 내에서 PSE를 주류화시키고 국별사업을 비롯한 기존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PSD에 PSE를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국별사업 중 비즈니스 연계가 필요하거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 PSE 요소를 확대하여야하며, PSE에 PSD를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PSE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와 개발목표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PSD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금융수단 확보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 매칭펀드 성격의 무상지원 이후 독일 또는 영국 사례와 같이 무상원조기관을 통한 직접 금융지원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또는 다자간펀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등 시시각각 변해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 다양화하여야한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PSE 접근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본 연구팀이 제시하는 전략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개선되는 일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단계를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상협력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 PSE 전략과 더불어 중장기 추진과제, 그리고 민간기업이 직접 현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PSE 지침서까지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 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PSD 또는 PSE에 대한 성공·실패사례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공유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전략과제들을 바탕으로 PSE 관련 경험과 교훈을 축적해나간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외교부, KOICA 뿐만 아니라, 국내의 PSE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PSE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PSE 접근성이 확대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 주요 공여국들의 ODA가 정체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는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개발목표를 결합한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 접근방식을 공식화하고,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M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총 두 차례의 개발재원 총회를 통해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제1차 개발재원 총회의 결과문서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가 합의되었으며,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부채탕감 등 원조 재원의 양적 증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참여방안이 제시되었다(정지원 외 2011, 15). 제2차 개발재원 총회는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려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이 결과문서로 도출되었다(오수현 2016, 32-35).

나아가 2015년 유엔(UN)은 기존 MDGs를 대체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를 개최하여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의 활동이 포괄적 성장과 고용,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강조하는 등 'AAAA(Addis Ababa Agenda for Action,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채택하였다. 하기 [표 1]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3차 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개요	정의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제3차 개발재원 총회(2015.7.13.~16.)에서 채택된 결과문 -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내용 포괄	
	평가	- (성과) 기술촉진 메커니즘, 인프라 포럼, 아디스조세 이니셔티브 - (과제) 민간재원 동원 관련 과제, 개발정책정합성 제고 문제,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 고려	
구성	총론	Post-2015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프레임워크	
	본문	7개 분야별	①국내공공자원, ②국내외 민간기업 및 재원, ③국제개발협력,

		행동분야	④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⑤부채 및 부채 지속가능성, ⑥시스템 이슈대응, ⑦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		
	종장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핵심 이슈		과학, 기술, 혁신	민간재원 동원	개발정책 정합성 제고 방안 중요성 대두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고려

이와 같은 주요 논의들은 결국 2030년까지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보다 많은 개발재원이 필요하다는 핵심 논제에서부터 시작된다. SDGs의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재원의 부족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추가 재원이 투입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부족액은 종전 대비 56%나 증가해 연 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OECD, 2022). 이렇듯 개발재원 투입 정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재원을 적극 동원하고 확대하여 재원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국제사회 내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공여주체들은 이미 ODA를 민간재원 유인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PSE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 USAID는 2018년 PSE 정책체계(PSE Policy Framework)를 발표하며 PSE를 운영모델의 핵심 원칙으로 제도화하였으며, 호주 DFAT는 2019년 민간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으로 PSE를 위한 운영체제(Operational Framework for PSE)를 공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의 개발금융기관인 CDC(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를 확대 개편하여 75억 파운드 자산규모의 BII(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를 출범시켰다. 이외에도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공여국위원회(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DCED)와 같은 관련 민간주도 다자협의체와 작업반 등이 PSE에 대한 전략, 원칙, 정책, 운영체제들을 매우 다양하게 연구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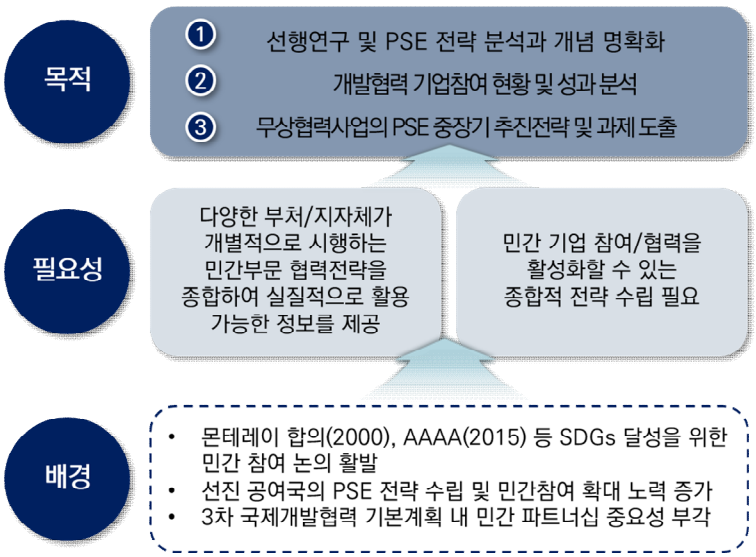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유·무상 ODA 전략에 P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협력국 민간투자, 선진금융기법 활용, PPP 활성화 등 민간을 포함시키는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수립한 바 있으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무상 ODA 사업에서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2022년 새정부는 ODA 국정과제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를 구체화하고, 추가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의 다각적 협력 확대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그

리고 민간재원 유인 촉매제로서의 ODA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무상협력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2010년 기업협력사업을 시작하고 2015년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이하 DIP)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기준 무상협력을 시행하는 부처 및 지자체별로 다소 산발적인 개별 전략만 있을 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나 지침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무상협력을 시행하는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참여, 협력 전략 및 정책을 모두 종합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꾀하고, 더불어 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여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타 공여국/국제기구의 PSE 전략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무상협력 PSE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는 PSE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국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의 현황을 조사하여 외교부와 KOICA가 무상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점에 기반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민간기업 개발협력 참여 방안 지침서(가안)'을 배포함으로써 최대한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목적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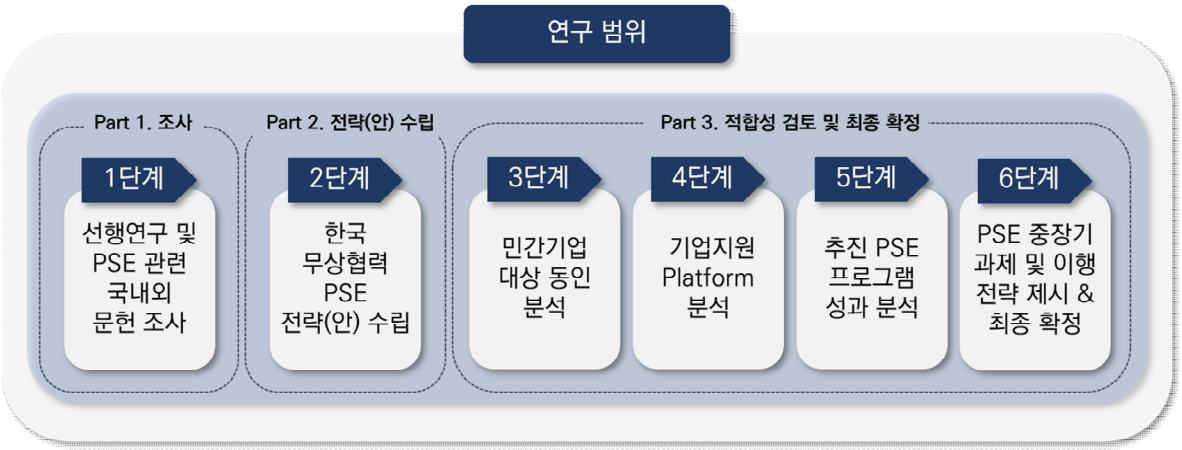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무상협력사업의 PSE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각각 연구 조사, 전략(안) 수립, 적합성 검토 및 최종 확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우선적으로 1차 연구 범위인 PSE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PSE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국내외 선행 연구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OECD DAC가 민간부문참여에 사용되는 용어별 기본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및 의미를 파악했다. 또한, 주요 공여주체들의 PSE 전략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는 개념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안)을 수립하는 것을 2차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개발도상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동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국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PSE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기 수립된 PSE 전략(안)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PSE 중장기 과제 및 이행 전략을 최종 제시하여 확정하는 것을 3차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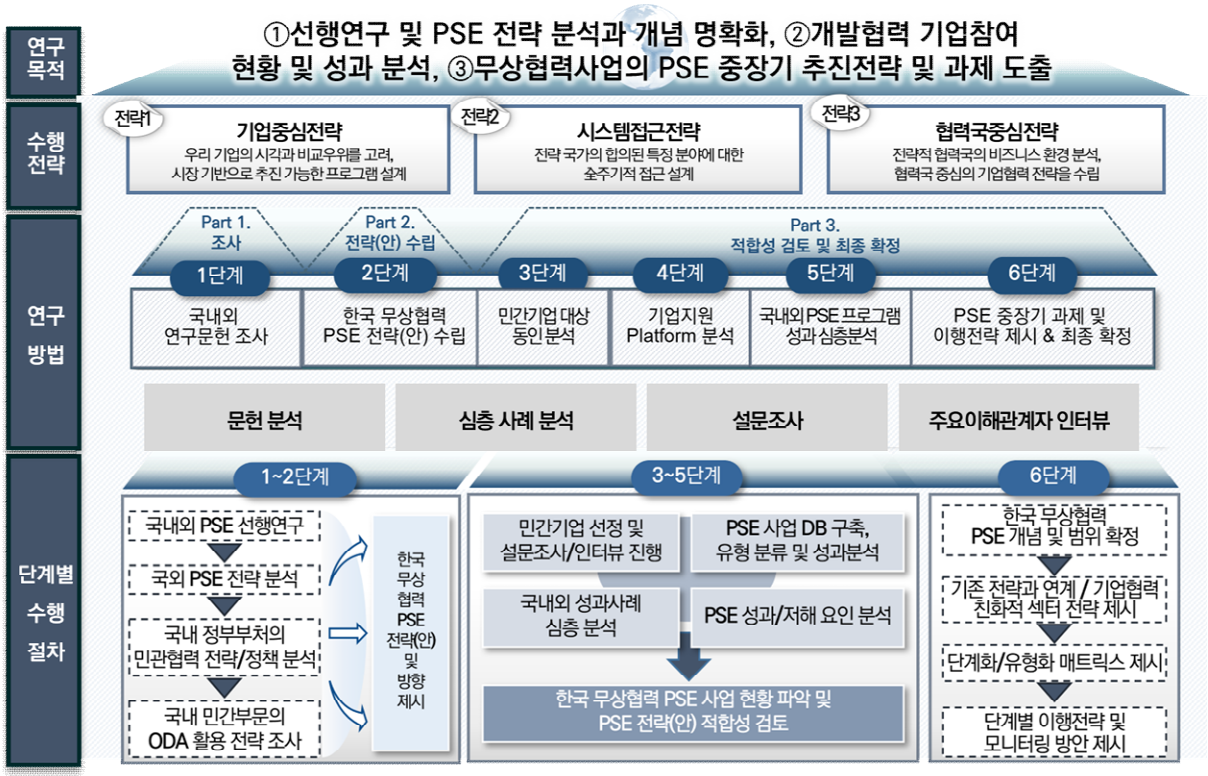


즉,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론화가 부족한 분야인 실제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PSE의 개념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타 공여 주체의 PSE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PSE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참여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원조기관 및 기업의 PSE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롯한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PSE 전략과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PSE 개념 정의, 개발협력 분야 참여 기업 현황 및 동인 분석, 무상협력사업의 PSE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PSE 선행연구 문헌분석,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안) 수립, 민간기업 대상 동인 분석, 기업지원 플랫폼 분석, 국내외 PSE 프로그램 성과 심층 분석, PSE 중장기 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와 최종 확정의 총 6단계에 따라 수행했으며, 문헌분석과 심층사례 분석,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연구 방법론으로 주로 활용하였다.

[그림 3] 연구의 방법론 요약



문헌분석에서는 기업협력과 관련한 학술연구, 정책연구, 국내외 원조기관의 민간협력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사례연구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민간참여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의 동인을 분석하고 개발협력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더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서는 민간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 실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한계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은 국제사회 내 협력국의 민간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요 공여주체가 오랜 기간 주목하여 지원한 영역이며,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접근은 ODA보다 협력국에 대한 민간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듯 개발협력 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을 통해 SDGs 달성이라는 공동 성과를 도출하고자 꽤 오랜 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흐름에도 맞추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도 민간부문개발과 민간부문참여 간의 구분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또한, PSE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여주체 및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상당수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즉, 국제사회 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PSD 또는 PSE에 대한 성공사례(Best Practices) 및 실패사례들을 주요 이해관계자 간 공식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한 교훈을 도출해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최대한 다양한 국외 PSE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현황,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PSE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에도 비슷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의 국내 ODA 시행부처에서 각기 다른 민간기업의 협력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PSE 관련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상세히 공개하진 않는다. KOICA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TS, IBS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기밀유지 등의 사유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팀이 제시하는 전략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개선되는 일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단계가 필요하나, 이를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민간부문 기업과의 협력전략을 바탕으로 관련 경험과 교훈을 축적해나간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무상협력 분야 PSE 개념 및 범위

제1절 무상협력 분야 PSE 개념

1. 국내 연구 PSE의 개념화

ODA 재원 확대 요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높아져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발재원의 확대 관점에서 포괄적인 연구는 정지원 외(2011)가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이 소개되었고,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다양한 개발재원과 개발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또한 제시되었다. 다음은 SDGs 시대를 맞아 더욱 풍부하게 진화하고 있는 개발재원 논의의 시발점을 읽을 수 있는 문헌으로, 정지원 외(2014), 정지원 외(2018)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Post-2015 또는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민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개발재원 논의에 있어서 스웨덴의 사례를 연구한 오수현(2014)과 글로벌혁신펀드(GIF) 및 개발성과연대채권(DIB)등 영국과 EU 등의 혁신적 개발재원 사례를 연구한 오수현(2016)이 있다.

민간참여 및 민간재원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 관점에서 수행된 곽재성 외(2011), 홍성창 외(2018) 등 다수가 있는데, 전자의 연구에서는 PPP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개의 국가에서 인프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빠르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 요인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PPP는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 민간의 재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홍성창 외(2018)는 개발협력에 있어 인프라 및 글로벌가치사슬(GVC) 중심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개념화를 다시 한번 시도한 바 있다.

PSD와 PSE에서 민간재원 조달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자 성공의 조건이다. 무상원조와 결합한 금융지원을 위해 혁신적 금융수단을 무상 ODA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민준기(2016)는 실제 투자기관에 대한 증여를 통한 간접 투자 및 보증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무상원조와 금융수단의 결합에 대한 실제 시행 사례를 처음 소개한 문헌이라 하겠다. 나아가 김정남 외(2018)는 △기존 사업과의 접목을 통한 임팩트투자 도입, △글로벌 잠재협력파트너 구축 및 확보, △임팩트투자에 대한 내부 이해도 제고, △임팩트투자 전담조

직 마련 및 전문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KOICA의 금융수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그동안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에 있어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참여 방식은 기업 CSR의 활용이다[1]. CSR은 2003년 프랑스 G8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의제로 선택되어 논의되었다. 글로벌 CSR은 빠른 경제성장 및 국제화, 그리고 기업의 다국적화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CSR에 대한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이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즉, 핵심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곽재성 외(2011)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을 '△이윤극대화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책임에 따른 경제활동, △준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따른 사회책임경영활동과, △자선적 책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서 개발협력과 결합한 일반적인 활동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IBS 프로그램, 혹은 이전의 KOICA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초반에 수행된 프로젝트들은 사회공헌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손혁상 외(2012)는 기후변화 섹터 중심의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표 2] 기업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관	내용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ISO (국제표준화기구)	-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사람, 지역 공동체 및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 기업과 사회의 공생관계를 성숙,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IFC (국제금융공사)	-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가 기업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EU (유럽연합)	-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사회환경에 관한 문제 의식을 그 사업 활동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자주적으로 취하는 행동
USAID	-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해당사자들 관계, 인권
DANIDA	- UN Global Compact와 연계

1) CSR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는 이규영 외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의 재정립과 구조화" 사회과학연구 Vol41. No.3를 참조

일본 경제산업성	- 자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원활한 사업 활동과 이에 따른 성과확대로 기업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수단
ICC (국제상공회의소)	- 기업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발적인 의지

*출처: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곽재성, 2011

하지만 사회공헌 중심의 CSR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는 태생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PSE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전략적 CSR이 아닌 사회공헌 CSR은 기업의 비즈니스 또는 업의 특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PSE는 공여국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파트너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사회공헌 또는 자선적 성격이 강한 CSR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별된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민간참여 방식은 혼합 금융(Blended Finance) 또는 임팩트 투자이다. 김정남 외(2018)의 연구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 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달성하도록 고안된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기금의 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성과보다는 비즈니스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한 비즈니스가 본 궤도에 오르게 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재무적 성과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팩트 투자와 혼합 금융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에 있다. 임팩트 투자가 주로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금융기관이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혼합 금융은 하나의 사업에 무상지원, 투자, 대출 등 공공과 민간의 재원 수단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혼합금융이 조성 및 전개된 경우 PSE를 위한 재원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본격적인 PSE 연구는 김상훈 외(2020)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에서 기업활동이 갖는 의미와 특성에서부터 미국, UNDP 및 호주의 전략, 그리고 실제 사업 사례 등을 간단히 다루었고, △관련 협회 등으로 파트너 범위 확대,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기법의 활용, △KOICA 사업 내 기업협력의 주류화 등 KOICA의 기업협력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PSE와 비교 또는 대비되는 개념은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이다. PSD는 파트너 국가의 민간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방식으로 민간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PSE와 밀접한 개념이면서도 또한 엄밀하게 차별되는 개념이다. 최진욱 외(2021)는 PSD를 '수원국 민간부문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의 개선 및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 연구기관, 협회,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개발도상국의 PSD는 서구를 중심으로 아주 오랜 기간동안 개념화, 이론화를 거쳐 주요 원조기관의 정책 주류화 등으로 발

전해왔으나, ODA의 공공성에 익숙한 한국의 입장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정지선 외(2011)는 정부주도, 민관협력, 민간주도 등의 세 가지 수단을 중심으로 PSD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트렌드를 정리하였고, 정책 및 전략 수립에서 사업 시행 차원까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임소영(2016)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사례로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 현황을 정리했고, 우리 진출 기업의 수요와 애로 사항을 별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성규(2012)는 SIDA과 KOICA의 사례를 중심으로 PSD 사업을 비교하여 정책과 시행 차원에서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요한(2017)은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등의 PSD 접근 유형 및 사례를 연구하여 독일이 가장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상원조에 의한 인프라 지원이 대부분의 PSD 사업임을 주장한다.

PSD는 협력국의 민간부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협력국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부문(ODA)의 정책 역량 강화 또한 주요한 사업 영역이 될 수 있다. 어찌보면 기업활동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있는 PSE는 PSD를 구성하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PSE를 PSD의 하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심 수행 방식을 공여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2. 국외 연구 PSE의 개념화

국제개발협력분야 내 민간부문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외의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들 또한 민간부문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활동' 들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요 공여주체들은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민간부문이 수행한 개발협력 활동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시점까지도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활동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칭하는 용어와 단어를 제시한 해외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선행연구는 특정 기관 또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민간부문협업(Private Sector Collaboration)', '민간부문파트너십(Private Sector Partnership)', '민간부문협력(Private Sector Cooperation)',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등의 여러 용어를 혼합 사용하고 있어 용어별 개념과 그 적용범위를 정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OECD는 DAC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민간부문 동료검토(Private Sector Peer Learning)[2]를 실시하여 민간부문참여(이하 PSE)에 사용되는 용어 목록을 검토하고, DAC 회원국 간의 PSE에 대한 공통된 이

해를 위해 용어별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표 3] OECD 용어별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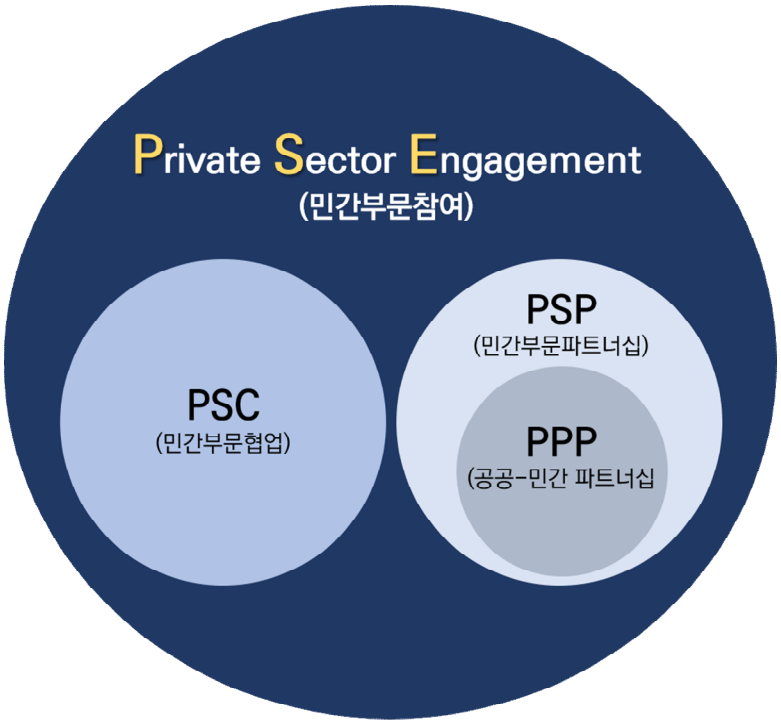
용어		상세 정의
국문	영문	
민간부문	Private Sector	- 이윤추구 활동에 참여하며 다수의 사적 소유(Majority Private Ownership)로 이루어진 기관을 의미 -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비영리적 조직(민간재단 및 CSO)은 제외
민간부문참여	Private Sector Engagement(PSE)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개발 성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개발협력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방식(Modalities)으로 비공식적인 협력부터 공식적인 파트너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민간부문협업	Private Sector Collaboration(PSC)	- PSC를 PSE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공식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의미 - 잠재적 민간파트너가 개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때 협업하는 개념
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PSD)	- 협력국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환경/여건(Environment)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및 공여주체의 모든 활동을 의미
민간부문 파트너십	Private Sector Partnership(PSP)	- PSP 또한 PSE의 하위개념으로 보며, PSC보다는 공식적인 계약관계(MOU 등)로 특정되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파트너 간의 펀딩요소(Funding components)를 포함한 의무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개념
공공-민간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 PPP는 PSP의 하위개념으로 보며, 민간부문이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의미 - 예시) 병원, 학교, 교도소, 도로, 교량 등

*출처: (OECD, 2016a) - 본 연구팀 번역

OECD가 정의한 용어들을 하기 [그림 4]와 같이 정리해보면, PSD를 제외한 다른 용어(PSC, PSP, PPP 등)은 PSE 개념에 속하는 하위집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PSD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개념의 하위집합으로서가 아닌 간략한 정의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OECD, 2016a)에서는 PSE의 용어만을 사용하여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수단·메커니즘(Modalities and Mechanisms) 등을 소개하고 있다. 즉, OECD도 PSD와 PSE를 구분하는 개념적 정의만 다룰 뿐,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진 않는다.

2) OECD, 2016

[그림 4] 민간부문참여(PSE) 관련 용어에 대한 OECD 정의



다만, 이렇듯 OECD가 민간부문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PSE를 강조한 시점 즈음, 2016년 5월 DAC 회의를 거쳐 PSD에 대한 보고서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PSE 용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PSD 용어에 대한 기본 접근개념을 정의하며, PSD의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분석 프레임워크(Analytical Framework)를 제시하고, 2015년까지 추진되어 온 PSD 전략 및 활동들을 분석했다(OECD, 2016b). 여기에서 OECD가 설명하는 PSD에 대한 기본 접근개념은 '개발도상국 내 현지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투자환경과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 시장 기능 및 기업 자원에 대한 지원[3]'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PSD 분석 프레임워크는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생산성(Productivity Capacity),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컴포넌트들을 포함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를 다음 3가지 차원, 1) 공공정책 및 제도(Public Policy and Institution), 2) 시장기능(Market Functioning), 3) 기업자원(Enterprise Resources)으로 구분되었다(OECD, 2016b). 다시 말해, OECD가 주목하는 PSD는 △개도국 내 투자환경과 생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활동, △PSD를 저해하는 시장의 실패요소 및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소액금융기관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에 투자하거나 인큐베이터, 기업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기업중개기관을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

3)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ddresses policies and institutions, market functioning and enterprise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and the productivity capacity of the local private sector-particularly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성과 경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의 PSD 전략까지 소개하며, PSD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이유로 각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PSD의 범위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개발협력 내 PSD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면, PSD, 즉 민간부문개발은 국제사회 내 협력국의 민간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요 공여주체인 OECD DAC 회원국 및 MDB 등의 국제기구가 오랜기간 동안 주목하여 지원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OECD는 PSD를 통해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Private sector-led growth)이 최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 △다수의 빈곤층이 일하는 지역과 섹터를 우선시하는 접근방식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OECD DAC는 2016년 PSD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보고서와 PSE에 대한 용어별 기본개념을 정의하는 보고서를 각각 발간하였으며, 현시점까지도 이 두 가지의 개념과 활동들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명확히 구분하거나 동시에 다루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요 공여주체들이 PSE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20년에는 호주 외교통상부 DFAT가 직접 PSD와 PSE의 차이점까지도 소개하는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가 PSE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 DFAT는 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 안내문(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Guidance Note)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를 통해 PSE와 PSD에 대해 정의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호주 DFAT가 정의하는 PSE는 특정한 개발 성과(Development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 상업적인 민간부문, 기업들과 협력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언급되는 '상업적인 민간부문'이란 농민 또는 노점상 등의 비공식적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투자자, 펀드 및 중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DFAT는 PSE를 경제·인간 개발(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라고 소개하며, DFAT의 PSE 추진 방안은 PSP와 PSC 두 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보면, 2016년 OECD가 공식 발표한 용어별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OECD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FAT는 PSD의 개념으로 민간부문이 파트너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다음 [표 4]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표 4] 호주 DFAT의 PSD 프로그램 유형

구분	카테고리/범주	상세 정의
1	비즈니스를 위한 더 나은 환경(여건) 조성	- 민간부문 주도적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 사업자 등록 절차 개선, 계약법 시행, 기업지원기관 설립 및 강화, 경제적인 거버넌스 개선, 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인프라 투자 등을 의미
2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소를 주도하는 주요 시장 및 섹터 강화	- 가치 사슬의 각기 다른 요소(물리적인 인프라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간 연계성을 개선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의미
3	단일 사업의 개발 영향(Development Impact) 극대화	- 특정 섹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개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참여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 - 기업의 투자/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 자금 조달 또는 매칭펀딩(Matched-Funding)으로 추진되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포함

*출처: DFAT, 2020 - 연구팀 번역

더 나아가 DFAT가 설명하는 PSE와 PSD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PSE는 공여주체와 기업 간의 상호 이익(Mutually Beneficial Outcomes)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접근방안이며, PSD는 파트너 국가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DFAT는 PSD를 성과(Outcome), PSE를 접근방안(Approach)이라고 간결히 표현하며, PSD와 PSE 모두 민간부문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호 강화되는 개념이라고 소개한다.

다음으로 2022년 DCED는 PSE를 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운영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안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내에서도 PSE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2016년 OECD가 공식 발표한 PSE에 대한 개념은 다소 폭넓게 정의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DCED PSE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직접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한 PSE에 대한 세분화된 개념정의를 발표했다. 첫 번째 요소는 다국적 또는 공여국 소재의 기업들을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파트너로서 핵심 비즈니스/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시키는 활동이며, 두 번째 요소는 SDG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내 추가 재원을 촉진/증대시키기 위해 민간 투자자, 펀드 및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PSE의 개념으로는,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다른 형태의 공여주체 활동과는 달리, 공동투자(Co-funding), 공동소유

(Co-ownership), 공동설계(Co-design), 공동운영(Co-steering)을 의미하며, 공여 주체와 민간부문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특징이다. OECD DAC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DCED가 세분화하여 정의한 PSE의 주요 요소 및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DCED가 정의하는 PSE의 주요 요소/유형



*출처: DCED, 2021 - 연구팀 번역

3. 소결

지금까지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PSD와 PSE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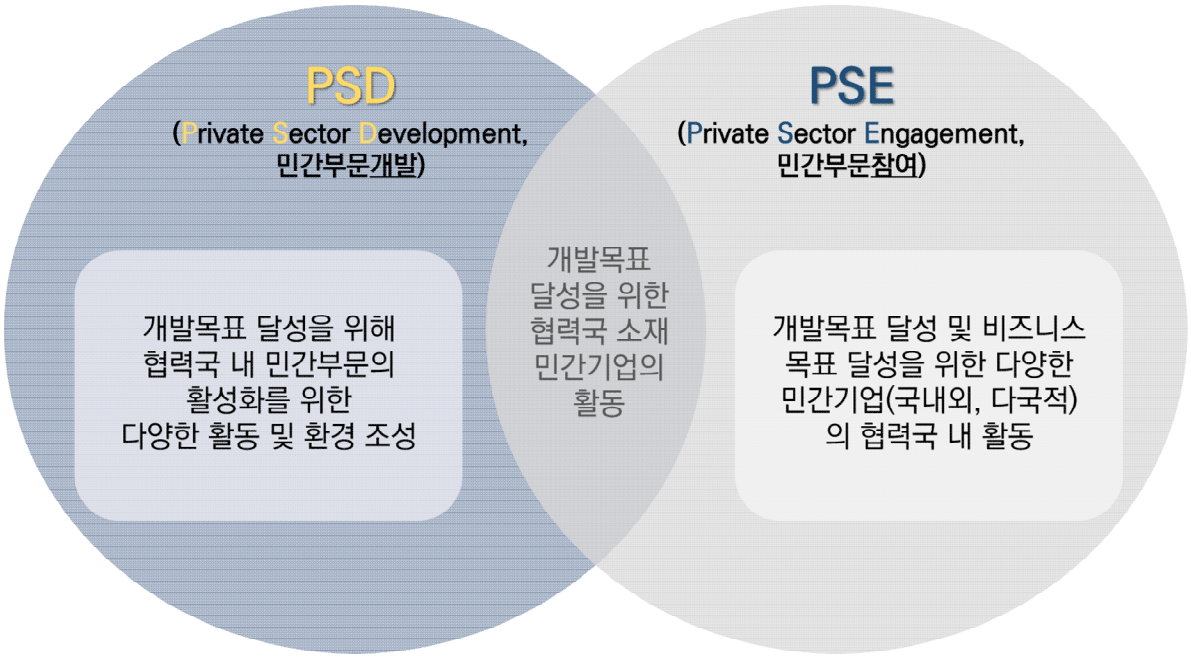
[표 5] PSD와 PSE의 구분

구분	PSD(Private Sector Development)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ODA(국가 지원) 또는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의 활동	-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 협력국의 민간 부문(기업과 제반 환경을 포괄)	- 민간 기업(협력국, 공여국, 다국적 기업 포함)
배경	- 협력국의 민간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요 공여주체인 OECD DAC 국가 및 MDB 등 국제기구가 오랜기간 동안 주목하여 지원한 영역	- ODA보다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개념

주안점	- 민간 주도의 성장(Private sector-led growth)이 최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적 접근 (OECD)	- 민간 비즈니스로 개발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활동에 주목

간단히 살펴보면, 이 둘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PSD는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협력국 내의 민간부문 개발을 핵심요소로 하는 반면, PSE는 투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주체의 협력국내 기업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으로, 공통분모가 있다면 '협력국 소재 민간기업 활동' 정도라고 할 수 있다*(하기 [그림 6] 참고).

[그림 6] PSD와 PSE의 구분과 공통분모



제2절 국제사회 PSE 전략 및 사례

선진공여국은 오래전부터 PSE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PSE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선진공여국은 대체로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통적인 부분은 파트너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접근 방법에 있어 국별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 △민간부문개발, △해외진출 가능 기업의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선도 국가인 미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공여국의 PSE 전략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해외 공여기관 사례

1) 미국

USAID에서 2018년에 발간한 'Private-Sector Engagement Policy'에 따르면, 미국은 파트너 국가에서 일자리 및 투자 유입(Cash Flow)의 90% 이상이 비즈니스에서 창출되고 있는 구조에 착안하여 PSE를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써 파트너 국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파트너 국가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인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주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민간부문참여 정책에서 눈여겨볼 두 가지 목표는 '미국 경제 발전 기여'와 'USAID 참여 방식의 구체화'이다.

첫째, 미국은 PSE 추진 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USAID의 민간부분 참여의 원칙과 비전을 제시한다. 미국 PSE 추진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파트너 국가의 사회적 문제 해결도 포함하나, 자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실현과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가 우선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둘째, 'USAID 참여 방식의 구체화'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비즈니스에 USAID가 참여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USAID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USAID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과 협업할 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요인 중 하나는 경직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PSE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별로 다양하긴 하나, 대부분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연성이 부족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민간기업에게 더 많은 노력과 투입을 요구한다. 반면, USAID는 이와 같은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유연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아울러, USAID는 사업의 발굴부터 수행 및 이후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ODA 프로그램의 PSD 플랫폼을 활용하여 PSE로의 확장을 도모한다.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사무소를 중심으로 파트너 국가의 도전 과제를 직접 파악하고,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한다. 즉, 민간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정보 공유 외에도 하기 [표 6]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6] USAID 참여 예시

참여 방식	목적	참여 예시
정보 공유	- 파트너 국가 도전 과제 파악	**브라질**

및 제휴 확대	- 기업 및 USAID와의 공동 이해관계 파악 - 재원 파악 및 해결책 발굴 - 개발문제 지원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발굴	- 100개 이상의 기업과 아마존 지역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 50만 달러 사회적 기금을 모금하여 영어 교육 및 아마존 생태계 보존을 지원
파트너국가 시장 연구 지원	- 발굴된 해결책 도입 - 상호 정보 교류 - PSE 데이터 확보	**베트남(의료 시장)** - 에이즈 개선을 위해 의약품 접근권 개선이 필수 - USAID에서 취약계층 분류를 지원하여, 민간 기업은 분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 진출 전략 모색
기업 역량 및 혁신 활용	-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전문성/기술 등 역량을 파악 - 기업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네팔(모자보건)** -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소독용 젤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지원 - 소독젤 배급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기업은 해외에도 소독용 젤을 수출하고 있음.
민간 재원 유치 촉매 역할	- 다양한 재원(금융, 비금융 포함) 마련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원(혼합 금융 등) 유치	**중앙 아메리카** - 소농들의 커피 생산량 보존을 위해 중앙아메리카에서 Root Capital, Keurig Green Mountain과 협업 - Root Capital을 통해 1,500만 달러를 제공하고 Keurig Green Mountain이 첫 손실(First loss)를 감안하여 40만 달러를 활용 - 리크스 헷징을 통해 추가로 800만 달러 투자를 유치
기업 투자 여건 조성	- 대규모 자금 지원 - 개발효과성이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여 지원 -다양한 금융 수단 발굴	**가나(농업분야 컨설팅 활용)** -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드스톤 방법을 활용 - 로컬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찾게 하고 투자를 유치할 경우 USAID에서 보상 - 기업의 경우도 투자를 할 경우 USAID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쟁 체제를 구축
기업 진출 여건 조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책을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파트너 국가에 비즈니스 우호적 분위기	**세네갈(Power Africa)** - 세네갈의 국가 전력 용량 및 관리 역량을

	조성 및 기업의 자립 지원	개선 지원을 통해 Power Africa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향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발전 중임.

상기 언급된 것처럼, USAID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PSE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나 운영 등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조직(Intermediary, 주로 개발컨설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워싱턴 본부에서 개발컨설팅사와 장기 계약을 맺거나 개별 파트너 국가의 현지사무소에서 별도로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USAID 이외에 상무부 소속의 USTDA(United State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에서도 자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원조를 통해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기술협력 등을 제공한다. USTDA 또한 USAID의 기조에 맞춰 기존 원조 기관과는 다르게 PSE 추진 시 파트너 국가의 사회·경제적 효과보다 자국 기업의 진출 실적을 중시한다. 현재 USTDA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약 23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2년 기준 지원액 1달러 당 약 136달러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Marin, 2022).

USAID와 USTDA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이 둘이 가진 공통점은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 기업의 성공적인 개발도상국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PSE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2)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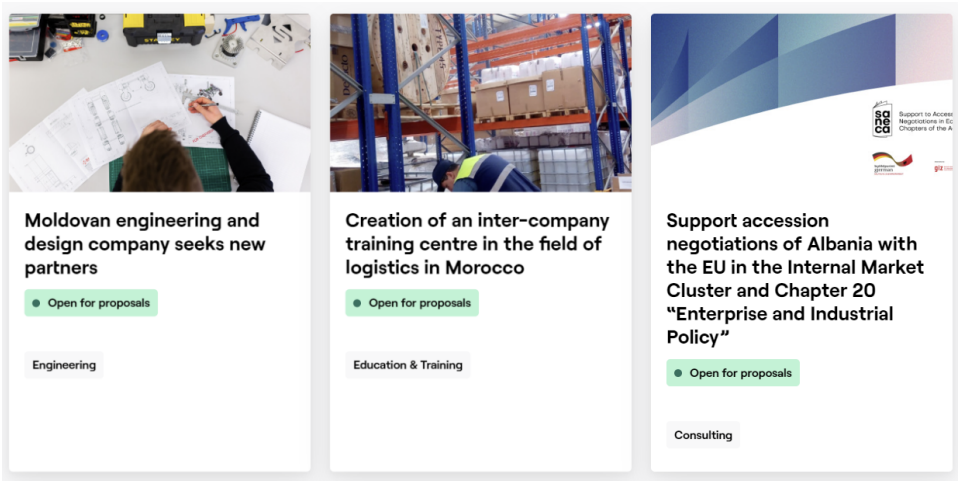
독일은 PSE 전략이나 원칙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독일 원조기관의 민간기업 지원 방식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적극적인 PSE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GIZ는 50년 이상의 개발협력 경험에 기반하여 신흥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진취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문서비스, 네트워킹 플랫폼, 비즈니스 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GIZ는 Leverist.de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럽(EU)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자문서비스의 주 목적은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파

트너 국가 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즉, 민간기업이 개발협력 분야에 직접적이고 투명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개발도상국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GIZ는 Leverist.de 홈페이지 내 파트너 국가의 사회문제 또는 비즈니스 기회와 관련된 1) 사업 정보, 2) 지원 정보, 3) 참여 효과 정보를 하기 [그림 7]과 같이 공개하고, 유럽(EU) 기업이 직접 관심있는 파트너 국가의 사회 문제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선택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7] Leverist.de 사업 정보



이처럼 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협업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국가 진출 여부와 비즈니스 매칭 등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업 업체 등의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게 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것 대비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 정보에 이어 지원 정보란, 자금 또는 기술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는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제시된 사업을 통해 증대될 수 있는 개발효과성 관련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여 기업이 해당 사업 참여한다면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언급된 기본적인 정보 공유 외에도 GIZ는 사업별로 컨설턴트를 별도로 지정하여 개별 자문까지 제공함에 따라, GIZ와 협력하는 기업은 개발도상국 진출 초기에 필요한 노력과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GIZ는 기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진

출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내 관련 정책, 현지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대비 파트너 국가 내 법규범(Rules of Law) 체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함에 따라 파트너 국가 내 정책, 제도, 규제가 주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는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나아가 최근 국제사회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원칙'에 따라, 기업에게 파트너 국가를 착취하거나 환경-사회적 피해(Harm)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요구하고 ESG 경영에 기반한 포용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비즈니스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나 기업이 진출하려는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해당 국가 내 정책과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GIZ는 이와 같은 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하기 [표 7]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닌 팜오일, 코코아, 섬유 등 관련 산업군이 단체를 조성하여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구성하고 관련 상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 예로, 폐기물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Prevent Waste Alliance', 그리고 비즈니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Alliance for Integrity' 플랫폼 등은 범 분야(Cross-cutting) 관점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해결방안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채널 등을 제시한다.

[표 7] GIZ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플랫폼	목적
Forum for sustainable Palm oil	•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 인증 • 참여 기업에 정보와 가이드 제공 • 역량강화 제공 • 인증 절차를 위한 지원 • 참여 기업과 함께 인증 제도 개선
German initiative on sustainable cocoa	• 지속가능 코코아 재배에 대한 절차 정립 • 취약계층 포용성 강화 • 생산성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extile	• 섬유 산업에서 환경/사회적 요인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 • 섬유 산업에서 노동자/환경 등 보호 • 단체 행동을 통한 변화 유도
Alliance for integrity	• 비즈니스 분야에서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이고자 함. • 본 조직을 통해 정부/민간 간의 소통을 늘려 최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율

Prevent waste alliance	• 쓰레기 배출, 오염 요인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수립 • 단체로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을 높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GIZ는 기획에서부터 스케일-업 단계까지 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한 비즈니스 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하기 [표 8]과 같이 GIZ에서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스타트업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 대부분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대기업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특히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GIZ는 개발도상국 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PSE 지원 프로그램과 GIZ의 PSE 지원 프로그램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자금이다. GIZ는 단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타당성 조사와 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금융수단(대출)까지 동원한다.

이렇듯 GIZ의 다양한 PSE 프로그램들을 검토해본 결과,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파트너 국가의 기업 또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진출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GIZ는 자국 또는 유럽(EU)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단순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사업을 검증하고 도약하는 데까지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독일 또는 유럽 기업의 파트너 국가 진출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진출과 정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파트너 국가의 민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즉, 최종적으로는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부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GIZ PSE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설명	대상	자격요건	지원사항	기간	지원 방법
develPPP[4]	Classic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유망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기업,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현지 기업 (대/중견/중소 포함)	• 8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기업 • 연 매출액 800,000유로 이상 달성 기업 • 최소 2번 이상의 회계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지표를 제출한 기업 • 회사의 불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순이익, 자기자본[5], 유동성을 가진 기업	• 기업 불입금의 50% 이상, 10만에서 200만 유로 지원	최대 3년	• 연 4회 모집 • 아이디어 경쟁 통한 선발[6]
	Ventures	개도국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국가[7]에 등록된 스타트업 또는 펀딩 시작을 위해 등록 예정인 기업	• 개인 소유의 영리기업 • 창업 후 1년 이후 기업 대상 • 재무 계획 필수 • 비즈니스 모델 필수 • 200만 유로 이하 투자 유치 회사 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고, 최대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 가능성이 높은 사업	• 매칭 펀드 체계 내에서 최대 10만 유로 지원	최대 2년	• 연 2회 모집 • 아이디어 경쟁 통한 선발[8]
DEG Financing of Feasibility Studies		개발 목표에 해당되는 비즈니스의 기획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유럽 기반 중/중견 기업	• 연간 매출액이 5억 유로 미만 기업 • 경쟁력있는 아이템 소유 • 50% 자부담 가능 기업 • 관련 기술 역량 보유	• 최대 20만 유로, 50%까지 지원(총 40만 유로)	최대 12개월	• DEG에서 상시모집
DEG: Up-Scaling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가진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아프리카, 인도 선호)	• 개발 효과를 지닌 혁신적인 비즈니스 • 시장규모 및 타겟 그룹을 기반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창업 후 1년 이후 기업 • 총 투자 유치금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 50만 유로 지원 (상환 필요) • 이자無	최대 5년	• DEG에서 상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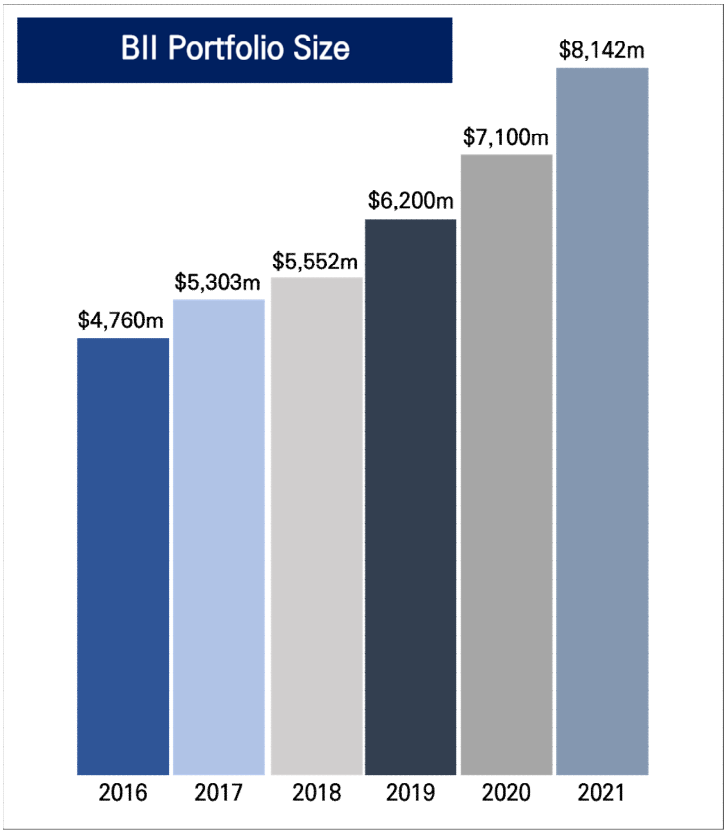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		기업 • 타겟 국가에서 파일럿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비즈니스 검증) • 최소 25%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			
lab of tomorrow	EU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이 협업하여 비즈니스를 통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비즈니스의 투자 필요로 하는 유럽 기반의 기업	• 연 매출액이 5억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 • 경쟁력 있는 아이템 보유 • 50% 자부담 가능 기업 • 투자받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기업	•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샵 (4일간 진행) • 솔루션 구현 위한 1년간의 코칭 서비스 • 유럽/현지의 민간, 행정, 투자자 네트워크 제공	비즈니스 수행 1년, 기획 6개월	• 프로그램 홈페이지통해 참여

4) **develPPP: Sector-independent Funding Programme** =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에서 민간의 개발 협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 투자 프로그램
5) 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 재산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 (국세청 용어사전)
6) https://www.developpp.de/en/application/ideas-competition-classic
7) (2022. 09. 02 기준) 케냐, 가나, 탄자니아
8) https://www.developpp.de/en/application/ideas-competition-ventures

3)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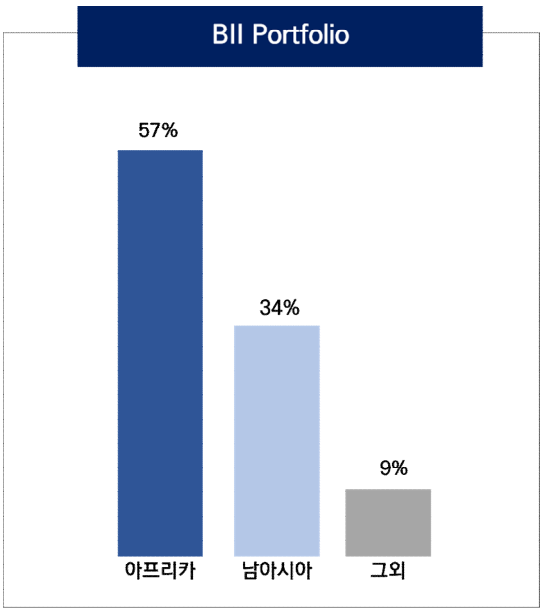
영국은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이하 BII)가 주요 해외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II는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Colonial Development Corporation(CDC)에서부터 시작했다. 설립된 이래로 사회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 BI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BII의 전략목표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조성'의 목표 아래 현재까지 약 58 TWh의 전력을 생산, 938,360명의 일자리 창출, 11.6백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 케어 제공, 1.9백만 명의 농민 지원, 1.8백만명의 학생에게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BII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 원칙을 지키며 조성한 펀드 금액은 2022년 현시점 기준 77억 파운드이며, 이 중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 중인 규모는 약 60억 파운드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18억 파운드 만큼의 포트폴리오는 2021년도에 새롭게 진행되었다. 하기 [그림 8]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속 확장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BII 년도별 포트폴리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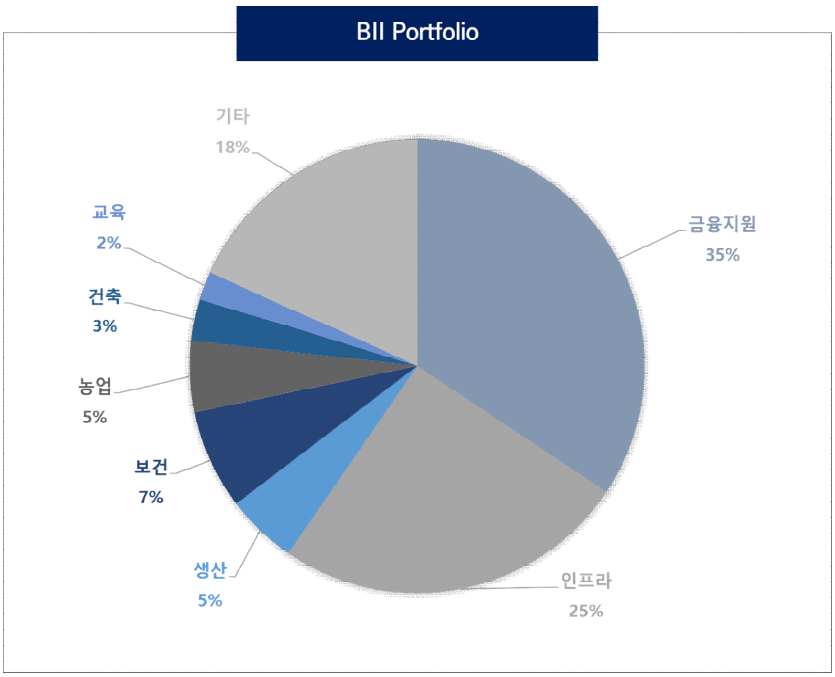
BII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역으로 분류 시, [그림 9]와 같이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권역별 BII 포트폴리오 구성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BII의 지원 분야(Sector)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그림 10]을 보면, BII는 주로 금융 및 인프라 부문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분야별(Sector) BII 포트폴리오 구성



금융 부문의 사례를 찾아보면, 하기 [표 9]와 같은 M-KOPA를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M-KOPA는 금융 부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참여자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참여자 본인 및 가정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M-KOPA 사업의 주안점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폰을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 서비스[9]도 지원하여 개인의 신용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용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된 신용을 활용하여 태양광 서비스, 의료 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실현 및 창업을 위한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 9] BII 투자 기업 사례

사업 사례	사업 내용	효과*
M-KOPA	금융에 접근하기 위한 최초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신용 거래를 가능케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 1단계: 스마트폰 할부 판매-> 구매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 플랜을 제공하여 신용을 회복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태양광 서비스-> 회복된 신용을 활용하여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받아 전력 접근성 향상시키고 TV 또는 냉장고를 활용 • 3단계: 2단계까지의 신용을 활용하여 의료 보험이나 사업 자금 대출과 같은 서비스 이용 가능	- 2021년 기준 - • (Connected) 약 222,000명이 신규로 인터넷을 이용 • (Healthy) 3,700,000명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 또는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 • (Green) 2,200,000톤 이상의 탄소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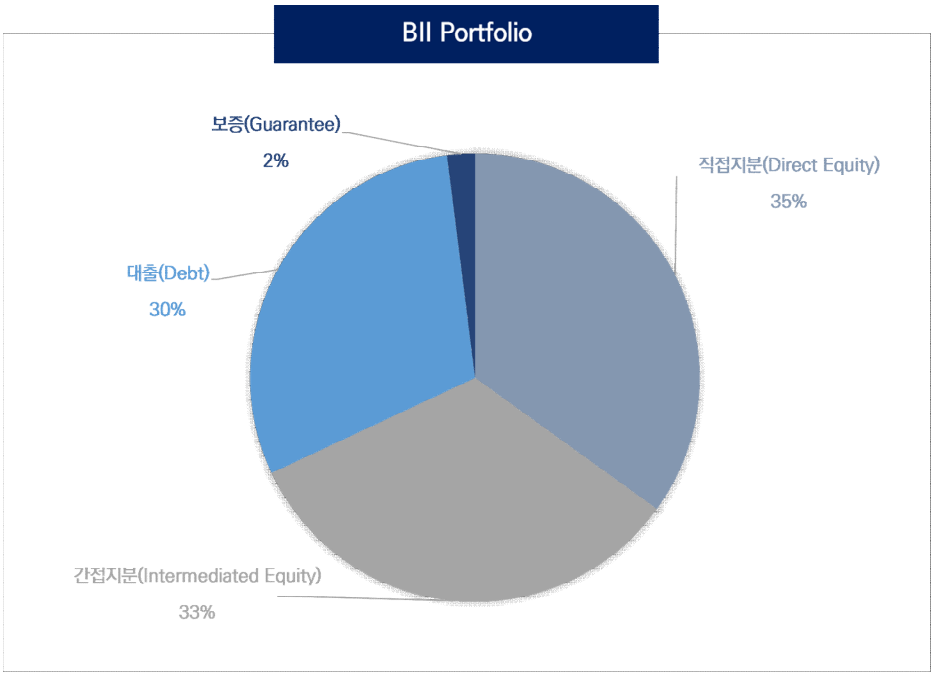
*출처: M-KOPA Impact Report, 2021

하나의 사례지만 실제 취약계층은 은행과 같은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BII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확대시켜 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형태의 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BII는 사업의 초기 발굴 및 기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요소는 없으며, 주로 금융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11]과 같이 BII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지분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BII 포트폴리오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 형태이다.

9) 매우 적은 비용의 할부 서비스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 플랜을 제공

[그림 11] BII 포트폴리오 내 상품 비중



BII는 실제로 투자금 회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BII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면, 향후 우수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는 곧 BII의 총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된 자본은 기존 대비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함에 따라, 다른 투자 기업들과는 달리 사회적 효과성에 집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금융적인 접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기업협력 사례

주요 공여주체의 PSE 전략에 이어 민간부문 중 기업이 참여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추가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PSD와 PSE를 구분하는 개념적 정의와 PSD와 PSE 간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민간기업의 활동이 중점이 아닌 협력국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PSD 사례는 제외하고, 협력국 내 민간기업의 활동이 핵심요소인 PSE 사례와 PSD-PSE 간의 공통분모에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시점까지도 다수의 민간기업이나 주요 공여주체들이 PSE 관련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진 않더라도 향후 협업하여 추진한다면 개발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 두 가지 모두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나 역량 있는 민간기업 참여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 또한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기업 중 다국적 기업이 개발목표와 비즈니스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국 내에서 활동하여 성공한 사례는 하기 [표 10, 11] 내 △사업명, △분야, △대상국가/지역, △협력 주체, △배경, △사업내용, △성과/효과로 구성하였다.

[표 10] 기업협력 성공사례 1

사업명	PROJECT LAST MILE(이하 PLM)
분야	✓ 보건 분야(Global Health)
대상 국가/지역	✓ 아프리카(12개 지역 대상: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가나, 케냐, 에스와티니, 리베리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우간다, 레소토)
협력 주체	✓ The Coca-Cola Company, The Coca-Cola Foundation, USAID, The Global Fund, The Bill & Merlinda Gates Foundation, The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PEPFAR)
배경	✓ PLM은 2010년 글로벌 펀드와 게이츠 재단이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를 대상으로 협업을 요청하며 시작됨. 이미 코카콜라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을 만큼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프리카 보건부는 접근 조차 어려운 지역(Hard-to-reach communities) 단위의 보건시설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사업내용	✓ PLM은 다음 3가지(①공급망 관리 및 효율적인 유통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의약품, 백신 등의 접근성 향상, ②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대상 범위 확대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활용도 향상, ③세계적인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설정 ✓ 12개 아프리카 지역 내 35개의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부 보건 시스템 강화 지원(△의약품, 백신 등의 접근성 향상, △전략적인 마케팅 프로세스 반영) ✓ 비즈니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확장 가능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모델 개척 ✓ 아프리카 전역의 맞춤형 의료 시스템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 투자로 3,000만 달러 이상 조달
성과/효과	✓ 탄자니아와 모잠비크 내 3,500개 이상의 의료 시설의 의약품 관련 유통 비용과 경로 최적화 ✓ 나이지리아 라고스 내 359개 이상의 백신 냉동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리 시스템 개발 ✓ 2,800개 이상의 픽업 포인트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470만 명 이상의 만성 질환자에게 의약품 직접 전달 지원 ✓ 시에라리온 내 디지털 재고 관리시스템을 테스트하여 의약품 공급 강화 및 재고 부족현상 최대 48% 감소

[표 11] 기업협력 성공사례 2

사업명	OLIVADO
분야	✓ 농업 분야
대상 국가/지역	✓ 탄자니아
협력 주체	✓ 다국적기업(Olivado), AECF
배경	✓ 전통적으로 탄자니아의 아보카도 농부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생산품을 팔아야했으며, 중간상인들은 가장 좋은 과일을 고르고 나머지는 썩게 두는 등, 농부들은 시장에서 약자였으며 그들의 농산품에 대한 가격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함.
사업내용	✓ AECF로부터 100만 달러의 매칭펀딩을 통해 OLIVADO 다국적 기업이 탄자니아에 진출하여 탄자니아 현지 지사(Olivado Tanzania ltd)를 2015년 설립하고, 지역 소작농들로부터 아보카도를 직접 구매하면서 수확한 과일의 기름을 가공하고, 그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함. 이 비즈니스 모델은 농부들이 수확한 모든 과일에 대해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농부들의 수입을 보장함. 또한, 농부들에게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기농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성과/효과	✓ 평균 1,200MT 아보카도 10.2% 기름 생산량 > 가공 과일의 80%가 현지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과일 ✓ 농민 소득 증대

다음으로는 현재 비록 PSE 형태가 아닌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파일럿 형태로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향후 PSE 형태로 협업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협력국인 칠레 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목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례로, △사업명, △분야, △대상국가/지역, △참여기업,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구성하여 다음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 PSE 발전 가능 사례 1

사업명	포르쉐 기후중립연료(e-Fuel) 산업생산
분야	✓ 에너지 분야
대상 국가/지역	✓ 칠레
참여기업	✓ Porsche, Siemens Energy and ExxonMobil, HIF Global LLC
사업내용	✓ 현재 포르쉐, 지멘스 에너지 및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여 칠레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이는 세계 최초로 합성 기후중립 연료(e-Fuel)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이며, 향후 PSE로도 발전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뿐만 아니라 협력국 내 개발목표 달성까지 확대 가능한 사례로 판단됨. ✓ 칠레 소재 회사가 Haru Oni eFuel 시범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포르쉐, Siemens Energy, ExxonMobil 등이 파트너로 참여함.

	✓ 기후중립연료(e-Fuel)는 전기 기반 합성 연료(Electricity-based synthetic fuels)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소와 CO2로부터 생산되며, 연소엔진의 CO2 중립작동을 가능하게 함.
기대효과	✓ 산업용 e-Fuel 생산에 투자하여 기후변화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확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이 제시한 PSD와 PSE 공통분모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국 소재 민간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 소개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재 PSE 형태로 추진되고 있진 않으나 역량 있는 협력국 소재의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목표와 개발목표 두 가지 모두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자체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 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개발성과 달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역량 있는 협력국 소재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참여 수요를 바탕으로 PSE를 추진한다면 향후 성공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하기 [표 13]과 같이 △기업명, △기업개요, △분야, △대상국가/지역, △관련 법/제도,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13] PSE 발전 가능 사례 2

기업명	ECOBATT
기업개요	✓ 2022년 1월 신규 개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캄보디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이하 MoE)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들만의 배터리 재생(Regeneration) 기술과 노하우로 타 브랜드보다 오래 지속되는 고품질 산업 납축전지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분야	✓ 에너지 분야
대상 국가/지역	✓ 캄보디아
관련 법/제도	✓ 2016년 캄보디아 내 배터리 및 e-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 발표(PRAKAS 447, SUB DECREE 16) → 당시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e-waste business actors)들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음. ✓ 에코뱃이 해당 규정에 대응하는 첫 업체로,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규정들이 언제부터 적극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코이카와 같은 주요 공여주체가 협업하여 PSE를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내용	✓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들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누적되는 배터리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하며, 폐배터리 수거, 관리, 처리 및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세스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제품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다음 세 가지 솔루션(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까지 확대하고자 함.

	▷ (REDUCE) 배터리 재생(regeneration) 기술로, 배터리를 최초 용량으로 회복 ▷ (REUSE) Ecobatt의 재사용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효율이 낮아진 배터리를 수거, 24시간 전력을 사용하는 돼지농장, 소농장 등에 전력 제공, 또는 중고배터리로 생산하여 중고시장에 판매 ▷ (RECYCLE) Ecobatt만의 재활용 시설 구축, 재활용 처리 예정
기대효과	✓ 에코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내 사회적 이익(Social Benefit) 또한 확대하고자 국가 내 중간 상인들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

3. 소결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사회의 PSE 전략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표 14]와 같이 네 가지(①무상원조기관의 금융수단 도입, ②PSD-PSE 시너지 도모, ③비즈니스 모델 전 주기적 지원, ④지원조직의 적절한 활용)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4] 검토 사례별 도출된 시사점

검토 사례 및 주요 내용			시사점
영국	BII 포트폴리오 내 상품비중	→	금융수단 도입 필요
미국	USAID 참여 방식의 구체화	→	PSE와 PSD의 시너지 도모
	개발컨설팅사와 장기계약 또는 개별 파트너 국가의 현지사무소 내 현지컨설턴트 고용	→	지원조직(Intermediary)의 적절한 활용
독일	△자문서비스,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협력	→	비즈니스 모델의 전 주기적 지원

첫째, 무상원조 기관의 금융수단 도입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PSE 기업협력을 위해 소형의 SEED MONEY를 무상지원(Grant)하고,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금융지원(투자나 대출)은 대부분의 PSE 모델에서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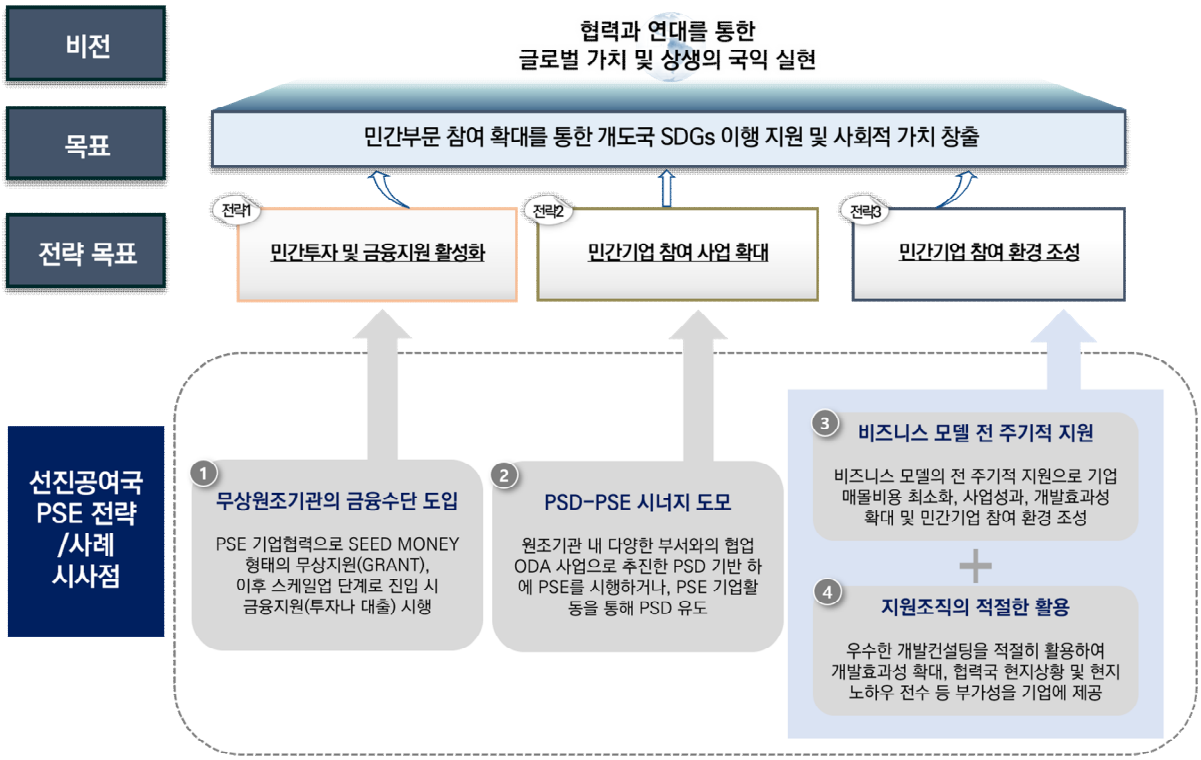
둘째, 원조기관 내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PSE와 PSD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ODA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PSD 기반하에 PSE를 시행하거나, PSE 기업활동을 통해 시장 활성화(PSD)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의 전 주기적 지원이 기업의 매몰비용을 줄이고 사업성과와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의 발굴 및 금융지원, 장기적 모니터링 등 원조기관의 역할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지원조직의 적절한 활용이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기술과 아이템 중심의 기업 스스로 협력국 친화적인 PSE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수한 개발컨설팅을 투입하여 개발효과성과 협력국 상황, 그리고 개도국 비즈니스 노하우 등의 부가성을 기업에 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 』의 비전(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과 2022년 발표한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3대 전략목표에 하기 [그림 12]와 같이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2] 민간 참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공여주체의 PSE 전략 및 사례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PSE 현황

제1절 PSE 프로그램 현황

1. 타 부처 지원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외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ODA 시행기관'[10]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약 42개 기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 ODA 시행기관은 직접 원조사업을 추진하나, 대부분 산하기관 또는 공모기관이 실질적인 ODA 사업 실시, 즉, 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 집행을 대행하거나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ODA 시행기관은 외교부, KOICA, EDCF를 제외하고, 2021년 기준 연간 ODA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위기관*([표 15] 참고)이며, 기관별로 추진하는 민간기업 협력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중 ODA로 계상되는 프로그램[11]을 위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15] '21년 기준 ODA 시행기관

ODA 규모(연간)	기관명
100억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12개
10억원-100억원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10개),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통계청, 경찰청, 교육청, 특허청 / 23개
10억원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5개

상기 [표 15]에서 제시된 약 40여개의 ODA 시행기관들 중에서도 연간 ODA 규모가 100억원 이상임과 동시에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국 내 취약계층 포용성을 지니는 비즈니스의 한하여 ODA 사업과

10) 권율 외, 2021
11)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PSE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정하여 제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음 4개의 시행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환경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해 타 부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 및 건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대략적인 운영 취지 및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된 4개의 ODA 시행기관 모두 ODA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진 않으며, 하기 [표 16]과 같이 별도의 산하기관이 ODA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사업 집행 대행 및 위탁 관리하고 있다.

[표 16] 시행기관별 ODA 산하기관

시행기관	ODA 사업수행/집행대행/위탁기관 역할	비고
①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KEA)	산하기관별 각기 다른 PSE 프로그램 운영/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③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KRC)	
④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	
	환경산업기술원(KEITI)	

이와 같은 ODA 시행기관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PSE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하기 [표 17, 18]과 같이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정리하였다. 정리된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 이외에 타 부처의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다양한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군에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보건, 교육)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의 간극을 한국국제협력단의 CTS나 IBS와 같이 분야에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로 분담하여 균형감있게 PSE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산업통상자원부 PSE 프로그램 추진현황

주관기관 및 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정책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산업 및 에너지 협력 개발지원(ODA)			ODA 및 광업전주기 컨설팅
				프로젝트	통합기획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개요	에너지효율 정책 마련 및 제도구축 지원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발굴	국제기구 내 대외위상 제고 및 협력주도권 강화, 양자 간 유망 협력거점의 추가 확보로 협력 실효성 증대	개도국 온실가스감축사업 F/S 등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해외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개발도상국에 광해관리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해 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원조, 지원하는 형태 (사업을 통해 해당 진출국 내의 광해관리 시장 잠재수요 발굴)
				협력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신규 ODA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프로젝트 사전기획과 상세기획을 연계하여 일괄 지원	개발도상국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판로개척 연계 추진	
대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유사사업 경험, 전문인력(현지 전담인력 포함) 등을 확보한 기관·기업(법인)	국제기구 및 양자협력기관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수주, 투자, 에너지진단, 에너지 신산업 발굴 등을 추진하는 국내기관	해당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단독 혹은 컨소시엄 중점 지원 국가·분야·유형 外 제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OECD DAC 지원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기준, 국가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해당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및 관련 사업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유관기관 간 컨소시엄	-
선정방식	-	-	-	지정공모(지원대상 및 분야 상이)			-

지원내용	-	다자 : 다자 정부 간 협력활동으로 국제 공조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IRENA, IEA/REWP, EGNRET) 양자 : 양자·민관 합동 협력 활동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최신 글로벌 신재생 정책/산업/기업정보 등 지식관리/제공)	-	①사업총괄 및 성과관리 ②양국 협력 채널 구축 및 운영 ③정부기관 간 합의문(MOU 등) 및 협의의사록(ROD) 체결 지원 ④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건축물·기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 ⑤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화 지원	**1단계 : 사전기획** • ①신규 프로젝트 모델 설계, ②수원국 유관 부처/기관 협의,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조사 **2단계 : 상세기획** • 1단계 중 우수과제 ①프로젝트 상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②수원국 요청서 등 수행	기술지도는 전문가 그룹의 현지 방문을 통해 현지기업의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공정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사업착수-역량진단-기술지도-성과점검)	-
지원규모	-	-	-	사업별, 연차별 지원 규모 상이 '22년 636.9억원 최근 3개년 정부출연금 평균 - 프로젝트 '19 16.5억원 / '20 9.3억원 / '21 21.3억원 - 사전기획 '19 0.25억원 / '20 0.25억원 / '21 1억원 - TASK '19 2.25억원 / '20 3억원 / '21 2.06억원			-
사업기간	-	-	-	사업별 지원 기간 상이(당해연도 사업은 해당연도 12.31. 종료 원칙)			-
비고	-	-	-	• 정부 정책방향, 협력국의 여건,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실시되는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수행기관,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개발협력(ODA) 지원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해외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 기업이 생산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전기획을 통해 개도국과의 협력가능성이 검증된 과제에 한하여 상세기획 추진			자원개발-광해관리 연계사업 모델 확립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자원환경 국제협력사업 추진 종료된 프로젝트형 ODA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발굴 예정
ODA 계상	○	○	△(향후 연계 계획)	○	○	○	○

[표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PSE 프로그램 추진현황

주관기관 및 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농어촌공사(KRC)		한국환경공단(K-ECO)	환경산업기술원(KEITI)
	K-Lab 설치 및 운영	국제농업협력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K-ECO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K-PPEP)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개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에 디지털제작시설(K-Lab)을 구축하여 디지털제조장비 활용 교육, SW-HW 융합교육,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 등 청년층의 ICT 혁신역량 강화 지원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 - 기획협력(물적, 인적 결합 패키지 방식 중장기 사업), 공동협력(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체 협업), 컨설팅(농업정책컨설팅)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컨설팅, 투자비용 지원 및 비상시 반입체계 구축	K-ECO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을 통해 해외환경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환경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해외 전파 확대	해당국 맞춤형 환경정책, 기술 수요 분석 등을 통해 환경개선 계획 수립·제도화를 지원하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 기반 마련
대상	K-Lab 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관(기업 및 영리/비영리기관 컨소 허용)	-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환경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기업으로서 국내 환경분야 사업실적 또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
선정방식	자유공모	사업유형별 상이	신청 및 심의	공단제안/기관공모	공모
지원내용	K-Lab 시설 운영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연차별 추진 계획)** • 1차년도 : 신규구축 • 2차년도 : 시범운영 • 3차년도 : 운영안정 • 4차년도 : 활용확대 • 5차년도 : 자립강화	**(기획협력사업)**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 직접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 중·장기간(3~5년)에 걸쳐 농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교육, 컨설팅 등 S/W 함께 지원('22년 예산 250억원/사업당 3~5년간 30~80억원) **(다자성양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 : FAO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기후대기, 물환경 및 자원순환 등 해외환경사업 진출대상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사업 사전조사, 사업협의 및 전문가 지원 등 타당성 조사사업 및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기타 해외사업 발굴, 사업화,	정책제안 / 협력사업 분야 개선이 필요한 환경분야(수질, 수량, 수력 등 물관리 전반, 폐기물(폐기물 에너지화 등), 대기, 기후변화 대응)를 대상으로 후속 수익사업 발굴이 유리하고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사업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농업 기술 지도,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고, WFP를 통해 개도국 식량원조('22년 예산 623억원) **(개도국 농정 컨설팅)** - 연간 3~5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조사, 초청연수, 워크숍 등 시행하는 농정 컨설팅('22년 예산 12억원)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 교류 지원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분야	
지원규모	'21년 예산 : 600백만원	'22년 예산 : 88,477백만원	'21년 예산 : 94억원(재원 : 농지관리기금) - 융자사업 : 69억원 - 보조사업 : 25억원	-	국가 당 약 7~10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사업기간	5년(3+2)	기획협력사업 3~5년 사업유형별 상이	융자 : 5년거치, 10년상환 보조 : 미상	-	약 14개월
비고	1년 단위 연차별 협약 체결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총사업비의 90% 이하 정부지원금 지원) 수행기관은 사업 특성, 연차 계획에 맞게 장비도입비를 매년 편성	농식품부 본부 이외에도,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전문 분야별로 예산 확보하여 농림분야 ODA 추진, 농림 유관기관 ODA 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10년부터 글로벌 농림 협력협의회(차관 주재, 연 1~2회) 운영, 13개국(아시아 9, 아프리카 3, 중남미 1), 9개 국제기구[12] 대상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 • 탐색단계 ▸ 해외정보제공 및 교육, 진출초기 현지환경조사 등 지원 • 진출단계 ▸ 해외진출 농기업에 진출자금 융자 지원 • 정착단계 ▸ 컨설팅 및 현지 영농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애로 해소	-	ODA 중점협력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후속 수익사업 등으로 업계 진출이 유망한 국가는 비 중점협력국이라도 선정 가능 국내·외 사례와 대상국 도입적정성(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 환경관리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환경시장 창출
ODA 계상	○	○	x	○	○

12) WFP, FAO, ADB, UNDP, IFAD, GGGI, IRRI, ILRI, IFPRI

1) 산업통상자원부

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KEA)

KEA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국제협력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기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KEA는 1) 정책 컨설팅, 2) 국제기구 협력사업, 3)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사업 개요는 [표 17]을 참고한다. KEA는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업 공모 형태로 약 2-3억 내외로 다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대상국가에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컨설팅이나 검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KEA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ODA 사업이기는 하나, 타 프로그램 대비 기업의 진출 지원을 보다 큰 목표로 두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2021년 기준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ODA 예산의 약 90%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산업개발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을 ODA로 제공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권율 외., 2021). 이러한 기업 진출의 주요 목표는 신흥시장 발굴, 해외 발주 프로젝트 수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프로그램 내에는 다음 3가지 사업, 1) 국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프로젝트, 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통합기획, 3)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이하 TASK)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수행 방식은 [표 17]을 참고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지만 현지에 네트워크 또는 수행 경력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의 지원이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KIA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비즈니스의 초반부보다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모델이 발굴되고 검증이나 테스트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KOMIR)

KOMIR는 주로 자원과 관련된 광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 및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원 확보 및 기술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수요가 있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 KOMIR는 다음 두 가지 프로그램, 1) 해외정보서비스, 2) ODA 및 광업 전 주기 컨설팅을 별도로 구성하여 국내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해외정보서비스는 파트너 국가의 사업 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며, ODA 및 광업 전 주기 컨설팅은 광업이나 광해를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더 나아가 ODA 프로젝트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만, KOMIR 예산 여건으로 보아 ODA 프로젝트 발굴 시, 직접 ODA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을 부처제안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를 제공하고 ODA 사업 발굴을 지원하며 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이하 OREON)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준 약 1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개발도상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IPA에 한하여 포함하였다. NIPA는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Lab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제조업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디지털 제작 인프라(K-Lab)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메이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SW-HW 융합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 육성 및 ICT 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기회를 발굴하고, 국제개발협력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프라 조성, 시설 운영, 네트워크 협력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프라 조성은 개도국 협력 의지 및 현지 수요를 고려한 디지털 제작 장비(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설치 및 활용을 위한 ICT 기반 디지털 제조역량 지원체계 구축 및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지원이다. 둘째, K-Lab 시설 운영은 장비 활용을

위한 시설 교육, 상상력과 아이디어 발굴·구현을 위한 메이커 멘토링,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 기획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 공간 운영이다. 셋째, K-Lab 네트워크 협력은 ICT 기술·기업·인력교류, 현지 산업 정보분석·제공, 양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제품의 협력국 진출 기회발굴을 위한 활동이다.

NIP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K-Lab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라오스 K-Lab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KRC)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ODA 예산의 대부분을 직접 집행하나,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의 예산을 운용하는 KRC의 PSE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KRC는 다음 2가지 사업, 1) 국제농업협력사업,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ODA로 계상되는 사업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이나, 해당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국별협력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PSE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ODA로 계상되지는 않으나,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먼저, 국제농업협력사업은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업 분야 성공 경험을 전수하고, 농촌 개발 및 빈곤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개발, 농림축산 분야 무상원조 지원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14개국 2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다음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의 경우는 두 가지, 1) 융자, 2) 진출지원 형태로 나누어 농업 분야의 국내 민간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융자 형태로는, 우리나라 농업기업이 해외 진출 기획 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시 필요한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제공하는 반면, 진출지원 형태의 경우, 개발도상국 내 해외 투자 환경 조사,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 제공 및 워크숍 등 교류 지원 등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환경부

가. 환경산업기술원(이하 KEITI)

환경부 또한 예산 규모 대비 다수의 기관이 환경ODA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러 사업실시기관 중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07년부터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지원 대상국 다변화,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국가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환경협력 토대 구축,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과의 환경기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및 양국의 환경산업 발전 증대를 위해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관리 수요 도출(환경산업, 정책, 기술 및 기초시설)을 위한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분석, 개도국의 대상지역·분야 기본계획 수립 제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및 양국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나. 한국환경공단(이하 K-ECO)

또 다른 환경부 ODA 시행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환경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내 지속 가능한 환경기술 전파 및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는 K-ECO 공공-민간 환경 파트너십 프로그램(K-ECO Public·Private Environmental Partnership, K-PPEP)으로, 2010년부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해외환경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대기, 물환경 및 자원순환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진출대상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사업 사전조사, 사업협의 및 전문가 지원, 타당성 조사사업 및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KOICA PSE 프로그램 현황

KOICA는 2010년 기업협력사업을 도입하여 2015년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이하 DIP)으로 발전시키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DIP 프로그램은 파트너에 따라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이하 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이하 IB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이하 IPS)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인 CTS 및 IBS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1) CTS 프로그램 현황 분석

CTS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의 약자로,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되며, 각 참여 대상 기업의 조건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CTS 사업 참여 대상 기업 구분과 조건

구분	조건
예비창업자	CTS 파트너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등록 필수
스타트업	창업 후 최대 10년 이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이며, 설립정관 상 특정 사회문제 해결 목적 명시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 필수

참여 기업에게는 활동비용, 엑셀러레이팅, 창업 공간, 글로벌 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기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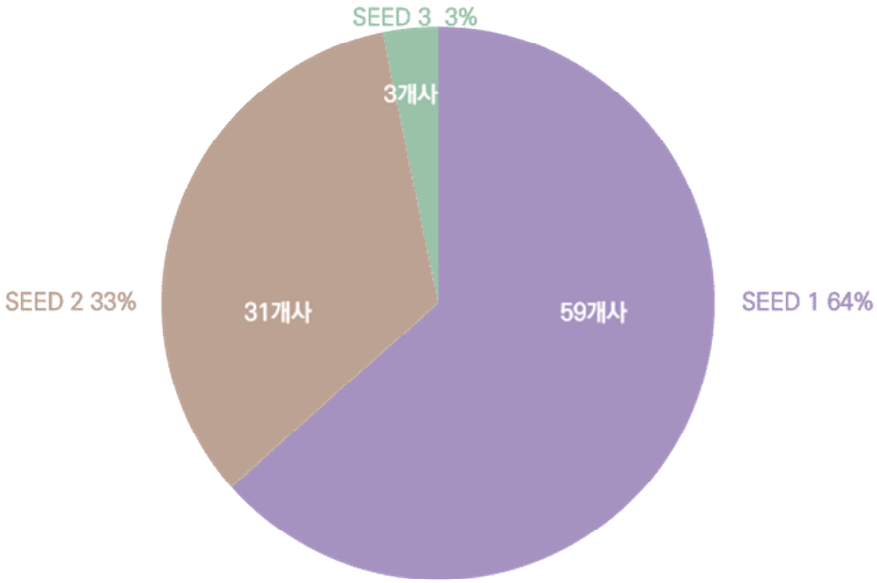
[표 20] CTS 사업 단계 및 사업 내용

단계[13]	구분	지원내용	사업 내용
SEED 0	예비혁신가 육성	현지조사 지원	기술과 창의력을 갖춘 신생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
SEED 1	기술개발	최대 3억원 지원	혁신기술 사업모델의 기술개발, 인력, 소규모 현지실증 사업 비용 및 네트워킹의 기회 제공
SEED 2	시범사업	최대 5억원 지원	SEED 1에서 개발 완료되어 시장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확대적용을 지원

본 연구는 KOICA가 2015-2022년 간 실시한 SEED 1 ~ SEED 3의 사업 93건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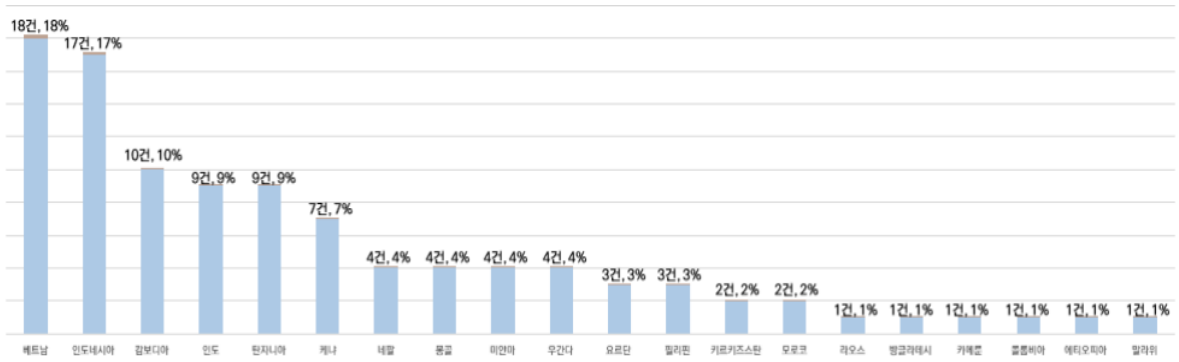
13) 2019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의 3단계 구성은 기존 3단계<Seed 1, Seed 2, Seed 3>에서 <Seed 0, Seed 1, Seed 2> 단계로 변경됨.

[그림 13] CTS 참여 단계



CTS 참여 기업들은 대부분 가장 초기 단계인 SEED 1단계(59개사, 64%)에 가장 활발한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EED 2단계(31건, 33%)에는 대략 절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고, 가장 높은 단계인 SEED 3단계(3건, 3%)는 미비한 수준의 참여를 보였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하더라도, 높은 단계의 진입은 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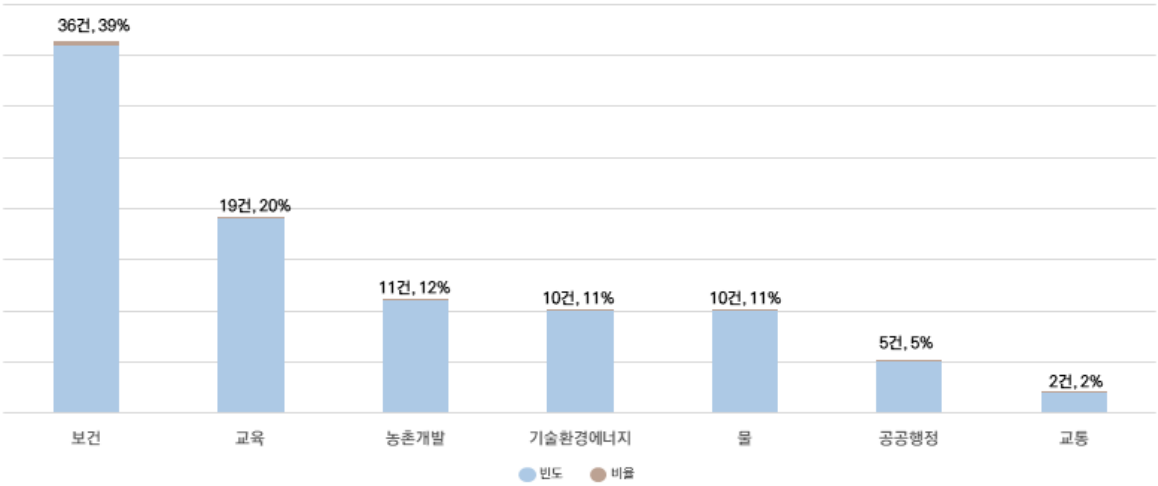
[그림 14] CTS 참여 국가



CTS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베트남(18건, 18%), 인도네시아(17건, 17%), 캄보디아(10건, 10%), 인도(9건, 9%), 탄자니아(9건, 9%), 케냐(7건, 7%), 네팔(4건, 4%), 몽골(4건, 4%), 미얀마(4건, 4%), 우간다(4건, 4%), 요르단(3건, 3%), 필리핀(3건, 3%), 키르기즈스탄(2건, 2%), 모로코(2건, 2%), 라오스(1건, 1%), 방글라데시(1건, 1%), 카메룬(1건, 1%), 콜롬비아(1건, 1%), 에티오피아(1건, 1%), 말라위(1건, 1%) 순이다.

이는 기업들이 지리적, 문화적인 이유로 비교적 사업 진출이 용이한 동남아 시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시장의 규모를 우선 고려함에 따라, 인구가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CTS 참여 분야



CTS 참여 분야 비중은 보건(36건, 39%)과 교육(19건, 20%) 제품 및 서비스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촌개발(11건, 12%), 기술환경에너지(10건, 11%), 물(10건, 11%)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행정(5건, 5%), 교통(2건, 2%)은 비중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 KOICA CTS 사업목록(2015-2022)

시작 연도	단계	국 가	분 야	사업명	파트너기관
2015	SEED 1	네팔	기술환경 에너지	네팔 고산지대에 적합한 독립형 초소수력-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장치 개발 및 보급	아이디아이엠인 터내셔날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인도네시아 상황인지 기반 실시간 대피안내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코너스
		캄보디아	보건	캄보디아 차세대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노을
		캄보디아	기술환경 에너지	캄보디아 비전력가구를 위한 혁신 Solar Home System 사업	에너지팜
		케냐	교육	케냐 제3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모듈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닷
	SEED 2	네팔	농촌개발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	트리플래닛
		모로코	보건	모로코 결핵 퇴치를 위한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기반 m-Health 서비스 사업	제윤

		베트남	보건	베트남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초소형 검안기 보급	오비츠코리아
		베트남	보건	베트남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	힐세리온
		캄보디아	농촌개발	캄보디아 낙엽 접시 제조 및 기계 보급	나무리프
2016	SEED 1	탄자니아	교육	탄자니아 태블릿기반 개도국 아동 교육 앱 개발	에누마
2017	SEED 1	몽골	보건	몽골 성매개 감염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	(주)뷰노코리아
		미얀마	보건	미얀마 휴대용 AIDS 검사기기 개발	㈜글로리 바이오텍
		베트남	농촌개발	베트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택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스페이스 워크
		인도네시아	기술환경 에너지	인도네시아 고효율 열전발전 램프 개발 및 보급사업	(주)루미르
		네팔	공공행정	개도국 드론 모니터링 사업	엔젤스윙
		미얀마	보건	휴대용 항말라리아제 진위 판별 시스템 보급	스트라티오 코리아
		베트남	보건	당뇨망막병증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솔루션	루티헬스
		베트남	보건	안전한 주사기 자동 처리 기기	뮨
		우간다	물	중력식 막 기반 정수 장치 개발 및 보급	워터앤라이프
		케냐	보건	모두의 결핵검진을 위한 원격판독 및 의료정보교류 서비스	헬스허브
		콜롬비아	교육	시각장애인의 점자학습을 위한 초소형 점자사전기기 개발	브레일리스트
	SEED 2	요르단	보건	요르단 저비용의 경량화된 전자의수 나눔 확산 사업	(주)만드로
		캄보디아, 말라위	보건	차세대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노을
		탄자니아	교육	탄자니아 태블릿 기반 개도국 아동교육	에누마코리아
		우간다	교육	영어 능력 활용 온라인 일자리 창출	텔라
		캄보디아, 인도	보건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초소형 검안기 보급	오비츠코리아
		케냐, 인도	교육	제3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모듈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닷
	SEED 3	네팔, 인도네시아	농촌개발	크라우드파밍을 통한 반려나무 커피농장 조성 및 공정무역 커피 판매 활성화 사업	트리플래닛

		모로코	보건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m-Health 시스템 구축	제윤
2018	SEED 1	베트남	교통	베트남 대중교통 사고 방지용 포터블 레이더 개발	비트센싱
		베트남	물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소정수설비 개발	우영엔지니어링
		요르단	교육	점자 및 묵자 입력을 위한 저가형 입력시스템 개발	모아드림
		인도	교육	인도 기초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수업 지원도구 개발사업	태그하이브
		인도	물	분광학 기반 포터블 스마트 IOT 물 세균 검출기 및 수질 통합관리시스템(WaTer: Water Tester) 개발사업	파이퀀트
		탄자니아	물	수동발전 휴대용 UVC-LED 물 살균기 개발과 보급	쉐어라이트
		몽골	기술환경 에너지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개발	㈜플린트랩
		미얀마	기술환경 에너지	미얀마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취사연료 개발 및 보급사업	㈜포이엔
		베트남	보건	고엽제 피해 아동 및 교통사고 외상 후유 성인 대상 근력 재활치료 지원	㈜엑소시스템즈
		베트남	농촌개발	베트남 대나무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나무 칫솔 제조기술 개발	㈜프로젝트 노아
		베트남	보건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발	㈜휴이노
		에티오피아	보건	QuantumPACK 기반의 인수공통 리슈만편모충증 현장진단분석기 개발사업	㈜바이오스퀘어
		인도네시아	농촌개발	연중 딸기 생산용 컨테이너 스마트팜 개발	㈜쉘파스페이스
		카메룬	보건	인공지능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저가보급형 효율적인 말라리아 진단법 개발 사업	스마트엠디
		캄보디아	교육	캄보디아 발달지연아동 인지발달/치료 소프트웨어 개발	㈜두브레인
2018	SEED 2	몽골	농촌개발	제로웨이스트 패션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산업 개발 사업	케이오에이
		방글라데시	물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반의 지속가능한 식수 공급 플랫폼 개발	글로리엔텍
		우간다	물	Safe Water Supply Platform 구축사업	스파우츠 &제리백
		인도네시아	기술환경 에너지	인도네시아 고효율 열전발전 램프 개발 및 보급사업	루미르
		인도네시아	보건	폐주사바늘 재사용 방지 및 2차 감염예방	㈜네오탑

		인도네시아	보건	결핵퇴치를 위한 분자진단키트 보급	㈜팍스젠바이오
		몽골, 필리핀	보건	몽골, 필리핀 성매개 감염병 인공지능 서비스 진단 사업	뷰노코리아
2018	SEED 3	탄자니아, 케냐	교육	태블릿 기반 개도국 아동 교육 앱 확산 사업	에누마코리아
2019	SEED 1	베트남	공공행정	베트남 교통 약자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오토바이용 핸즈프리 스마트 헬멧 개발 사업	아날로그 플러스㈜
		인도	공공행정	여성 대상 성범죄 사운드 기반 감시 시스템	㈜디플리
		인도	보건	인도 모바일 AI 검안 솔루션 보급	㈜픽셀 디스플레이
		캄보디아	보건	AI 알고리즘을 응용한 자궁경부암 검증 프로젝트	두에이아이㈜
		캄보디아	교육	페이퍼리스 점자판 개발 보급을 통한 캄보디아 시각장애인의 학습 환경 개선	㈜오버플로우
		케냐	보건	케냐 가임여성의 에이즈, B형 간염, 매독 진단을 위한 다중면역진단 솔루션 개발 사업	자원과이노베이션(협)
		탄자니아	교육	탄자니아 태양광 충전 배터리 시스템 보급을 통한 교육여건 향상	요크
	SEED 2	인도네시아	농촌개발	인도네시아 동애등에를 활용 인도네시아 식품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농촌 자원순환 모델 구축 사업	㈜엔토모
		탄자니아	물	탄자니아 마을상수도 먹는 물 정수 사업(불소제거) 지원 사업	㈜오투엔비글로벌
2020	SEED 1	미얀마	보건	미얀마 스마트폰 기반 신생아 황달 관리를 위한 빌리루빈 측정기기 개발 사업	원드롭
		인도네시아	기술환경 에너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	엔벨롭스
		인도네시아	보건	인도네시아 화상심도 진단보조 시스템 개발 및 원격의료 시스템 사업	엘리스라디오
		캄보디아	농촌개발	캄보디아 소규모 농가의 유기농업 및 농식품 보존기간 개선을 위한 플라즈마 농업용수 및 살균저장 기기 개발 사업	캐스트
		케냐	교육	케냐 STEM 교육을 위한 로보틱스 모듈 개발 사업	럭스로보
		탄자니아	보건	탄자니아 말라리아 퇴치 현장진단 시스템 개발 사업	케이에이치메디칼
	SEED 2	베트남	교통	베트남 대중교통 교통사고 방지용 포터블 레이더 센서 상용화 및 보급 사업	비트센싱

		베트남	보건	베트남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안내조명차퍼 보급 사업	오큐라이트
		요르단	교육	요르단 점자 및 묵자 입력을 위한 저가형 입력시스템 보급 사업	모아드림
		인도네시아	보건	인도네시아 안전한 주사기 자동 처리를 통한 자상사고 및 교차감염 예방 사업	뮨
		탄자니아	물	탄자니아 UVC-LED 물살균기 보급 및 판매확대 사업	쉐어라이트
2021	SEED 1	인도네시아	보건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체크업 적용	닥터스온더클라우드
		인도네시아	물	인도네시아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위플랫
		키르기즈스탄	농촌개발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	라이브스톡
		베트남	보건	베트남 하노이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강건강 모니터링 구축사업	(주)카이아이컴퍼니
		인도네시아	교육	인도네시아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점자 교육 솔루션 개발화 사업	(주)오파테크
		인도네시아	기술환경에너지	인도네시아 유류이륜차 전동화 및 베트남 전기이륜차 고도화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사업	블루윙모터스
	SEED 2	인도, 베트남	물	인도, 베트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 속 세균 검출을 통한 식수 안전문제 해결 사업	파이퀀트
		탄자니아, 케냐	기술환경에너지	탄자니아, 케냐 태양광 충전배터리 시스템 보급을 통한 교육 여건 향상	요크
		우간다	보건	우간다 중력식 정수기를 이용한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	워터앤라이프(주)
		인도	교육	인도 아동 디지털 인지발달 현지화 개발 및 비즈니스 확산 사업	두브레인
		인도	교육	인도 기초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도구 고도화 및 판매사업	태그하이브(주)
		캄보디아, 베트남	공공행정	캄보디아, 베트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품 고도화 및 보조공학 솔루션 확산을 위한 BM 구축사업	주식회사 오버플로우
2022	SEED 1	라오스	보건	라오스 후아판주 불발탄 피해 절단장애인을 위한 개인맞춤형 의수 및 자립생활용(농업·경제활동) 보조기기 자급화 실증사업	공생
		베트남	보건	베트남 만성호흡기질환(COPD) 조기 진단율 증진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간편형	티알

				호흡기질환검진기 개발 및 보급 사업	
		베트남	보건	베트남 지속가능한 식수 확보를 위한 마개형 세라믹 필터 정수기 개발 및 보급 사업	티에이비
		인도네시아	교육	인도네시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코딩 교육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증진 사업	마로마브
		인도네시아	보건	인도네시아 백내장 진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웰스메디텍
		키르기즈스탄	교육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방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XR 소방훈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	인터랙트
		필리핀	기술환경 에너지	필리핀 재해지역의 저탄소 구호주택과 모듈러 설계S/W 개발 및 보급사업	디어건축사 사무소
		필리핀	농촌개발	필리핀 지역 소농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식품 제조 솔루션 개발 사업	코너스톤티엠엔

2) IBS 프로그램 현황 분석

한국국제협력단은 2010년부터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개발협력을 도모하고자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IBS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사업과 적극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IBS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검토해보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 중에 포용성[14] 요소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IBS 프로그램의 목표를 유추해보면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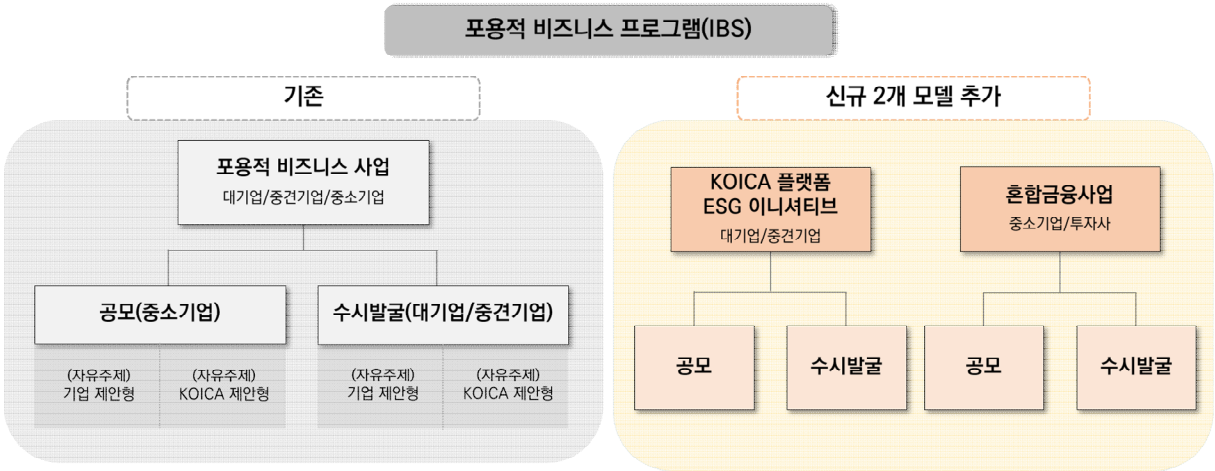
현재 진행하고 있는 IBS 프로그램 Track은 아래 [그림 16]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중견/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하고, 중견 및 대기업은 수시발굴 형태로 추진한다. 기존에는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을 4년 간 5억원씩 총 2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했었으나, 2022년부터는 최

14) 포용성은 비즈니스 자체에 취약계층을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포함시키거나 대상국가의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대 5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상이[15]하다.

2022년 기준 중견/대기업을 위한 1) ESG 이니셔티브 Track, 2) 혼합금융사업 Track 또한 신설되었는데 이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 기준 ESG 경영은 매우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 중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은 개발협력 분야와 연결점이 많다. 이와 같은 연계성을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혼합금융사업은 향후 PSE 프로그램의 성장과 개발도상국 민간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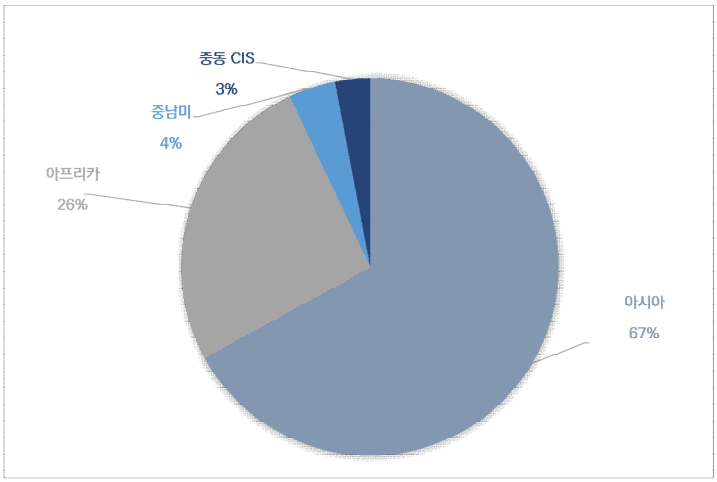
[그림 16] IBS 프로그램 T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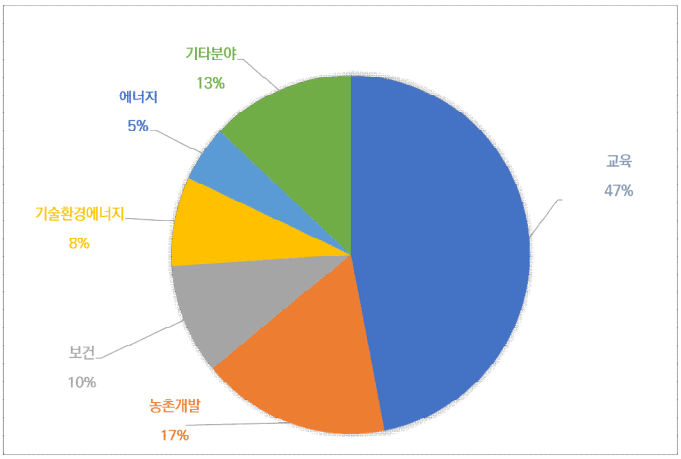
IBS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아래 [그림 17]과 같다. 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이다. 이는 프로젝트 수행의 수월성 측면과 비즈니스 여건을 고려한 기업들의 선택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아래 [그림 18]과 같은데 교육 분야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0년도부터 수행된 사업 중 대기업에서 진행한 CSR 형태의 사업이 주로 직업훈련 센터 프로젝트가 많아 교육 분야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15) 구체적인 내용은 '2023 KOICA IBS 프로그램 안내서'를 참고

[그림 17] IBS 프로그램 지역별 분석



[그림 18] IBS 프로그램 분야별 분석



3. 소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정부주도 PSE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주요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전략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부처 간의 상호학습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각 부처의 특징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분야와 형식별로 매핑이 가능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외교부-KOICA의 프로그램이 기술(CTS), 비즈니스(IBS), 혁신(IPS)의 세 축을 중심으로 기획이 되었다면, 각 부처 사업은 주로 분야(Sector)의 실증을 주로 지원한다. 산업부의 온실가스 감축(KEA)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KIAT) 프로그램, 광해관리 프로그램(KOMIR) 등을 비

롯하여, 농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해외진출사업(KRC), 환경부의 개도국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KEITI)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각 부처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어, 상호 경험공유가 미약하고 상호학습(Mutual Peer Learning)을 통한 발전을 모색할 가능성을 아직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업 진출(IBS나 KIAT) - 섹터(농업) - 기능(ICT 활동) 등 성격이 상이하면서 연계 병존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홍보, 심사,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운영 방식을 상호 공유하거나, 나아가 공존과 연계를 모색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 정부 협의체의 운영은 다음을 참고한다.

[표 22] 범 정부 협의체 운영(안)

운영 항목	상세 내용(안)
명칭	국제개발협력 민간부문 협력위원회(가칭) - 국민협 또는 PSE 협의회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외교부(KOICA), 산업통상자원부(KIAT, KEA), 농축산식품부(농정원) 등 부처 및 실무 산하기관
구성 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처 및 시행기관 실무 책임자(과장-단장급)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간사 기관은 협의하에 지정
정례 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PS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학습 및 중복성 제거, 연계 도모

그다음으로는 기업의 인지제고와 관련된 전략 방향성이다. 기업은 사업의 형태나 분야의 특징에 따라 각 부처의 지원 사업과 외교부-KOICA의 PSE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혁신 기반 중소기업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만한 토대를 100%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경영진의 낮은 인식, 실무자의 부재 또는 역량 부족, 기초적인 준비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 국제사업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 및 구조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공모-기업의 제안이라는 단선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PSE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PSE에 대한 기업의 인지제고 및 교육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범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워크샵 등 경영진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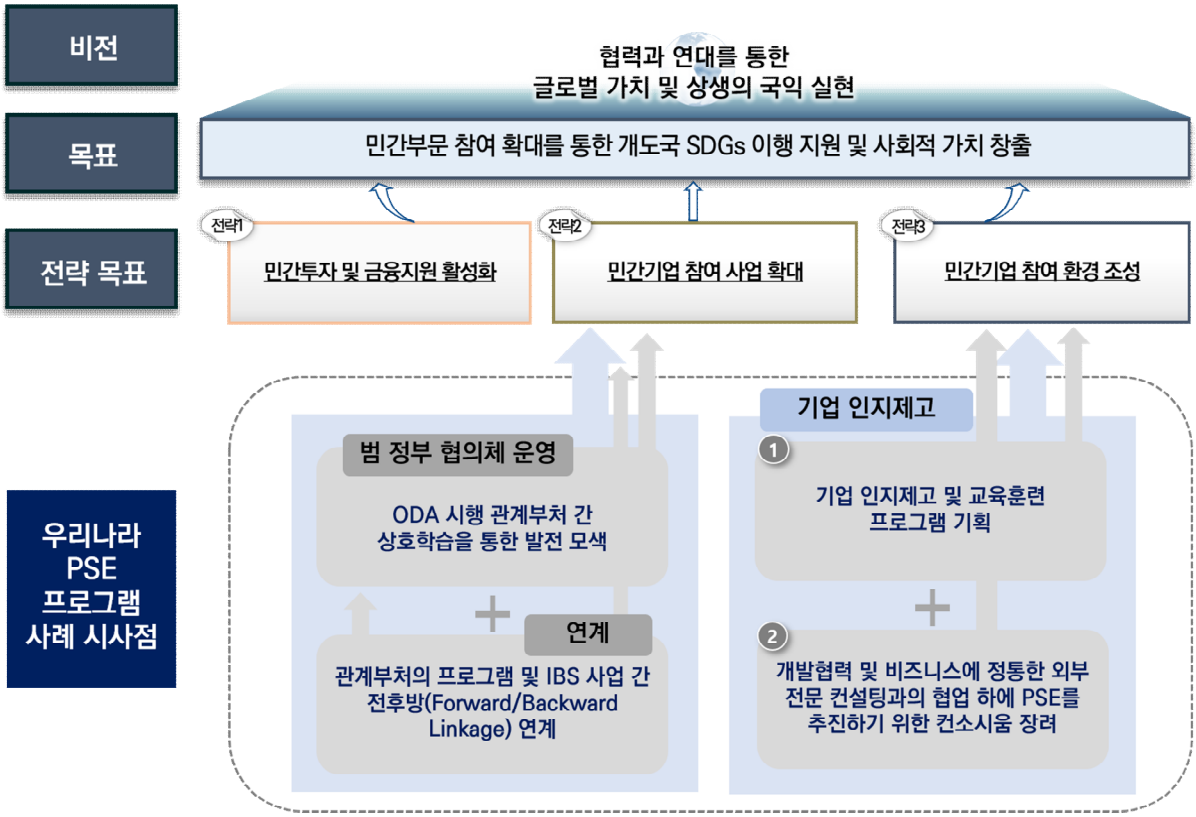
제고를 위한 단기 행사에서부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및 PSE에 대한 업무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개발 운영한다. 아울러, 이수 기업을 중심으로 바우처를 발간하여 향후 정부 프로그램 지원 및 외부 컨설팅 활용 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개발협력의 PSE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기업 임직원의 역량이 개발되어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과의 협업하에 PSE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움을 적극 장려한다.

마지막 전략 방향성은 연계이다. 각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타당성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KOICA IBS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전적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실증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으로 먼저 시행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 코이카의 IBS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다. 부처의 프로그램과 IBS 사업간 전후방 연계(Forward/Backward linkage)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 적극 장려하는 ODA 사업의 연계 성과이다.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마커를 부여하도록 한다. 연계가 없을 경우에는 0, 후방 연계인 경우에는 1, 마지막으로 전방 연계인 경우에는 2와 같이 마커를 부여함으로써 선정 심사 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제안된 전략 방향성은 하기 [그림 19]와 같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 』의 비전과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3대 전략목표 중 2대 전략목표(△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9] 민간 참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PSE 프로그램 현황 분석 시사점



제2절 기업 참여 현황 및 동인 분석

1. 해외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국내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관심 및 참여 경험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개도국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도 확대 전략을 도출하고자 민간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IBS와 CTS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참여기업 간 특성 및 개발협력 사업 참여 동인 등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 문항을 분리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법은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 연구과제에 대하여 실제 민간기업 종사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표집 및 경향 추출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제작된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해외 진출 관심기업 4,336개 및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16] 참여 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배부되었으며, 구체적인 배부 및 회수 현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해외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황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배부	회수	응답률
해외진출 관심기업 대상	2022.08.	4,336건	86건	1.92%
KOICA IBS 참여 기업 대상		145건		

2) 조사도구

해외 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설문 문항은 총 41개로 기업의 정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17] 및 개도국 특화 PSE 프로그램[18] 참여 여부에 따라 동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문항 내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론과 목적에 대한 기초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추후 대한민국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 협력 전략 수립 시, 정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인식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걸친 인지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Inclusive Business Solution: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

17)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18) Private Sector Engagement: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미하므로,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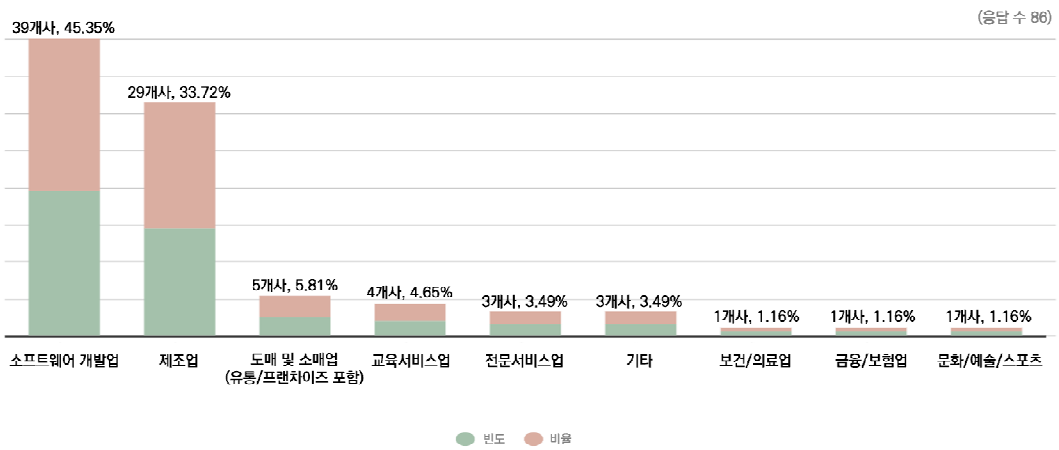
[표 24] 설문지 구성

순서	문항 내용	문항 수
1	기업 일반 현황 - 설립연도, 업종, 규모, 평균 매출, 해외 진출 계획	9
2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련 - 참여 여부, 필요 지원 우선순위, 참여 동인, 참여 교훈	9
3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관련 - 개도국 진출 의향, 참여 여부, 참여 동인, 참여 교훈, 장애요인	17
4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 조사 -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론 인지도, 개도국 진출 인식	3
5	민간기업 성장단계와의 연계성 - 현재/해외 진출 시점 기업 성장 정도, 효과성 제고 의견	3
총계		41

3)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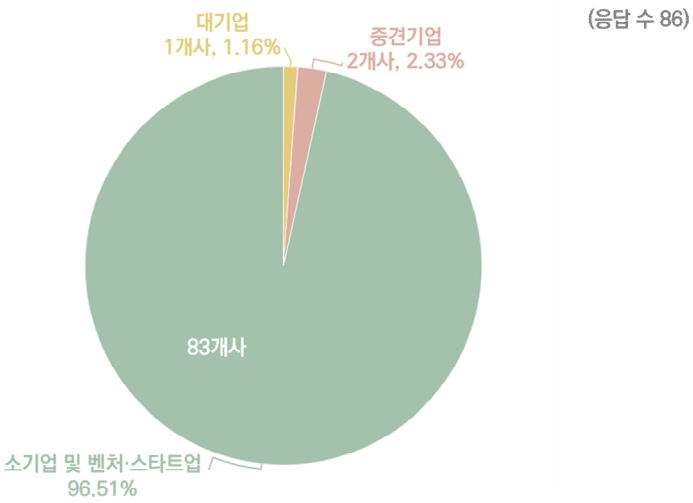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해외 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총 86개로, 기업 일반 현황 통계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0] 기업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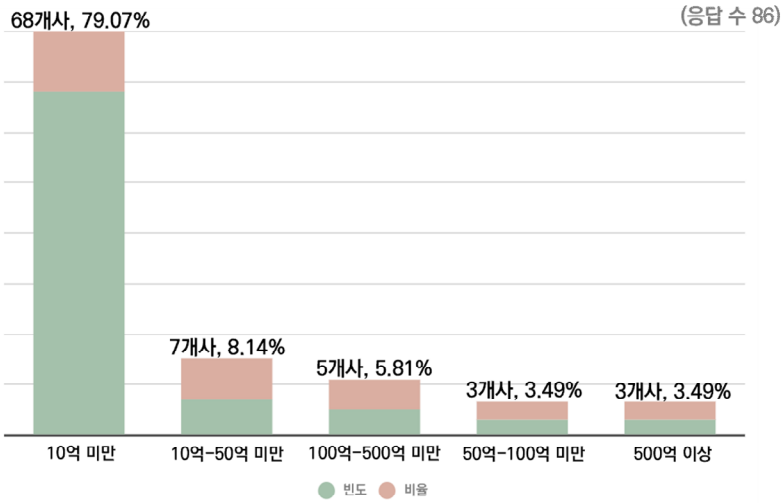


응답 기업 업종의 경우 매우 다양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업(39개사, 45.35%)과 제조업(29개사, 33.72%)이 가장 많았으며, 유통 및 프렌차이즈를 포함한 도·소매업(5개, 5.81%)과 교육서비스업(4개사, 4.65%), 전문 서비스업(3개사, 3.4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건, 금융, 문화·예술 등과 같은 전문 분야를 주로 다루는 기업은 응답률이 각 1개사(1.16%)로 응답 비중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1] 응답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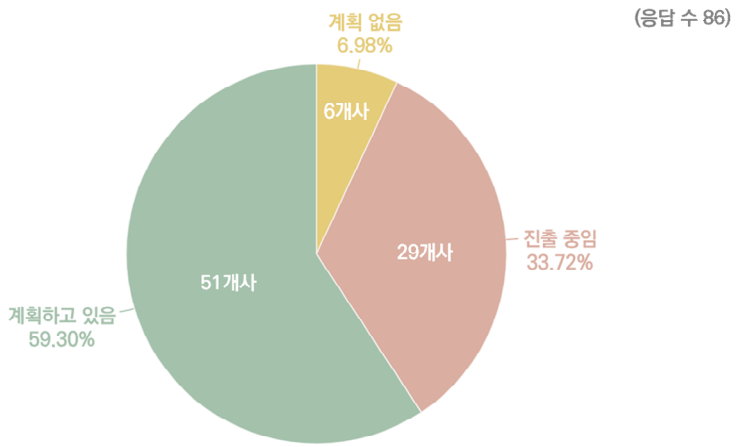


[그림 22] 매출 규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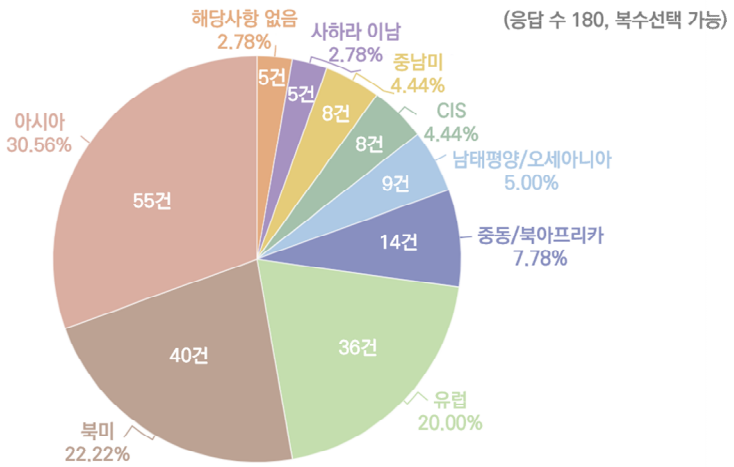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83개사, 9.51%)으로, 그중 대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규모가 10억 미만(68개사, 79.0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매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2017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45개사였으며, 그중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10개로 매출액이 계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억~50억 미만(7개사, 8.14%), 100억~500억 미만(5개사, 5.81%) 규모의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500억 이상 대규모 매출을 기록한 기업도 3개사로 3.49%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23] 해외 진출 계획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51개사, 59.30%), 이미 진출 중(29개사, 33.72%)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6개 기업(6.98%)은 해외 진출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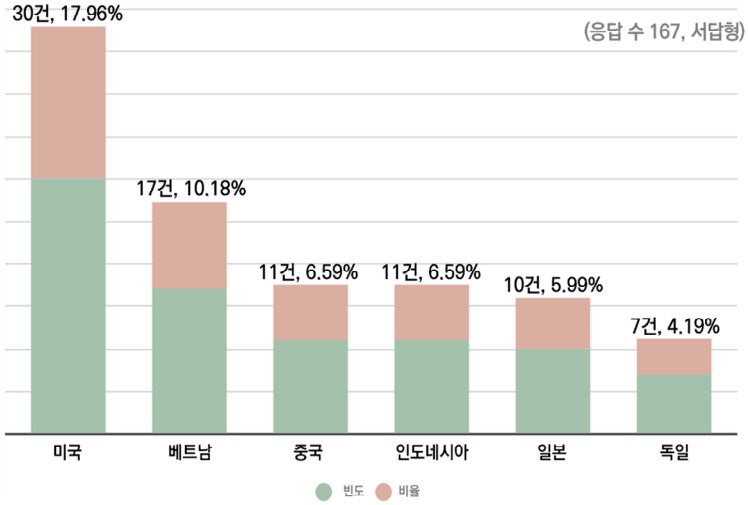
[그림 24] 주 진출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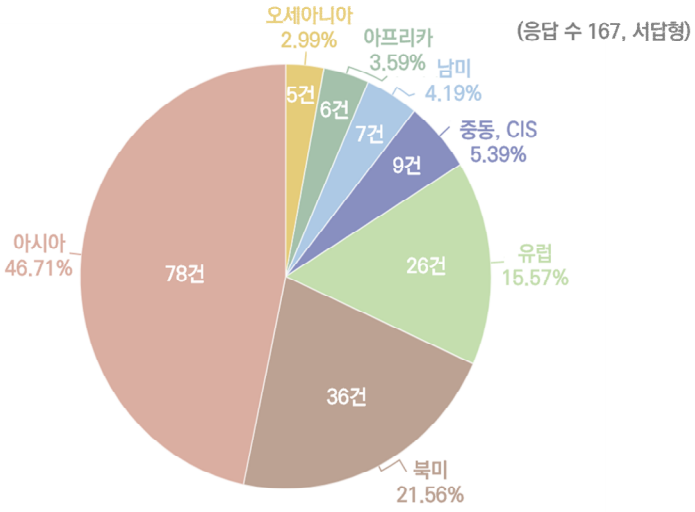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상위 5개 지역은 아시아(55개사, 30.56%), 북미(40개사, 22.22%), 유럽(36개사, 20.00%), 중동/북아프리카(14개사, 7.78%), 남태평양/오세아니아(9개사, 5.00%)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문화적, 지리적 이점에 따른 접근성이 기업 진출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먼 북미, 유럽 및 남태평양/오세아니아 지역이 다소 높은 순위를 득한 데에는 기업이 해외 진출을 ODA 및 국제개발협력 관점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단순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시장규모를 중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문항에서 낮은 응답 순위를 기록한 CIS, 중남미, 사하라 이남 지역 등 신시장은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주요 고려 대상 지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5] 구체적 진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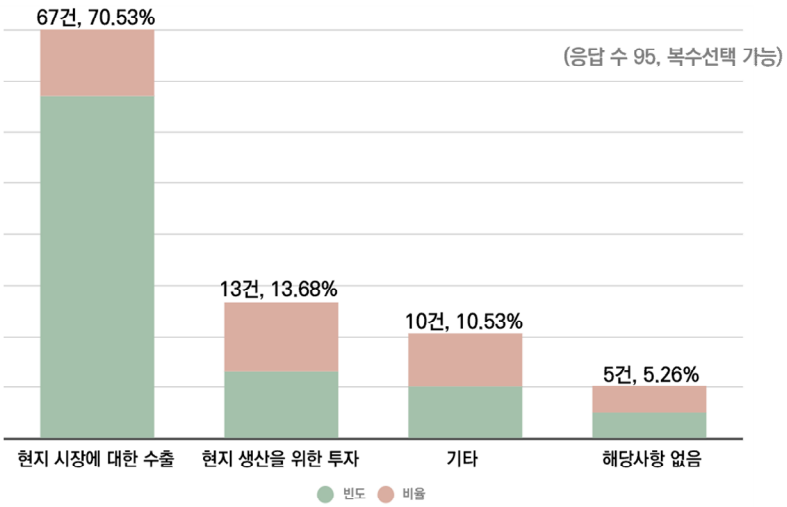
[그림 26]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작성을 요구하는 개방형 문항에는 총 167건의 응답이 중복하여 기록되었는데, 미국(30건, 17.96%), 베트남(17건, 10.18%), 인도네시아 및 중국(각 11건, 6.59%), 일본(10건, 5.99%)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거대시장과 신시장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의향이 있음이 드러난 한편, 이러한 응답을 대륙별로 다시 매핑하면 [그림 26]과 같으며, 그 수치는 앞서 살펴본 [그림 24]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7] 기업 해외 진출 동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은 현지 시장에 대한 수출(67건, 70.53%)을 가장 주된 동인으로 손꼽았으며, 현지생산을 위한 투자(13건, 13.68%)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회사 및 지사 설립, 국내보다 큰 시장규모, 해외사업 및 투자 유치, 현지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이 언급되었는데,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은 경영활동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꾀하기 위함으로 귀결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각 문항(△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 △민간기업 성장단계와의 연계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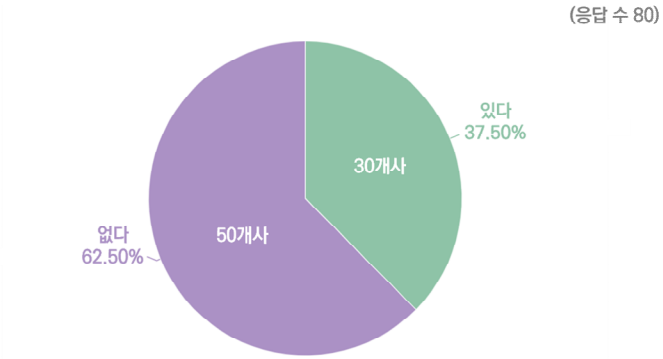
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 프로그램 참여 여부

본 장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보유 여부에 따라 기업군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해외 진출 동인을 분

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86개 기업 중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6개 기업을 제외한 80개 기업이 본 설문의 변인으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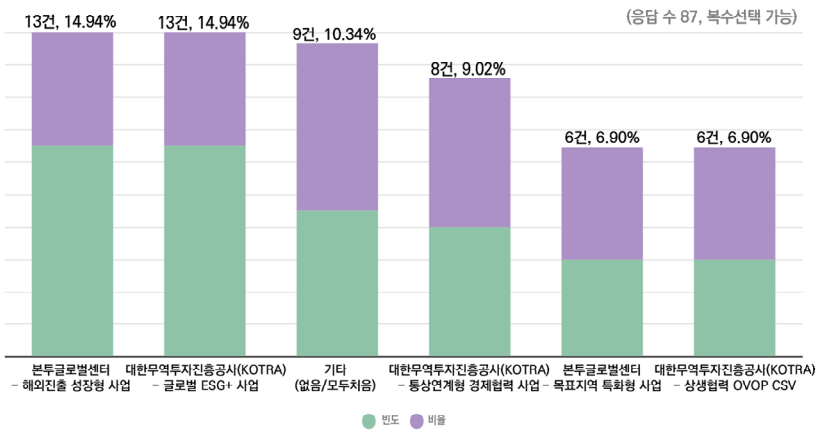
[그림 28]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그 중 50개사(62.50%)가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30개사(37.50%)는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미보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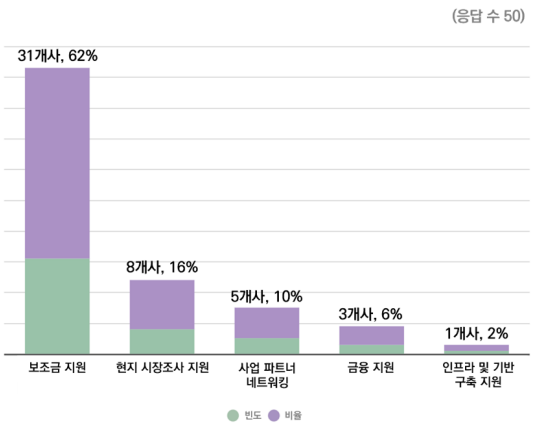
[그림 29]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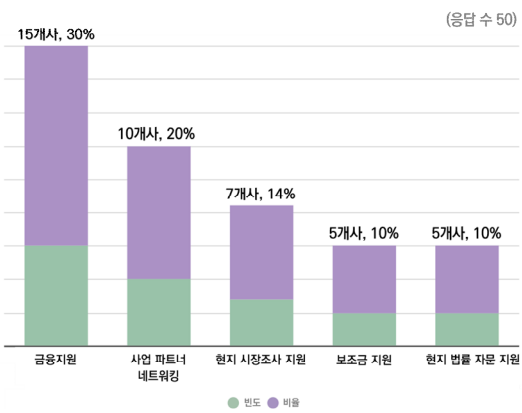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50개사를 대상으로 KOICA를 제외한 한국에너지공단(K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어촌공사(KRC) 등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34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림 29]는 상위 5개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로, 본투글로벌센터-해외

진출 성장형 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글로벌 ESG+사업이 동일하게 각 13건(14.94%)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8건, 9.20%), 본투글로벌센터-목표지역 특화형 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상생협력 OVOP CSV 사업(각 6건, 6.90%)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보기로 제시된 34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사례도 9건(13.34%)으로 타 응답과 비교해 적지 않은 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의 프로그램 관심도나 인식 정도에 기인한 결과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설문 항목을 통해 도출된 민간기업의 프로그램 인식 상위 5개가 모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본투글로벌센터 주관 프로그램임에 따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의 유관 정부 기관 인식 또한 응답 결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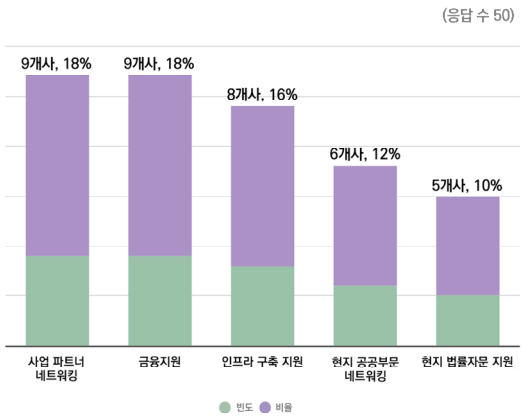
[그림 30]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1순위)



[그림 31]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2순위)



[그림 32]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3순위)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원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금융, 법제도, 네트워킹 등 6개 동일 항목에 대한 1~3순위 선호 여부를 조사하였다.

1순위는 보조금 지원(31개사, 62%),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8개사, 16%),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5개사, 10%), 금융지원(3개사, 6%) 등으로 드러났다. 2순위 역시 금융지원(15개사, 30%),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10개사, 20%),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7개사, 14%), 보조금 지원 및 현지 법률자문 지원(각 5개사, 10%)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3순위는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각 9개사, 1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8개사, 16%), 현지 공공부문 네트워킹(6개사, 12%), 현지 법률자문 및 보조금 지원(각 5개사, 10%)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응답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원 범위의 1~3순위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조금과 같은 금융기반 지원이나 사업 파트너 및 현지 공공기관 네트워킹, 현지 법률 자문 등 인적자원 기반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언어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요소가 비교적 낮은 중요도로 고려되는 이유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으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현지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확장 발판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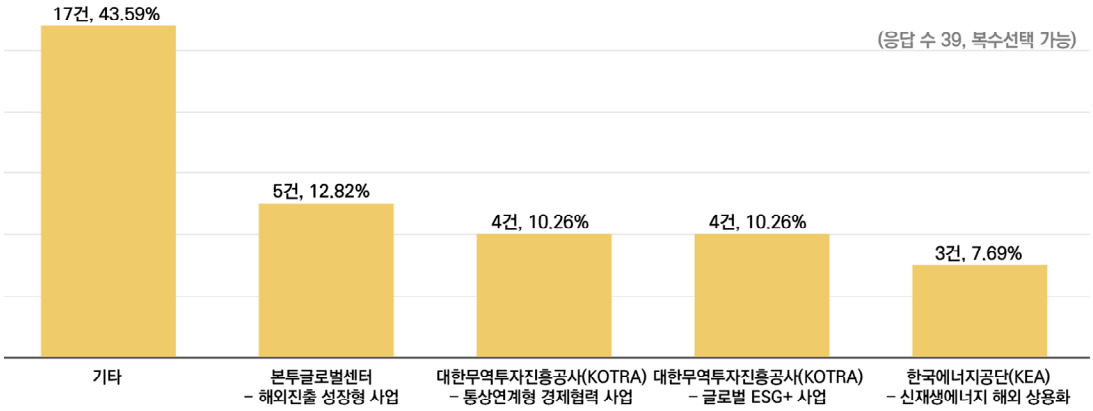
실제로, 상기 답변을 1~3순위로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개방형 문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답변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 초기 필요 지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요구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5]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지원 1~3순위 선정 사유

-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하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기에 사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이 중요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진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 자금 협조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현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현지 진출 가능성 평가의 근간
- 초기 자본 투자 및 시장조사 완료 이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사업 추진 용이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은 그 자체로 기업 실적이 되어 향후 비즈니스 추진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
-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해외 진출에 있어 법적, 제도적 문제에 당면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므로,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 극복 가능

다)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보유 기업

[그림 33]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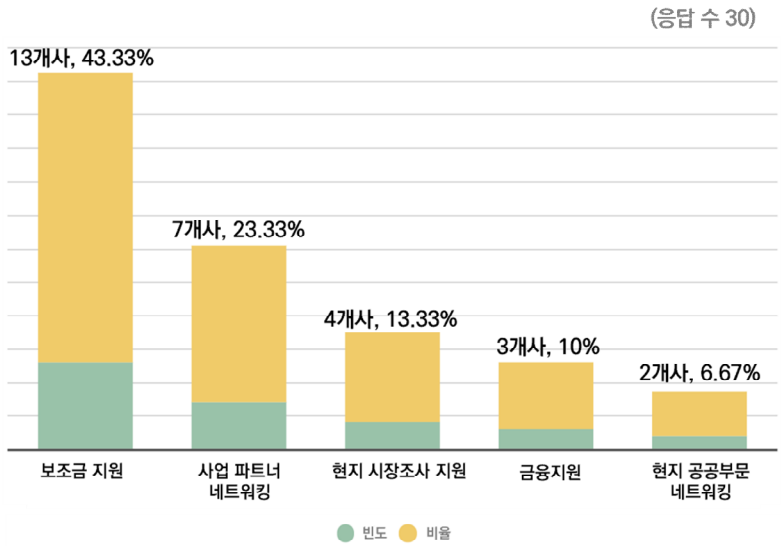
앞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간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KOICA를 제외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34개에 대한 참여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33]은 상위 5개 프로그램의 조사한 결과로, 본투글로벌센터-해외진출 성장형 사업(5건, 12.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 및 글로벌 ESG+사업(각 4건, 10.26%), 한국에너지공단(KEA)-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3건, 7.69%) 사업이 상위 빈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 50개사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조사 결과*([그림 29] 참고)와 다소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민간기업 대상 본투글로벌센터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관 인지도가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보다 높거나, 타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기업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지원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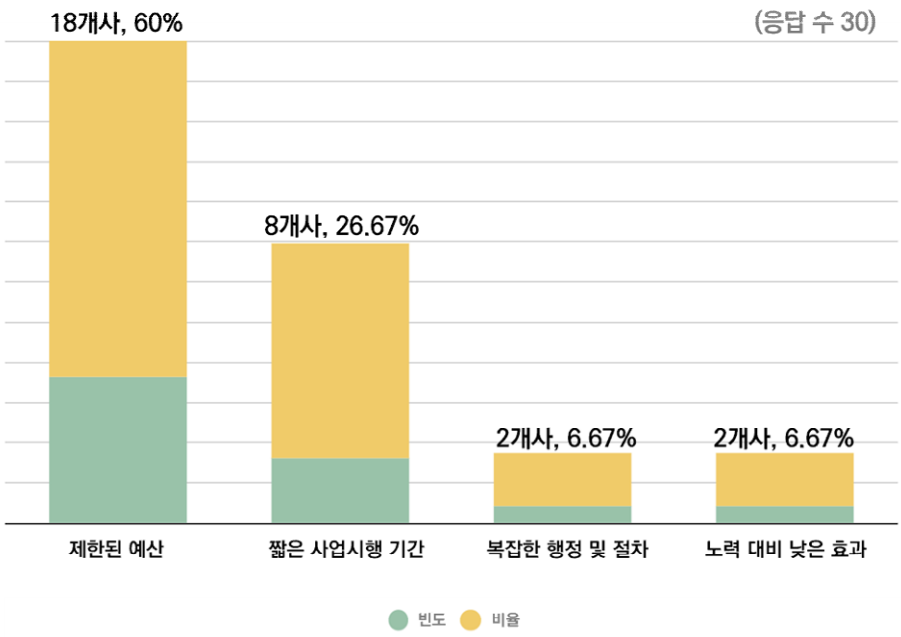
더불어, 본 항목에서 민간기업은 연구진이 제시한 34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17건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 환경산업기술원-우수환경기업해외수출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서비스문두스 및 해외지사화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 다양하고 분야 특화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4]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인



국내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장 큰 계기는 역시 보조금 지원(13개사, 43.33%), 금융지원(3개사, 10.00%) 등 사업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7개사, 23.33%), 현지 시장조사 지원(4개사, 13.33%), 현지 공공부문 네트워킹(2개사, 6.67%) 등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사업 기반 마련 차원의 유관 프로그램 참여 동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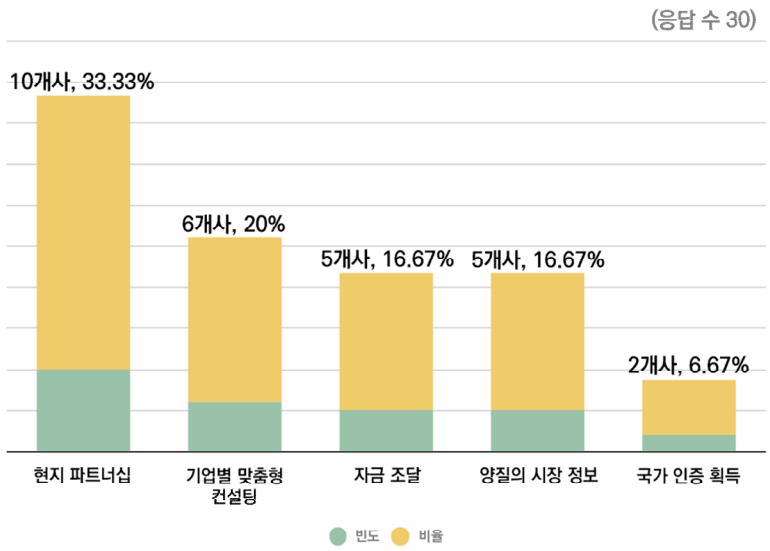
[그림 35]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웠던 점



다만,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제한된 예산(18개사, 60%)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민간기업 중 대부분은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받기 위하여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조사된 바 있는데,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겪었던 어려움으로 제한된 예산이 손꼽힌 점으로 미루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짧은 사업시행 기간(8개사, 26.67%), 복잡한 행정사무/절차 및 노력 대비 낮은 효과(각 2개사, 6.67%)가 그 뒤를 이었다. 미루어 보건데 이는 민간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이한 업무 생태계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라고 여겨지므로, 프로그램 주관 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기업 친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그림 36]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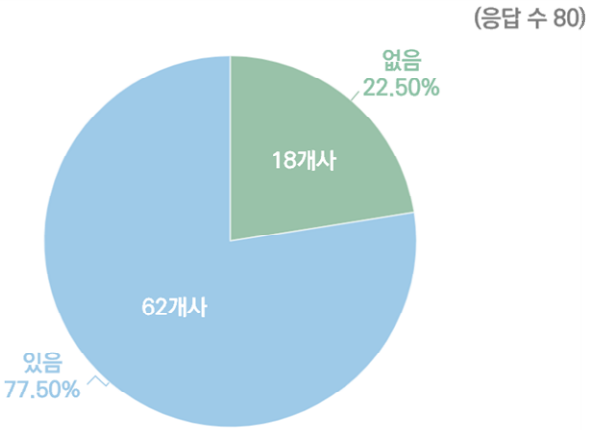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받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30개사 중 10개사(33.33%)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6개사, 20%), 자금 조달 및 양질의 시장 정보 획득(각 5개사, 16.67%), 국가 인증 획득(2개사, 6.6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민간기업에 예산 지원뿐 아니라 인증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관련

가) 개도국 진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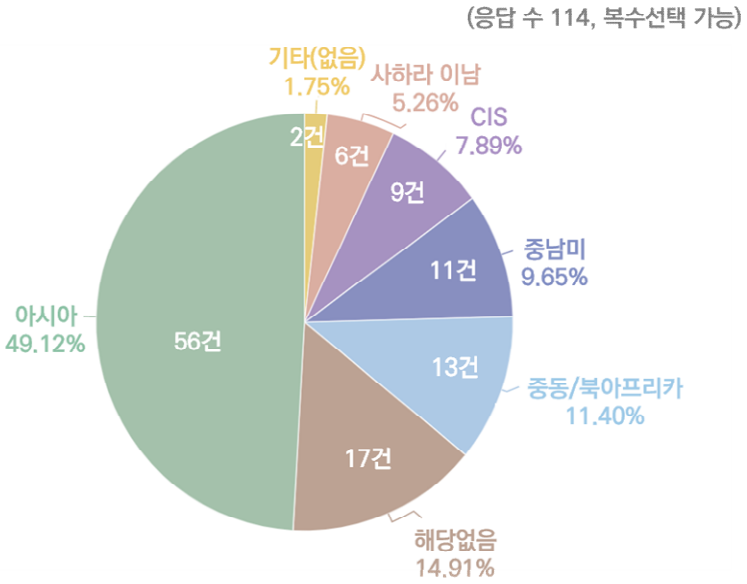
[그림 37] 개발도상국 진출 의향



본 장에서는 향후 개발도상국 진출계획 여부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보유 여부에 따라 기업군을 구분하여 해외 진출 및 프로그램 참여 동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86개 민간기업 중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6개 기업을 제외한 80개 기업이 본 설문의 변인으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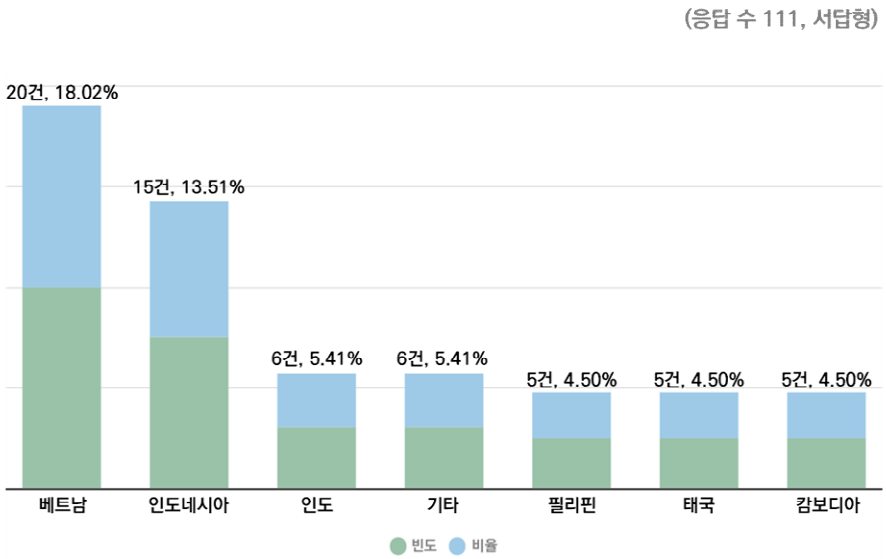
그 중 62개사(77.50%)가 개발도상국 진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8개사(22.50%)는 개발도상국 진출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장의 변인이 해외 진출 계획 여부에 따라 나누어졌으며,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80개사가 최종 변인으로 설정되었음을 참작할 때,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은 상대국의 사업 여건 및 사업성, 수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반드시 개발도상국이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주 진출 대상 지역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을 조사했으며, 총 114건의 응답이 중복해서 기록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56건, 49.12%)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중동/북아프리카(13건, 11.40%), 중남미(11건, 9.65%), CSI(9건, 7.89%), 사하라 이남(6건, 5.26%)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지역 선호도는 지리적·문화적 조건, 국가 간 관계 및 협정 등 사업 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9] 구체적 진출 대상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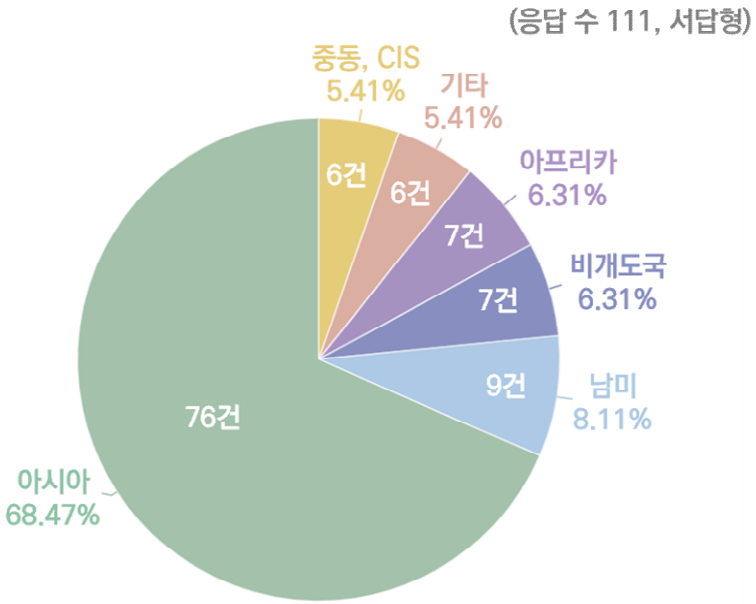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작성을 요구하는 개방형 문항에는 총 111건의 응답이 중복하여 기록되었는데, 베트남(20건, 18.02%), 인도네시아(15건, 13.51%), 인도(6건, 5.41%),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각 5건, 4.50%)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상위 국가 모두 아시아권에 속해있음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진출 선호도는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위치, 국내 유수 기업의 오래된 진출 역사로 인한 원활한 사업환경, 국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의 경우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와 인도에 대한 지원 규모 및 협력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민간기업이 진출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0]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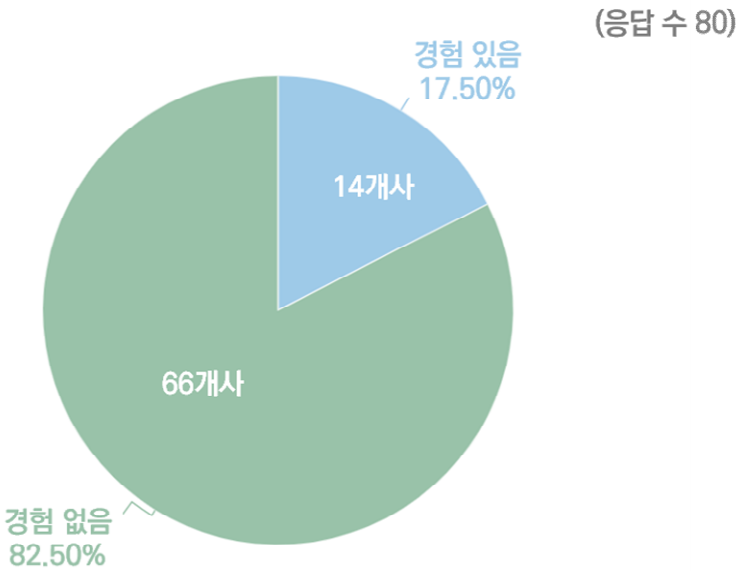


이러한 응답을 대륙별로 다시 매핑하면 [그림 40]과 같으며. 아시아(76건, 68.47%), 남미(9건, 8.11%), 아프리카(7건, 6.31%), 중동·CIS·기타(6건, 5.41%)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살펴본 주 진출 대상 지역과 매우 유사하게 드러났다.

다만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을 질의한 본 문항에 미국, 두바이, 중국 등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 및 선진국을 선택한 사례

도 7건 집계되었다. 이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일부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사업의 수혜 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개발 컨텍스트 합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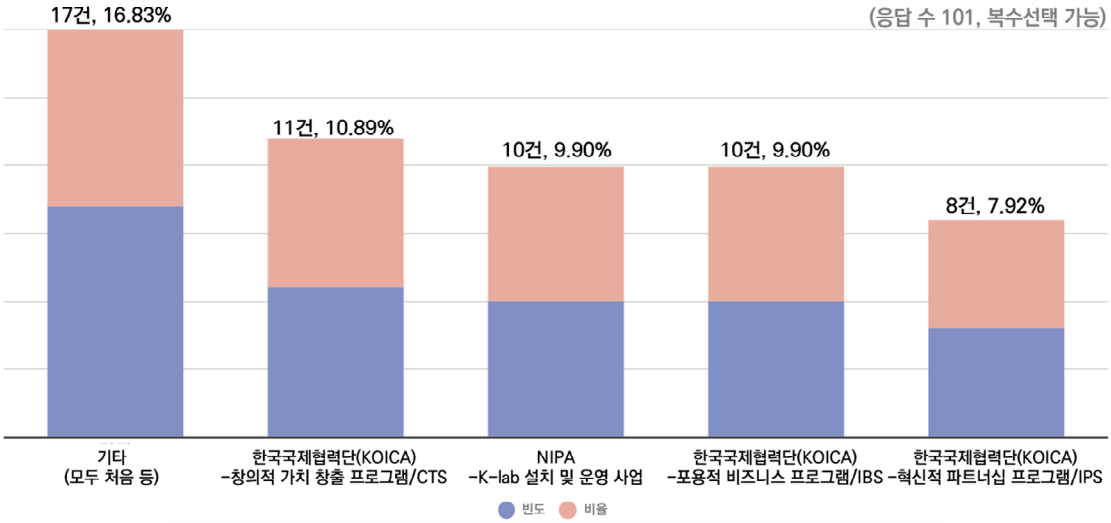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86개 기업 중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6개 기업을 제외한 80개 기업이 변인으로 설정되었으며, 그중 82.50%에 해당하는 66개사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14개사(17.5%)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세부원인 및 참여 동인 등을 분석해보겠다.

나)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미보유 기업

[그림 42]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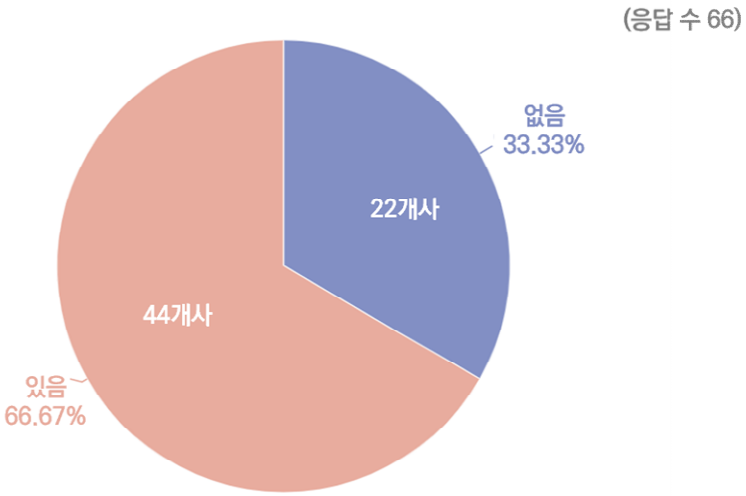


먼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DCF, NIPA 등 총 10개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21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총 101건의 응답이 복수 기록되었다.

조사 결과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17건(16.68%)을 제외하고, KOICA의 CTS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10건, 10.89%)을 차지했으며, NIPA K-Lab 설치 및 운영사업(10건, 9.90%), KOICA IBS 프로그램(10건, 9.90%) 및 IPS 프로그램(9건, 7.92%) 순으로 상위 인지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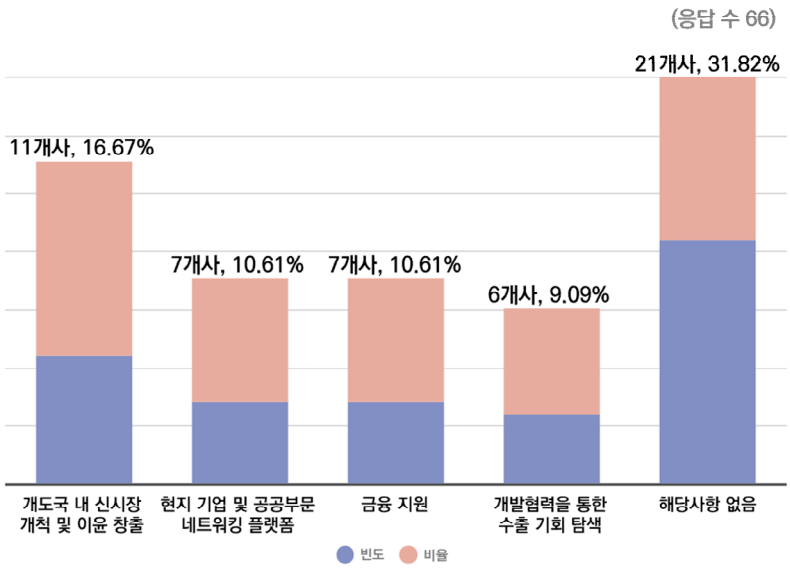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설문이 KOICA IBS 프로그램을 참여한 기업을 포함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인지도 순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이에 실제 민간기업 대상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인지도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의 다양한 민간부문 협력 프로그램 인지도는 타 기관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3] 향후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의향



기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조사해보았다. 그 중 44개사(66.67%)가 추후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22개사(33.33%)는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림 44]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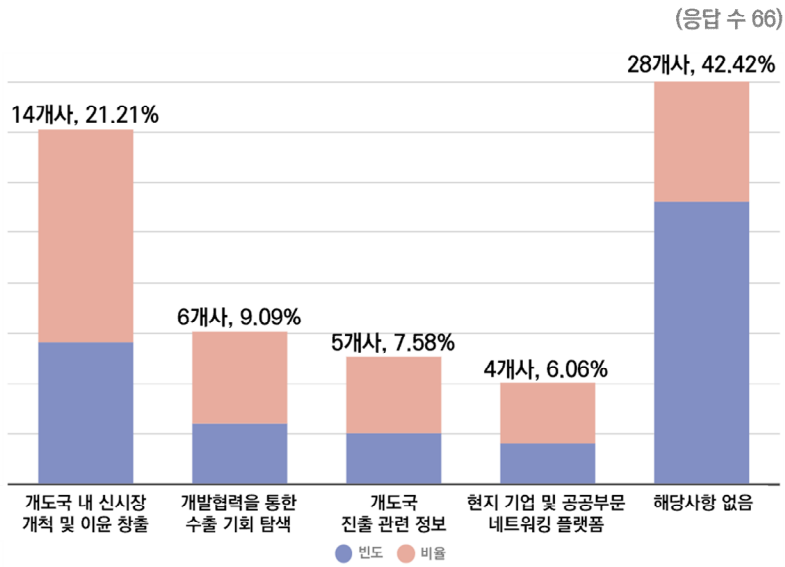
추후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동인으로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11개사, 16.67%)이 가장 높았으며,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과 금융지원(각 7개사, 10.61%),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6개사, 9.0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그림 34]를 통해 살펴본 민간기업의 우리 정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인이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 예산 관련으로 편중되어있는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을 기존 진출 대상 지역과는 다른 신시장으로 인식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탐색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 금융지원과 마찬가지로 현지 공공기관이나 민간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해소해 나가길 희망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45]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시 예상 시너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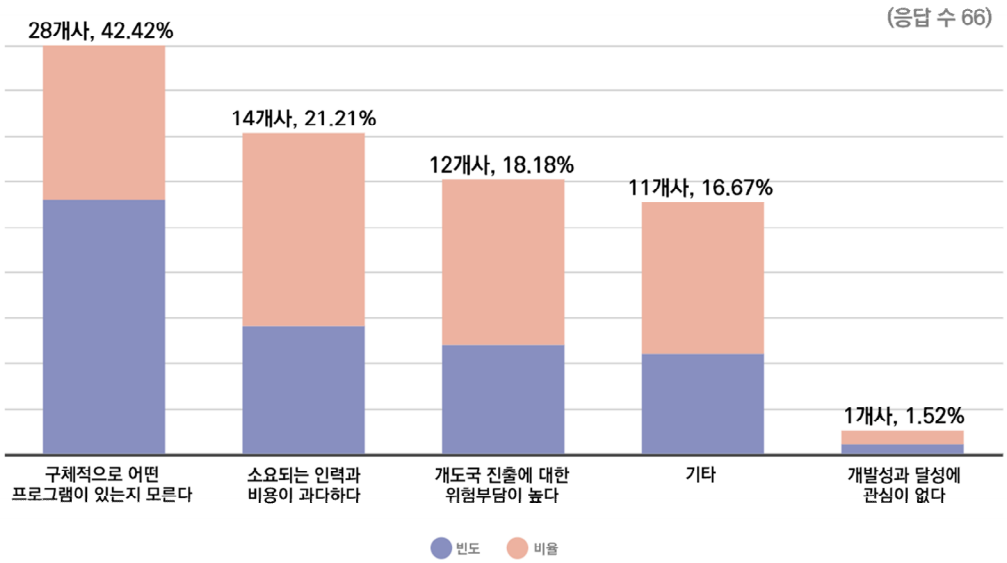


[그림 45]는 개발도상국 진출 의향은 있으나 기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66개 기업이, 향후 유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유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 14개사, 21.21%로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6개사, 9.09%),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5개사, 7.58%),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4개사, 6.0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문항의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50% 이상 월

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는,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에 따라 창출 가능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림 46]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인



반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이를 저해하는 장애요인도 동시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거의 50%에 달하는 민간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28개사, 42.42%)했으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고(14개사, 21.21%), 개도국 진출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높은 것(12개사, 18.18%)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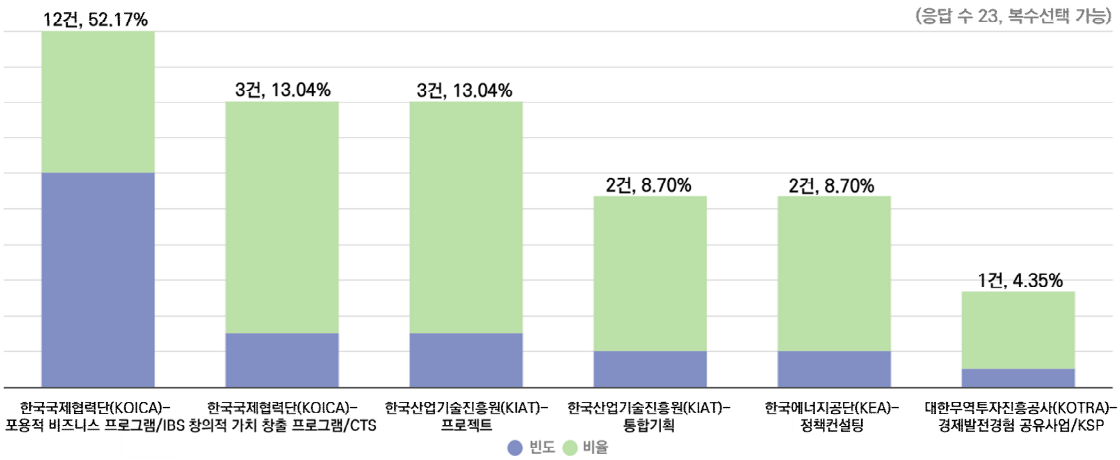
이 외에도 프로그램 취지가 회사 사업 방향과 맞지 않거나, 개도국 진출 이전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비즈니스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예도 있었으며, 참여 의향이 있고 실제로도 프로그램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나 선정되지 못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 외에 추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업 운영 방향과 맞지 않으면 참여 지원을 제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개발도상국은 추후 성장 가능성 큰 신규 시장이긴 하나 그만큼 여러 리스크도 수반되기에, 진출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함을 분석해볼 수 있다.

다)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보유 기업

본 장에서는 기존 개발도상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개 기업의 참여 이력 및 동인, 참여를 통한 교훈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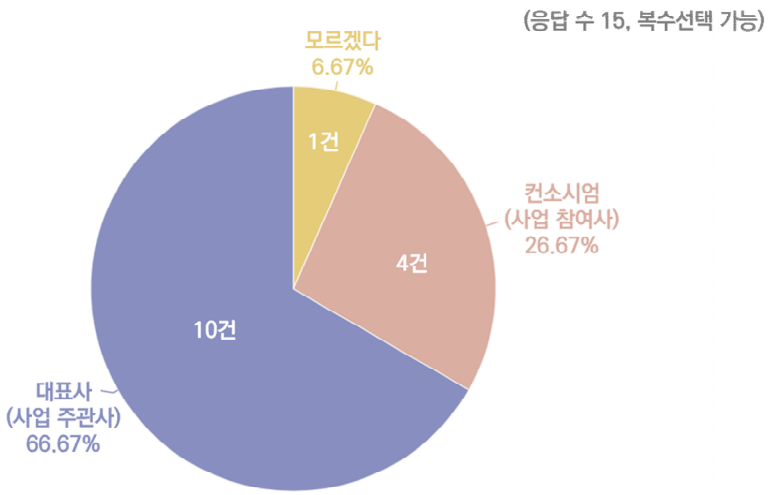
[그림 47]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DCF, NIPA 등 총 10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21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총 23개 응답이 복수로 기록되었으며, KOICA IBS 프로그램(12건, 52.17%)에 대한 기업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KOICA CTS 프로그램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프로젝트(각 3건, 13.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통합기획 및 한국에너지공단(KEA) 정책컨설팅(각 2건, 8.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1건, 4.35%)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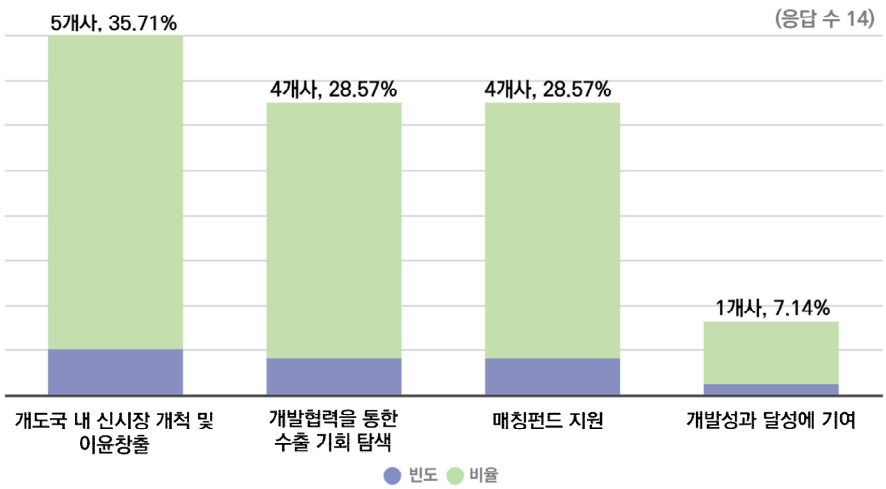
타 시행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율과 비교해 KOICA IBS, CTS 프로그램 참여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본 설문조사가 KOICA IB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데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8]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형태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대표사(10건, 66.67%)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 참여사인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4건, 26.67%)도 있었다.

[그림 49]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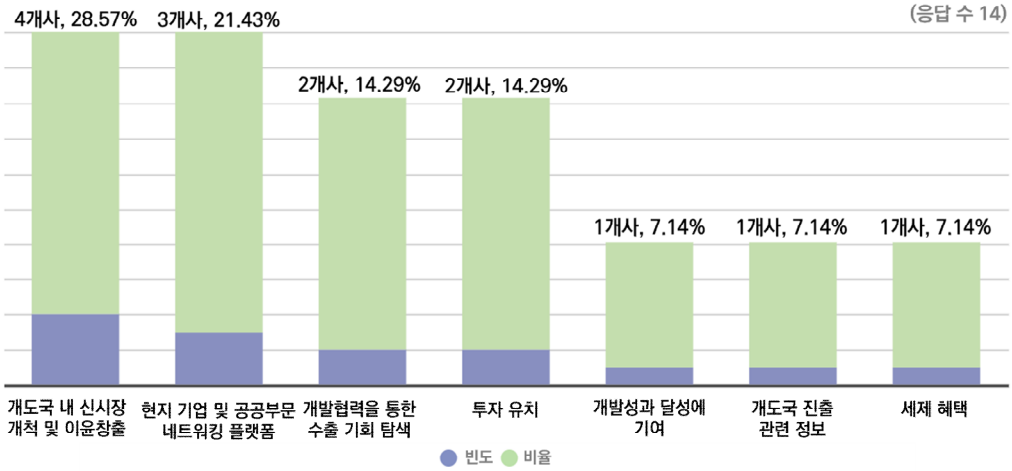


국내 민간기업의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동인으로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5개사, 35.71%),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및 매칭펀드 지원(각 4개사, 28.57%)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 변인 대비 1개사(7.14%)로 매우 낮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도상국 대상 기업 신시장 개척 등 비즈니스 부문 지원 외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도국 특화

/PSE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사 및 사업 발굴을 위한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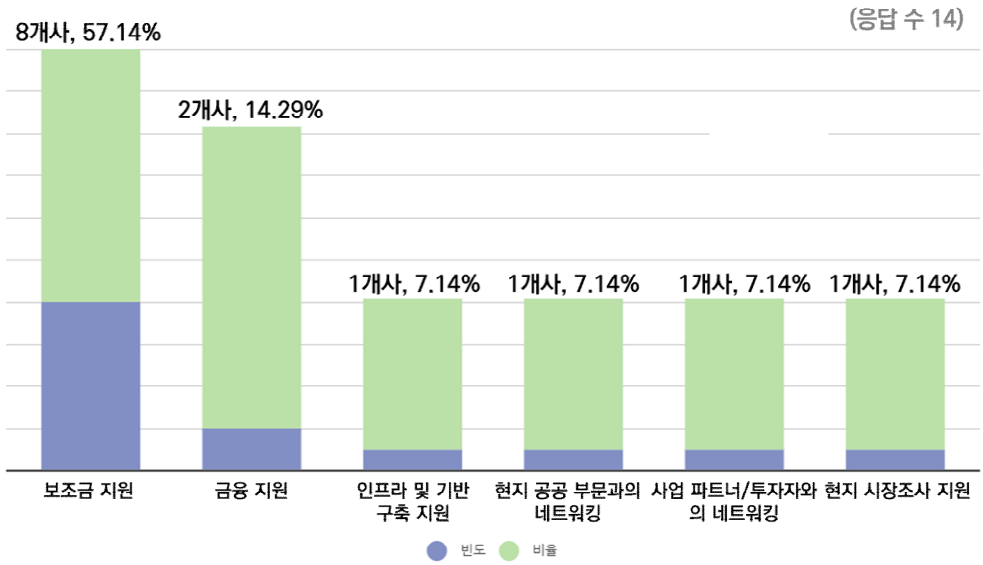
[그림 50]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14개 모든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문항은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4개사, 28.57%)이었으며,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3개사, 21.43%),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및 투자유치(각 2개사, 14.29%)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를 통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현지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이라는 프로그램 참여 동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성과 달성 기여,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습득, 세제 혜택(각 1개사, 7.14%)과 같은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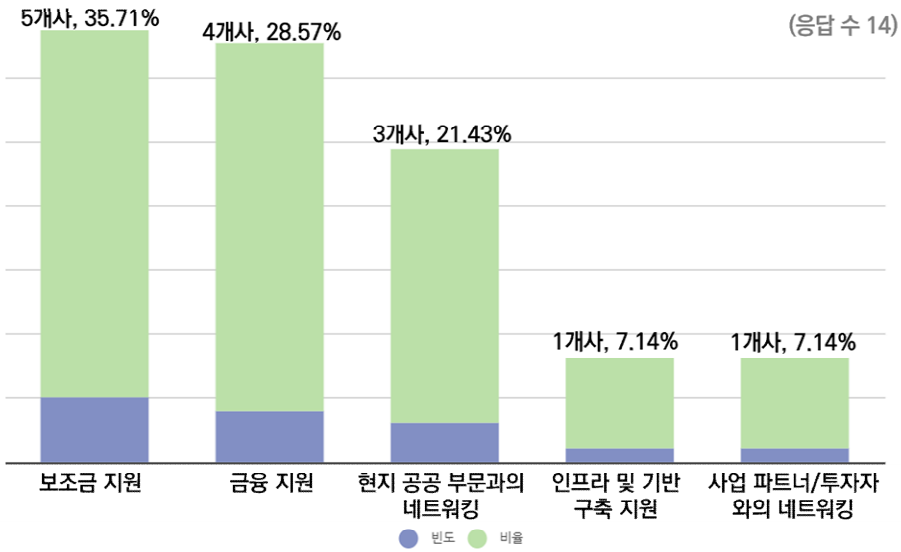
[그림 51]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효과성



민간기업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8개사, 57.14%) 및 금융 지원(2개사, 14.29%) 등 기업 경영 및 활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재정적 부문에서의 지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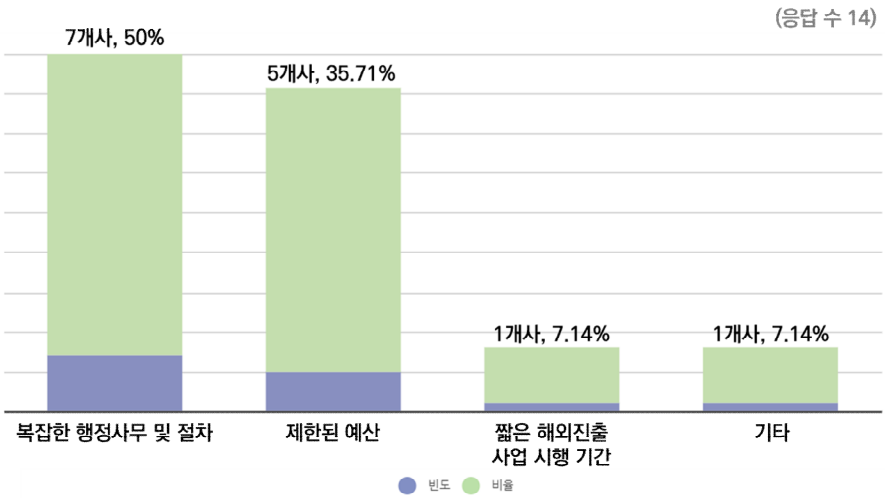
또한,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 현지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 현지 시장조사 지원(각 1개사, 7.14%)과 같은 부문에서도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2] 추후 지원 확대 필요 사항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 특화/PSE 참여사 중 30%에 달하는 기업이 매칭펀드를 통한 지원을 기대하고, 실제로도 [그림 51]과 같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지원에 대한 응답은 역설적으로 보조금 지원(5개사, 35.71%) 및 금융지원(4개사, 28.57%)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제 프로그램에서의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후속 무상지원 또는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3]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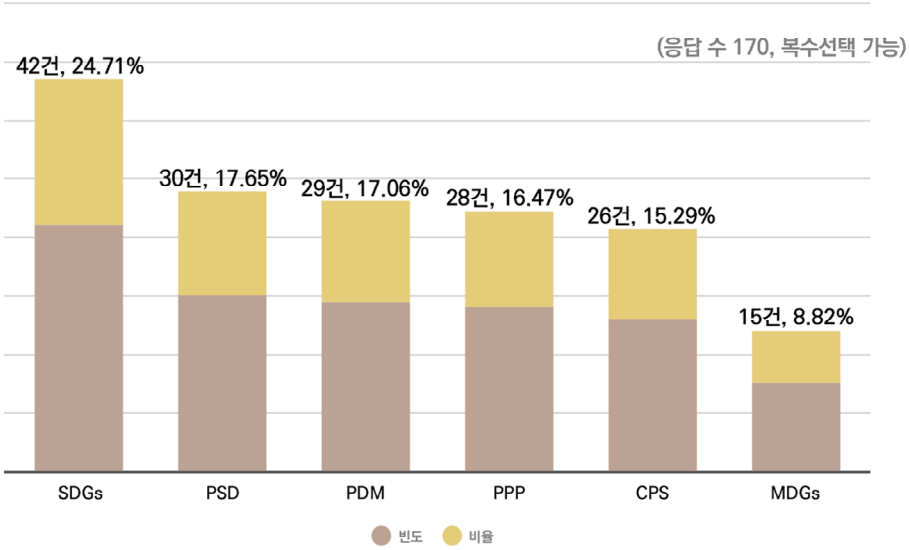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복잡한 행정사무 및 절차(7개사, 5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한된 예산(5개사, 35.71%) 및 짧은 해외 진출 사업 시행 기간(1개사, 7.14%)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지에서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상황에 대하여, 사업 진행 본부에서 융통성 있는 예산 집행 및 증빙 간소화를 호소했으며,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비즈니스 상황에 맞추어 복잡한 행정사무 및 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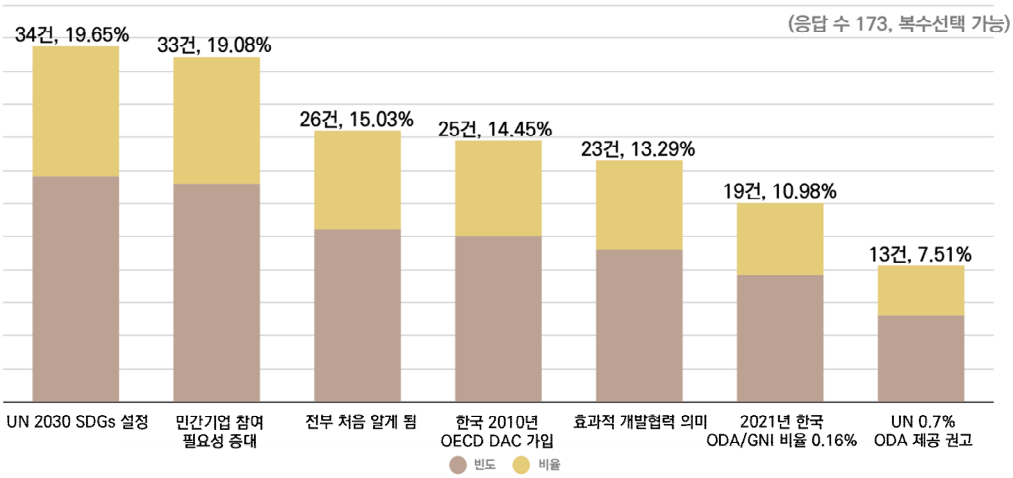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인지 정도를 함께 파악하여 설문 결과 분석에 참조하였다. 인식조사는 개발된 조사 도구 내 개발협력 용어 및 개발협력 역사 간 주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2개 선택형 문항,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1개 선택형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54]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ODA 용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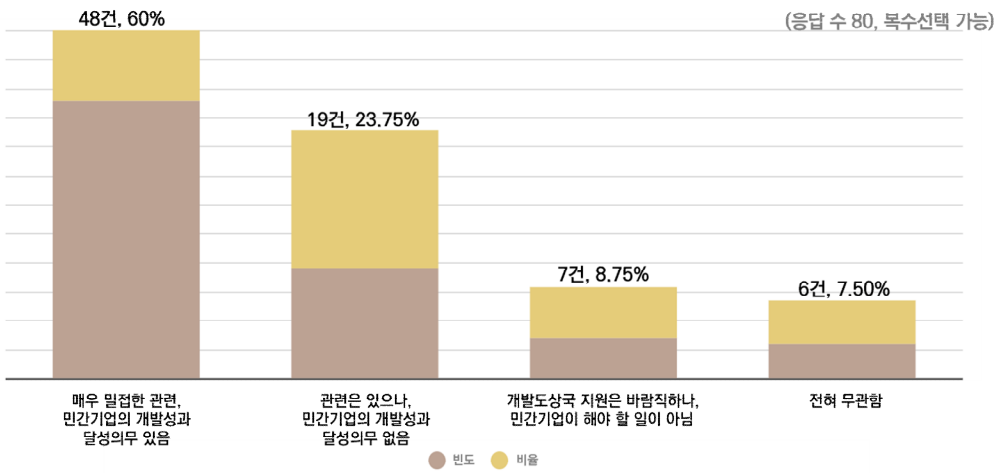
[그림 54]와 같이 국내 민간기업은 기업별 인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용어를 고루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응답 수를 기록한 용어는 SDGs(42건, 24.71%)로, PSD(30건, 17.65%), PDM(29건, 17.06%), PPP(28건, 16.47%), CPS(26건, 15.29%), MDGs(15건, 8.82%)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진출,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 진출을 꾀하는 우리 민간기업은 대체로 2030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민간부문 개발(PSD) 및 기업 참여 민관협력(PPP) 등과 같은 개발협력사업 내 민간기업의 참여에 관한 용어 또한 일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체로 성과관리모형/프로젝트기획매트릭스(Project Design Matrix, 이하 PDM) 및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와 같은 용어는 실제 협력 사업을 진행, 또는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빈도가 높은데, 응답 기록 수가 실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기업의 수(총 86개 기업 중 30개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실무 과정에서 습득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55]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 ODA 연보 인식



[그림 55]는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의 연보 내 대표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34건, 19.6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개발협력 용어 중 SDGs를 가장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DGs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필요성의 증대(33건, 19.08%), 2010년 대한민국 OECD DAC 가입(25건, 14.45%),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의미(23건, 13.29%) 문항 또한 대체로 높은 인식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실에 대해 전부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사례도 26건(15.03%)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협력 용어를 단순히 접해봤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6] 민간기업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 / 개발효과성 인식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방향성 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진출에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개발성과 달성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총 48개사(60%)로 과반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응답은 관련은 있으나 민간기업의 개발성과 달성 의무는 없다(19개사, 23.75%), 개발도상국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민간기업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7개사, 8.75%), 전혀 무관하다(6개사, 7.50%) 등 다소 부정적이거나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지원과 민간기업의 관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한 기업친화적 무상협력분야 협력전략 수립으로 정부와 기업 상호 상생 가능한 협력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개발효과성 인식 측면에서 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본 문항을 달리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에 개발성과 달성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절대 값은 PSE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비교해 미참여 기업이 더 높긴 하나, 이외 개발효과성이 없다고 고려할 수 있는 문항 응답에 PSE 미참여 기업의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PSE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해 본 기업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라. 민간기업 성장단계와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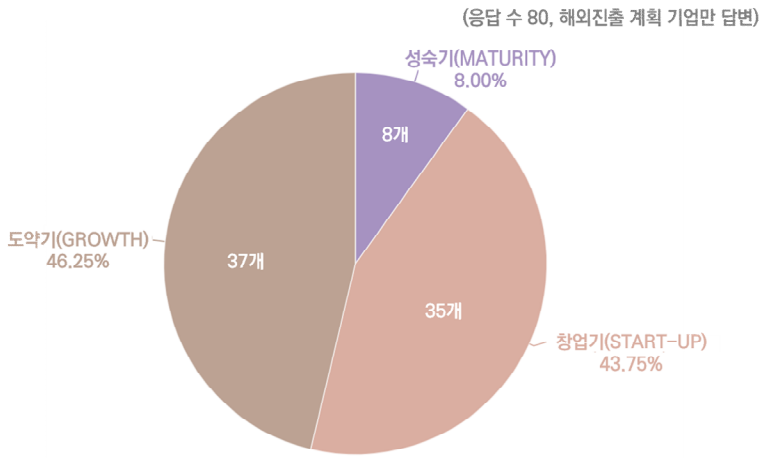
민간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기-도약기-성숙기 등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이라고 일컬으며, 단계별 특징은 하기 [표 26]과 같다.

[표 26] 민간기업 성장단계(Life Cycle)

구분	내용 및 특징
창업기 (Start-Up)	- 신제품 시장 소개 - 저매출, 고비용, 저수익 단계
도약기 (Growth)	- 초기 고객이 증가하는 창업 3~7년차 - 기존 고객의 반복 구매 발생 및 고속 성장
성숙기 (Maturity)	- 기업 매출이 최고조에 이르고, 매출 신장세는 정체하는 시기 - 신규고객 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단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에 해외 진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자사 성장단계를 자가 진단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기 [그림 57]과 같이 조사되었다.

[그림 57] 응답 기업 성장단계 자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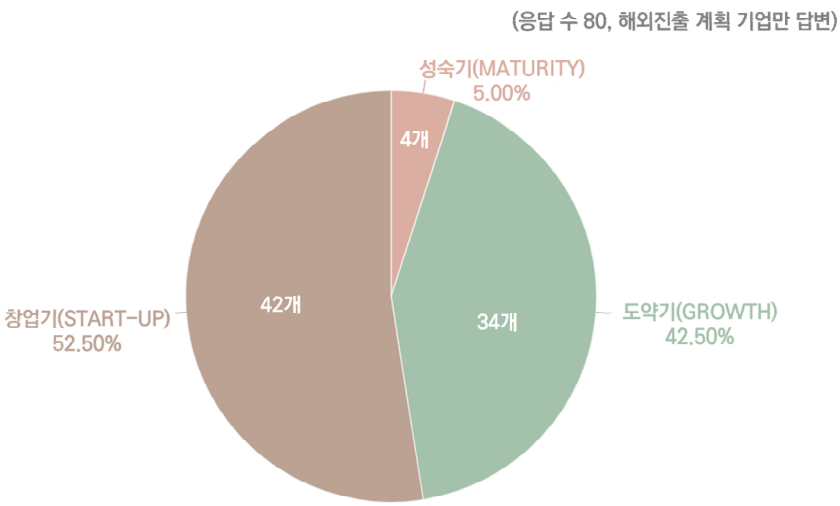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대부분의 설문 참여 기업은 자사 성장단계가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 초기-중기에 해당하는 창업기(35개사, 43.75%) 및 도약기(37개사, 46.25%)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으며, 성숙기라고 인식하는 기업 비중은 8%(8개사)로 다소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업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에 의한 응답이기 때문에, 업력이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계상된 결과값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기업 성장단계가 도약기(Growth)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기업도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례가 있었으며, 창업 이후 5년 이상 된 기업이 창업기(Start-up)라고 답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조사 값이 아닌 기업 담당자의 주관적 견해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8] 응답 기업 해외진출 결정 시기 성장단계 자가 진단



이들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결정한 당시 자사 성장단계를 자가 진단한 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변인으로 설정된 80개 기업 중 52.50%에 해당하는 42개사가 창업기에 해외진출을 결정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34개사가 도약기(42.50%), 4개사가 성숙기(5.00%)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민간기업은 기업 창립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기별 프로그램 및 차별화를 통해 성장단계가 상이한 기업이 각 단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야할 것이다.

2. KOICA CTS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19]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PSE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CTS-DAY에 참석한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배부했으며, 2차 조사는 KOICA CTS 참여 기업 또는 잠재적 참여 대상으로 이메일로 160건 추가 배부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회수현황은 하기 [표 27]과 같다.

[표 27] KOICA CT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황

구분 및 대상		조사 기간	배부	회수	응답률
1차조사	CTS-DAY[20] 참여 기업 대상	2022.05.10.	17건	36건	20.34%
2차조사	개발협력 참여(또는 참재참여)	2022.08.09. 2022.08.15.	160건		

2) 조사도구

KOICA CTS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설문 문항은 총 69 문항으로 기업의 정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 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동

19)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예비창업가, 소셜벤처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 개발 및 현지 실증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20) C-Day : 2022년 사업 착수 현황 발표
T-Day : 2021년 사업 중간 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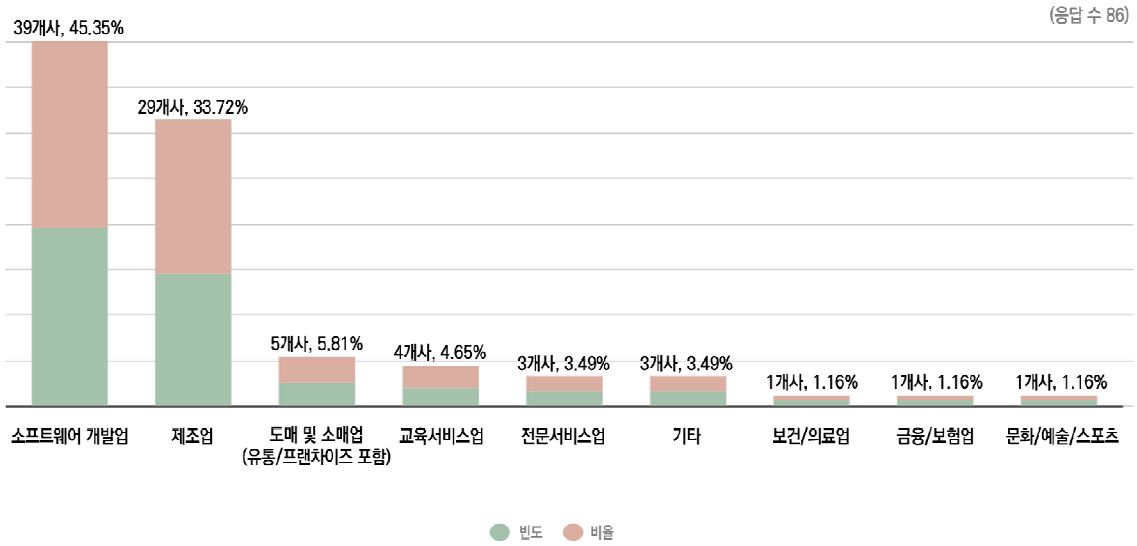
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 내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론과 목적에 대한 기초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추후 대한민국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 협력전략 수립 시, 정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인식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걸친 인지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기업 일반 현황	1차 설문: 기업 일반 현황 - 설립연도, 업종,규모, 평균 매출, 해외 진출 계획	8
	2차 설문: 기업 일반 현황 - 설립연도, 업종,규모, 평균 매출, 해외 진출 계획	8
PSE 참여 및 향후 계획	1차 설문: PSE 참여 경험 - 참여 여부, 참여 횟수, 규모, 지역, 참여 동인, 장애요소	7
	1차 설문: 향후 PSE 참여 의향 - 참여의향, 희망 비즈니스모델, 규모, 지역, 희망 동인	9
CTS 참여	2차 설문: CTS 프로그램 참여 관련 - 참여 여부, 필요 지원 우선순위, 참여 동인, 참여 교훈	9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2차 설문: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련 - 개도국 진출 의향, 참여 여부, 참여 동인, 참여 교훈, 장애요인	5
국제개발협력 참여	1차 설문: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 - 경험여부, 사업규모, 형태. 지역	7
개발협력 및 ODA 이해	1차 설문 :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파악 - 목적과 방법, 기관내 PSE 이해	3
	2차 설문: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 조사 -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론 인지도, 개도국 진출 인식	3
총계		69

3)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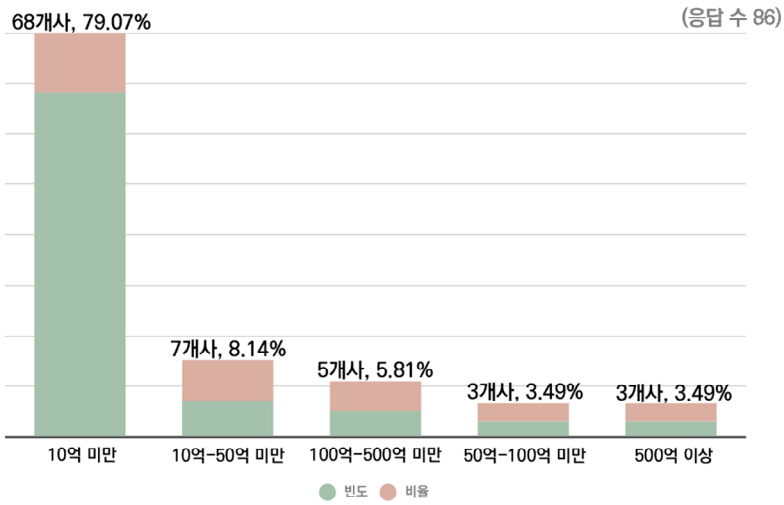
1차, 2차 설문 조사에 응답한 CT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총 36개 기업으로, 기업 일반 현황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7개 기업이 1차, 2차 설문 조사에 모두 응하여, 기업 일반현황의 중복된 응답은 제외하고 29개 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9] 기업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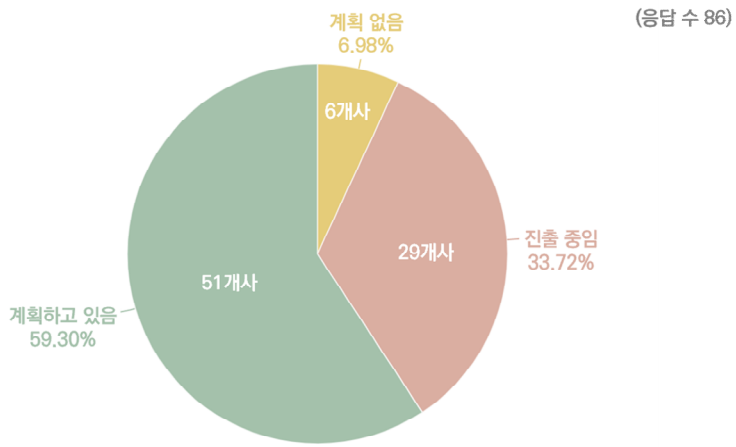
응답 기업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16개사, 55%)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업(9개사, 31%) 건축(1개사, 3%), 의료장비(1개사, 3%), 교육(1개사, 3%), 유통 및 프렌차이즈를 포함한 도・소매업(1개사, 3%) 순이었다.

[그림 60] 매출 규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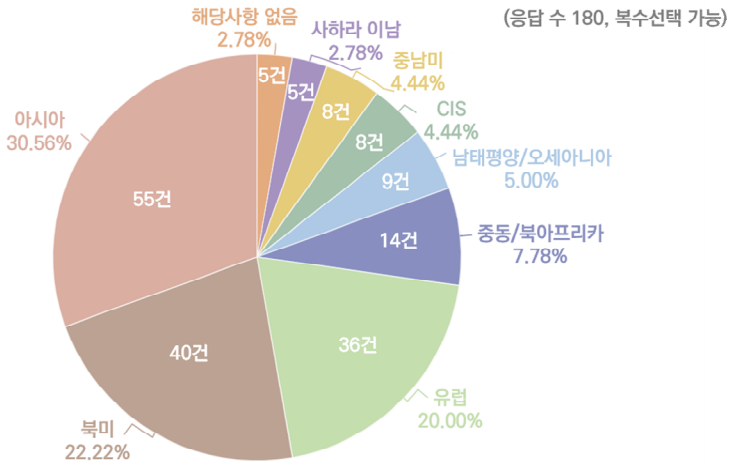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규모가 10억 미만(25개사, 86%), 10억 ~ 50억 미만(4개사, 1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매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29개 기업 중 2017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16개사였다.

[그림 61] 해외 진출 계획



해외진출 계획 여부는 계획하고 있는 업체(18개사, 95%), 계획이 없는 업체(1개사, 5%)[21]에 해당했다. CTS가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점을 반영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62] 주 진출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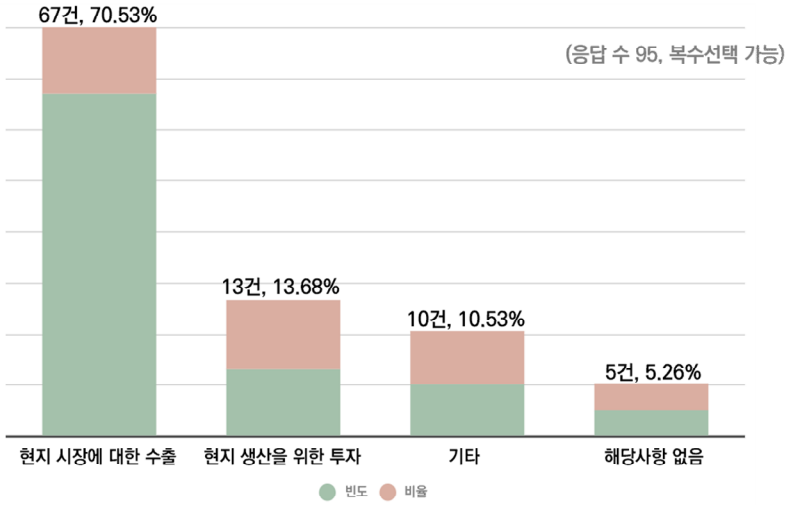
해외 진출계획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진출 희망 대상 지역은 북미(12개사, 32%), 아시아(11개사, 29%), 유럽(8개사, 21%), 중동/북아프리카(5개사, 1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개사, 3%), 중남미(1개사, 3%) 순 이였다.

개발도상국이 아닌 북미와 유럽 지역이 진출 계획이 높은 순위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CTS에 지원한 스타트업도 기업 입장에서의 해외 진출을 ODA 및 국제

21) 해당 업체는 해외 진출 계획은 없다고 설문하였으나, 진출 희망 지역과 국가에는 설문 응답하였다.

개발협력 관점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시장 확장 측면의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시아는 문화적, 지리적 이점에 따른 접근성이 기업 진출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문항에서 낮은 응답 순위를 기록한 CIS, 중남미, 사하라 이남 지역 등은 CTS 기업에게도 해외 진출 주요 고려 대상 지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3] 기업 해외 진출 동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 희망 이유는 현지 시장 수출 목적이(18개사, 95%),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가(1개사, 5%)로 확인되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시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기업 활동의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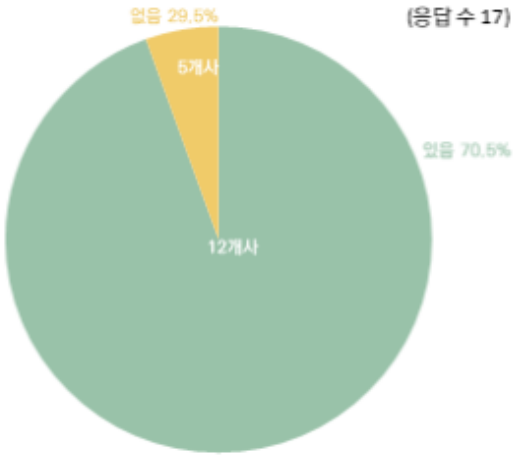
4) 조사결과

각 문항(△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계획, △CTS 프로그램 참여,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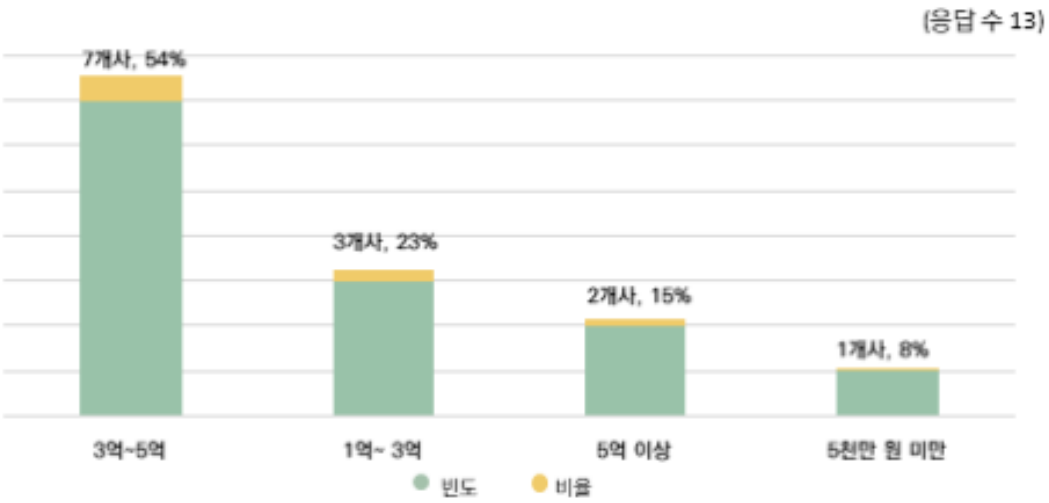
가) PSE 참여 경험

[그림 64]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



본 장에서는 PSE 참여 의향 여부 및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보유 여부에 따라 기업군을 구분하여 해외 진출 및 프로그램 참여 동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7개 기업의 PSE 사업 참여 여부는 있다(12개사, 70.5%), 없다(5개사, 29.5%)이다. 그중 PSE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1회 참여한 기업이 7개사, 2~4회 참여한 기업이 5개사로 사업 참여한 업체들의 참여 경험도 많지는 않았다. 없다고 대답한 기업 중 한 곳은 사업 참여 규모와 대상지역, 형태 등등의 후속질문에 응답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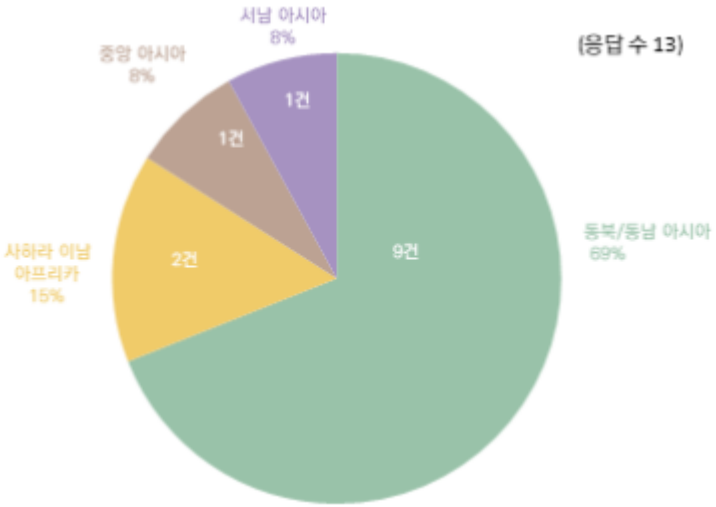
[그림 65] PSE 참여 사업 규모



참여 경험이 있는 13개 기업 대상으로 사업 규모 평균액을 설문한 결과, 3억 이상~5억 미만(7개사, 54%), 1억 이상 3억 미만(3개사, 23%), 5억 이상(2개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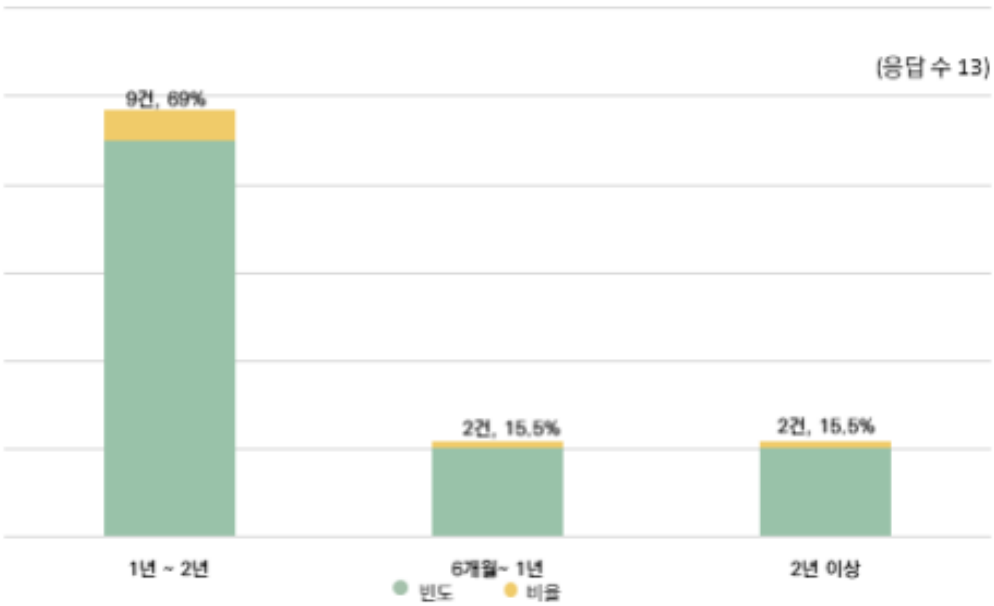
5천만 원 미만 1개사, 8%)순 이었다. 스타트업 특성상 큰 규모의 사업 보다는 5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6] 구체적 진출 대상국 대륙별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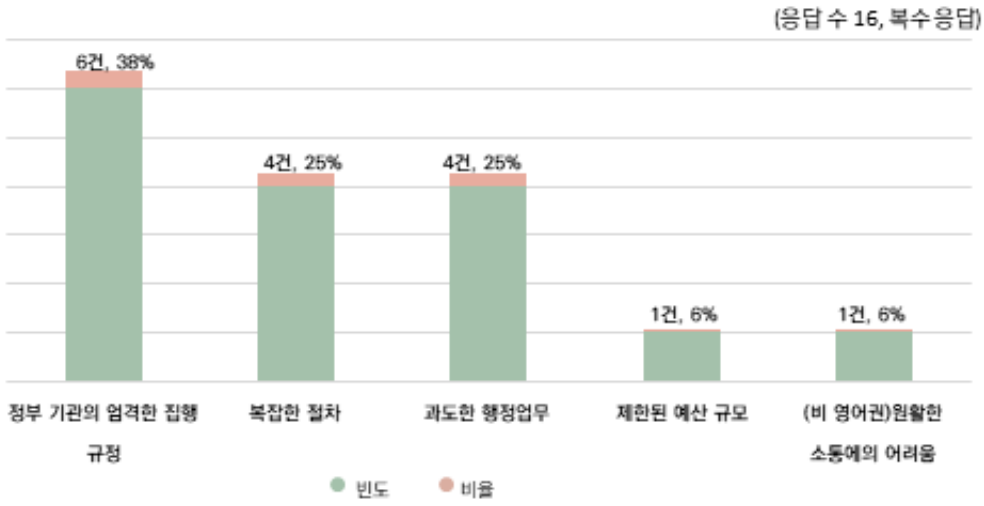
PSE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업 대상 지역은 동북/동남아시아(9건, 69%)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건, 15%), 서남아시아(1건, 8%), 중앙아시아(1건, 8%)순 이었다.

[그림 67]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9건, 69%), 6개월 이상~1년 미만(2건, 15.5%), 2년 이상(2건, 15.5%)이다. 소규모 사업에 참여한 만큼, 사업 기간도 대부분 2년 이하의 사업들을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8] PSE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



PSE 사업 수행 어려운 점으로는 정부 기관의 엄격한 집행 규정(6건, 38%), 복잡한 절차(4건, 25%), 과도한 행정업무(4건, 25%), 제한된 예산 규모(1건, 6%), 현지 에이전시와의 원활한 소통에의 어려움(비영어권 국가의 경우)(1건, 6%) 순이었다.

민간 기업이 PSE 사업 수행하는데 꼽은 대부분의 장애요소들은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기업의 PSE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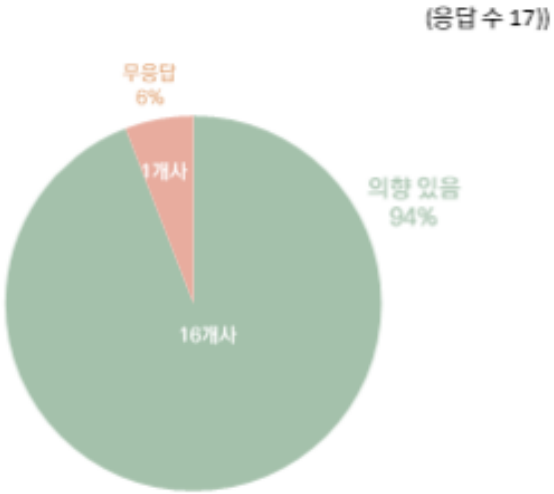
[표 28] 기업의 PSE 사업 참여를 위해 개선 또는 발전 방향

- 행정업무의 축소 및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현지 정보 제공, - 과제비 사용 자율성, 예산사용범위 확장 필요 - 사업비관리시스템 필요 - 해외 판로 개척지원 - (정부 제재가 심한 국가에서의) 현지 정부 기관과 연결해주는 KOICA 차원에서의 현지 지원 필요

나) 향후 PSE 참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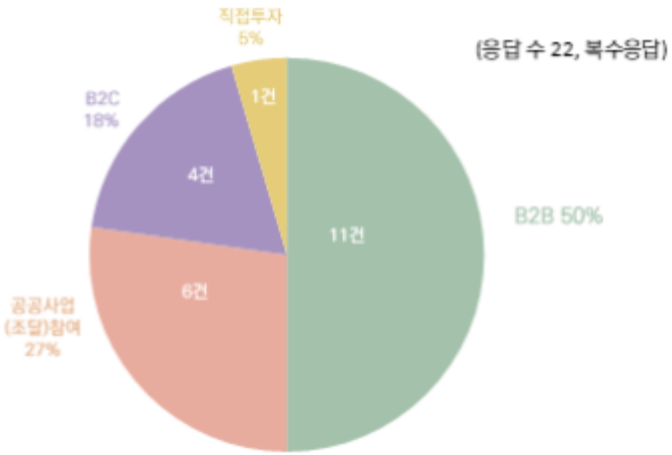
향후 PSE 사업 참여 의향 항목으로는 앞으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PSE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 PSE 사업 참여시 희망 비즈니스 모델, 희망 사업 규모, 희망지역, 국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자할 때 선호하는 정부지원수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 계획 이유를 확인했다.

[그림 69] 향후 PSE 사업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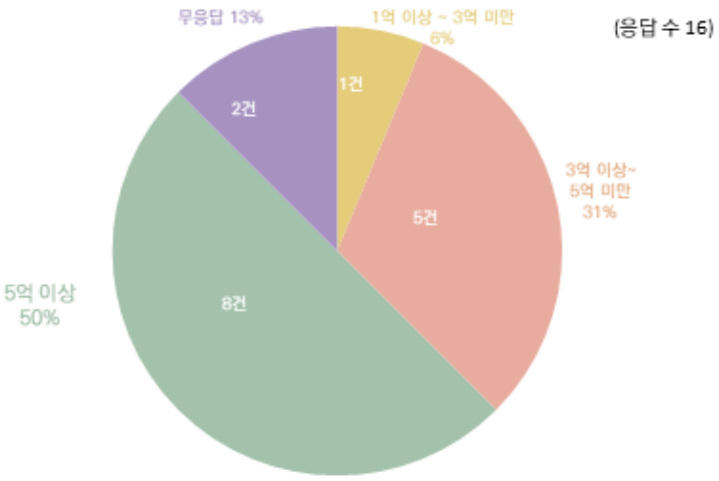
앞으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PSE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에 대해서는 참여(16개사, 94%), 무 응답(1개사, 6%)하였다.

[그림 70] 향후 PSE 사업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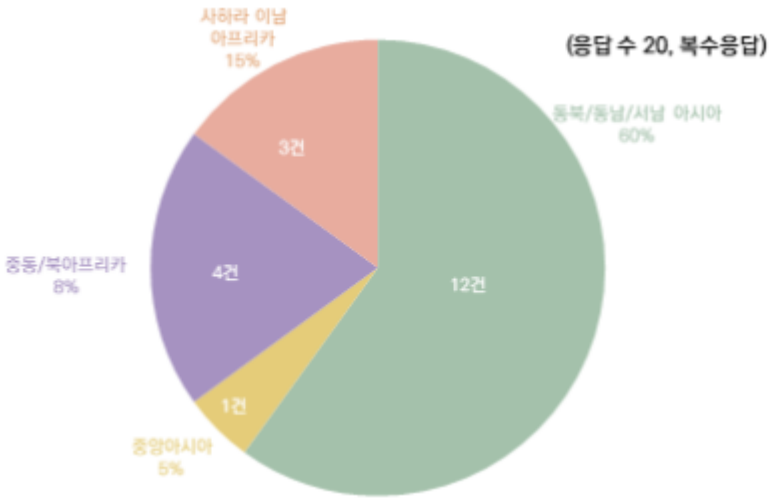
무 응답한 1개사 제외하고 참여의향을 밝힌 16개사를 대상으로 PSE 사업 참여 시 희망 비즈니스 모델은 조사한 결과, B2B 상품 및 서비스 수출(11개사, 50%), 공공사업(조달)참여(6개사, 27%), B2C 상품 및 서비스 수출(4개사, 18%), 직접투자(1개사, 5%)순 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 사이클이 길고 안정적인 기업(B2B)시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공공 조달 참여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그림 71]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희망 규모



희망 사업 규모는 5억 이상(8건, 50%), 3억 이상~5억 미만(5건, 31%), 1억 이상~3억 미만(1건, 6%), 무응답 (2건, 13%)이다. 사업 참여 규모는 5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반면, 향후 사업 참여시 희망 규모는 5억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규모 있는 정부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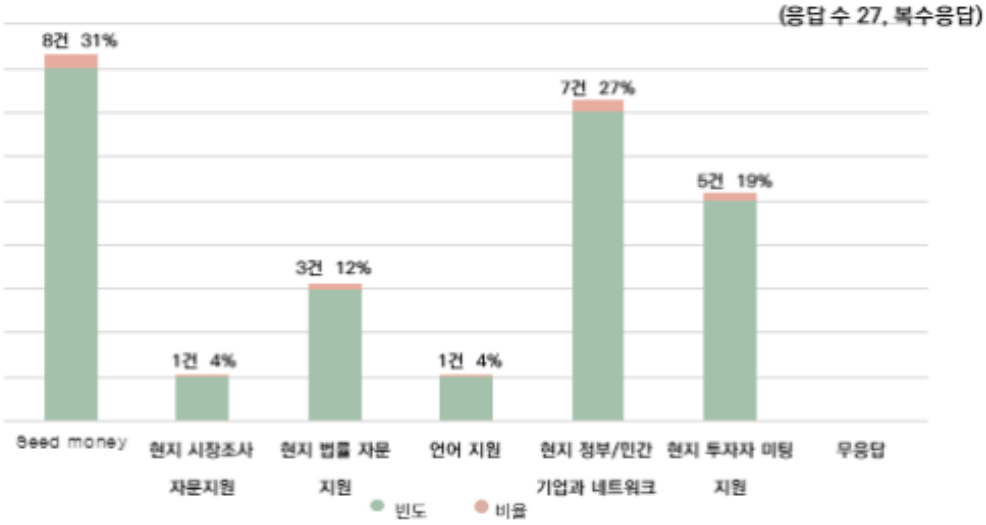
[그림 72]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희망 권역



희망 권역으로는 동북/동남/서남아시아(12건, 60%), 중동/북아프리카(4건,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건, 15%), 중앙아시아(1건, 5%) 순이며, 세부 국가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우간다,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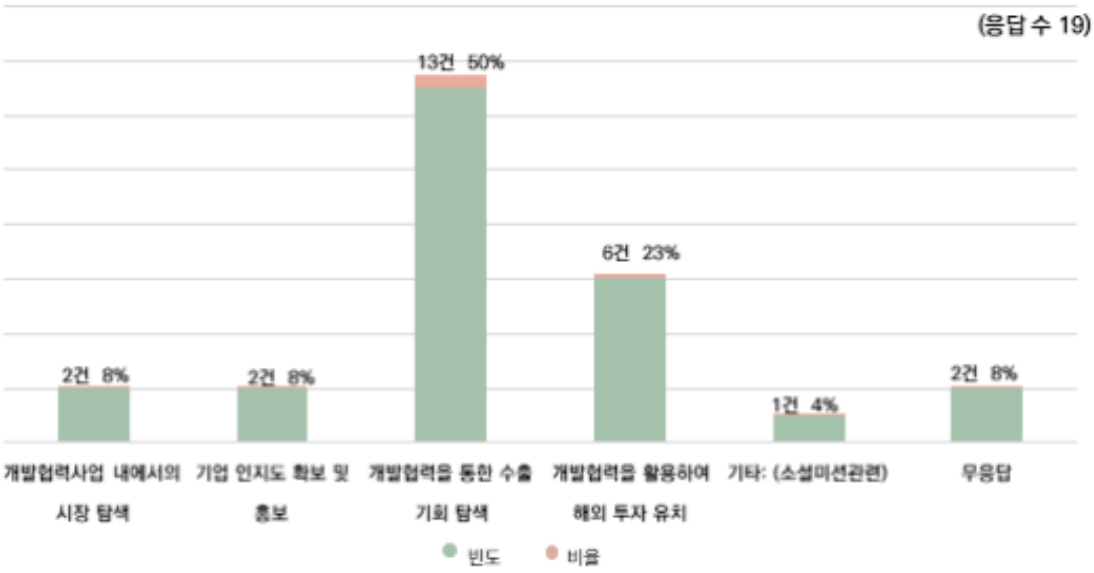
참여 경험과 동일하게 향후 희망하는 사업 권역 또한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문화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아프리카는 시장 잠재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73] 향후 PSE 사업 참여 시 선호하는 지원수단



향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정부의 지원 수단은 SEED MONEY(8건, 31%), 현지 정부/민간기업과 네트워크(7건, 27%), 현지 투자자 미팅 지원(5건, 19%), 현지 법률 자문 지원(3건, 12%), 현지 시장조사 자문지원, 언어 지원(1건, 4%)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74] 향후 PSE 사업 참여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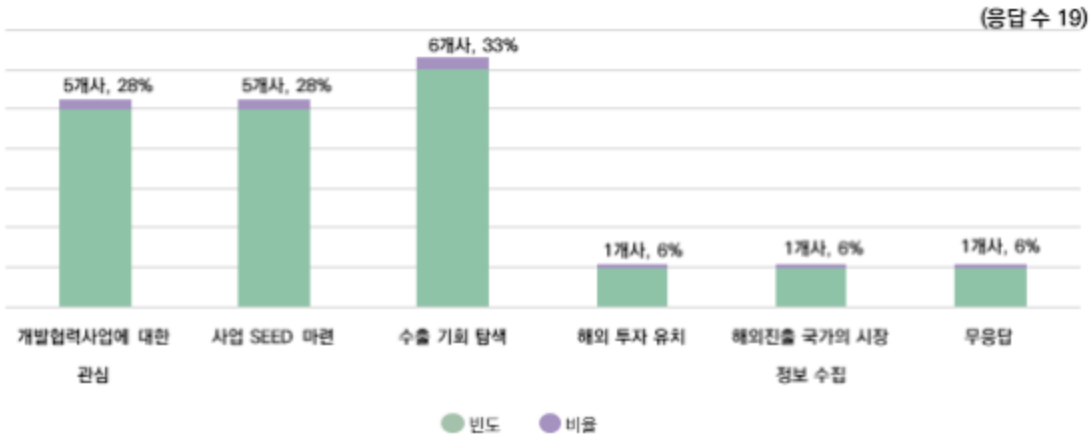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탐색(13건, 50%),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 유치(6건, 23%), 개발협력사업 내에서의 시장 탐색(2건, 8%), 기업 인지도 확보 및 홍보(2건, 8%), 무응답이 각각(2건, 8%), 기타 소셜 미션 관련(1건, 4%)순으로 답하였다. 이는 [그림 30-32]를 통해 살펴본 민간기업의 우리 정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지원 수단이 금융지원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한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응답 결과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을 기존 진출 대상 지역과는 다른 수출 기회를 탐색하고 해외 투자 유치하는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탐색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CTS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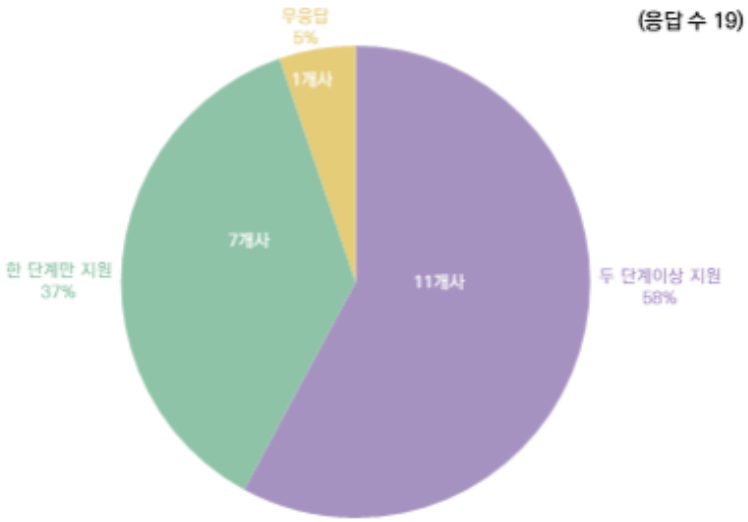
CTS 관련해서는 CTS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목적, SEED 두 단계 이상 지원 경험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림 75] CTS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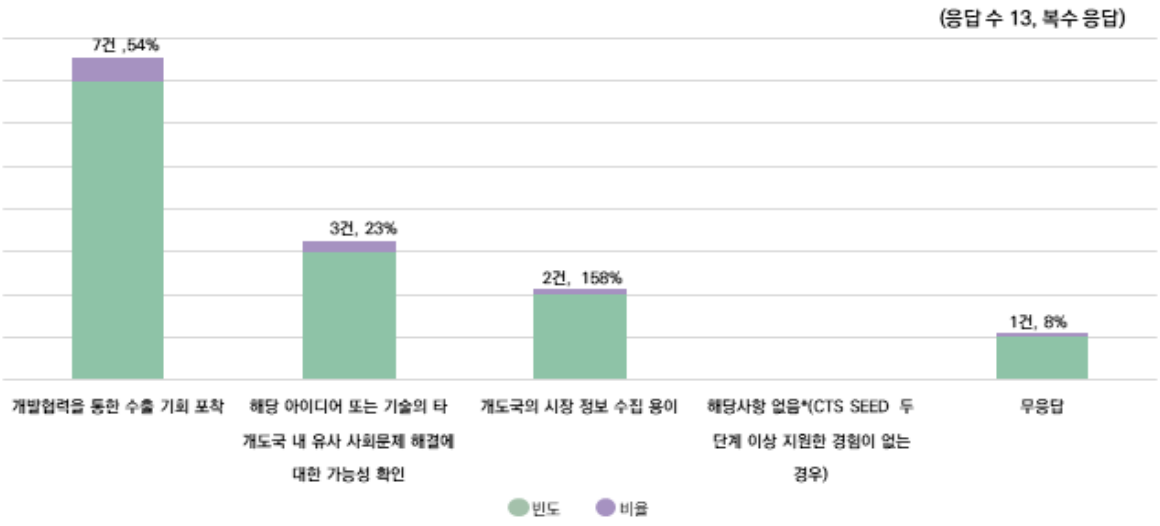
설문에 응한 19개사 모두 CTS 참여 기업으로 확인되었으며, CTS 참여 목적은 수출 기회 탐색이(6개사, 33%),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5개사, 28%), 사업 SEED 마련(5개사, 28%), 해외 투자 유치(1개사, 6%), 해외진출 국가의 시장 정보 수집(1개사, 6%), 무응답(1개사, 6%) 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민간기업들이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은 잠재 혹은 개척 시장으로 인식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탐색의 장으로 여기고 진출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76] CTS 두 단계 이상 지원 경험 여부



CTS SEED를 두 단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있는지 문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SEDD 두 단계 이상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11개사, 58%), 없다는 기업이(7개사, 37%)[22], 무응답(1개사, 5%) 응답했다.

[그림 77] CTS 두 단계 이상 참여 사유



두 단계 이상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포착(7건, 54%), 해당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 개도국 내 유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 확인(3건, 23%), 개도국의 시장 정보 수집용이(2건,

22) 없다고 응답한 기업 중 한 곳은 두 단계 이상 지원한 바 없다고 응답하고 두 단계 이상 지원 관련 후속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15%), 무응답(1건, 8%)으로 응답하였다. 기업들은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에도 지원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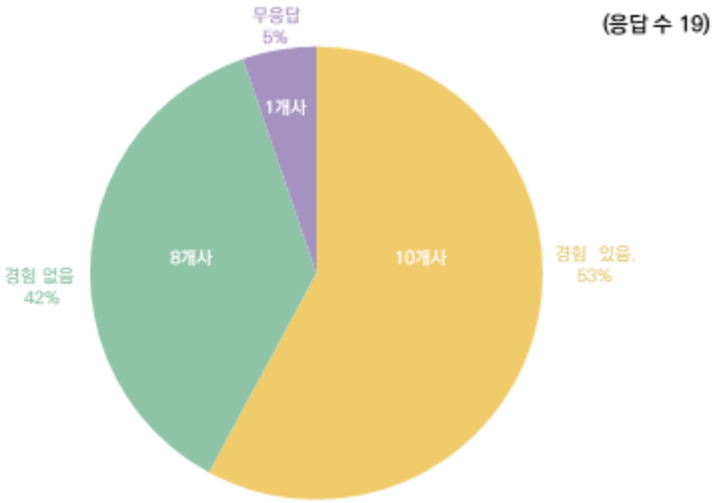
두 단계 이상 지원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행정처리, 개발협력 사업의 어려움과 기업의 내부 이유인 자체 역량 부족, 이전 SEED 성과에 대한 평가 점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표 29] CTS 프로그램에 대한 바라는 점

- 예산 추가 및 CTS 프로그램 성과를 이용한 Great Challenge 지원 프로그램 - 다음 프로그램과의 연계, SEED 3 필요 - 진행 과정에서 행정처리 간소화 - 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모든 문서를 지속적으로 재작성하고 제출하는 <문서작업>의 과정이 매우 잦음. - 사업의 목표와 같은 주요한 핵심 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경대비표 등의 관리를 통해 마스터플랜 상의 일정 정도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효율성이 생긴다면 좋겠음. - 후속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졸업생들끼리의 지속적 네트워크 부족 - 물품 통관 관련 지원 필요 - 현지 상황에 따라 마일스톤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이 많은데 사업기간의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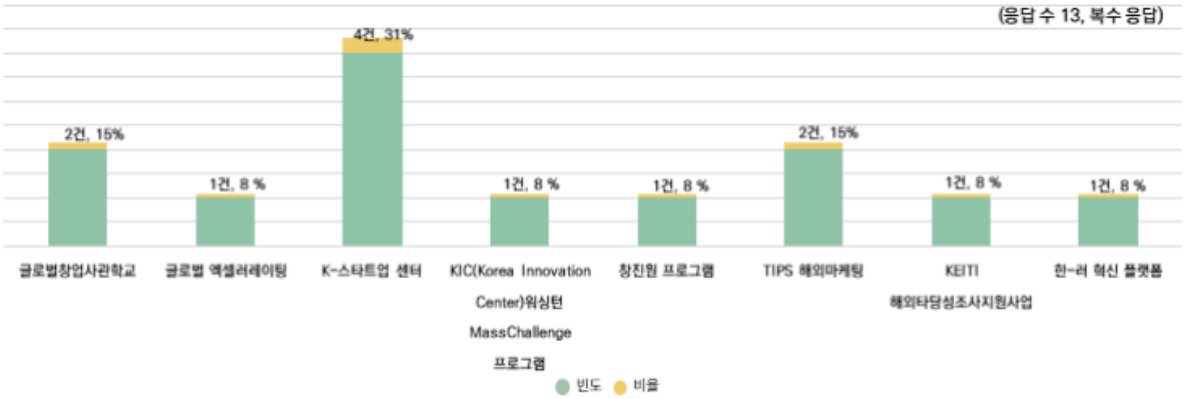
다.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그림 78]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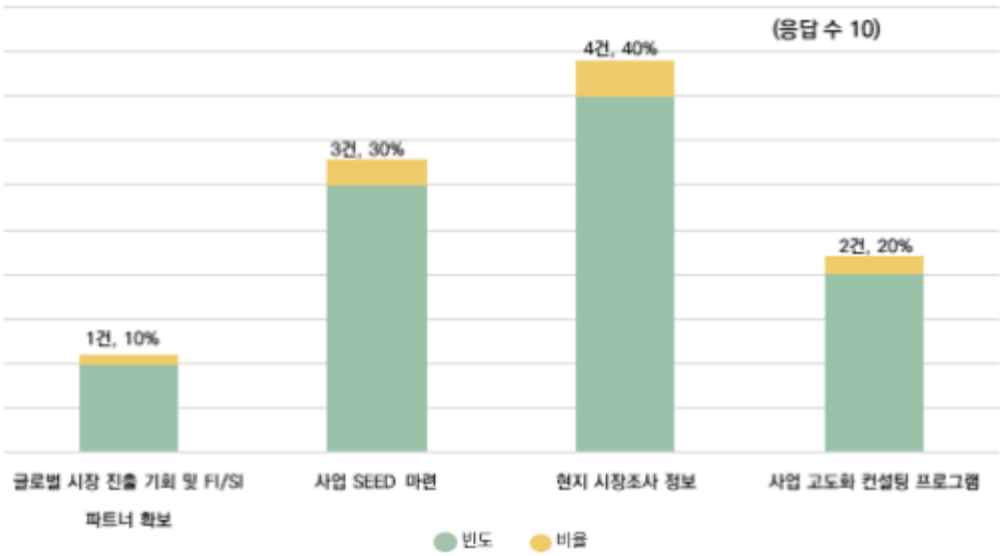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CTS 외 해외 진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10개사, 53%),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8개사, 42%), 무응답(1개사, 5%) 이었다. 과반수가 넘는 기업이 타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9] 해외진출 창업 참여 프로그램



CTS 외 참여했던 프로그램으로는 K-스타트업 센터(4건, 31%)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2건, 15%), TIPS 해외마케팅(2건, 15%) 글로벌 엑셀러레이팅(1건, 8%) 기타 의견으로는 KIC(Korea Innovation Center)워싱턴 MassChallenge 프로그램(1건, 8%), KEITI 해외타당성조사지원사업(1건, 8%), 창업진흥원 프로그램(1건, 8%)에 지원한 바 있었다. CTS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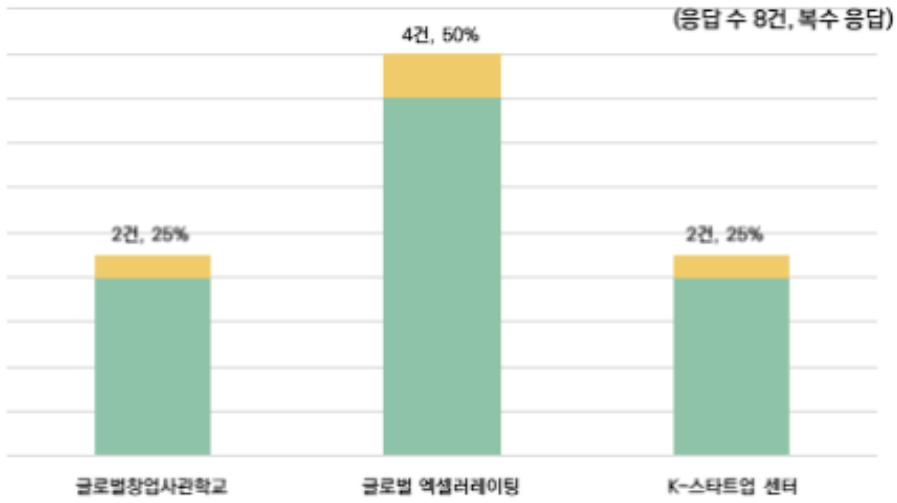
[그림 80] 해외진출 창업 프로그램 참여 동인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인으로는 현지 시장조사 정보(4건, 40%), 사업 SEED 마련(3건, 30%), 사업 고도화 컨설팅 프로그램(2건, 20%),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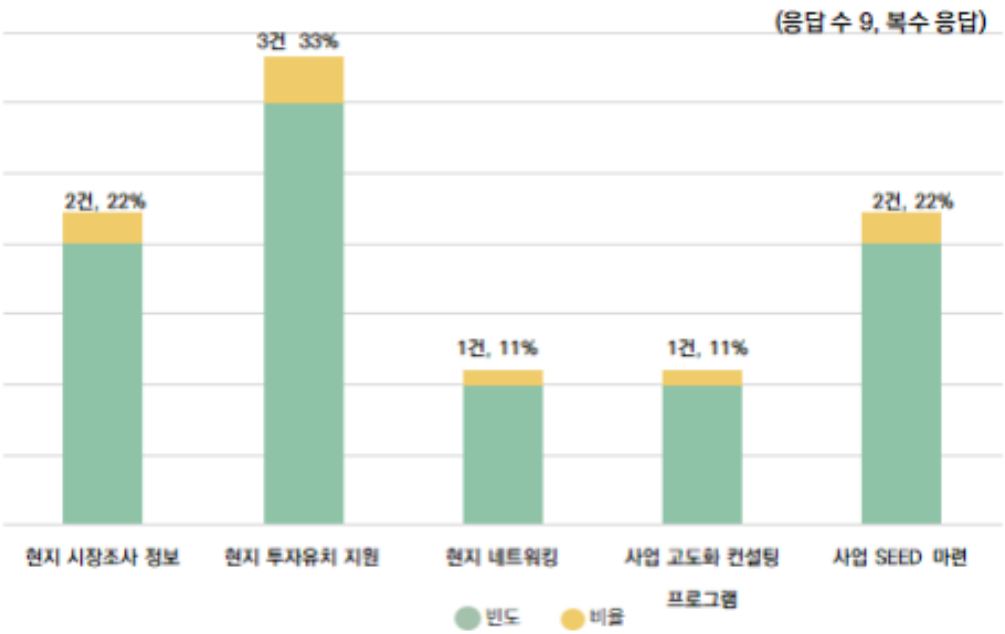
및 FI/SI 파트너 확보(1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은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1]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4건, 60%), 글로벌 창업사관학교(2건, 25%), K-스타트업 센터(2건, 25%)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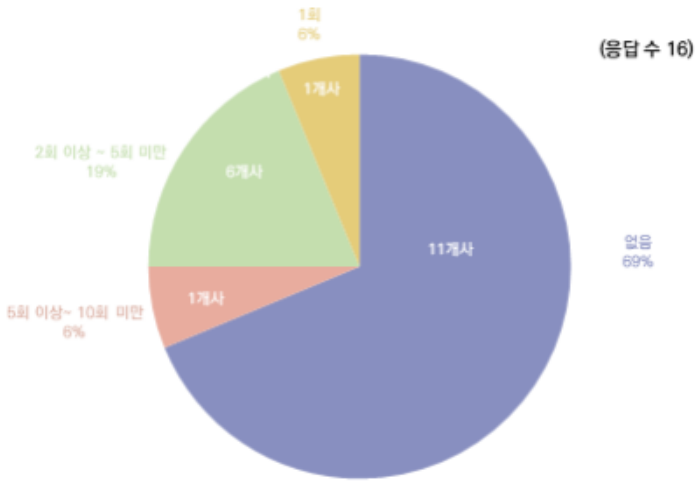
[그림 82] 향후 프로그램 참여 동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지 투자유치 지원(3건, 33%), 현지 시장 조사 정보(2건, 22%), 사업 SEED 마련(2건, 22%), 현지 네트워킹(1건, 11%), 사업 고도화 컨설팅 프로그램(1건, 11%) 순 이었다. 기업들은 정부기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들을 기업 경영 및 활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재정적 부문에 도움을 받고자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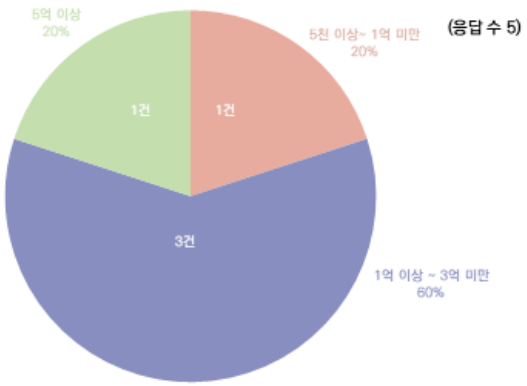
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그림 83]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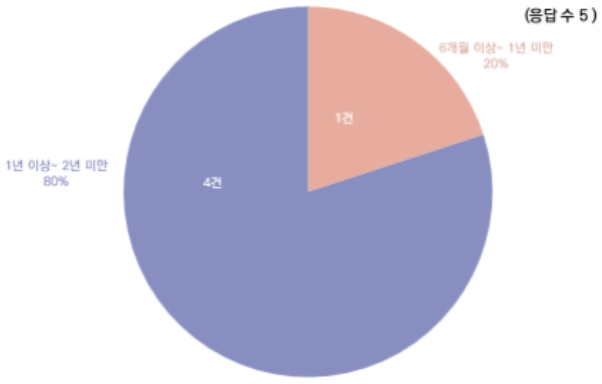


CTS 외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경험은 없다(11개사, 69%)[23], 2회~5회 미만(3개사, 19%), 1회(1개사, 6%), 5회~10회 미만(1개사, 6%)이었다.

[그림 84]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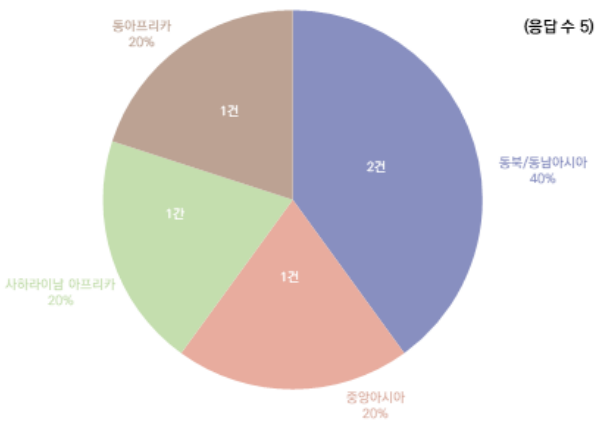


[그림 85]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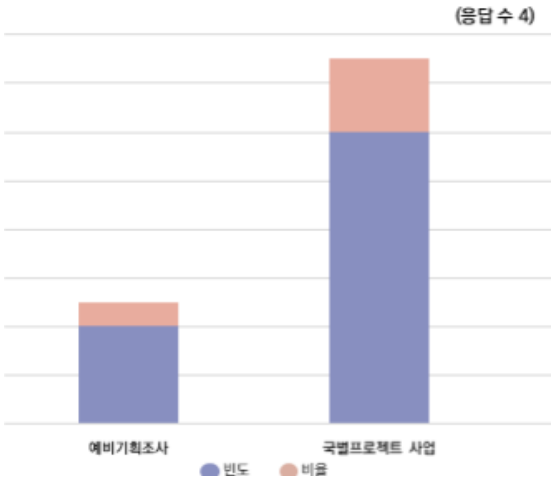


23) 한 기업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 후, 사업 참여 규모와 대상지역, 형태 등등의 후속 질문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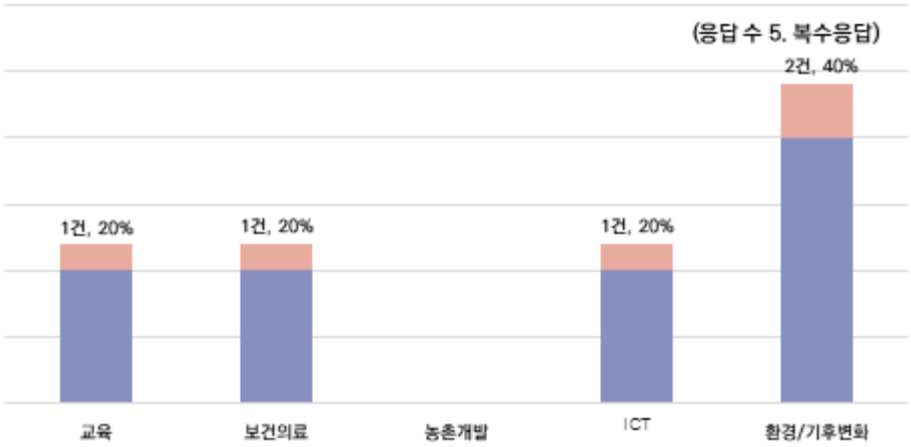
[그림 86]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권역



[그림 87]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형태



[그림 88]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분야



[표 30]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의 어려운 점

- 정부기관의 엄격한 집행 규정 - 복잡한 절차 - 과도한 행정 업무 - 제한된 예산 규모 - 사업 수주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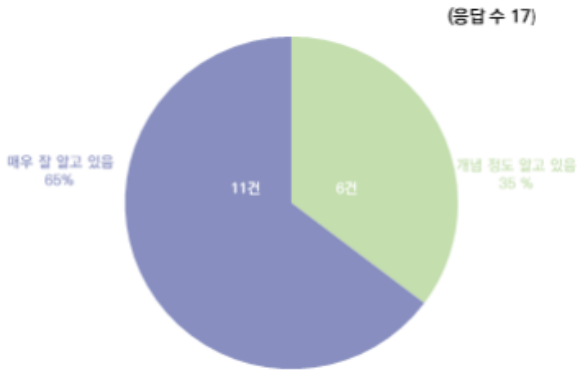
기관이 참여한 사업의 평균액은 1억 이상~3억 미만(3건, 60%), 5천 이상~1억 미만(1건, 20%), 5억 이상(1건, 20%)이다. 사업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4건, 80%), 6개월 이상~1년 미만(1건, 20%)이다. 참여 사업 형태는 국별 프로젝트 사업(3건, 75%), 예비기획조사(1건, 25%)이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동북/동남아시아(2건,

40%), 중앙아시아(1건, 2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건, 20%), 동아프리카(1건, 20%)순 이었다. 참여 분야는 환경/기후변화(2건, 40%), 교육(1건, 20%), 보건의료(1건, 20%), ICT(1건, 20%)이었다. 개발협력에 참여한 바 있는 스타트업들은 비교적 소규모 사업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5억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컨소시엄으로 국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러 차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CTS 참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비즈니스는 물론 개발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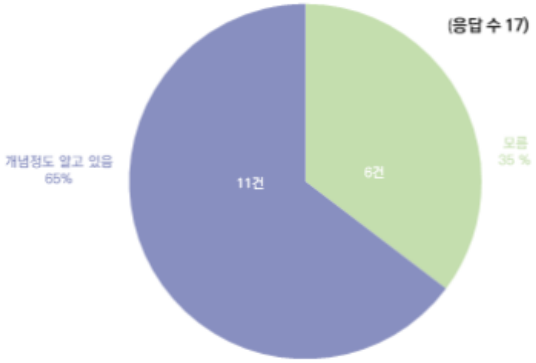
마.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인식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인지 정도를 함께 파악하여 설문 결과 분석에 참조하였다. 인식조사는 개발된 조사 도구 내 개발협력 용어 및 개발협력 역사 간 주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2개 선택형 문항,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1개 선택형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89]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방법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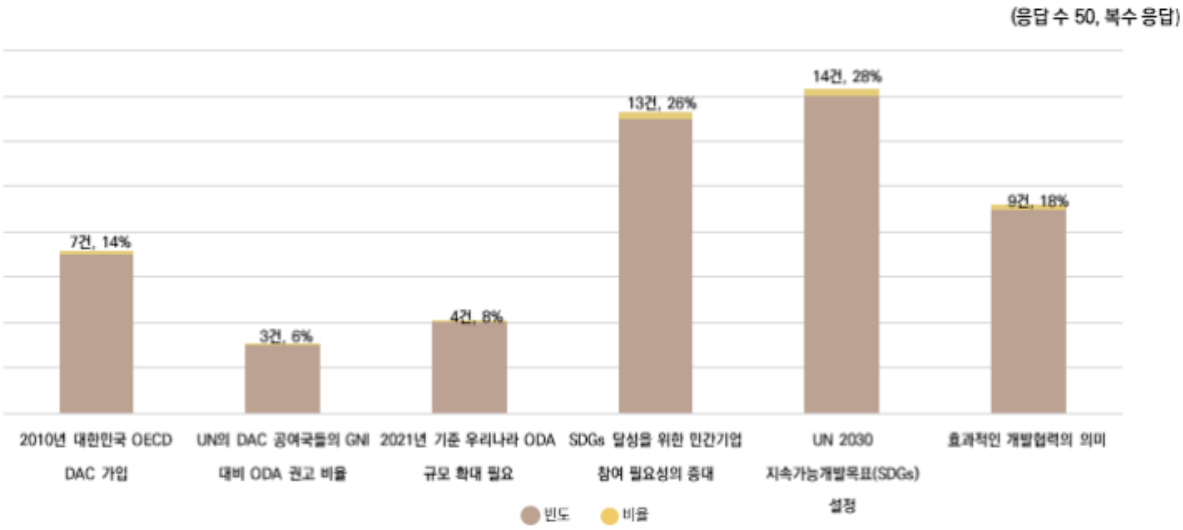


[그림 90] 무상협력 분야의 PSE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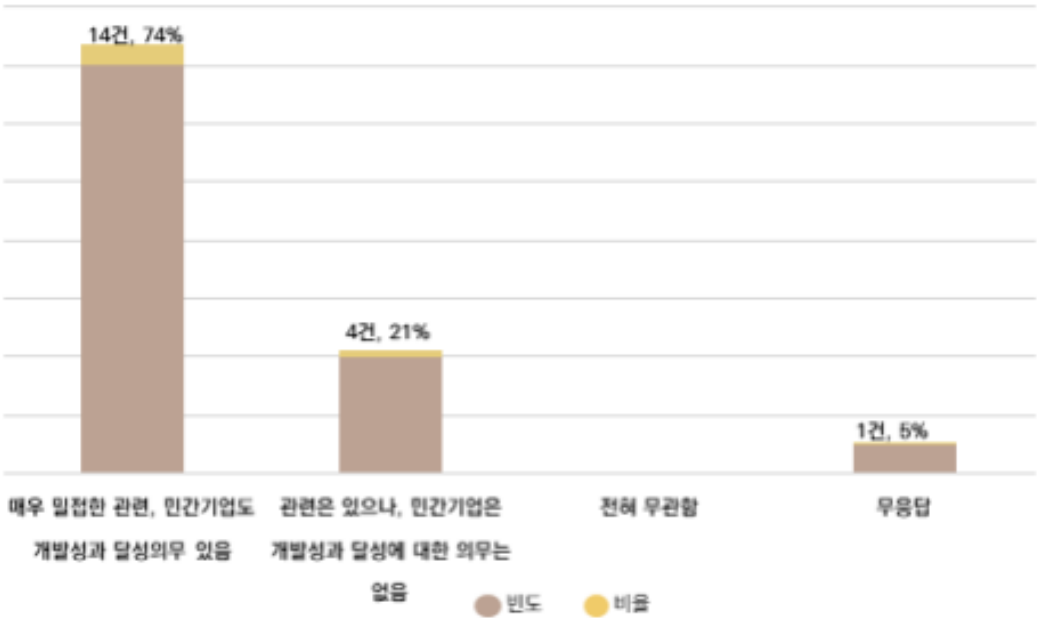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방법 이해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잘 알고 있다(11건, 65%), 개념정도 알고 있다(6건, 35%), 모른다(0건, 0%)로 응답한 반면, 무상협력 분야의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민간부문참여)에 이해도는 모른다(6건, 35%), 개념정도 알고 있다(11건, 65%)라고 응답했다. CTS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비교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친숙한 것으로 보여지나, PSE(민간부문참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1] 국제개발협력, ODA 연보 인식



다음 설문은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의 연보 내 대표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SDGs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필요성의 증대(14건, 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IBS 조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개발협력 용어 중 SDGs를 가장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 상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설정(13건, 26%),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의미(9건, 18%), 2010년 대한민국 OECD DAC 가입(7건, 14%), UN의 DAC 공여국들의 GNI 대비 ODA 권고 비율(3건, 6%), 2021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 확대 필요(4건, 8%) 순으로 인식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2]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질문을 통해 기업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진출에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기업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14개사, 74%),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관련이 있으나, 민간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4개사, 21%), 무 응답(1개사, 5%)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민간기업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 또는 전혀 무관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없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보여진다.

3. 기업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 심층 인터뷰 개요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략 및 장/중/단기 이행 과제 설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2) 심층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사전 진행된 해외 진출 관심기업 및 KOICA IBS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응답한 86개 기업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범주화하였고, 그중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준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아래 [표 31]과 같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더욱 솔직하고 명확한 의견 청취 및 기업 운영 전략 노출 방지를 위해 기업명 및 인터뷰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표 31] 심층인터뷰 참여 대상 및 일정

범주	기업명	대상	시행 일시	참여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없으나, PSE 참여 경험은 있는 기업	A사	법인장	2022.09.27.(화) 16:00-17:00 / 60분	곽재성 (연구책임자) · 최윤인 (연구원) · 김현정 (보조연구원) · 이지윤 (보조연구원) / 총 4인
	B사	차장	2022.09.28.(수) 10:00-11:00 / 60분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있으나, PSE 참여 경험은 없는 기업	C사	대표이사	2022.09.27.(화) 17:00-18:00 / 60분	
	D사	팀장	2022.09.28.(수) 17:00-18:00 / 60분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E사	대표	2022.09.27.(화) 18:00-19:00 / 60분	

* 기업명은 범주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표기

심층 인터뷰 프로세스는 크게 i) 심층 인터뷰 사전 준비, ii) 심층 인터뷰 일정 조율 및 진행, iii) 심층 인터뷰 결과정리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 심층 인터뷰 진행 대상 기업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을 위해 자료를 조사한 후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 대상 및 내부 참여자에게 사전 공유했다. 또한, 일정별 심층 인터뷰 수행팀을 구성하고,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전체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각 연구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추가 인터뷰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이어서 진행되는 심층 인터뷰 사전 질문지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심층 인터뷰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86개 설문 참여 기업을 범주화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총 5개 기업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중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E사의 경우, 업력 1년 미만의 신생 스타트업으로,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기 전인 개발 단계에 있어 인터뷰 내용을 본 연구의 결과 도출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당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가.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 無, PSE 참여경험 有

가)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개요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없으나, PSE 참여경험은 있는 범주에 속하는 심층 인터뷰 기업은 A사 및 B사로 총 2개 기업이었으며, 기업 기본 정보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기업 개요

	A사	B사
설립연도	2017	2008
업종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100억-50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PSE(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PSE(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성장단계	창업기(Start-Up)	성숙기(Maturity)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A사는 기업 자체적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수출 및 투자를 위해 아시아권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 도중 우연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IBS 프로그램을 접하고 공모에 참가, 선정되어 대표사(사업 주관사)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PSE 프로그램 참여의 가장 주된 동인은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었으며, 실제로도 신규 아웃소싱 대상지 발굴 및 이윤 창출에 최대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KOICA IBS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사업장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드웨어 요소와 소프트웨어 요소를 동시 지원함으로써, 수혜자 친화적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성 및 비즈니스적 수익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PSE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업수행 간 한계점도 존재했다. 인프라 및 기반 구축에 정부 지원의 역할이 크긴 했으나, 프로그램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현지 기반 설립 등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은 신규 시장 진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중장기적 기회비용을 계상하고, 예상되는 아웃라인에 따라 자본을 투입하는데 현재의 해외 진출 시장 비용을 고려하면 지원금액 부족에 따른 자금운용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현재 공모 참가 기준에 해당하는 재무재표 상 자본 총계(5년간 10억 이상)를 충족하는 기업에게 KOICA 프로그램을 통한 현재 수준의 사업 예산 지원은 크게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매칭펀드 외 인내자본 또는 벤처투자 연결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IBS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러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추후 민간기업과 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사례 및 우수사례의 지속 발굴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외부적 한계 요인으로 사업대상국 현지의 사업 아이템 가격 저항력으로 단기적으로 최대의 사업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 등을 손꼽았다. 더불어 현재 활발히 IBS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요소와 개발협력 요소를 융합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KOICA IBS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기업과 (준)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업이윤은 물론 개발효과성을 견인하는 지원 사업이 상호에 매우 긍정적 기능을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기업-수혜국-정부 3자가 상호 보완 및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프로그램 지원 규모의 확대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비즈니스 확장성을 증진해야 한다. KOICA IBS 프로그램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사와 KOICA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운영되는데, 전체 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 효과나 실익성이 매우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포용성을 증대하고, 행정 제반 사항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야한다. IBS 프로그램의 예산 운용은 KOICA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자본이 30% 이상 투자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성과 리포팅 등이 다소 KOICA 친화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현지 상황 및 비즈니스적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포용성이 증대되어 여러 행정적 제약을 완화하면, 기업이 사업수행을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법인 기업뿐

만 아니라 해외 법인 또한 공모에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 대체로 IBS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액티비티는 사업 대상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현지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법인 간 내부갈등은 사업 운영의 효과를 저해한다.

넷째, KOICA 현지사무소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A사는 현지에서 IBS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사무소와 협업하는 과정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고, 한국 본부에서 현장 상황을 100% 컨트롤 하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담당자로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현지 진출 기업체의 정기적 모임이나 회의체 등을 통해 네트워킹 세션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이러한 PSE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이외 국내 타부처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시장, 법규, 관세 등 현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사는 현지 시장에 대한 수출 및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시아권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속 모니터링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IBS 프로그램 공모에 참가, 선정되어 대표사(사업 주관사)로 두 차례 사업을 수행하였다. 1차 사업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여, 2차 사업에 착수하였다.

B사의 PSE 프로그램 참여 주요 동인은 매칭펀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도 보조금 지원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제 얻은 최대 시너지 효과는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응답했다. KOICA를 포함한 현지에 기반을 둔 정부 기관이 지닌 네트워크와 정보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아직 남아있긴 하나, 민간기업이 현지 파트너를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든든한 가교역할이 되어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지에서 공고히 구축된 KOICA 브랜드는 협력하는 우리 민간기업이 사업 파트너에 신뢰도를 전하고, 검증된 현지 기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창출 및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준다고 밝혔다.

IBS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한계점으로는 담당자에 따른 사업 처

리 기준의 불명확성을 손꼽았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돌발적 상황에 대한 KOICA 실무 담당자의 처리 기준이 저마다 달라, 판단의 여지가 상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으며,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행정처리의 유연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사업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나 임팩트가 기존 SDGs 체계 내에서는 정확히 합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PDM 설계 및 사업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을 사업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나 체계가 비교적 미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법령 제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 이해 수준이 달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때,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현지 법률 자문 지원을 기대한다며, 현지 법무법인을 활용한 지원이 아닌 정부 기관이 직접 법적 자문을 지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 법령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사업수행 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B사는 장기간 두 차례에 걸쳐 KOICA IB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소상히 공유하며, 기업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향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첫째, 사업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3~5년에 걸쳐 다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IBS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세스 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진행 간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프로그램 간 단절을 방지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 협력의 여지는 있으나 규모가 다른 양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대기업이 사업자금 지원과 기구축된 현지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과 세부 액티비티를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성될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부담으로 참여를 꺼리는 대기업의 정부지원 PSE 프로그램 유입도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셋째, 기업 비즈니스 요소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B사는 KOICA IBS 프로그램의 전 주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요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강조되기도 한다며,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향후 정부지원 PSE 프로그램으로서 혼합금융의 필요성에 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 모델의 경우 개념과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

하나, 아직은 정부 예산 활용에 따른 지침의 제한으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혼합금융 규모나 상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이상의 역량과 자산을 지닌 규모의 기업에 적합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B사 사례를 통해 고민해보아야 할 점은 사회적 기업인 B사가 일반기업과는 다소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NGO 형태의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분리된 형태의 사업이 과연 IBS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KOICA는 향후 IBS 프로그램의 발전과 우수모델 지속 발굴을 위해, 공모 심사 시 비즈니스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 효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지닌 좋은 사업 모델이 선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 선정 기준을 개선해나가기를 제안한다.

나.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 有, PSE 참여경험 無

가)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개요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있으나, PSE 참여경험은 없는 범주에 속하는 심층 인터뷰 기업은 C사 및 D사로 총 2개 기업이었으며, 기업 기본 정보는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기업 개요

	C사	D사
설립연도	2011	2017
업종	제조업	농업회사법인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정보화진흥원(NIA) 해외실증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성장형 사업
성장단계	도약기(Growth)	도약기(Growth

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C사는 민간에서 공공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의 현지 실증을 목적으로 정보화진흥원(NIA)의 해외실증사업에 참여사(컨소시엄)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CTS에 지원했으나, 최종 약정체결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한 이력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혜자의 관점보다는 사업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질적으로 수혜자 친화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못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 파트너 간 과업 이해도가 달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진행 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사업

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바, 최소 3~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단독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한계로는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 내 기업 신뢰도를 손꼽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G2G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타파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하되, 실질적 액티비티 운용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며 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도 있었는데, 현지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을 목표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추가로, 특정 플랫폼을 통한 기업 보유 기술공개에 따른 파트너사 및 진출국 발굴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특히 개발도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D사는 국내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외, 특히 아시아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기업 설립 이후 5년이 채 되지 않은 D사는 기업 성장 2단계인 도약기(Growth)에 해당한다고 자가 진단하였는데, 이렇듯 짧은 시간 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정부 부처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적 낮은 위험도로 여러 방면에서 사업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또한 국제기구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내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협력 기반 솔루션, 국제 지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국내외 유수 민간, 공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본투글로벌센터의 해외 진출 성장형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민간기업에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본 교육, 파트너 소싱, 현지 투자자 연결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브릿지 역할이 되어준다며,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발굴하지 못했을 다양한 사업 파트너/투자자와 네트워킹하며 협력 기반을 점차 넓혀갈 수 있었던 점을 프로그램 참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았다.

다만,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파일럿 사업까지 진행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파트너와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충분한 사업 기간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작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여러 주체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하드웨어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 개발도상국 진출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부담 등이 있다고 전했다.

D사 비즈니스 아이템의 특성상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로컬 파트너십 실증과 진출 확정에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편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사의 신용도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애로 사항은 물론, 사전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D사는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특히 금융지원을 기대한다고 사전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바 있다. 여기서 금융지원이란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저리 대출 형식의 지원을 뜻하며, 향후 VC나 현지 투자 연계도 기업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 가능한 지원 형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D사는 포용성, 사회적 공헌 및 ESG 지표 달성 의무에 따라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나, 개발협력 관점에서 기업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D사가 타 민간기업과 비교해 다수의 국책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개발협력 이해도가 높은 편임을 고려하면, ODA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원임을 반증한다.

4. 소결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진출에 특화된 PSE 프로그램 참여 동인은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 핵심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을 주로 신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출 예정 국가를 묻는 질의와도 연결된다.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가 꼽혔는데 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력이 있고 인구수가 1억 이상 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한 동인은 시장으로서 규모와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 진출 시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13.7%) 보다는 수출(70%)을 추진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본격적인 PSE를 추진할 기업의 여건이 양호하지 않다는 뜻이다. 투자로 인한 현지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대부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

진출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는 질문과 진출 동인을 연계해서 보면 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파트너 국가의 경제

발전 및 포용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훨씬 높다.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PSE 프로그램을 수행 전 참여하는 기업은, 비록 참여 후에 인식이 바뀌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PSE 프로그램의 취지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포용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진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자체로써 포용성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자체가 아니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듯 비즈니스 모델은 뒤로 숨고 CSR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비즈니스로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PSE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포용성이 아니라 기업이 제시한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은 사업의 수익성과에 달려있다. 따라서 PSE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비즈니스의 포용성 및 개발효과성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작업과 동시에 본원적 사업성(장기적 비즈니스 수익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표 34] PSE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

1. PSE 프로그램 홍보 계획 수립 2. 개발도상국 내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크(공공, 민간) 지원 3. 비즈니스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유연성, 회계) 개선 4. 비즈니스의 성장(Scale-up)을 위한 금융 연계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은 PSE 프로그램의 개선사항[표 34]이다.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대부분의 답변이 PSE 프로그램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PSE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의 제일 큰 원인으로 유추해본다. 사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PSE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거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다가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외 사업 기회를 탐색하다 발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PSE 프로그램에 우수한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PSE에 참여했던 기업을 위주로 살펴보면 PSE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신시장 개척과 이윤 창출이지만 실제로는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에서 큰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인터뷰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파트너 기업의 평판을 확인하거나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트너국가에서 기업이 수월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 및 발굴단계의 사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파악된 개선 사항은 PSE 프로그램의 행정 문제이다.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며 연단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에 따라 개월 단위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기를 반복한다. 또한 판관비 집행에 있어 공공과 같이 세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하던 기업에게는 공공의 회계 검토가 매우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의 특성상 전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도 기업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금 집행의 편의성을 대폭 늘려주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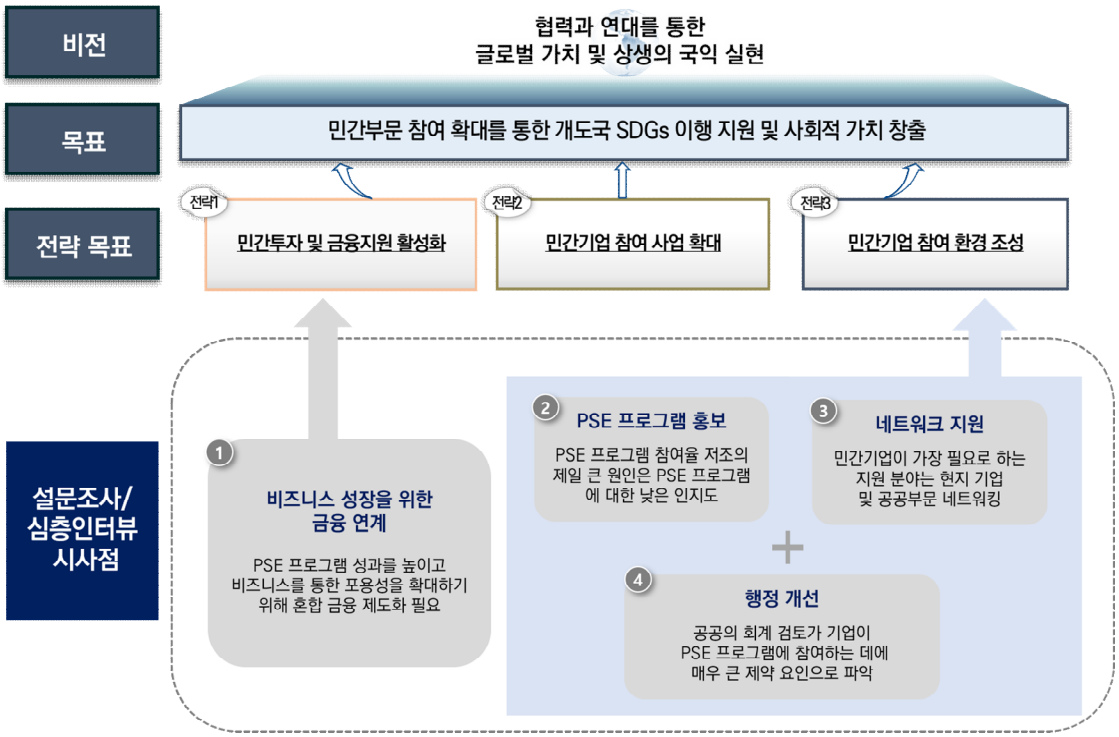
또한, 금융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IBS는 타 PSE 프로그램에 비해 규모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규모에는 못 미친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VC에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매우 어려움[24]이 많다. 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선에 안착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특히 개발도상국) 비즈니스가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국내 사업보다 더욱 길다. 따라서 IBS 이후 단계에 금융 지원은 필수적이며 원조기관의 금융수단 동원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포용성 내재화가 잘 되어있을수록 비즈니스의 성공이 포용성 강화와 직결[25]된다. PSE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통한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처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PSE 프로그램 개선 필요사항들을 바탕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 』의 비전과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3대 전략목표 중 2대 전략목표(△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그림 93]과 같이 제안한다.

24) 우리나라 VC의 경우 해외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고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국내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어, 해외 비즈니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25) 성장하며 사업의 방향성이 변경되는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생각한다.

[그림 93] 민간 참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시사점



제4장. 혼합금융

제1절 혼합금융 개념

1. 혼합금융의 정의

OECD DAC는 혼합금융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재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26]”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OECD DAC가 언급하는 ‘추가적 재원(Additional Finance)’은 ‘상업적 재원(Commercial Finance)’, 즉 비개발 목적으로 투자되는 공적 또는 민간 재원의 추가적인 동원을 의미한다(OECD, 2021).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OECD DAC가 이미 혼합금융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 혼합금융이라는 개념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혼합금융을 15개의 실무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주요 정의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혼합금융 개념 유형

개념 유형	투입(INPUTS)	산출물(OUTPUTS)	기관 출처
1	공공/자선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입되는 개발재원이나 비금전적인 자원(Non-financial resources)	SDGs 달성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OECD
2	공공/자선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입되는 양허적 재원	민간부문개발과 SDGs 달성을 위해 DFI 그리고/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DFI WORKING GROUP
3	공공/자선 부문으로부터 투입되는 촉매 자본(Catalytic capital)	SDGs 달성을 위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또는 프런티어 시장(Frontier market) 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민간 투자	CONVERGENCE
4	공공으로부터 투입되는 증여(Grants)적 재원	국제금융기구(IFIs) 그리고/또는 민간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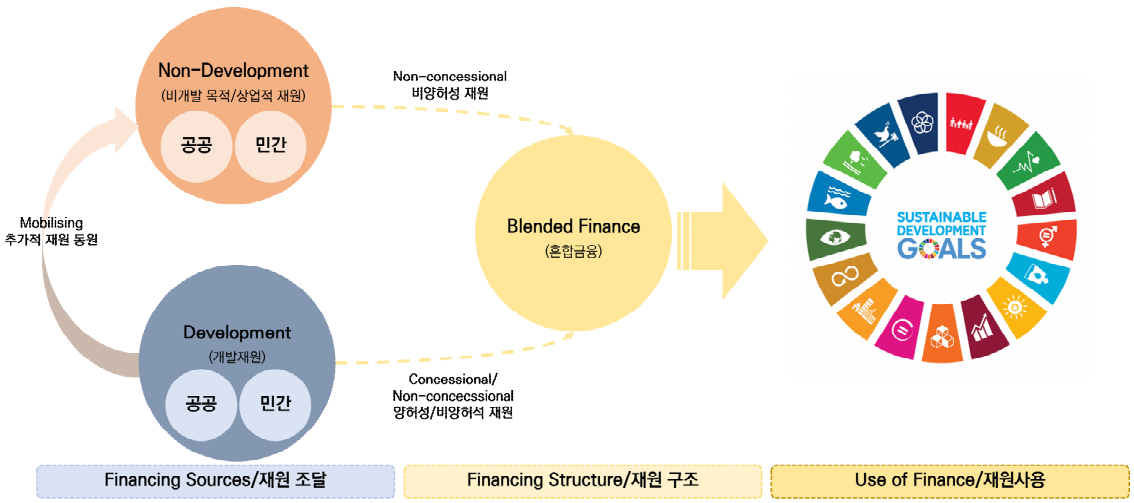
*출처: (OECD, 2021) - 본 연구팀 번역

상기 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개념유형이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OECD의 혼합금융 단어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자원을 투

26) “The strategic use of development finance for the mobilisation of additioanl finance towards su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입하는 주요 목적이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투입하는 공여주체의 성격(공공 또는 민간 등)이나, 투입되는 자원의 유형(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 혼합금융으로 포함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동원되는 재원의 성격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원으로까지 포함함으로써 혼합금융의 논의대상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즉, 개발금융기관(DFI), 다자개발은행(MDB), 자선재단(Philanthropic Foundation) 또는 민간 임팩트투자자(Impact Investors) 등 여러 형태의 공여주체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추가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자원을 혼합금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혼합금융 개념 중에서도 유일하게 양허성 재원이 아니더라도 혼합금융 투입으로 포함하여 정의하는 유형이다.

[그림 94] OECD 혼합금융 정의



*출처: OECD, 2017b

이와 반대로, DFI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정의하는 혼합금융 거래(Transaction) 조건에는 양허적인 재원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DFI 실무그룹이 강조하는 양허성 재원이란, 시장이율이하(Below market-rate)로 제공되는 대출/차관/채권(Debt), 지분투자(Equity), 보증(Guarantee) 등의 지원수단을 의미한다. 이때, 증여(Grants)는 제외한다. 이외에도 OECD의 혼합금융 정의와 다르게 해석되는 DFI 실무그룹의 혼합금융 정의는 자체적으로 추가 투입하는 상업적 목적의 재원을 투입(Input) 또는 산출물(Output) 중 어떤 것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앞서 언급한 DFI의 자체적 추가 투입재원은 OECD가 정의하는 혼합금융 개념에 따르면 또다른 추가적인 상업적 목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입으로 인식하지만, DFI 실무그룹의 혼합금융 개념으로는 이또한 추가로 유치된 산출물(Output)로 간주한다. 즉, DFI 실무그룹은 DFI의 자체적인 추가 재원이라하더라도 이는 민간투

자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추가 유치된 민간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허적인 투입에 의해 유인된다고 해석한다.

세 번째 글로벌 혼합금융 플랫폼인 컨버전스(Convergence)가 정의하는 혼합금융에는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언급되는데, 촉매자본이란 예측 불가한 위험(Risk)을 부담하는 대출/차관/채권(Debt), 지분투자(Equity), 보증(Guarantee) 등의 투자를 의미한다. 컨버전스는 이를 투입으로 해석하며, 위험수익(Risk-return)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로 보아 이에 따른 양허적 성격을 인정했다. 컨버전스는 공공 또는 자선재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증여(Grants) 또한 촉매자본이자 혼합금융에 대한 투입으로 포함하고, OECD와 DFI 실무그룹과는 달리, 오직 상업적인 민간투자만을 추가로 동원되는 산출물로 포함한다. 다시 말해, 컨버전스는 민간투자가 아닌 다른 공공재원이 추가적으로 동원된 경우에는 이를 혼합금융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EU는 SDGs 달성을 위해 EU가 투입하는 증여(Grant)적 재원이 국제금융기관(IFIs) 또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결합되는 것을 혼합금융으로 정의한다. 2021년 이전의 EU 혼합금융은 EU의 공공재원을 통해 대부분 IFI가 추가로 투입하는 공공재원이었으며, 이는 공공재원 즉, 공공으로부터 투입되는 증여적 개발재원이 상업적 또는 준상업적인 공공투자로 확대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2. 혼합금융의 실행 원칙

혼합금융은 2015년 SDGs 채택과 동시에 성공적인 목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재원 필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할 때부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OECD DAC는 혼합금융의 원칙, 로드맵,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혼합금융 5대 원칙'을 승인했으며, 2018년에는 혼합금융 원칙에 해당하는 'Tri Hita Karana Roadmap, 이하 T-H-K 로드맵'도 채택하였다. 2020년에는 혼합금융 규범을 적극 논의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실무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on Private Fina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CoP-PFSD)'를 출범시켰다. 이후 <혼합금융 원칙 가이던스(Blended Finance Guidance)>를 발간했으며, 나아가 2021년에는 혼합금융 성과 측정 및 관리를 위해 OECD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위한 임팩트 기준(OECD-UNDP Impact Standards for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S-FSD)'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OECD DAC의 '혼합금융 5대 원칙'은 공여국, 개발협력기관, 민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이고 투명한 혼합금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표 36]과 같이 마련되었다.

[표 36] OECD DAC 혼합금융 5대 원칙

원칙 1	**혼합 금융을 개발 목적과의 연계** - 혼합금융을 포함한 모든 개발재원의 개입은 개발도상국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개발재원 공여자의 맨데이트(Mandate)에 기초한다
1.A	혼합금융 지원시 개발성과 및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재원 활용
1.B	개발재원 지원 근거로서, 개발 목적 및 기대 성과 정립
1.C	양질의 성과에 대한 이행의지 표출
원칙 2	**상업금융 동원 확대를 위한 혼합금융 설계** - 혼합금융 지원시 개발재원은 상업재원 동원을 촉진함으로써 개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재원을 최적화해야한다.
2.A	상업재원 동원을 위한 추가성 확보
2.B	사업 맥락 및 조건(위치, 분야, 사업단계, 시장 성숙도 등)에 기반한 혼합금융 활용
2.C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동시에 양허성을 최소화하여 혼합금융 구축
2.D	상업적 지속가능성에 중점
원칙 3	**현지상황에 맞는 맞춤형 혼합금융 지원** - 개발재원은 혼합금융이 현지 개발 수요, 우선 순위 및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하며, 현지 금융시장 발전 방향에 부합하면서 현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3.A	현지 우선정책 지원
3.B	현지 금융시장 발전 목표와 혼합금융 간의 일관성 유지
3.C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혼합금융 활용
원칙 4	**혼합금융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 혼합금융은 개발 및 재무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상업기관/Commercial, 개발기관/Developmental 모두) 간에 적절한 위험을 배분함으로써 작동한다. 개발재원은 상업적 투자자들의 동기부여를 활용하되, 개발재원 지원에 널리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4.A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맨데이트(Mandate)에 기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참여자의 맨데이트(Mandate) 존중
4.B	계획적·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리스크 배분
4.C	확장성 추구
원칙 5	**투명성 및 성과를 위한 혼합금융 모니터링**

	- 개발재원의 적절한 사용과 가치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 흐름, 상업적 수익 및 개발성과를 측정, 모니터링하는 명확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혼합금융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5.A	초기단계부터 성과 및 결과지표 합의
5.B	재무 흐름, 상업적 성과 및 개발 성과 추적
5.C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적정 자원 배분
5.D	혼합금융 활동에 대한 공공 투명성과 책무성 보장

*출처: Blended Finance Principles - Korean Translation (OECD, 2021)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 채택된 'T-H-K 로드맵'은 혼합금융의 효과적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 △SDGs 달성에 대한 기여, △민간재원의 동원, △상업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포용적 시장구축, △투명성[27]의 5대 원칙에 합의하였다(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19). 이와 같이 합의된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 5가지 카테고리(▲이행방안(Practice), ▲동원(Mobilisation), ▲투명성(Transparency), ▲포용적 시장(Inclusive Markets), ▲영향(Impact))로 구분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혼합금융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하기 위해 카테고리별 실무그룹(Working Group)[28]들도 구성하였다.

[그림 95] T-H-K 로드맵 시행 5대 원칙



이에 이어, 2020년 OECD DAC가 출범시킨 CoP-PFSD는 2030년 의제인 SDGs 달성을 목표로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등을 포함한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혼합금융 및 임팩트 관련 상호학습과 정보공유를 위해 형성된 DAC 주도형 플랫폼(DAC-led Platform)이라 할 수 있다. CoP-PFSD는 DAC 회원국들이 혼합금융을 통해 민간부문 자원(Resources)을 동원하고, SDGs 달성에 보다 영향력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며, 혼합금융 메커니즘

27) △Anchor blended finance into the SDGs, △Commit to using blended finance to mobilise commercial finance, △Design blended finance to move towards commercial sustainability, △Structure blended finance to build inclusive markets, △Promote transparency when engaging in blended finance

28) △Practice Working Group, △Mobilisation Working Group, △Transparency Working Group, △Inclusive Markets Working Group, △Impact Working Group

에서의 ODA 및 기타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고민한다. 특히, △혼합금융 논의를 위한 포럼, △기존 또는 신규 표준(Standards) 도입 및 개발 촉진, △제도적 환경조성(Institutional Setups), △수집 필요한 데이터 식별, △모범사례(Best Practice) 공유 등을 추진하며, 혼합금융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규범과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SDGs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OECD는 UNDP와 함께 혼합금융 성과측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인 IS-FSD를 제시했다. 이는 공여국들이 공적개발재원을 DFI 또는 민간부문의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할 때, 혼합금융의 영향/임팩트(Impact)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공공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s)에 일치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통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특히, △임팩트 전략(Impact Strategy), △임팩트 관리 접근 방안(Impact Management Approach), △투명성 및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거버넌스(Governance)의 4가지를 강조하며 세부기준을 다음 [표 37]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37] OECD-UNDP IS-FSD

기준1 - 임팩트 전략	
파트너[29]는 SDGs의 관점에서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에 집중하여 개발 영향 목표(Development Impact Objectives)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는 공여국과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맞춰 조정되며, 임팩트 중심 투자 전략에 포함된다.	
1.1	파트너는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양적·질적 개발 영향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섹터 간 공여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이며, 파트너의 규모와 가용 재원에 맞춰 조정된다.
1.2	파트너는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정한 개발 우선순위와 지역의 개발 니즈에 근거한 투자 목표를 세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투자 목표는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1.3	파트너는 그들의 규모 및 재원 가용성에 맞춰 재정(Financial) 및 개발 추가성(Additionality)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4	파트너는 투자 전략 및 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요소를 최대한 적용한다.
기준2 - 임팩트 관리 접근방안	
파트너는 운영의 설계와 관리 과정에서 개발 영향, 인권 보호, SDGs 및 ESG를 통합하는 임팩트 관리 접근 방안을 채택한다.	
2.1	파트너는 투자에 대한 실사 및 사후 영향평가 수행 시, 국제인권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현지 및 국제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투자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파트너는 피투자자의 ESG 통합과 '기업책임경영(RBC)' 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한다. 파트너는 현지에 독자적인 고충 처리 및 보상 관련 메커니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2	파트너는 운영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주기(상황이 변경되거나 필요할 때) 및 사후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한다.

2.3	파트너는 영향 목표 및 포트폴리오 수준의 영향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파트너의 기여도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재원이 제공된다.
2.4	파트너는 개발 영향과 SDGs 이후의 기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의 출구를 관리한다.
2.5	파트너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수집된 학습 및 증거를 기반으로 임팩트 중심 투자 전략과 임팩트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변화하는 개발 환경에서도 임팩트 전략 및 목표가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준3 – 투명성 및 책임성	
파트너는 공여국과 수혜자들(Beneficiaries)을 대상으로 공공 자원을 활용한 민간부문운영의 개발 영향과 SDGs 달성 기여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측정하는지, 그리고 개발 영향이 관리 접근 방안 및 거버넌스 관행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공개해야한다.	
3.1	파트너는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운영 수준(Individual operation level)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기부자 및 관련 투자 이해관계자에게 SDG 및 ESG 영향에 대해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하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한다.
3.2	파트너는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운영 수준(Individual operation level)에서 공여국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개발 결과의 사전 및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한다.
기준4 - 거버넌스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파트너의 약속은 거버넌스 체계 및 제도(Governance practices and arrangements)에 반영된다.	
4.1	파트너는 지배구조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4.2	파트너는 학습 및 개발의 문화를 촉진하여 관리 기관의 영향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3	파트너는 임팩트 중심 전략 및 접근방안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모든 투자 단계 및 의사 결정 수준에서 임팩트 고려 사항을 포함하도록 장려한다.
4.4	파트너는 건전한 영향관리 프로세스의 개발 및 구현 과정에 적절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재원을 할당한다.

*출처: (OECD & UNDP, 2021) - 본 연구팀 번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금융의 논의는 '재원확대'와 '책무성',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첫째, 민간 재원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자본주의의 약탈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29) 해당 표에서의 "파트너"는 SDGs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혼합금융 지원수단(지분투자(Equity), 대출/차관/채권(Debt), 메자닌(mezzanine), 또는 보증(Guarantee) 등을 통해 공공 또는 공공/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모든 기관/조직을 의미한다.

제2절 혼합금융 사례

1. 컨버전스 (Convergence)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 총회를 통해 ‘AAAA’가 채택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이자 세계 최초의 대 개도국 혼합금융 촉진 플랫폼인 ‘컨버전스(Convergence)’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는 공공(Public), 민간(Private), 자선자본(Philanthropic Capital) 등을 혼합하여 효과적으로 개발재원을 확대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을 두고, 2016년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DFATD),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달버그 국제개발자문(Dalberg Global Development Advisor), 국제개발인큐베이터(Global Development Incubator) 등의 적극 지원에 의해 2016년 1월 공식 설립되었다.

컨버전스는 혼합금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개발도상국 내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SDGs를 달성하고자, 현시점 기준 약 206개 이상의 컨버전스 회원 기관(Member Institutions)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박유진, 2019). 첫째, 공공・민간・자선 부문 회원 기관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혼합금융을 실현하고자 하는 회원들 간의 비즈니스 매칭 및 교류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지원한다. 둘째, 혼합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혼합금융 사례들을 연구 분석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별 사례 연구(Case Study) 또한 추진하며 재원 조달 주체, 펀딩 방안,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 혼합금융 관련 DB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혼합금융은 다양한 주체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복잡한 모델구조와 디자인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적 혼합금융 수단(Innovative Blended Vehicles)에 증여(Grants)를 지원하는 디자인 펀딩(Design Funding)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림 96] 컨버전스의 대표적 회원 기구



2. 글로벌혁신펀드(Global Innovation Fund, 이하 GIF)

1) GIF 개요

GIF는 2014년 9월 UN 총회에서 공식 출범되었으며,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다자투자펀드이다. 비영리기관의 형태로 설립된 펀드 운용사인 GIF는 △영국 외무국제개발부(UK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호주 외교통상부(the Department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Australia),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미국국제개발처(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등의 정부개발기관(Government Development Agencies)과 다음 네덜란드 재단(△SAS 재단(Sint Antonius Stichting), △디오라프테 재단(Dioraphte))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GIF 출자 당시 함께 했던 기업인 △오미디야르 네트워크(the Omidyar Network) 외에도 추가 참여기관을 지속 모집하고 펀드를 확장하고 있다(KOICA, 2018).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기술부(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frica)와 협조금융 파트너십(Co-financing Partnership)을 맺고,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가 기업 펀드를 조성한 이후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97] GIF 파트너/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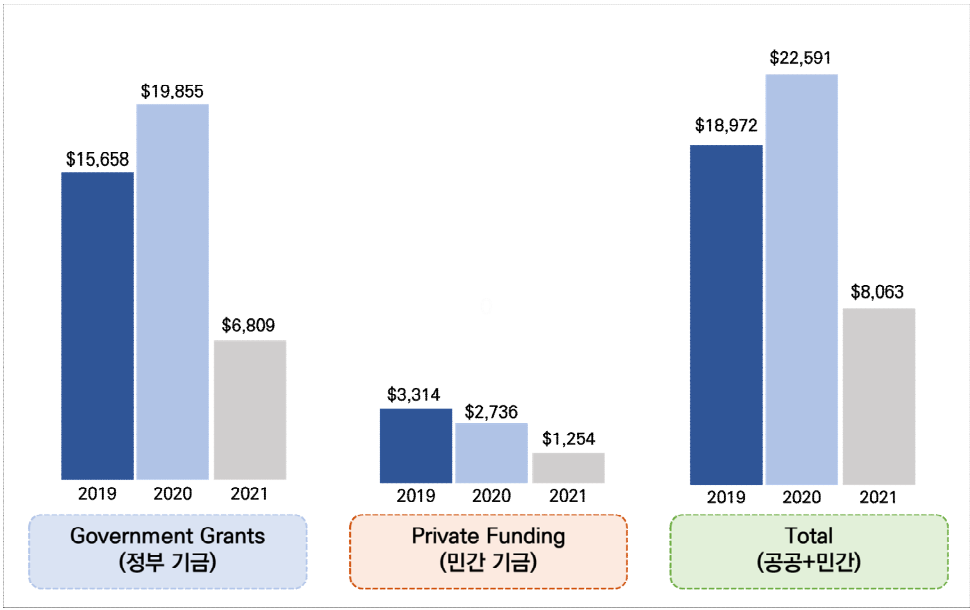
양자 공여주체(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국)의 최근 기여 규모는 영국($11,301,000, 2020), 미국($3,000,000, 2020), 스웨덴($2,584,000, 2021), 호주($1,534,000, 2020) 등이다. Unilever, Anglo American 등의 참여 민간기업은 2021년($1,254,000), 2020년($2,736,000)으로 기록되었으나, 세부 내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표 38] 기금 출처 개괄

Income (USD($000))	2019	2020	2021
Government Grants	15,658	19,855	6,809
Private Funding	3,314	2,736	1,254
Total	18,972	22,591	8,063

[그림 98] 기금 출처(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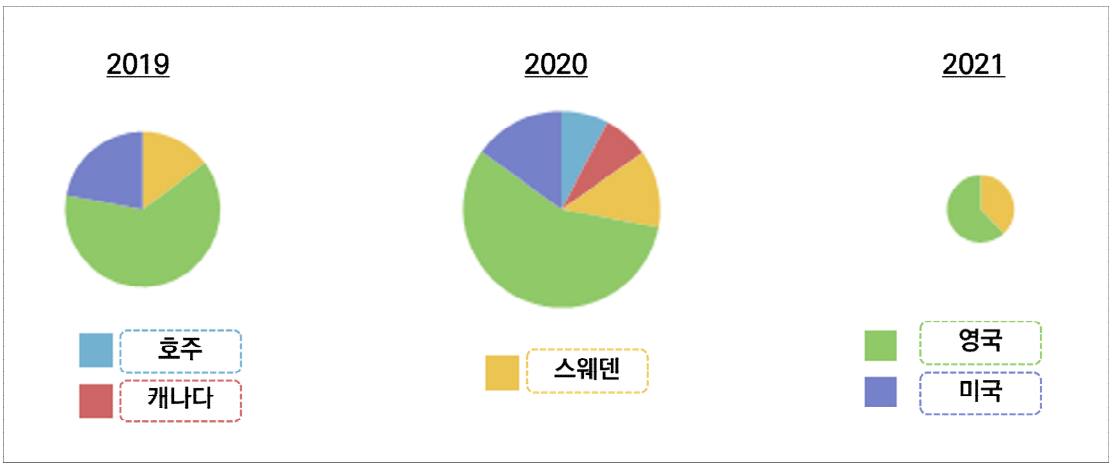
(단위, $000)



[표 39] 각 국가의 정부로부터 출자된 기금

Government Grants (USD($000))	2019	2020	2021
호주	-	1,534	-
캐나다	-	1,512	-
스웨덴	2,324	2,508	2,584
영국	9,879	11,301	4,225
미국	3,454	3,000	-
Total	15,657	19,855	6,809

[그림 99] 국가별 정부 출자 기금



[표 40] 정부 외 출자된 기금

Other Income(USD($000))	2019	2020	2021
투자수익 (Income from investments)	208	361	288
이자수익 (Bank interest on current accounts)	340	56	3
투자처분수익 (Profit on disposal of investment)	-	166	103
Total	548	583	394

*출처: GIF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2021

2) GIF의 주요 업무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1,500만 달러 사이의 보조금, 대출(전환사채 포함) 및 지분투자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영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혁신' 기업들을 지원한다(GIF, 2022). 개발도상국 내 실질적인 개발 문제를 기존의 접근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신기술·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행동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정책 실행방안, 재화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어떤 방식이든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 지원 시 창업기, 도약기, 성숙기 등과 같은 기업들의 성장단계에도 별도의 구분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벤처캐피털 접근법(Venture Capital Approach)[30]을 통해 투자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며, 엄격한 영향평가와 증거(Evidence)에 기반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단계별 투자(Staged Funding Approach)를 원칙으로 한다. 즉, 혁신적이지만 위험성이 큰 시범단계(Pilot stage)인 기업에는 소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혁신기업에는 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여 투자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3) GIF의 지원 방식 - 단계별 투자 접근법

GIF의 단계별 투자 접근법(Staged Funding Approach)은 △파일럿 단계(Pilot), △테스트 및 전환 단계(Test and Transition), △확장 단계(Scaling)의 총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파일럿 단계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이 아닌 사업환경에서의 운영적 측면, 사회적 영향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증여(Grant) 또는 대출(Debt), 투자(Equity)의 형태로 최

30) 장기적 관점에서 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재무적, 비재무적 지원 제공),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자 수행(KOICA, 2018)

대 23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있다. Debt는 개인적 수혜가 가능한 사업(가정 태양광 설치, 친환경적 Cooker 배포 등)이 주 대상이며 Equity는 주로 법인 대상이다.

두 번째 테스트 및 전환 단계에서는 이미 소규모로 시범운영 후 가능성이 검증된 혁신기업을 위한 단계이며, 기업이 GIF의 시범 단계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테스트 및 전환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임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입증이 된다면, 해당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업들에 한하여 향후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확장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과 시장 생존가능성(Market viability)의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단계에서는 증여(Grant), 대출/차관/채권(Debt), 지분투자(Equity)의 형태로 최대 230만 달러까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확장 단계에서는 엄격한 실증과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적 임팩트 극대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혁신 기업들에 한하여, 성공적으로 이들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 이는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투자자, 대기업, 개발도상국 정부 등)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기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한국국제협력단 IBS 프로그램과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투자방안을 다음 [표 41]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41] GIF 단계별 투자방안

구분	1단계- 파일럿(Pilot)	2단계 - 테스트 및 전환 (Test & Transition)	3단계 - 확장(Scaling)
기준	생존력(운영적/재무적/사회적)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 초기단계의 혁신적 사업	소규모의 성공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성장 및 임팩트 달성을 위해 GIF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간 단계의 혁신적 사업	임팩트를 입증할 실적을 보유하여, 대규모 확장시에도 생존(운영적/재무적/사회적/정치적) 가능한 혁신적 사업
투자규모	최대 23만 달러	최대 230만 달러	최대 1,500만 달러
실사기간	평균 3~6개월	평균 6~9개월	평균 6~12개월
지원영역	초기단계의 연구 및 개발, 주요 고객(Target Market) 및 수요 분석, 혁신적 아이디어 확산에 따른 사회적 임팩트 및 비용 문서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혁신 기업을 위해 사회적 영향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증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조성, 사업 확산

*출처: (GIF 홈페이지), (KOICA, 2018)

민간펀드 운용사도 벤처캐피털 접근법을 통해 투자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선택하여 시드 단계부터 확장 단계까지의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GIF는 민간펀드 및 금융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원칙을 준용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업적 성격을 지닌 민간펀드 운용사와 GIF는 다르다. GIF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상업적인 민간펀드 운용사와는 달리 펀드의 수익, 재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가 높고 재무적 성과가 낮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 자본(Patient Fund)을 제공하여 사회적 임팩트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듯 GIF는 투자대상 선정 시 평가 기준에서도 사회적 영향 및 임팩트 확대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GIF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소득 증대 효과 및 수혜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평가 점수가 높게 부여될 수 있는 농업 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으며 공중보건, 영양, 식수위생, 에너지,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GIF의 기업 공모 선정 프로세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수시발굴형으로 추진하며, 지원하는 기업의 형태와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기업, 영리·비영리적 기업,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국가 또한 별도로 지정해두지 않고 있지만, 지원하지 않고자 하는 기준(Criteria)은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 [표 42]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표 42] 지원 대상 제외 기준

기준	상세 내용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인 이론적 연구 및 실험적인 활동들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장 가능성이 없는 사업	단일 국가에만 적용되는 혁신적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의 국가 내에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사업	특정 정치인,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생태계만을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	사업의 주요 목적이 더 큰 규모의 혁신 생태계(예: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또는 기타 혁신기금)를 구축하기 위함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 법률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업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에 따라 금지된 제품 또는 활동과 관련된 혁신(예: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오존파괴물질 및 야생동물보호를 위협하는 모든 활동)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사치품/명품의 생산 또는 사용, 인신매매, 테러 활동 또는 금지된 마약, 도박 및 포르노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GIF 공식 홈페이지(https://www.globalinnovation.fund/apply/about/what-we-dont-fund/)

상기 [표 42]에 해당하지 않고 GIF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 수시발굴형 공모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수시발굴형 공모 프로세스 절차 내 초기지원(Initial Application) 형태로 간략한 사업개요를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문서의 형태가 아닌 GIF 사이트 내 설문조사와 같이 주어진 문항에 답변하는 정도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지원받기 희망하는 자금수단(Financial Instrument), 요청금액(Total Funding Requested), 자금형태(Expected Source of Financial Support)까지 입력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접수된 초기지원서는 GIF의 투자팀(Investment Team)에 의해 스크리닝 되며, 그 중 GIF가 선택한 기업 또는 기관에 한하여 팔로온콜(Follow-on call)을 실시한 후 완성된 버전의 사업기획서 및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패널(Decision Panel)이 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과 자금수단, 형태, 금액, 조건, 주요 성과지표 등에 대해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4) GIF의 운영 체계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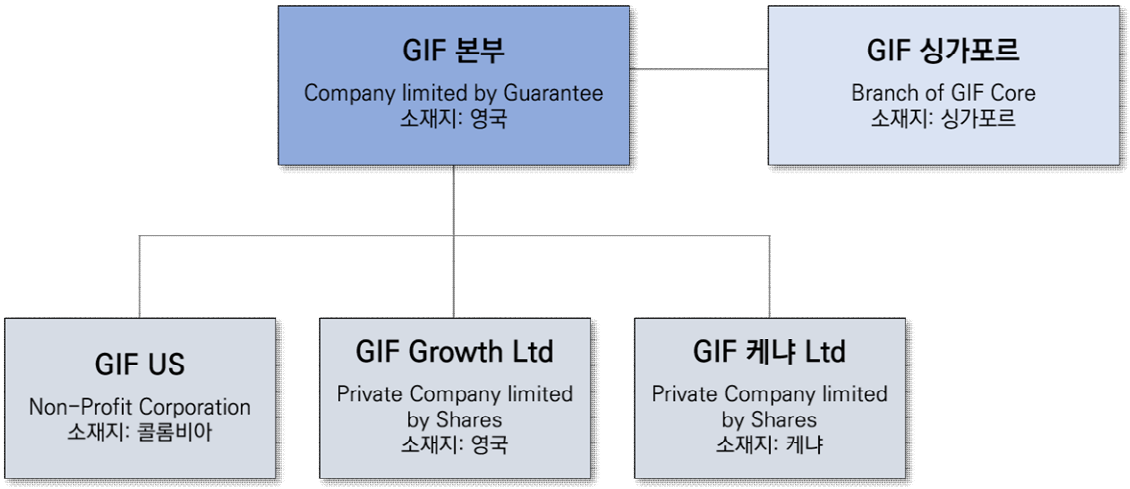
GIF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관리위원회(Board of Trustee)는, ‘A’ Trustee와 ‘B’ Trustee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A’ Trustee는 비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로 재임 가능하며 GIF 자금 제공자와의 독립적인 수탁자로 구성되는데, 민간부문, 시민사회, 공공부문, 학계에서 모집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임명된다. ‘B’ Trustee는 GIF 자금 제공자가 선출한 수탁자로 구성된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되며, 연간 예산 및 운영 계획, 재정, 주요 성과 지표, 투자 및 보조금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주요 위험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GIF 그룹의 이사회는 감사재무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개발위원회, 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각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아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사회는 연간 예산 및 프로젝트 플랜을 승인하고, GIF의 재정결과와 예산 편차, 핵심성과지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받는다. (GIF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2021. 7p) 외부 기관이나 개인은 donation (자금조달)을 통해 GIF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GIF의 구성원은 GIF의 기사, 조례, 혹은 특정 정책 수정을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또한, GIF 이사단의 취임과 해임에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투자를 옹호하거나, GIF의 투자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 (GIF Governance Handbook, 2022. 16-17p)

GIF 그룹은 3개의 자회사를 GIF 본부 산하에 두고 있다. GIF 본부(Core)는 기금 수령, 보조금 및 투자 진행을 포함한 기금 관리 및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GIF Growth와 대비되며, 리스크가 큰 투자를 담당한다.

GIF 싱가포르는 포트폴리오 관리 및 소싱 활동을 수행하며 주로 직원 고용 및 건물 임대와 같은 싱가포르 기반 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GIF US는 현재 보조금 제공 및 투자를 하지 않으며 직원 고용 및 건물 임대와 같은 미국 기반 관리 활동만 수행한다. GIF 케냐는 보조금 및 투자를 하지 않으며, GIF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관리 및 소싱 활동을 수행하며, 직원 채용, 부지 임대 등 케냐 기반의 행정 활동을 맡는다. GIF Growth는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담당한다. 또한, GIF Growth 투자 위원회는 진행되는 투자가 투자 기준에 충족되는지 검토한다 (GIF Governance Handbook, 2022. 10p)

[그림 100] GIF 그룹의 조직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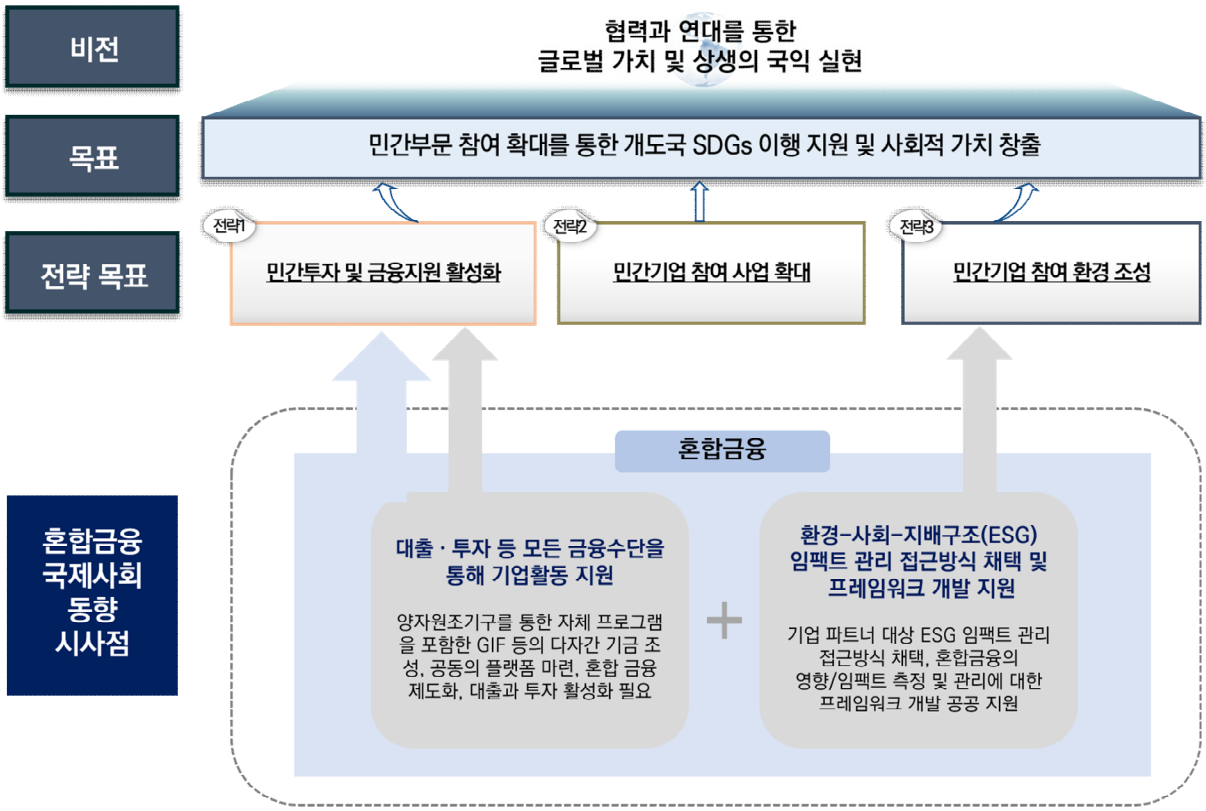
제3절 소결

혼합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효과성과 책무성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효과성 차원에서 대출과 투자 등 모든 금융수단을 포함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공공은 민간의 금융지원과 기업활동이 개도국 환경에서 활성화되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며 리스크를 경감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무적·비재무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양자원조기구를 통한 자체 프로그램은 물론 GIF 등의 다자간 기금 조성을 통해 공동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둘째, 책무성 차원에서 우선 SDGs 관점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Leave no one behind)” 에 집중하여 임팩트를 중시하며, 기업이 생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 지향성을 강조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기업 파트너에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임팩트 관리 접근방식을 채택하며, 사업관리를 위해선 혼합금융의 영향/임팩트(Impact)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공공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s)에 일치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개발에 공공이 적극 지원해야한다.

상기 제시된 효과성과 책무성 차원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혼합금융을 추진함으로써 [그림 101]과 같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 』의 비전과 『민간부문 참여 전략』의 3대 전략목표, 특히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01] 민간 참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혼합금융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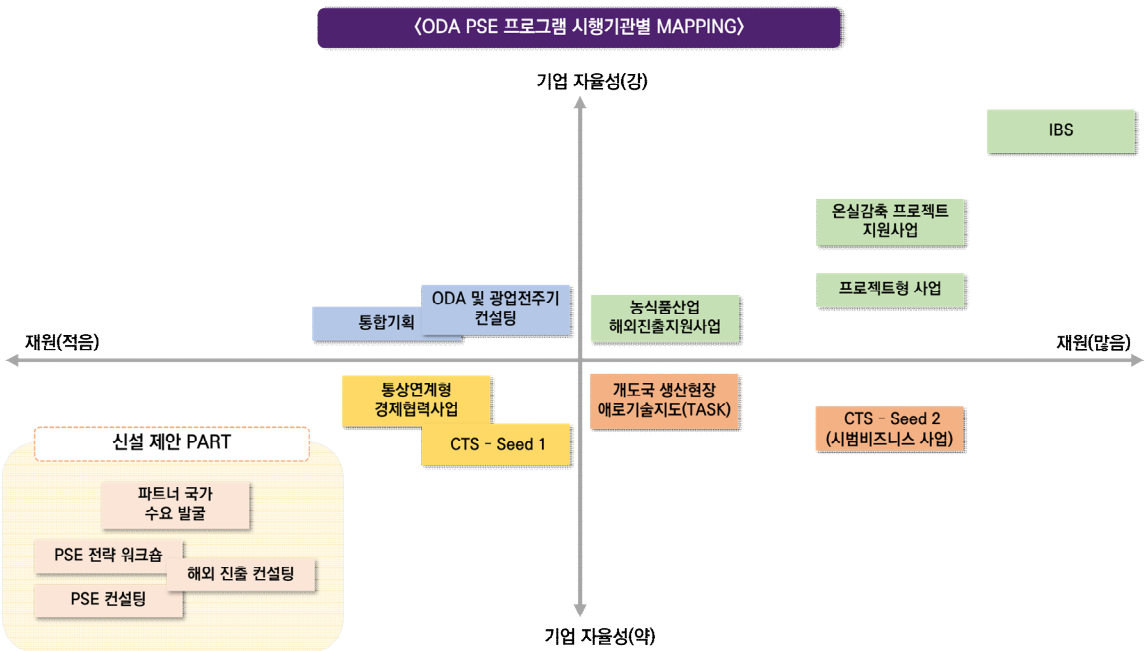
제5장.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 수립

제1절 PSE 전략과제

1. (전략과제1)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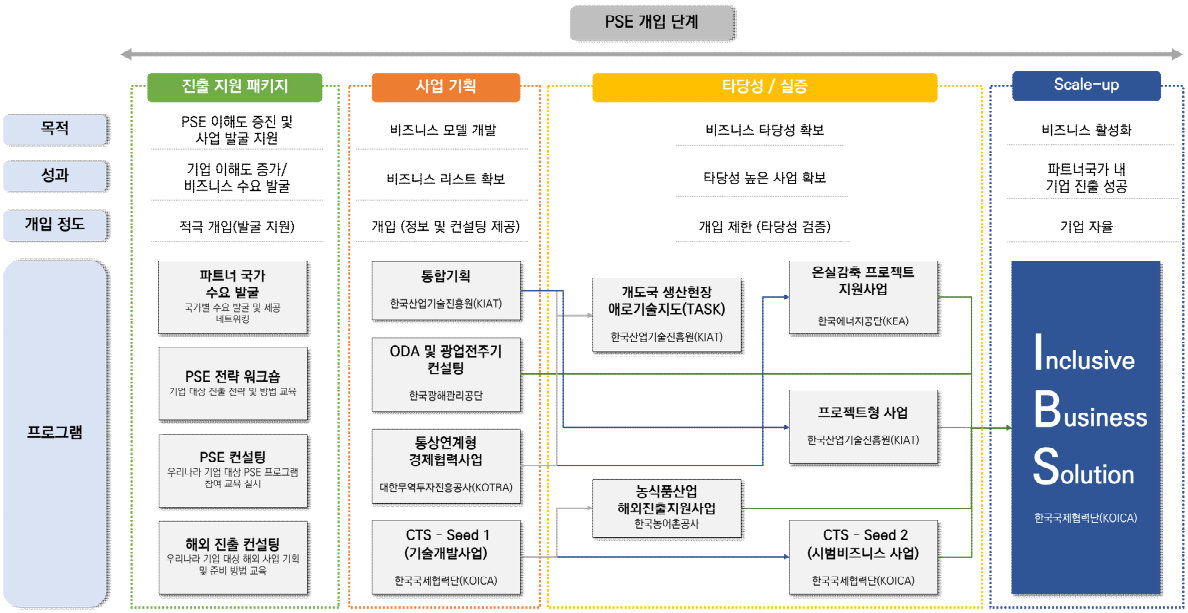
KOICA 기업 협력 프로그램(PSE)의 외연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기존 여러 부처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 이외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에서 진행되는 무상협력 분야 PSE는 아래 [그림 102]와 같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장벽에 막혀 프로그램 간 연계 시도가 부족하다.

[그림 102] PSE 프로그램 시행기관별 MAPPING



개발도상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출 기반을 만들고 있으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PSE 프로그램의 목표나 취지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림 103]과 같이 비즈니스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기업이 알맞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경험하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다음 단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림 103] 민간기업의 단계별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



이와 같이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양질의 비즈니스 모델이 KOICA PSE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며, 이 단계에서 고도의 포용성 또는 개발효과성을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PSE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초기 단계의 타 부처 프로그램이 ODA 재원이라면, 사업성과 포용성의 두 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포용성' 부분의 주류화를 위해 범부처 간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기업의 목표와 연결 고리를 찾기 쉽지 않다.

아울러 타 부처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성(Additionality)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해외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는 KOTRA만큼 역량을 쌓은 기관이 없을 것이며, ICT 혁신 기업 동향에 대한 정보는 NIPA와 소통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사례는 중기부나 본투글로벌(Born2Global)등과 같은 기관이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2. (전략과제2) 진출 지원 패키지 신설 및 운영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PSE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전파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102]의 좌측 하단에 있는 진출 지원 패키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PSE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비즈니스를 물색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회를 주며 역량이 있는 기업을 찾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좋은 기업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직접 발굴하기 위한 절차로 보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패키지의 목적 및 컨텐츠 아래 [표 43]과 같다. 진출 지원 패키지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참여 제약 요인은 PSE 프로그램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패키지는 제약 요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 국가의 수요를 공유(파트너 국가 수요 발굴)하고 PSE 프로그램을 설명함(PSE 전략 워크숍)으로써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반영하기 어려워하는 포용성을 비즈니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PSE 컨설팅)과 동시에 현지화(해외 진출 네트워킹)를 유도하여 PSE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재 공공의 조직 내에서 단기간 안에 체계화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 조직(Intermediary)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표 43] 진출 지원 패키지 내용

프로그램	목적	구체 내용
파트너 국가 수요 발굴	대상국의 수요를 기업에게 적극 제공하여 비즈니스 발굴 활성화	- 기존 또는 신규 PCP 내용 제공 - 종료 사업 중 비즈니스 연계 필요 사업 정보 제공 - 비즈니스 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파트너국가에 문의하여 정보 제공
PSE 전략 워크숍	PSE 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기업 관심 고취	- PSE 프로그램 취지 소개 - 기관별 프로그램 소계 및 연계 방안 안내 - 관심 기업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
PSE 컨설팅	기업의 비즈니스에 포용성을 내재화	- 관심 기업 대상 PSE 컨설팅 - 단계별 프로그램 제안 및 참가 지원
해외 진출 네트워킹	파트너국가 공공/민간과 우리나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On/Offline 파트너국가 네트워킹 세션 제공 - 법률 및 회계 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기업과 네트워킹

3. (전략과제3)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

다음 전략은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이다. 개발협력과 비즈니스는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타자(Other)를 바라보는 이념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 생소한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기업 스스로 개발효과성까지 고려해가며 수립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 스스로 디자인한 PSE에 성공한 일부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특정한 개인(담당자)의 역량 덕분이지 기업의 생리나 조직의 힘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포용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개도국 시장은 여전히 생소하고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기 또는 지역 중심의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정부의 지원이며, 그 조건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개발효과성을 얹어오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PSE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왜 기존 공여국에서 개발컨설팅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 인력의 풀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조직을 통하지 않고 사업개발 및 수행이 가능하다. 일례로 케냐의 Safaricom에서 처음 런칭했던 휴대폰 결제/이체시스템인 M-PESA도 모기업인 영국 Vodafone의 내부 직원들 중심으로 설계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역량과 리소스 측면에서 본업에 충실하기도 벅찬 상황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상업화+개도국시장+개발효과성을 모두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업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자문서비스 또는 개발컨설팅과 협업하여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협력 요소인 포용성을 확대한다면 KOICA의 언어와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모형을 디자인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IBS 참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기업이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누구와 협업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와 역량있는 지원조직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협업이 성사되지 않는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병존한다. 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치메이킹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극복이 어렵다. 개발컨설팅도 제대로 육성이 안되어 있는 한국 ODA 풍토에서, 시장 친화성까지 갖춘 지원조직은 흔하지 않다.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전문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역량(및 성향)을 동시에 갖춘 인재는 극히 드물다.

하향식(Top-down)의 단기적인 해법은 KOICA가 개발컨설팅과의 장기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 대상 예비기업을 공동 발굴하여 기업에 대해 공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IBS 등의 PSE 사업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나치게 관 주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완성

도가 낮은 제안이 다수 들어오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성공모형을 부각시켜 우리 인력의 개발컨설팅 유입을 통해 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PSE 수행 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4. (전략과제4) 코이카 내에서 PSE의 주류화 또는 PSD와 PSE의 연계

마지막 전략은 KOICA내에서 PSE를 주류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국별사업을 비롯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부분이다. 현재 시행 중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PSD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다. PSD 성격을 지닌 프로젝트들이 PSE와 연계가 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연계 방법은 i) PSD에 PSE를 연계, ii) PSE에 PSD를 연계이다.

첫째, PSD에 PSE를 연계하는 방법은 기존에 프로젝트 중에 비즈니스 연계가 필요하거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 PSE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창업센터 지원 사업은 종료 이후 입주 기업을 보육하고 투자해주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대개의 파트너국가에서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파트너 국가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보육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나 성장(투자) 단계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은 공모를 통해 PSE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VC나 엑셀러레이터를 물색하여 연계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협력으로 진행된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PSE에 PSD를 연계하는 방법은 기업의 PSE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와 개발목표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별도의 PSD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차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인근 국가에서도 폐배터리를 수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사업성이 높아지지만, 이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제한하는 바젤협약상 여의치 않다. 이 경우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리싸이클 목적의 아이템에 대해선 규정을 완화하는 법제도 개정이나 국가 간 협약체결 등을 유도하는 PSD형 개발협력 사업을 별도 발굴할 수 있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파트너국가와 직접 협상을 하여 제도 개선이나 정책 도입을 이끌어 내기도 하지만, PSE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기존 PSE 사업에 민간 VC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공공 ODA를 활용한 개발금융의 직접투자는 매우 필요하고 요긴한 대안이다. 특히 개발금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에선 기업의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자국인이 개도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와 대출 등의 개발금융을 적극 활용한다.

5. (전략과제5) 금융수단 확보

매칭펀드 성격의 무상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개도국 사업 초기 리스크를 경감하고 시드 제공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선 금융지원(대출) 또는 후속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 통상 국내 금융기관이나 JV는 해외 사업 위주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의 지원을 꺼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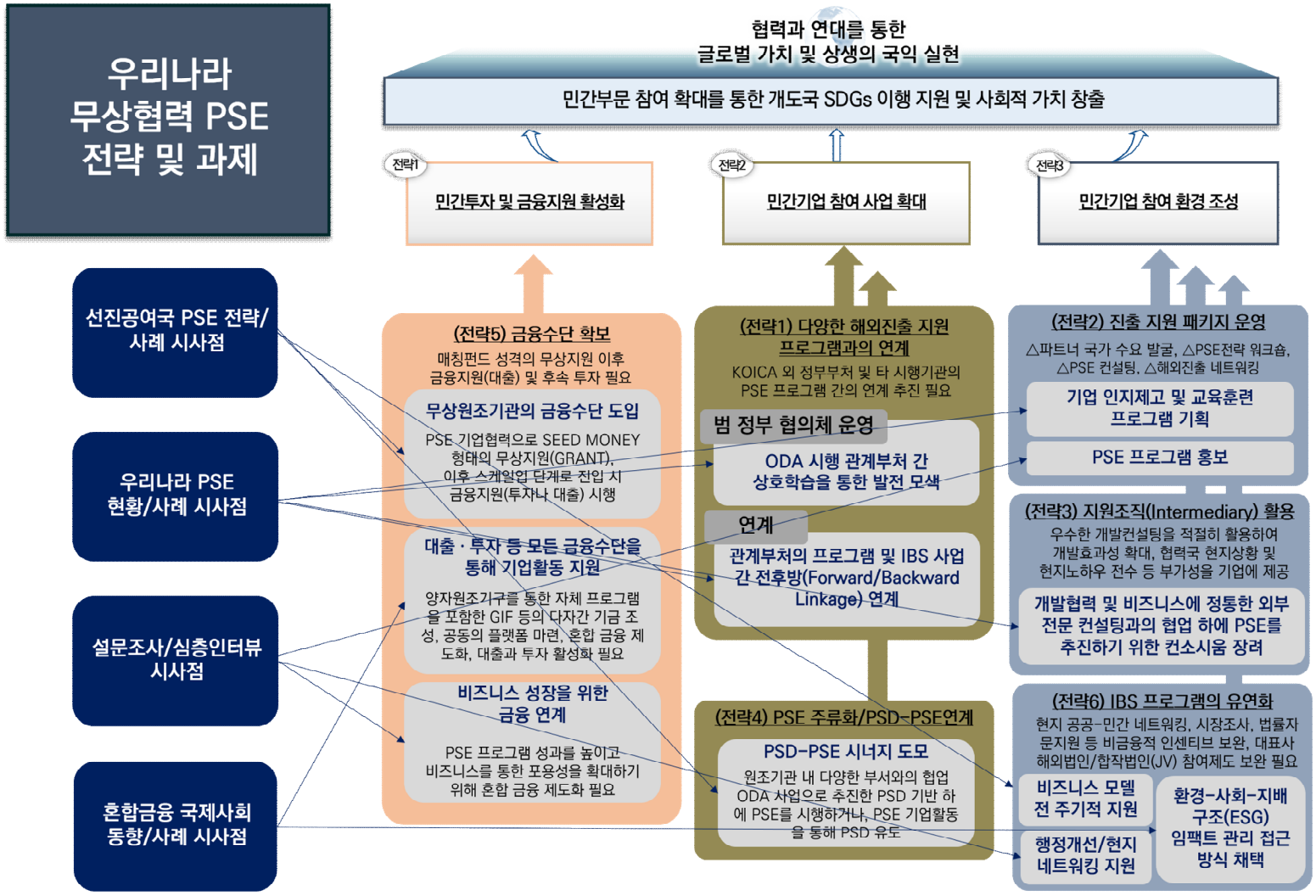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 무상지원(Seed) 이후에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무상원조기관을 통한 직접 금융지원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예, 현지 은행과 협업한 보증기금 조성) 또는 GIF 등 다자간펀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다자간 PSE 기금 참여는 국내적 제도개선의 민감성을 피하면서도 우리 기업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6. (전략과제6)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KOICA의 IBS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업협력 수단(Facility)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집행상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변해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금융 및 보조금 지원을 PSE 참여에 있어 현재 가장 큰 유인성이라 판단하지만 비금융적 인센티브인 현지 공공-민간 네트워킹과 시장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도 PSE의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지원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IBS 프로그램은 국내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활동(Activity)은 사업 대상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외법인이나 JV가 직접 사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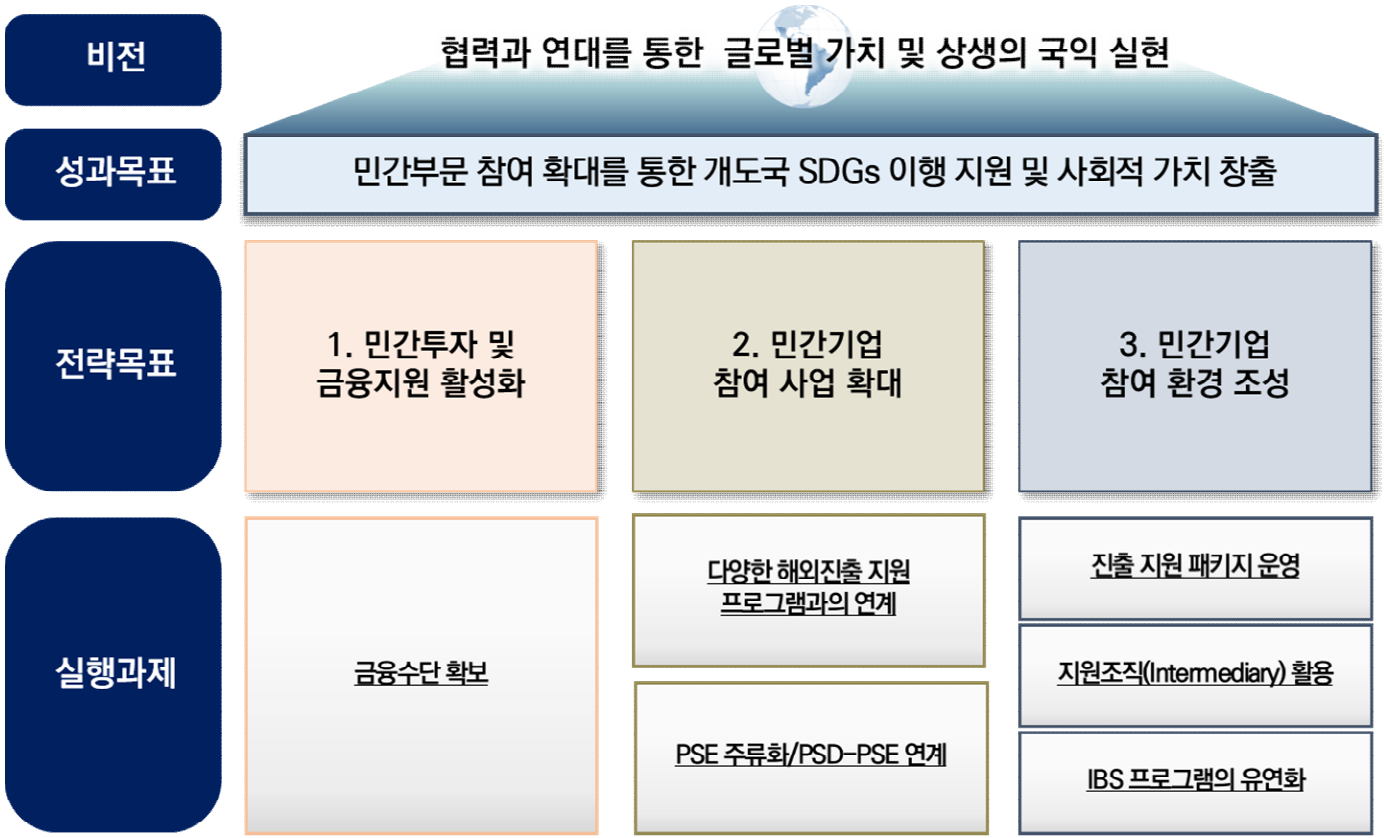
아울러 PSE의 성공 필요조건은 기업 목표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 각각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비즈니스 요소를 저해하지 않는 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사업요소에서 성과지표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가치 지향성을 정립하고 SDGs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PSE의 주류화는 공공 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에도 필요한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림 104] 최종 우리나라 무상협력 PSE 전략 및 과제



제2절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전략 체계 및 목표



2021년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ODA 중장기 계획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이 지속 논의되었고, 더 나아가 2022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부문 참여 전략까지 추가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전략 문서에서는 향후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 SDGs 이행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방안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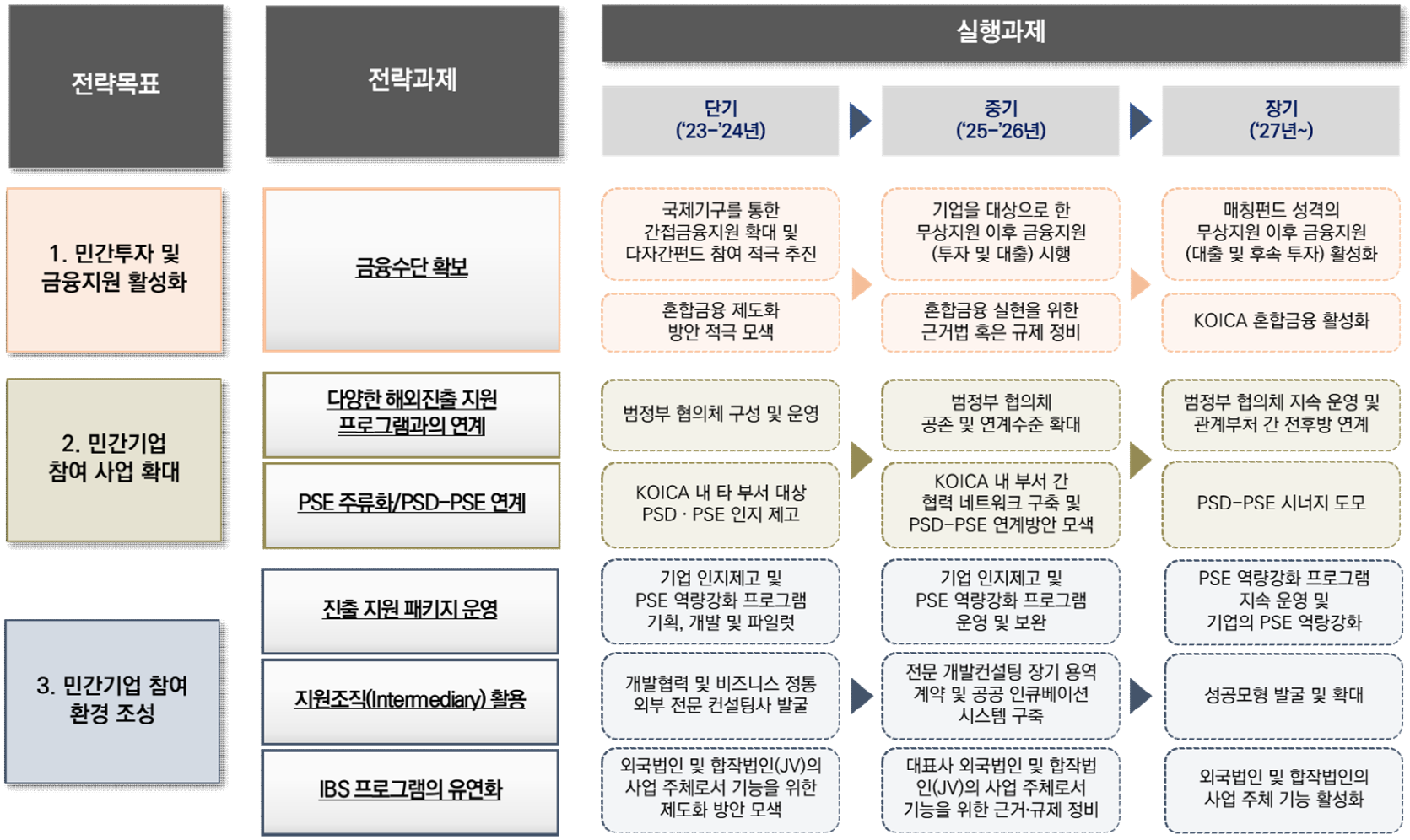
본 연구팀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정부의 새로운 ODA 정책 기조에 맞추어 무상원조를 수행하는 대표기관인 KOICA에서 시기별로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행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민간부문 참여 전략목표 세 가지에 따라 구분하여 전략체계 및 세부 추진방향을 고도화하였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민간투자와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 성격의 무상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지원(대출) 또는 후속 투자 형태의 금융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실행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금융수단이 확보되어야만 무상지원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전략목표인 민간기업 참여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실행과제로는 국내에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KOICA 외의 타 시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협력 분야 PSE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꾀하고, KOICA 내부적으로도 기업협력사업 외 추진되고 있는 국별협력사업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PSE를 주류화하거나 PSD와 PSE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무상협력 분야 PSE 프로그램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민간기업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높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무상협력 분야 및 PSE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거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내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 시 무상협력분야 및 PSE에 정통한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PSE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KOICA의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협력사업인 IBS 프로그램을 유연화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총 세 가지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2. 단계별 실행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단기 ('23-'24년)
중기 ('25-'26년)
장기 ('27년~)
1.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금융수단 확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확대 및 다자간펀드 참여 적극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 이후 금융지원 (투자 및 대출) 시행
매칭펀드 성격의 무상지원 이후 금융지원 (대출 및 후속 투자) 활성화
혼합금융 제도화 방안 적극 모색
혼합금융 실현을 위한 근거법 혹은 규제 정비
KOICA 혼합금융 활성화
2.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범정부 협의체 공존 및 연계수준 확대
범정부 협의체 지속 운영 및 관계부처 간 전후방 연계
PSE 주류화/PSD-PSE 연계
KOICA 내 타 부서 대상 PSD · PSE 인지 제고
KOICA 내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PSD-PSE 연계방안 모색
PSD-PSE 시너지 도모
3.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진출 지원 패키지 운영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파일럿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보완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기업의 PSE 역량강화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
개발협력 및 비즈니스 정통 외부 전문 컨설팅사 발굴
전문 개발컨설팅 장기 용역 계약 및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 구축
성공모형 발굴 및 확대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V)의 사업 주체로서 기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V)의 사업 주체로서 기능을 위한 근거·규제 정비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의 사업 주체 기능 활성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제별 중장기 로드맵은 앞서 도출한 실행과제들을 기반으로 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단기는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인 2023년을 포함한 2년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로 보았으며, 중기는 단기 종료 시점부터 2년인 2026년까지를, 장기는 2027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ODA 민간부문참여 전략목표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기 그림과 같이 제안한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금융수단 확보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무상지원, 즉, 보조금(Grant) 지원을 넘어서 대출 또는 후속 투자처럼 추가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시점 기준 어떠한 제도 변경이나 주요한 변화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간접금융지원과 다자간펀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단기 실행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KOICA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펀드 참여 및 간접금융지원을 확대하되 현시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적 제도개선의 민감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를 통한 직접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함으로써 KOICA의 민간기업 대상 직접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합금융 또한 마찬가지로, 현시점에는 KOICA 내에서 혼합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KOICA 내에서 혼합금융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혼합금융 실행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 및 개선하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민간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과제인 KOICA 외 타 부처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KOICA 내부의 PSE 주류화 및 PSD-PSE 연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시점 기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무상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다소 산발적인 개별 전략만 존재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유관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수준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지속 논의하여 전후방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KOICA 내부의 PSE 주류화 및 PSD-PSE 연계를 위해서는 KOICA 기업협력실 외의 타 부서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기간 내에는 PSD와 PSE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OICA 내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PSD-PSE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이들 간의 시너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과제(△진출 지

원 패키지 운영, △지원조직 활용,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를 도출하였으며, 각 전략과제별 KOICA가 단·중·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민간기업을 위한 진출 지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단기로는 기업의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파일럿(Pilot) 운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환류하고, 단기 내 기획 및 개발한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여 기업의 PSE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KOICA가 직접 단기적인 기간 내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모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발굴된 역량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사와의 장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PSE 성공모형을 발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다시금 KOICA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이 사업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KOICA가 적극 모색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근거와 규제를 마련하여 향후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의 사업 주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단·중·장기 실행과제들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재수립-적용-점검하며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계마다 유기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각각의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각 추진단계별 계획 대비 실적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에 따라, 중기와 장기를 연결하는 2026년 말을 기점으로 실행과제별 진행현황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중장기계획의 로드맵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각각의 전략목표 달성 여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2단계 중장기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PSE의 개념화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PSE를 정의하였고, 특히 유사개념인 PSD와의 비교를 통해 이 둘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PSD는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협력국 내의 민간부문 개발을 핵심요소로 하는 반면, PSE는 투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주체의 협력국내 기업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존 공여국의 PSE 전략으로 ①무상원조기관의 금융수단 도입, ②PSD-PSE 시너지 도모, ③비즈니스 모델 전 주기적 지원, ④지원조직의 적절한 활용을 도출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②, ③, ④번 전략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통해 KOICA에서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으나, ①금융수단의 도입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직접 금융지원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예, 현지 은행과 협업한 보증기금 조성) 또는 GIF 등 다자간펀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KOICA 내 PSE,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주류화가 필요하다. 국별사업과의 시너지, 현장 사무소 중심 PSE 운영, 나아가 금융수단 도입 등 앞으로의 전향적인 PSE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집행(Execution)에 있어 정책(외교부)과 실무(KOICA)를 담당할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가 매우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시혜적인 무상 개발원조’, 또는 ‘민간은 NGO 활동이 주류’라는 기존 멘탈리티로부터의 확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인지제고는 물론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공공 집행 조직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민간기업을 통한 협력국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모델이 PSE와 PSD이므로, 한국의 플래그십 국제개발협력 전략으로 PSE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PSE 구현을 위해선 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고 또한 기능적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부처간 ODA 분절화를 극복하고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플랫폼이다.

참고 문헌

곽재성. (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 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곽재성. (2012). *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한국국제협력단.

고요한 & 김효신. (2017).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전략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김상훈 & 임소영. (2020). *개발협력기관의 기업과의 협력전략 동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김성규. (2012).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ODA 방안 : 빈곤층 친화적 시장개발(MM4P)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김은주 & 이도석. (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9-22. 한국행정연구원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 이민영. (2014). *주요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남 & 김형찬. (2018). *KOICA 임팩트투자 및 혼합재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김태훈. (2017). PPP, *개발금융을 통한 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기획재정부

민준기. (2016). *혁신적 금융수단의 무상ODA사업 적용방안 및 사례분석*. 한국국제협력단.

방호경 외.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송지혜. (202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외,. (2019).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수현. (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재커니즘.* 한국국제협력단.

오수현 & 이성진. (2016).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OECD. (2018).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OECD. (20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DAC로부터의 교훈.* OECD

이미정 외,. (2019). *타 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조달) 방식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이효정. (2019).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협력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정선인, 나혜선, & 이상준. (2016).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803. 산업연구원.

임소영, 정선인, 임소진, & 나혜선. (2017). *주요 부문별 혼합금융 활용을 통한 국제개발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2017-828. 산업연구원.

정지선,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ODA정책연구 1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 유애라. (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 유애라. (2018).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KIEP 연구보고서 1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한슬. (2016). *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 :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최민경. (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PPP와 개발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최진욱 외,. (2021).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홍성창 외. (2018).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Anja-Nadine Koenig, Edward T. Jackson, & Brian Carriere. (2016). *Private Capit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Options for Engagement in Impact Investing and Innovative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Anna Gerrard, & Cindi Cisek. (2021). *Building a Roadmap for Systematic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Health.* The Palladium Group.

CPDE, & TUDCN. (2016).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 with ODA funds.* CPDE, & TUDCN.

Frank Beckers, & Uwe Stegemann. (2021). *A smarter way to think about Public-private partnerships.* McKinsey&Company.

GPEDC. (2020). *Effective private sector engagement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IPU, & UNDP. (2020).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engagement and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UNDP.

Marin, P. (2022). *USTDA Generates Record Results for U.S. Exporters.* Retrieved from : https://ustda.gov/ustda-generates-record-results-for-u-s-exporters-2/

M-KOPA. (2021). *M-KOPA Impact Report, 2021*. Retrieved from : https://m-kopa.com/wp-content/uploads/2014/02/M-KOPA-2021-Impact-Report-Digital.pdf

Naeeda Crishna Morgado & Bérénice Lasfargues. (2017). *Engaging the Private Sector for Green Growth and Climate Action: An Overview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OECD.

OECD. (2022).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3: No Sustainability Without Equity.* Retrieved from : https://read.oecd-ilibrary.org/finance-and-investment/global-outlook-on-financing-for-sustainable-development-2023_52c8c42e-en#page44

OECD DAC. (2016).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ECD, & UNCDF. (2020).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20: Supporting a Resilient COVID-19 Recovery*. OECD.

OECD, & WTO. (2015). *Deepen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aid for trade, in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pp. 217-236. OECD, & WTO.

UNCCD. (2021). *Enhancing the business sector engagement in the UNCCD Evaluation report Elements of a new strategy.*

UNDP. (2018). Development Finance Assessment Snapshot Philippines: *Financing the future with an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UNDP.

Wehrmann, & Dorothea. (2018) : *Incentivising and regulating multi-actor partnerships and private-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KOICA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별첨 1] 설문조사 문항지

1. CTS 기업 대상 설문조사 문항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은 현재《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국제개발컨설팅 KODAC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기업의 개도국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도 확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재원으로 함.

응답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오니, 민간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도국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도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본 연구 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을 포함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I. 민간기업 기본정보

다음 질문들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본 연구 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SQ1. 기업명 *단답형
SQ2. 기업 설립연도 또는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단답형

SQ3. 업종	
문항	응답
(1) 제조업	
(2) 건축/건설업	
(3)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4) 운수업	
(5) 보건/의료업	
(6) 금융/보험업	
(7) 전문서비스업	
(8) 교육서비스업	
(9) 문화/예술/스포츠	
(10) 소프트웨어 개발업	
(11) 기타 : _____	

SQ4. 최근 5년간(2017-2021) 연평균 매출 규모	
문항	응답
(1) 10억 미만	
(2) 10억-50억 미만	
(3) 50억-100억 미만	
(4) 100억-500억 미만	

SQ5. 귀사는 해외 진출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계획이 없다	
(2) 계획하고 있다	

SQ6.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해외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유럽	
(3) 북미	
(4) 남태평양/오세아니아	
(5) 아시아	
(6) 중동/북아프리카	
(7) 사하라 이남	
(8) 중남미	
(9) CIS	
(10) 기타	

SQ6-1. 귀사가 해외 진출하고자하는 국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답형

SQ7. 귀사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해외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현지 시장에 대한 수출	
(3)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	
(4) 기타 : _____	

[→ Ⅱ.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섹터 계속]

Ⅱ.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다음 2가지 항목(CTS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이 있습니다.

***CTS 프로그램이란?**

CTS는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의 약자로,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의미함.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증여 및 낮은 이율의 차관을 의미함.

Q1. 귀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CT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없다 [→ Ⅱ-A로 이동]	
(2) 있다 [→ Ⅱ-B로 이동]	

Ⅱ-A. CTS 프로그램 참여 여부(無)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CTS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세부 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1. 귀사는 향후 CTS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없다	
(2) 있다	
A-2. 귀사가 향후 CTS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CTS 프로그램 참여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사업 SEED 마련	
(3) 해외진출 국가의 시장정보 수집	
(4) 수출 기회 탐색	
(5) 해외 투자 유치	
(6)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7) CTS 참여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킹	
(8) 기타 : _____	
A-3. 귀사가 CTS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 Ⅲ.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섹터로 이동]

Ⅱ-B. CTS 프로그램 참여 여부(有)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CTS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 세부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B-1. 귀사가 CTS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사업 SEED 마련	
(2) 해외진출 국가의 시장 정보 수집	
(3) 수출 기회 탐색	
(4) 해외 투자 유치	
(5)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6) CTS 참여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킹	
(7) 기타 : _____	
B-2. 귀사는 CTS SEED 두 단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SEED 1단계 종료 후, SEED 2단계 지원)	
문항	
(1) 예 [→ B-3로 이동]	
(2) 아니오 [→ B-4로 이동]	

B-3. 귀사가 CTS 다음 단계를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CTS SEED 두 단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없는 경우)	
(2) 개도국의 시장 정보 수집 용이	
(3)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포착	
(4) 개발협력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	
(5) CTS 참여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6) 해당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 개도국 내 유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 확인	
(7) 기타 : _____	
B-4. 귀사가 CTS 다음 단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CTS SEED 두 단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지원 받는 SEED 부족	
(3) 이전 SEED 단계에서의 사업 실패	
(4) 개발협력사업의 어려움	
(5) 과도한 행정처리	
(6) 기타 : _____	
B-5. 귀사가 CTS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 Ⅲ.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섹터 계속]

Ⅲ.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다음 2가지 항목(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이 있습니다.

Q2. 귀사는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예 [→ Ⅲ-D로 이동]	
(2) 아니오 [→ Ⅲ-C로 이동]	

Ⅲ-C.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참여 여부(無)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CTS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우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혹은 국제기구나 해외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세부 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C-1. 귀사가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 프로그램 참여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3)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4) K-스타트업 센터	
(5) 기타 : _____	
C-2. 귀사가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사업 SEED 마련	
(2) 현지 시장조사 정보	
(3) 현지 법률 자문	
(4) 현지 네트워킹	
(5) 사업 고도화 컨설팅 프로그램	
(6) 현지 투자유치 지원	
(7) 기타 : _____	

[→ Ⅳ.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조사 섹터로 이동]

Ⅲ-D. CTS 외의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참여 여부(有)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CTS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우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진출 창업/해외 창업프로그램 혹은 국제기구나 해외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 세부 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D-1. 귀사가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2)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3) K-스타트업 센터	
(4) 기타 : _____	
D-2. 귀사가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사업 SEED 마련	
(2) 현지 시장조사 정보	
(3) 현지 법률 자문	
(4) 현지 네트워킹	
(5) 사업 고도화 컨설팅 프로그램	
(6) 현지 투자유치 지원	
(7) 기타 : _____	

[→ Ⅳ.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조사 섹터 계속]

Ⅳ.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재원으로 함.

****공적개발원조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증여 및 낮은 이율의 차관을 의미함.

*****개발도상국이란?**

본 설문에서는 후진국,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개발도상국'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함.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대비되는 국가들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낮은 소득수준, 낮은 보건 및 교육 수준, 부족한 사회, 경제 인프라 등의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Q3.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한국은 2010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조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2) UN은 DAC 공여국들이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7%를 ODA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 2021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16%로, DAC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에 따라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4)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다.	
(5)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6) 효과적 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 관련 개발협력 활동 성과의 최대화를 의미한다.	
(7) 전부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Q4.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귀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전혀 무관하다.	
(2)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관련이 있으나, 민간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	
(3)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기업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4) 개발도상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기업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IBS 참여 기업 대상 설문조사 문항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은 현재《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국제개발컨설팅 KODAC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기업의 개도국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도 확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재원으로 함.

응답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오니, 민간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도국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도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본 연구 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을 포함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I. 민간기업 기본정보

다음 질문들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본 연구 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SQ1. 기업명 *단답형	
SQ2. 기업 설립연도 또는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단답형	
SQ3. 업종	
문항	응답
(1) 제조업	
(2) 건축/건설업	
(3)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4) 운수업	
(5) 보건/의료업	
(6) 금융/보험업	
(7) 전문서비스업	
(8) 교육서비스업	
(9) 문화/예술/스포츠	
(10) 소프트웨어 개발업	
(11) 기타 : _____	
SQ4. 기업 규모	
문항	응답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SQ5. 최근 5년간(2017-2021) 연평균 매출 규모	
문항	응답
(1) 10억 미만	
(2) 10억-50억 미만	
(3) 50억-100억 미만	
(4) 100억-500억 미만	
SQ6. 귀사는 해외 진출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계획이 없다.	
(2) 진출 중이다.	
(3) 계획하고 있다.	

SQ7.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해외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유럽	
(3) 북미	
(4) 남태평양/오세아니아	
(5) 아시아	
(6) 중동/북아프리카	
(7) 사하라 이남	
(8) 중남미	
(9) CIS	
(10) 기타 : _____	

SQ7-1. 귀사가 해외 진출하고자하는 국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답형

SQ8. 귀사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해외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현지 시장에 대한 수출	
(3)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	
(4) 기타 : _____	

[→ Ⅱ.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섹터 계속]

Ⅱ.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다음 2가지 항목(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이 있습니다.

Q1. 다음 그림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설명 확인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문항	응답
(1)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확인했다.	
(2)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Q2. 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없다 [→ Ⅱ-A로 이동]	
(2) 있다 [→ Ⅱ-B로 이동]	

Ⅱ-A.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無)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세부 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1. 귀사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2)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3)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4)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글로벌 ESG+ 사업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상생협력 OVOP CSV	
(8) 한국광해관리공단 - 해외기관(정부) 협력 사업	
(9) 한국광해관리공단 - 해외진출기업 컨설팅 및 지원	
(10) 한국플랜트사업협회 - 타당성조사 지원	
(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기술 공동 R&D 사업	
(12) 본투글로벌센터 - 목표지역 특화형 사업	
(13) 본투글로벌센터 - 해외진출 성장형 사업	
(14) GTC - UNFCCC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기술지원 사업: CTCN 재원사업	
(15) GTC - UNFCCC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기술지원사업: 프로보노	
(16)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기술컨설팅	
(17)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18)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민간환경조사	
(19)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컨설팅	
(20)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해외농업개척조사	
(21)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국가정책조사	
(22) 환경산업기술원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3)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24)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25) 환경산업기술원 -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26)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업 해외벤더등록 지원사업	
(27) 환경산업기술원 - 다자개발은행(MDB) 환경협력사업 수주 지원	
(28)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29) 해양수산부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사업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외물류시장 타당성조사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외물류시장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3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3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34)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35) 기타 : _____	

A-2. 귀사가 해외 진출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우선 순위 순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3순위 개별 선택)	
문항	1~3순위 응답
(1) 보조금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금액 지원)	
(2) 금융 지원(프로그램 수행 또는 종료 후 VC 등 네트워크 지원)	
(3)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	
(4) 현지 법률 자문 지원	
(5) 언어 지원	
(6)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	
(7) 현지 공공 부문과의 네트워킹	
(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	
(9) 기타 : _____	
A-3. 상기 답변을 "1, 2, 3순위"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술형 *(A-2)에서 해외 진출 시 가장 필요한 지원 "1, 2, 3순위"로 선택한 이유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상세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Ⅲ.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섹터로 이동]

Ⅱ-B.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有)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 세부 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B-1. 귀사가 참여해 본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2)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3)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4) 한국에너지공단(KEA) -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글로벌 ESG+ 사업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상생협력 OVOP CSV	
(8) 한국광해관리공단 - 해외기관(정부) 협력 사업	
(9) 한국광해관리공단 - 해외진출기업 컨설팅 및 지원	
(10) 한국플랜트사업협회 - 타당성조사 지원	
(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기술 공동 R&D 사업	
(12) 본투글로벌센터 - 목표지역 특화형 사업	
(13) 본투글로벌센터 - 해외진출 성장형 사업	
(14) GTC - UNFCCC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기술지원 사업: CTCN 재원사업	
(15) GTC - UNFCCC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기술지원사업: 프로보노	
(16)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기술컨설팅	
(17)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18)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민간환경조사	
(19)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컨설팅	

(20)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해외농업개척조사	
(21)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국가정책조사	
(22) 환경산업기술원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3)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24)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25) 환경산업기술원 -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26)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업 해외벤더등록 지원사업	
(27) 환경산업기술원 - 다자개발은행(MDB) 환경협력사업 수주 지원	
(28)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29) 해양수산부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사업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외물류시장 타당성조사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외물류시장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3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3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34)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35) 기타 : _____	

B-2. 귀사가 이와 같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보조금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금액 지원)	
(2) 금융 지원(프로그램 수행 또는 종료 후 VC 등 네트워크 지원)	
(3)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	
(4) 현지 법률 자문 지원	
(5) 언어 지원	
(6)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	
(7) 현지 공공 부문과의 네트워킹	
(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	
(9) 기타 : _____	

B-3. 귀사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복잡한 행정사무 및 절차	
(2) 짧은 사업 시행 기간	
(3) 제한된 예산	
(4) 노력 대비 낮은 효과	
(5) 기타 : _____	

B-4. 귀사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혜택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양질의 시장 정보	
(2)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3) 현지 파트너십	
(4) 국가 인증 획득	
(5) 현지법인 및 지사설립 등 현지화 작업	
(6) 자금 조달	
(7) 기타 : _____	

[→ Ⅲ.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섹터 계속]

Ⅲ.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다음 2가지 항목(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이 있습니다.

Q3. 다음 그림의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설명 확인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이란?**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참고)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재원으로 함.

문항	응답
(1)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확인했다.	
(2)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Q4. 귀사는 향후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예	
(2) 아니오	

Q4-1.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주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개발도상국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2) 아시아	
(3) 중동/북아프리카	
(4) 사하라 이남	
(5) 중남미	
(6) CIS	
(7) 기타 : _____	

Q4-2. 귀사가 진출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답형
개발도상국 진출 계획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Q5. 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경험이 없다 [→ Ⅲ-C로 이동]	
(2) 경험이 있다 [→ Ⅲ-D로 건너뒤세요]	

Ⅲ-C.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無)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세부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C-1. 귀사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한국에너지공단(KEA) - 정책컨설팅	
(2) 한국에너지공단(KEA) - 국제기구 협력사업	
(3) 한국에너지공단(KEA)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프로젝트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통합기획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8) 한국광해관리공단 - 프로젝트형 개발협력사업	
(9)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CTS	
(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11)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12) EDCF - 복합금융 활용 인프라 사업	
(13) EDCF - 민간협력 전대차관 활용 사업	
(14) EDCF - 민간협력 차관 사업	
(15) EDCF - 차관 조건 우대 사업	
(16) EDCF - 소액 차관 사업	
(17) EDCF - 섹터개발차관 사업	
(18) NIPA - K-lab 설치 및 운영 사업	
(19) 한국농어촌공사 - 국제농업협력사업	
(20) 환경공단 - K-eco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21) 환경산업기술원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2) 기타 : _____	
C-2. 귀사는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1) 예(→ [C-3]로 이동)	
(2) 아니오(→ [C-5]로 이동)	
C-3. 귀사가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 (C-2에서 아니오 선택함)	
(2) 세제 혜택	
(3) 매칭펀드 지원	
(4) 금융 지원	
(5)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6)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	
(7)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8)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9)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	
(10) 기타 : _____	

C-4. 귀사가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제 얻은 시너지 효과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해당사항 없음. (C-2에서 아니오 선택함)	
(2) 세제 혜택	
(3) 매칭펀드 지원	
(4) 금융 지원	
(5)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6)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	
(7)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8)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9)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	
(10) 기타 : _____	
C-5. 귀사가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혹은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	
(2)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다	
(3)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모르겠다	
(4) 개도국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다	
(5) 개발성과 달성에 관심이 없다	
(6) 기타 : _____	

[→ IV.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조사 섹터 계속]

III-D.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여부(有)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 세부문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D-1. 귀사가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한국에너지공단(KEA) - 정책컨설팅	
(2) 한국에너지공단(KEA) - 국제기구 협력사업	
(3) 한국에너지공단(KEA)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프로젝트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통합기획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8) 한국광해관리공단 - 프로젝트형 개발협력사업	
(9)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CTS	
(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11)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12) EDCF - 복합금융 활용 인프라 사업	
(13) EDCF - 민간협력 전대차관 활용 사업	
(14) EDCF - 민간협력 차관 사업	

(15) EDCF - 차관 조건 우대 사업	
(16) EDCF - 소액 차관 사업	
(17) EDCF - 섹터개발차관 사업	
(18) NIPA - K-lab 설치 및 운영 사업	
(19) 한국농어촌공사 - 국제농업협력사업	
(20) 환경공단 - K-eco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21) 환경산업기술원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2) 기타 : _____	

D-2. 귀사는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문항	응답
(1) 대표사(사업 주관사)	
(2) 컨소시엄(사업 참여사)	
(3) 모르겠다	
(4) 기타 : _____	

D-3. 귀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세제 혜택	
(2) 매칭펀드 지원	
(3) 금융 지원	
(4)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5)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	
(6)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7)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8)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	
(9) 기타 : _____	

D-4. 귀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제 얻은 시너지 효과는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세제 혜택	
(2) 투자 유치	
(3) 수출 판로 확보	
(4)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5)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	
(6)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7)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8)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	
(9) 기타 : _____	

D-5. 귀사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보조금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지원 금액)	
(2) 금융 지원(프로그램 수행 또는 종료 후 VC 등 네트워크 지원)	
(3) 현지 시장조사 지원	
(4) 현지 법률 자문 지원	
(5) 언어 지원	
(6)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	
(7) 현지 공공 부문과의 네트워킹	
(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	
(9) 기타 : _____	
D-6. 귀사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보조금 지원(프로그램별 최대 지원 금액)	
(2) 금융 지원(프로그램 수행 또는 종료 후 VC 등 네트워크 지원)	
(3) 현지 시장조사 지원	
(4) 현지 법률 자문 지원	
(5) 언어 지원	
(6)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	
(7) 현지 공공 부문과의 네트워킹	
(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	
(9) 기타 : _____	
D-7. 귀사가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1) 복잡한 행정사무 및 절차	
(2) 짧은 해외진출 사업 시행 기간	
(3) 제한된 예산	
(4) 노력 대비 낮은 효과	
(5) 기타 : _____	

[→ IV.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조사 섹터 계속]

Ⅳ.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재원으로 함.

****공적개발원조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증여 및 낮은 이율의 차관을 의미함.

*****개발도상국이란?**

본 설문에서는 후진국,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개발도상국'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함.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대비되는 국가들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낮은 소득수준, 낮은 보건 및 교육 수준, 부족한 사회, 경제 인프라 등의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Q6.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다음 용어들 중, 귀사가 의미를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PDM(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3)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 목표	
(4)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기업참여 민관협력	
(5)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6) PSD(Private Sector Development), 민간부문개발	

Q7.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한국은 2010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조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2) UN은 DAC 공여국들이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7%를 ODA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 2021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16%로, DAC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에 따라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4)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다.	
(5)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6) 효과적 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 관련 개발협력 활동 성과의 최대화를 의미한다.	
(7) 전부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Q8.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귀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방향성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전혀 무관하다.	
(2)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관련이 있으나, 민간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	
(3)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활동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기업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성과 달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4) 개발도상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기업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	

[→ V. 민간기업의 성장 단계와의 연계성 섹터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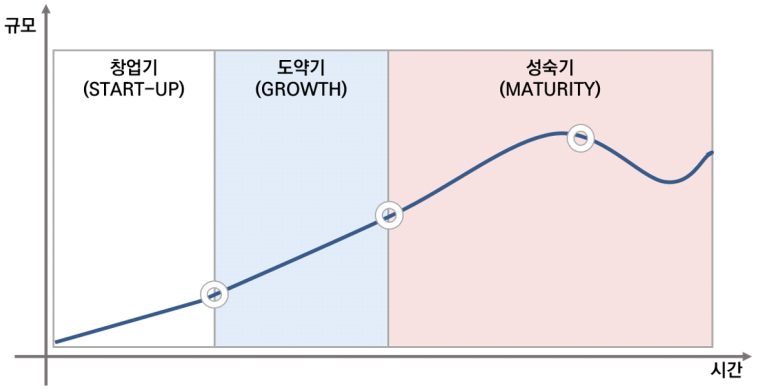
V. 민간기업의 성장 단계와의 연계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과 민간기업의 성장단계와의 연계성

***민간기업의 성장단계**

민간기업의 성장단계는 크게 ①창업기, ②도약기, ③성숙기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성장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①창업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 경영시스템 및 외부 지원조직 설계 시기
- ②도약기: 창업 제품 및 서비스로 사업화하여, 시장 검증 및 시장 본격 진출하는 시기
- ③성숙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기술 등을 고도화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



Q9. 국제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다음 용어들 중, 귀사가 의미를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1) 창업기(START-UP)	
(2) 도약기(GROWTH)	
(3) 성숙기(MATURITY)	
Q10. 귀사가 해외 진출을 결정하셨던 시점에는 민간기업 성장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1) 창업기(START-UP)	
(2) 도약기(GROWTH)	
(3) 성숙기(MATURITY)	
Q11. 해외진출 정부지원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귀사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십시오. *서술형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2]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1. (A사)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가. 심층인터뷰 개요

□ 참석자: 곽재성(연구책임자), 최윤인(연구원), 김현정(보조연구원), 이지윤(보조연구원) / 총 4인

□ 대상자: ㅇㅇㅇ 법인장

□ 실시방안: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 일시: 2022년 09월 27일(화) 16:00-17:00, 한국시간 기준 / 약 1시간

나. 심층인터뷰 실시목적

□ **(목적)**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재원으로 함.

○ A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다. 심층인터뷰 대상 기업 소개

	A사
설립연도	2017
업종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100억-50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PSE(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성장단계	창업기(Start-Up)

구분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진출경험	없음	있음
참여한 프로그램명	N/A	KOICA IBS 프로그램 *현재 진출 중

□ **(설문조사 기타 의견)** "현재 진행하거나 새로이 진출하려는 사업의 규모나 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라 생각됨", *지역이나 사업의 전개 방향성, 사업의 전체 규모 등이 너무 작아, 실제 이를 진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그 효과나 실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가능한 많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음"

라.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설명

□ **(해외진출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민간부문참여(PSE)의 개념

구분	민간부문참여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공여국의 민간 부문
배경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 ODA 정체 경향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AAAA)

마. 심층인터뷰 질문지

□ 해외 진출 관련

○ 현재 진출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귀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 대상 지역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특정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해외 진출을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 해외 진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재원/법제도/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련

○ 아직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여러 가지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별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 해외 진출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 2순위는 보조금 지원, 3순위는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

○ KOICA IBS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며 PSE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시너지 효과로도 동일하게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실제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련 사례 소개 또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지원으로는 보조금 지원으로 답변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 보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내 자본 또는 벤처 투자 연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이윤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역할로는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제한된 예산이라고 응답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비즈니스에 개발협력을 융합하며 겪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요?

○ IB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개도국 내 개발성과와 관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있습니까?

○ 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기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일 필요한가요?

2. (B사)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가. 심층인터뷰 개요

☐ 참석자: 곽재성(연구책임자), 최윤인(연구원), 김현정(보조연구원), 이지윤(보조연구원) / 총 4인

☐ 대상자: ㅇㅇㅇ 차장

☐ 실시방안: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 일시: 2022년 09월 28일(수) 10:00-11:00, 한국시간 기준 / 약 1시간

나. 심층인터뷰 실시목적

☐ **(목적)**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재원으로 함.

○ B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무상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다. 심층인터뷰 대상 기업 소개

	B사
설립연도	2008
업종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50억-10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PSE(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성장단계	성숙기(Maturity)

구분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진출경험	없음	있음
참여한 프로그램명	N/A	KOICA IBS 프로그램 *현재 베트남 진출 중에 있음.

□ **(설문조사 기타 의견)** "이미 각 국가에 먼저 진출하거나 실패하거나 진행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국가 현지에서 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프로젝트 건으로 협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노력이 필요함. 일례로, 당사는 후발참여 기업에게 사무실 임대와 법무 컨설팅, 시설(PC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검증 받은 현지 파트너를 소개하여 초기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함"

라.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설명

□ **(해외진출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민간부문참여(PSE)의 개념

구분	민간부문참여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공여국의 민간 부문
배경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 ODA 정체 경향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AAAA)

마. 심층인터뷰 질문지

□ 해외 진출 관련

○ 현재 베트남 진출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외 진출을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 해외 진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재원/법제도/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련

○ 아직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신데, 참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해외 진출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현지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 2순위는 현지 법률 자문 지원, 3순위는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

○ KOICA IBS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매칭펀드 지원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매칭펀드 지원'을 기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며 PSE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시너지 효과로는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관련 사례 소개 또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역할로 보조금 지원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지원으로도 보조금 지원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보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내 자본 또는 벤처 투자 연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이윤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보조금의 사용제한과 증빙 절차라고 응답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비즈니스에 개발협력을 융합하며 겪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요?

○ IB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도국 내 개발성과와 관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있습니까?

○ 사업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기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일 필요한가요?

3. (C사)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가. 심층인터뷰 개요

☐ 참석자: 곽재성(연구책임자), 최윤인(연구원), 김현정(보조연구원), 이지윤(보조연구원) / 총 4인

☐ 대상자: ㅇㅇㅇ 대표이사

☐ 실시방안: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 일시: 2022년 09월 27일(화) 17:00-18:00, 한국시간 기준 / 약 1시간

나. 심층인터뷰 실시목적

☐ **(목적)**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재원으로 함.

○ C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무상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다. 심층인터뷰 대상 기업 소개

	C사
설립연도	2011
업종	제조업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5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정보화진흥원(NIA) 해외실증사업
성장단계	도약기(Growth)

구분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진출경험	있음	없음
참여한 프로그램명	2016년 정보화진흥원(NIA) 해외 실증 사업	N/A

□ **(설문조사 기타 의견)** "서로 모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G2G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업무는 민간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라.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설명

□ **(해외진출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민간부문참여(PSE)의 개념

구분	민간부문참여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공여국의 민간 부문
배경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 ODA 정체 경향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AAAA)

마. 심층인터뷰 질문지

□ 해외 진출 관련

○ 현재 해외 진출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외 진출을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 해외 진출 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재원/법제도/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련

○ 2016년 정보화진흥원(NIA) 해외 실증사업에 참여해주셨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혜택으로는 현지 파트너십이라고 응답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제한된 예산이라고 응답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현지 실증을 언급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혜택은 현지 파트너십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 ‘현지 실증’을 기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기대한 만큼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기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PSE 프로그램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해외실증으로 응답해주셨는데, 해외실증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 또한, PSE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너지 효과로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을 선택해주셨는데, 개도국에 진출하고자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의 애로사항으로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다고 응답주셨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PSE 프로그램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일 필요한가요?

4. (D사)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가. 심층인터뷰 개요

☐ 참석자: 곽재성(연구책임자), 최윤인(연구원), 김현정(보조연구원), 이지윤(보조연구원) / 총 4인

☐ 대상자: ㅇㅇㅇ 팀장

☐ 실시방안: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 일시: 2022년 09월 28일(수) 17:00-18:00, 한국시간 기준 / 약 1시간

나. 심층인터뷰 실시목적

☐ **(목적)**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재원으로 함.

❍ D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무상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다. 심층인터뷰 대상 기업 소개

	D사
설립연도	2017
업종	농업회사법인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50억-10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성장형 사업
성장단계	도약기(Growth

구분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진출경험	있음	없음
참여한 프로그램명	본투글로벌센터 - 해외진출 성장형 사업	N/A

□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를 유치함

□ **(설문조사 기타 의견)** "개도국의 문제점 (사업 시간지연, 현지 인력 소싱, 인프라 미흡)을 조금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방향이 필요하며 실제로 국가 또는 사업성 신용이 검증된 회사와 만나길 희망합니다"

라.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설명

□ **(해외진출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민간부문참여(PSE)의 개념

구분	민간부문참여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공여국의 민간 부문
배경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 ODA 정체 경향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AAAA)

마. 심층인터뷰 질문지

□ 해외 진출 관련

○ 현재 해외 진출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특정해주셨는데, 두 국가에 모두 진출 중이신지 아니면 진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해외 진출을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 해외 진출 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재원/법제도/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련

○ ‘본투글로벌센터-해외진출 성장형 사업’에 참여해주셨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이라고 언급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혜택으로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응답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 '사업 파트너/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기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련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제한된 예산이라고 응답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기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PSE 프로그램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로 응답해주셨는데, 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 또한, PSE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너지 효과로는 금융 지원을 선택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도국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다'고 응답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 개도국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러한 위험부담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해결해주길 원하십니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위험을 부담해준다면,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개발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PSE 프로그램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일 필요한가요?

5. (E사)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가. 심층인터뷰 개요

□ 참석자: 곽재성(연구책임자), 최윤인(연구원), 김현정(보조연구원), 이지윤(보조연구원) / 총 4인

□ 대상자: ㅇㅇㅇ 대표

□ 실시방안: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 일시: 2022년 09월 27일(화) 18:00-19:00, 한국시간 기준 / 약 1시간

나. 심층인터뷰 실시목적

□ **(목적)**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재원으로 함.

○ E사의 개발도상국 진출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지원 영역, 향후 참여 의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무상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다. 심층인터뷰 대상 기업 소개

	E사
설립연도	2021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업
규모	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참여 프로그램	없음
성장단계	창업기(Start-Up)

구분	해외진출 프로그램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진출경험	없음	없음
참여한 프로그램명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설문조사 기타 의견)** "현재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보다는 이후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라.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설명

□ **(해외진출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 약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참여를 의미함. 즉,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가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민간부문참여(PSE)의 개념

구분	민간부문참여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공여국의 민간 부문
배경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 ODA 정체 경향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 (AAAA)

마. 심층인터뷰 질문지

□ 해외 진출 관련

○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외 진출을 계획하시면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을 특별히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해외 진출을 계획하며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재원/법제도/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련

○ 아직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설문조사에 나열된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모두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해외 진출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언어지원, 2순위는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 3순위는 현지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

○ PSE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응답해주셨는데, 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 만약 PSE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PSE 프로그램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일 필요한가요?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

민간기업 개발협력 참여방안 지침서(가안)

2023. 04. 07.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제1장.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이해

1.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란?

가. 민간부문참여(PSE) 개념 소개

□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수단과 방식을 ‘민간부문참여’ 혹은 ‘PSE’라고 정의됨.

○ PSE는 ‘Private Sector Engagement’의 약자이며, 국제사회 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부문[1], 즉 민간기업의 참여를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됨.

○ 즉, 민간기업을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로 보고,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화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도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 자선적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 중심의 CSR을 벗어나, 민간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협력국/개발도상국 내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가며 민간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되, 협력국/개발도상국 내 사회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하는 것을 추구

□ (OECD[2]의 민간부문참여/PSE 개념 정의) 개발협력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개발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식

[표 1] 국제사회 내 PSE 개념 정의

구분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 민간 기업(협력국, 공여국, 다국적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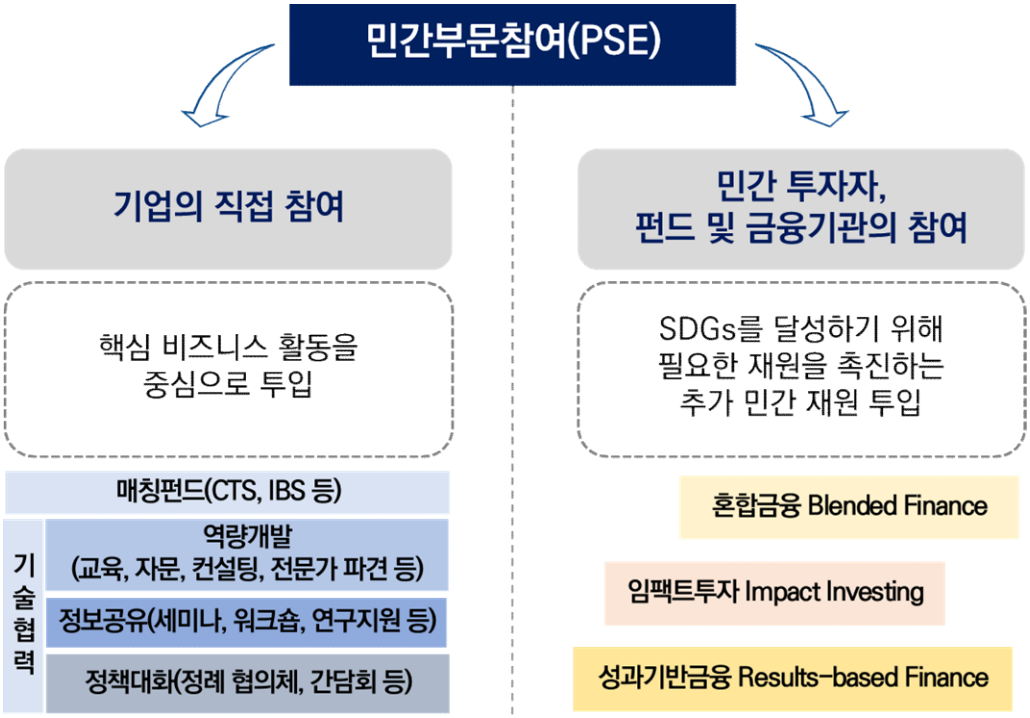
1) 본 지침서 내 사용되는 용어 ‘민간부문’은 ‘민간기업’에 한정하여 활용
2)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이며 상호 조화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기관

배경	- ODA보다 협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이 확연히 증가하는 21세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개념
주안점	- 민간 비즈니스로 개발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활동에 주목

나. 민간부문참여(PSE) 유형 소개

□ 국제사회 내 민간부문참여(PSE)는 다음 두 가지(①기업의 직접 참여, ②민간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간접 참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됨.

[그림 1] 민간부문참여/PSE의 유형



1) 기업의 직접 참여

□ 다국적 또는 공여국 소재의 민간기업들이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파트너로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참여(PSE) 유형

○ 민간기업이 직접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국/개발도상국 내 장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개발성과까지 달성하는 것을 의미

- 기업이 조달(입찰)을 통해 ODA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제외

□ (매칭펀드) KOICA는 민간부문참여/PS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칭펀드 방식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협력) KOICA 외 타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민간기업과 함께 역량개발(교육, 자문,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정보공유(세미나, 워크숍, 연구지원 등), 정책대화(정례 협의체, 간담회 등) 외 다양한 방식의 PS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2) 민간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간접 참여

□ 민간 투자자, 펀드 및 금융기관이 SDGs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을 촉진 및 증대하는 민간부문참여(PSE) 유형

○ 동 유형은 보통 공동투자(Co-funding), 공동소유(Co-ownership), 공동설계(Co-design), 공동운영(Co-steering) 형태로, 공여주체와 민간부문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으로 인식됨.

□ (혼합금융)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을 의미함.

○ 개발도상국은 타 선진국 대비 비교적 리스크, 투자위험이 높음에 따라, 공여주체가 공적 개발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

- (공공) 이를 통해 민간부문이 함께 투자하게 된다면, 공공부문은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민간) 비교적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임팩트투자)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성과까지 달성하도록 고안된 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등의 투자를 의미함.

□ (성과기반금융)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달성 시 약정된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함.

다. 민간부문참여(PSE)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대효과

1)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기업이윤 창출

□ 개발도상국 新시장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및 사업확장의 기회

○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1억 이상의 인구 수 등 진출 시장으로서의 규모와 가치가 충분함.

- 신흥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GDP 성장의 2/3를 차지함.
- 2010-2015년 신흥국/개발도상국은 전세계 소비 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함.
- 2015-2030년 신흥국/개발도상국 시장의 소비자 지출 성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약 3배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됨.

○ 정부 기관(관계부처 및 KOICA, EDCF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리스크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기회 또한 도출 및 발굴 가능함.

- (정부 기관 지원 가능 영역)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 △현지 시장조사 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계 지원 등

2) 지속가능경영 및 ESG 성과 제고

□ 개발도상국 내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SDGs 달성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ESG 등 비재무적 평가 가치 제고 및 잠재적 구매자 확보 가능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1. 국제개발협력과 ODA

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통칭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격차를 최소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을 의미

○ 공여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재원으로 함.

□ (필요성) ①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 ②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 증진, ③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 조성

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 ODA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각종 공여

- 이러한 ODA의 정의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

□ 이는 최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재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TOSSD)로 개발협력 범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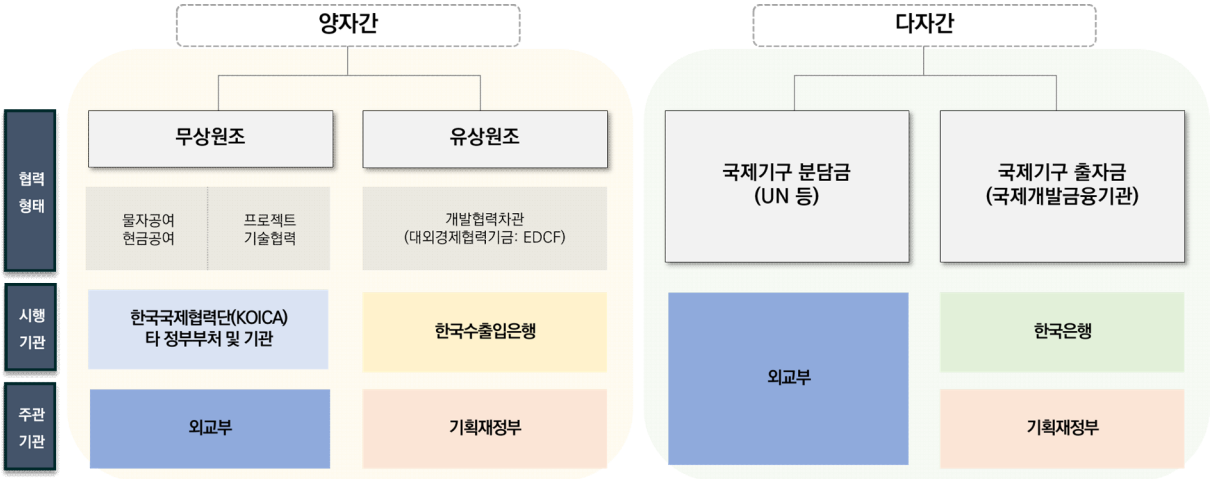
❍ TOSS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촉매를 지원하는 모든 공적 재원 흐름을 포괄하는 재원

- 글로벌 공공재, 평화유지 활동, 동원된 민간 재원 등 ODA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양한 재원을 포괄함으로써 개발재원 확대에 기여

1) ODA 추진 체계

□ (이원화) 우리나라 ODA 양자 간 협력의 경우, 하기 [그림 1]과 같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림 2] 우리나라 ODA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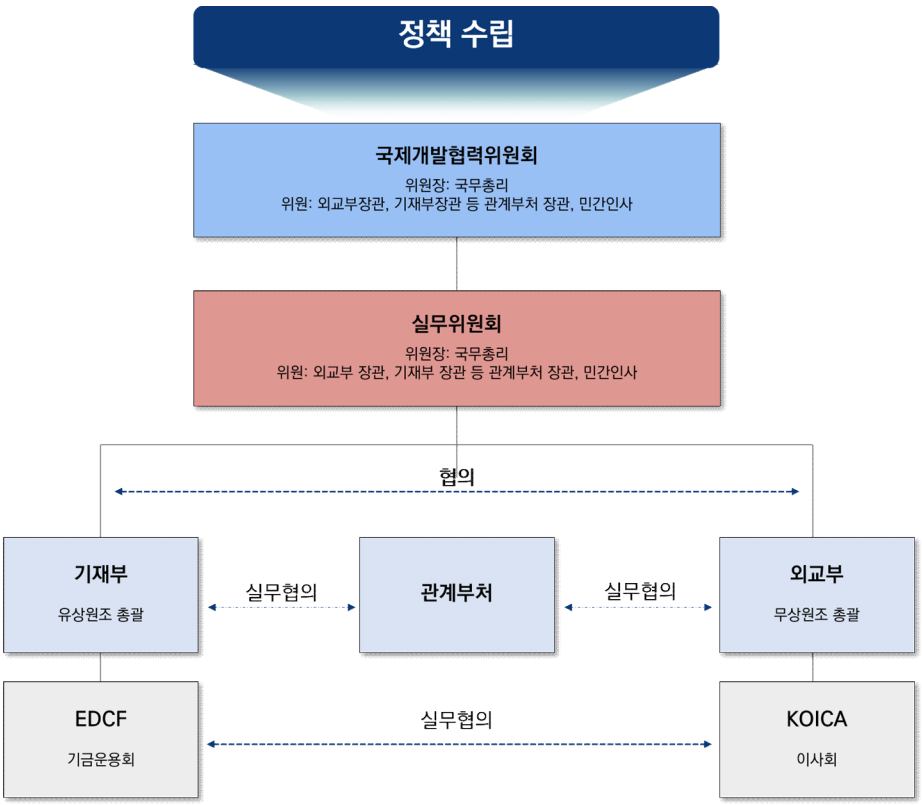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저자 재작성

❍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기술 협력사업(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

2)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

[그림 3] 우리나라 ODA 정책 추진 체제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저자 재작성

□ (ODA 총괄 및 조정기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

○ (국무조정실 내 국제개발협력본부) 21년 2월 신설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주관기관)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외교부는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임.

○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음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가 21년 3월 출범시켰으며,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전담

○ 무상원조의 경우, KOICA 이외의 4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행기관의 역할 수행

○ (KOICA 외 ODA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2021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42개 기관으로 구분됨.

- (ODA 사업실시기관) 일부 ODA 시행기관은 직접 원조사업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산하기관 및 공모기관이 ODA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 집행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함.

[표 2] '21년 기준 ODA 시행기관

ODA 규모(연간)	기관명
100억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12개
10억원-100억원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10개),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통계청, 경찰청, 교육청, 특허청 / 23개
10억원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5개

*출처: KIEP, 2021 - 저자 재작성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향후 5년(2021~2025) 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

○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목표(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혁신적 ODA, ④함께하는 ODA)와 12개 중점과제 추진 계획*[그림 3]을 수립함

[그림 4]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

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지속가능개발목표(UN-SDGs, 2016-2030): 2030년까지 전세계가 함께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

○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 등 제반 주제에 있어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 SDGs에서는 기아문제를 빈곤문제와 별도로 다루어 식량안보와 연계, 불평등 완화 과제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함

○ 환경 및 기후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과제 등 선진국에게도 해당하는 목표 제시

-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여, 각 국가들이 직접 가장 적절하고 관련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선정하여 척도 제시 가능

○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과 '개발' 이외의 '포용' 과 '(불)평등' 을 강조하고 '권리' 와 '접근성' 을 보장

○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SDGs를 수립

○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제4차 기본계획 기준)로 구성

[그림 6] K-SDGs 17개 목표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2. 개발도상국의 이해

가. OECD DAC 협력국 리스트(2022-2023)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저소득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고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 아프가니스탄 • 앙골라 • 방글라데시 • 베닌 • 부탄 • 부르키나파소 • 부룬디 • 캄보디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차드 • 코모로스 • 콩고민주공화국 • 지부티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감비아 • 기니아 • 기니비사우 • 아이티 • 키리바시 • 라오스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미얀마	• 북한 • 시리아	• 알제리 • 벨리즈 • 볼리비아 • 카보베르데 • 카메룬 • 콩고 • 코트디부아르 • 이집트 • 엘살바도르 • 에스와티니 • 가나 • 온두라스 • 인도 • 인도네시아 • 이란 • 케냐 • 키르기즈스탄 • 미크로네시아 • 몽골 • 모로코 • 니카라과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필리핀 • 사모아 • 스리랑카 • 타지키스탄 • 토켈라우 • 튀니지	• 알바니아 • 아르헨티나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보츠와나 • 브라질 • 중국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쿠바 • 도미니카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콰도르 • 적도기니 • 피지 • 가봉 • 조지아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GUYANA • 이라크 • 자메이카 • 요르단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레바논 • 리비아

• 네팔 • 니제르 • 르완다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솔로몬 군도 • 소말리아 • 남수단 • 수단 • 탄자니아 • 동티모르 • 토고 • 투발루 • 우간다 • 예멘 • 잠비아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바누아투 • 베트남 • 서안과 가자 지구 • 짐바브웨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마샬군도 • 모리셔스 • 멕시코 • 몰도바 • 몬테네그로 • 몬트세라트 • 나미비아 • 나우루 • 니우에 • 북마케도니아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세인트헬레나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르비아 • 남아프리카 • 수리남 • 태국 • 통가 •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 베네수엘라 • 월리스푸투나제도

*출처: OECD, 2022 (DAC list of ODA Recipient / Effective reporting on 2022 and 2023 flows), 저자 번역

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1)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제도

□ (중점협력국 제도) 우리 정부가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 및 운영하여 ODA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함

○ 2021년 1월 총 27개국의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 완료

-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발전수준,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 ODA 수행환경 및 경제·외교·통상 등 다양한 분야 협력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정
- 또한 우리의 대외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협력국의 소득수준, 지역별 분포, 취약국 여부 등도 추가로 고려

2)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

□ (제2기 중점협력국 대비 조정결과) 사업추진환경, 경제·외교적 협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 27개국으로 조정됨

○ (사업 추진 환경)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 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제외

○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 추가

○ (신남방·신북방정책)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4개 국가 선정

□ 소득 그룹별 분류

최빈국/10개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중저소득국/14개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고중소득국/3개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에티오피아 • 라오스 • 미얀마 • 네팔 • 르완다 • 세네갈 • 탄자니아 • 우간다	• 볼리비아 • 이집트 • 가나 • 인도 • 인도네시아 • 키르기즈스탄 • 몽골 • 파키스탄 • 필리핀 • 스리랑카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콜롬비아 • 파라과이 • 페루

□ 지역별 분류

아시아(12개국)	아프리카(7개국)	중동CIS(4개국)	중남미(4개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몽골 • 미얀마 • 네팔 • 파키스탄 • 필리핀 • 스리랑카 • 베트남 • 인도	• 에티오피아 • 가나 • 이집트 • 르완다 • 세네갈 • 탄자니아 • 우간다	• 키르기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볼리비아 • 콜롬비아 • 파라과이 • 페루

3)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 (개요)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ODA 지원 전략을 의미

○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우리 정부 - 협력국 간 중장기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대

○ 협력국 국가발전전략과 우리 정부의 국가협력전략의 적용 주기를 일치시켜 지원의 일관성 또한 제고

- CPS 적용주기를 협력국의 개발계획 이행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협력국 개발수요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

□ (주요 내용) 현재 우리 정부는 각 중점협력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함.

○ ▲협력국 분석(개발현황, 국가개발전략, 거시분석 등), ▲ODA 추진 시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지원계획(기본 방향,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등), ▲이행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열람 사이트) odakorea.go.kr / 관련 자료 / 국가협력전략(CPS)[3)]

[그림 7] 국가협력전략(CPS) 다운로드 사이트



○ CPS를 기반으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중점협력국 개발계획에 맞추어 CPS 적시 수정 반영

- (2022년) 라오스, 베트남,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5개국 CPS 수정 예정

3)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22/category04/L05_S01.jsp

3. ODA 중점협력분야

나. KOICA 중점협력분야

□ KOICA는 10대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 및 KOICA Country Plan(CP) Program에 따라, 12개 분야를 중점 고려하여 사업 추진

○ (12개 분야) △교육, △보건, △거버넌스・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도시, △과학기술혁신, △기후행동, △성평등, △인권

□ KOICA 사업분야

○ (중점분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 (범분야) △환경, △성평등, △인권・평화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4)]

○ (중점분야) △교육, △보건, △거버넌스・평화, △농촌개발, △물・에너지・교통・도시・과학기술혁신

○ (범분야) △기후행동, △성평등, △인권

다. 중점협력국별 중점협력분야

□ (중점협력분야) △그린, △디지털, △보건의료 관련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

○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분야별 강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해당 협력국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

- (그린) 환경, 그린에너지, 물관리, 등
- (디지털) 통신, ICT, 공공행정, 등
- (보건) 물관리, 보건위생, 의료, 등

4) 상세 추진 전략은 KOICA 홈페이지 참조 (https://koica.go.kr/koica_kr/904/subview.do)

구분	국가명(CPS 적용기간)		중점협력분야
신규 CPS 수립 (5개국)		인도(~'25)	①지역개발, ②교통,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환경, ⑤그린에너지, ⑥ICT
		이집트(~'26)	①교통, ②환경 및 에너지, ③공공행정, ④교육, ⑤통신
		우크라이나(~'24)	①교통, ②산업, ③보건위생, ④공공행정
		키르기즈스탄(~'27)	①환경, ②농림수산, ③공공행정, ④보건위생
		타지키스탄(~'25)	①산업, ②교육, ③에너지, ④환경, ⑤농림수산, ⑥교통
기존 CPS 수정 (6개국)		네팔(~'24)	①물관리 및 보건위생, ②교육, ③지역개발, ④에너지
		방글라데시(~'25)	①교육, ②교통,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공공행정
		스리랑카(~'25)	①교육, ②교통,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지역개발
		인도네시아(~'24)	①교통, ②공공행정, ③환경보호, ④물관리 및 보건위생
		세네갈(~'23)	①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②교육, ③보건의료, ④교통
		르완다(~'24)	①농업, ②교육, ③ICT

*출처: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 2022 - 저자 재작성

2. 민간부문 참여(PSE) 프로그램 소개

가. KOICA PSE 프로그램 소개[5)]

1) KOICA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소개

□ (개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초기 단계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PSE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시장 탐색, 진출 및 창취업의 기회를 제공

○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진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

[표 7] CTS 사업 참여 대상 기업 구분과 조건

구분	조건
예비창업자	CTS 파트너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등록 필수
스타트업	창업 후 최대 10년 이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이며, 설립정관 상 특정 사회문제 해결 목적 명시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 필수

□ (단계별 유형) CTS 프로그램은 총 3단계(△Seed 0, △Seed 1, △Seed 2)의 세부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유형별 지원 내용 등은 다음 [표 8]과 같음.

[표 8] CTS 사업 단계별 유형 소개

단계[6)]	구분	지원 내용	주요 내용
SEED 0	예비혁신가 육성	현지조사 지원	기술과 창의력을 갖춘 신생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
SEED 1	기술개발	최대 3억원 지원	혁신기술 사업모델의 기술개발, 인력, 소규모 현지실증 사업 비용 및 네트워킹의 기회 제공
SEED 2	시범사업	최대 5억원 지원	SEED 1에서 개발 완료되어 시장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확대 적용을 지원

5) 각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KOICA에서 발간한 CTS, IBS 프로그램 안내서 참조

□ (절차) CTS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공모절차는 다음 5가지의 과정으로 구성



○ ①공모 시작 및 제안서 접수: KOICA가 제시하는 제안서 양식, 목차, 구성 등에 따라 작성한 후, KOICA 파트너 협업 시스템(KOPIS)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KOICA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 공모 설명회를 실시하며, KOICA 기업협력사업실과 1:1 컨설팅 또한 참여 가능함.

○ ②서면심사: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KOICA 내·외부의 분야 및 지역별 전문가 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들을 심사함.

- 사업심의위원회는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제한함.

○ ③면접심사: 서면심사를 통과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참여대상들은 면접심사 시 활용할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은 서면심사와 마찬가지로 KOICA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총 5인 이상,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심사함.

○ ④최종 CTS 파트너 선정 및 개발협력 워크숍* 실시: 선정된 대상은 개발협력 사업 기획, 관리, 성과관리 및 회계관리,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야함.

○ ⑤약정체결 실행 협의 및 약정체결

6) 2019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의 3단계 구성을 Seed 1, Seed 2, Seed 3 단계에서 Seed 0, Seed 1, Seed 2 단계로 변경함.

2) KOICA IBS 프로그램 소개

□ (개요) 기업의 사업전략을 개발협력사업에 적극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PSE 프로그램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최대 연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협력국/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는 등,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전략을 가진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

○ 협력국/개발도상국 내 사회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IB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 추구

□ (세부 모델) IBS 프로그램은 총 3가지 세부 모델(△기존 IBS 사업,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혼합금융사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참여 대상 기업, 선정 방식, 예산 규모 등이 상이함.

[표 9] IBS 프로그램 모델 소개

모델[7]	참여 대상 기업	선정 방식	예산 지원 규모	주요 내용
기존 IBS 사업	중소기업	공모형	연간 5억원 상한	협력국 내 사회문제해결 및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중견/대기업	수시발굴형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중견/대기업	공모/수시발굴형	연간 10억원 상한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사업 발굴
혼합금융사업	중소기업/투자사	공모/수시발굴형	연간 7억원 상한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발굴

□ (재원 분담) IB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재원분담 비율이 상이하며, 최소 매칭비율*[표 10]을 준용하여 총 사업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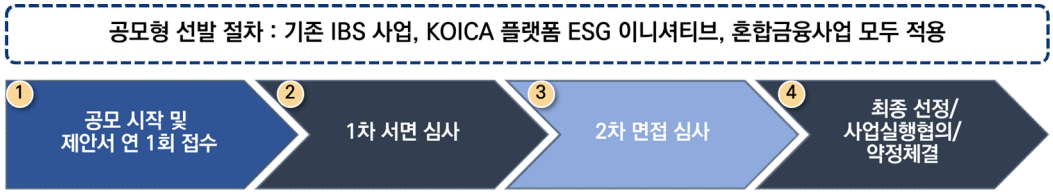
7) 2022년 기준 새롭게 신설된 신규 모델은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혼합금융사업임.

[표 10] 참여 민간기업 규모별 재원 분담 매칭 비율

민간기업 구분	재원 분담 매칭 비율		비고
	KOICA	기업	
대기업	5	5	KOICA 분담금 비율은 기관별 해당 비율 이내이나, 기업 분담금은 필요시 추가 가능
중견기업	5	5	
중소기업	7	3	
사회적기업, CTS Seed2 종료기업	8	2	

□ (절차) IBS 프로그램은 사업 모델(△기존 IBS 사업,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혼합금융사업) 및 선정 방식(△공모형, △수시발굴형)에 따라 참여 대상 기업 선발 절차가 상이함.

○ (공모형) 공모를 통한 선발 과정은 IBS 프로그램 내 3가지 세부 모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 4가지 절차로 구성



○ ①공모 시작 및 제안서 접수: KOICA가 제시하는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서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KOICA 파트너 협업 시스템(KOPIS)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②1차 서면심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통해 재원을 분담하는 민간기업의 재원조달 여력을 선 검토하며, KOICA 내·외부의 분야 및 지역별 전문가 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들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평가함.

- 사업심의위원회는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제한함.

○ ③2차 면접심사: 서면심사를 통과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참여대상들은 면접심사 시 활용할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은 서면심사와 마찬가지로 KOICA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총 5인 이상,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

○ ④최종 선정/사업실행협의/약정체결

○ (수시발굴형) 수시발굴형의 경우, IBS 프로그램 내 세부 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선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상이하나, 2022년 신규 제안된 모델들도

-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공동기획형은 다음 3가지 절차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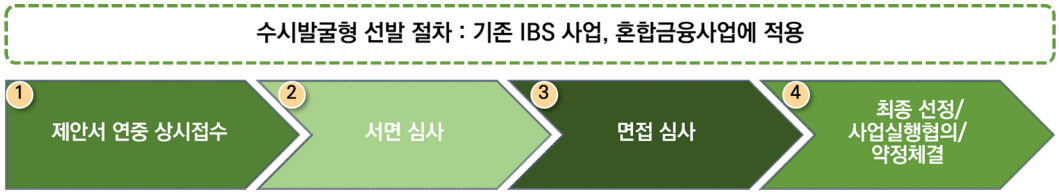
• 해당 유형은 2022년 신규 제안된 모델로,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과 컨택하여 사전협의 필요

○ ①제안서 연중 상시접수: KOICA 파트너 협업 시스템(KOPIS)을 통해 제출

○ ②접수대상 사업선정위원회

○ ③기업 MOU 체결, 실행기관 선정 공모 실시

- 기존 IBS 사업 및 혼합금융사업의 수시발굴형은 다음 4가지 절차로 구성



• 혼합금융사업 유형 또한 2022년 신규 제안된 모델로,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과 컨택하여 사전협의 필요

○ ①제안서 연중 상시접수: KOICA 파트너 협업 시스템(KOPIS)을 통해 제출

○ ②1차 서면심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통해 재원을 분담하는 민간기업의 재원조달 여력을 선 검토하며, KOICA 내·외부의 분야 및 지역별 전문가 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들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평가함.

- 사업심의위원회는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제한함.

○ ③2차 면접심사: 서면심사를 통과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참여대상들은 면접심사 시 활용할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은 서면심사와 마찬가지로 KOICA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총 5인 이상, 내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하)

○ ④최종 선정/사업실행협의/약정체결

나. 기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및 PSE 프로그램 소개

1) 유관기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소개

□ (개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부처, 협회, 공단 등이 국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공단(KE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산업기술진흥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본투글로벌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음.

- 본 지침서에는 특정 분야(농업, 해양수산,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관들은 제외하고, 각 기관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크게 5가지 영역(①수출/해외진출 상담, ②온라인 정보 제공/교육, ③F/S 지원, ④금융 지원, ⑤기타)으로 구분하여 다음 [그림 19]와 같이 간략히 소개함.

[그림 19] 국내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MAP



2) 기타 민간부문참여(PSE)[8] 프로그램 소개

□ (개요) KOICA를 제외한 40여개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ODA 계상 사업 중, 민간기업을 개발협력의 핵심 주체로 고려하여 협력국 내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SE 프로그램

○ 본 지침서에서는 KOICA가 추진하는 PSE 프로그램(△CTS, △IBS, △IPS 등)을 제외한 타 시행기관의 PSE 프로그램을 기타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함.

- 아울러, [표 1]에서 소개한 약 40여개의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들 중, 연간 ODA 규모가 100억원 이상임과 동시에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음 4개의 ODA 시행기관을 선택함.
  - ①산업통상자원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농림축산식품부, ④환경부

□ (시행기관별 ODA 사업수행기관 역할) 상기 4개의 ODA 시행기관 모두 ODA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진 않으며, 별도의 산하기관이 ODA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집행 대행 및 위탁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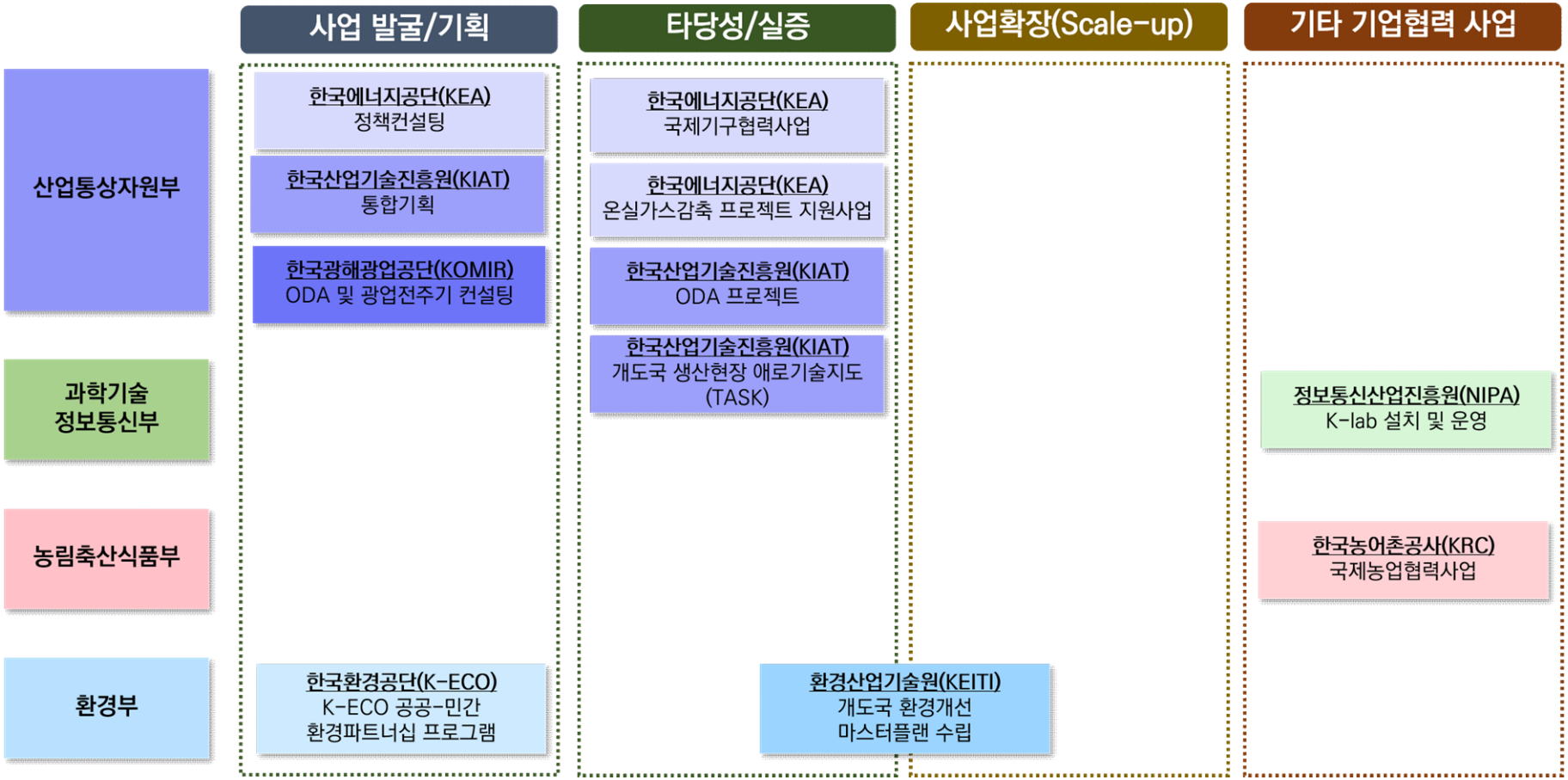
[표 11] 시행기관별 ODA 산하기관

시행기관	ODA 사업수행/집행대행/위탁기관 역할	비고
①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KEA)	산하기관별 각기 다른 PSE 프로그램 운영/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③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KRC)	
④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	
	환경산업기술원(KEITI)	

○ 본 지침서에서는 이들의 민간부문(기업)의 비즈니스 지원 영역(△사업 발굴/기획, △타당성/실증, △사업확장(Scale-up). △기타 기업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그림 20]과 같이 간략히 소개함.

8) ODA 계상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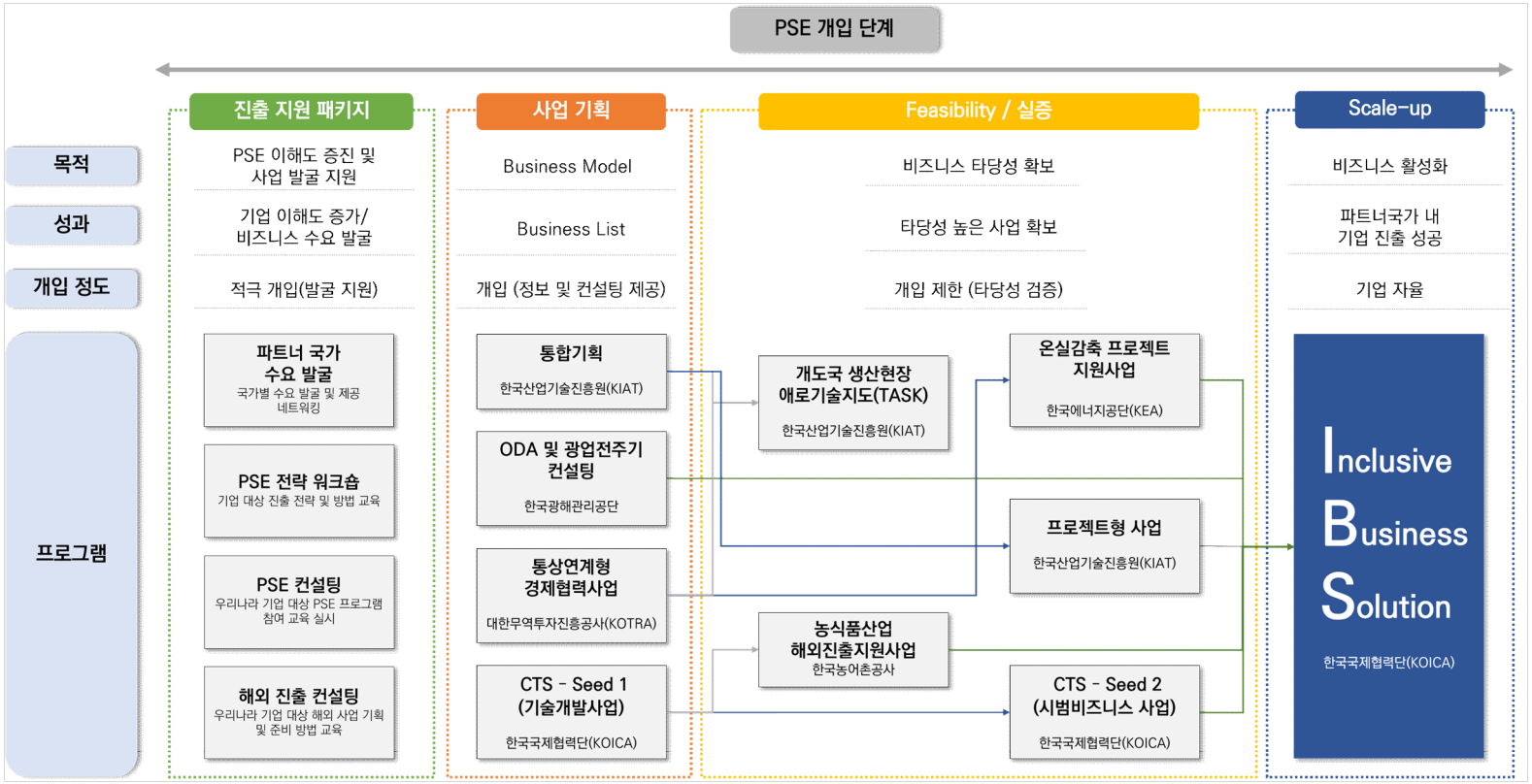
[그림 20] 타 ODA 시행기관 PSE 프로그램 MAP



제3장.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방안

1.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 소개

[그림 21] 민간기업의 단계별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



□ (민간기업 비즈니스 단계별 접근 진입점) 상기 [그림 21]은 국내 해외 진출 프로그램 및 주요 PSE 프로그램들을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단계별로 구분 및 정렬하여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

○ 민간기업이 인식하는 자사의 비즈니스 성장단계(△창업기(Start-up), △도약기(Growth), △성숙기(Maturity)에 따라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을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알맞은 단계의 PSE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

[표 12] 민간기업 성장단계(Life cycle)

구분	내용 및 특징
창업기 (Start-Up)	- 신제품 시장 소개 - 저매출, 고비용, 저수익 단계
도약기 (Growth)	- 초기 고객이 증가하는 창업 3~7년차 - 기존 고객의 반복 구매 발생 및 고속 성장
성숙기 (Maturity)	- 기업 매출이 최고조에 이르고, 매출 신장세는 정체하는 시기 - 신규고객 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단계

- 해외시장진출 또는 개발도상국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이 직접 자사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개발협력 접근 진입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창업기/Start-up) 아직 창업기 단계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경우, PSE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발도상국 내 사업 수요를 확인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진출지원패키지, 또는 ▲사업기획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는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
- (도약기/Growth) 도약기 단계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경우, 개발도상국 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별 시장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타당성 확보까지 경험할 수 있는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
- (성숙기/Maturity) 성숙기 단계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경우, 타당성 높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F/S, 실증 단계 뿐만 아니라 ▲Scale-up 비즈니스 확장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

□ (진출 지원 패키지(가안[9])) △개발협력 취지 및 목적, △PSE 프로그램 개요·절차 등, △개발도상국 내 시장수요, △개발성과 달성 및 비즈니스 포용성 내재화 방안, △개발도상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킹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진출 지원 패키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

○ 민간부문(기업)을 위한 진출 지원 패키지로는, 하기 [표 13]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음(가안).

[표 13] 진출 지원 패키지 내용

프로그램(가안)	목적	구체 내용
파트너 국가 수요 발굴	대상국의 수요를 기업에게 적극 제공하여 비즈니스 발굴 활성화	- 기존 또는 신규 PCP 내용 제공 - 종료 사업 중 비즈니스 연계 필요 사업 정보 제공 - 비즈니스 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파트너국가에 문의하여 정보 제공
PSE 전략 워크숍	PSE 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기업 관심 고취	- PSE 프로그램 취지 소개 - 기관별 프로그램 소계 및 연계 방안 안내 - 관심 기업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
PSE 컨설팅	기업의 비즈니스에 포용성을 내재화	- 관심 기업 대상 PSE 컨설팅 - 단계별 프로그램 제안 및 참가 지원
해외 진출 네트워킹	파트너국가 공공/민간과 우리나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On/Offline 파트너국가 네트워킹 세션 제공 - 법률 및 회계 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기업과 네트워킹

9) 본 지침서 내 (가안)으로 소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PSE 연구 최종보고서 내 제시된 제언사항으로, 현시점 기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조직임.

2. 개발컨설팅 및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방안

가. 개발컨설팅 및 지원조직(Intermediary) 소개

□ (개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내 적절한 사업/프로젝트 발굴, 기획, 수행 및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

○ 개발도상국 내 국가적 개발전략과 제약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민, 공여기관 등의 제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산출물을 도출함.

-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위한 PSE 프로그램 참여 등을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와 같이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정통한 개발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컨소시엄 구성 고려 가능

□ (유형) 개발컨설팅 및 지원조직(Intermediary)의 특성에 따라, ▲국제개발 전문 컨설팅, ▲시민사회단체 및 NGO,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분류 가능하며, 현시점 기준으로 민간기업과 협업 가능한 개발컨설팅 및 지원조직(Intermediary)은 다음 [표 14]와 같음.

[표 14] 개발컨설팅 및 지원조직(Intermediary) 목록

유형	조직명
개발컨설팅	▲국제개발컨설팅 KODAC, ▲지디씨컨설팅 GDC,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등
시민사회단체 및 NGO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재단, ▲월드비전, ▲KCOC, ▲세이브더칠드런, ▲월드투게더 등
대학 및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3. 범 정부 협의회(가안) 활용방안

가. 범 정부 협의회(가안) 소개

□ (개요) ODA 사업 및 PS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처 및 시행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PSE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행사 개최

○ 범 정부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외교부(KOICA), 산업통상자원부(KIAT, KEA), 농축산식품부(농정원) 등 부처 및 실무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PSE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개발협력 및 PSE에 대한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를 추진하여 민간부문(기업)의 이해도 제고

나. 범 정부 협의회 활용 기대효과

□ (PSE 프로그램 간의 연계도모) 각 시행기관별 운영 노하우 등의 상세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실패사례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시행기관별 PSE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도모

□ (민간부문(기업) 경영진/실무진 인지도 제고) PSE에 대한 기업의 인지 제고 및 교육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과 PSE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사업성과 및 개발성과 동시 달성)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혹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PSE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가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PSE 프로그램 참여 및 개발국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확대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

민간부문 참여(PSE) 중장기 추진 전략(안)

2023. 04. 07.

KODAC
국제개발컨설팅 코닥

제1장. 민간부문 참여(PSE) 전략 필요성

1. 민간부문 참여(PSE) 추진 배경

□ **(배경)** 1990년대 말 주요 공여국들의 ODA 규모가 축소되며 민간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민간부문참여) 접근방식 공식화됨.

○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부채탕감 등 원조 재원의 양적 증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개발재원 총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포괄적 성장과 고용,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며,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 촉진을 강조하는 'AAAA(Addis Ababa Agenda for Action,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됨.

[표 1] 제3차 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table>
<tr><td rowspan="2">개요</td><td>정의</td><td colspan="4">-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제3차 개발재원 총회(2015.7.13.~16.)에서 채택된 결과문
-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할 분야에 대한 내용 포괄</td></tr>
<tr><td>평가</td><td colspan="4">(성과) 기술촉진 메커니즘, 인프라 포럼,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과제) 민간재원 동원 관련 과제, 개발정책정합성 제고 문제,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 고려</td></tr>
<tr><td rowspan="3">구성</td><td>총론</td><td colspan="4">Post-2015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프레임워크</td></tr>
<tr><td>본문</td><td>7개 분야별 행동분야</td><td colspan="3">①국내공공자원, ②국내외 민간기업 및 재원, ③국제개발협력, ④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⑤부채 및 부채 지속가능성, ⑥시스템 이슈대응, ⑦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td></tr>
<tr><td>종장</td><td colspan="2">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td><td colspan="2">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td></tr>
<tr><td colspan="2">핵심 이슈</td><td>과학, 기술, 혁신</td><td>민간재원 동원</td><td>개발정책 정합성 제고 방안 중요성 대두</td><td>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고려</td></tr>
</table>

□ **(국제사회 동향)**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별로 PSE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21세기에 들어 개도국에 대한 민간재원 흐름은 이미 공공재원(ODA 및 OOF)를 추월하였고, 공공 대비 민간 재원은 현재 4배 이상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주요 공여주체들은 이미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미국 USAID는 2018년 PSE 정책체계(PSE Policy Framework)를 발표하며 PSE를 운영모델의 핵심 원칙으로 제도화하였으며, 호주 DFAT는 2019년 민간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으로 PSE를 위한 운영체제(Operational Framework for PSE)를 공개함.

□ **(국내 동향)** 민간 참여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도 유·무상 ODA 전략에 PS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무상 ODA 사업에서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도 협력국 민간투자, 선진금융기법 활용, PPP 활성화 등 민간을 포함시키는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이 목표로 수립된 바 있음.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내 설정된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그림 1]을 기반으로 민간부문 참여 전략 수립

□ (전략의 필요성)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협력을 시행하는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참여 및 협력 전략 및 정책을 종합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꾀하고, 더불어 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그림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2. 민간부문 참여(PSE) 대 · 내외 환경 분석

가. 대내 여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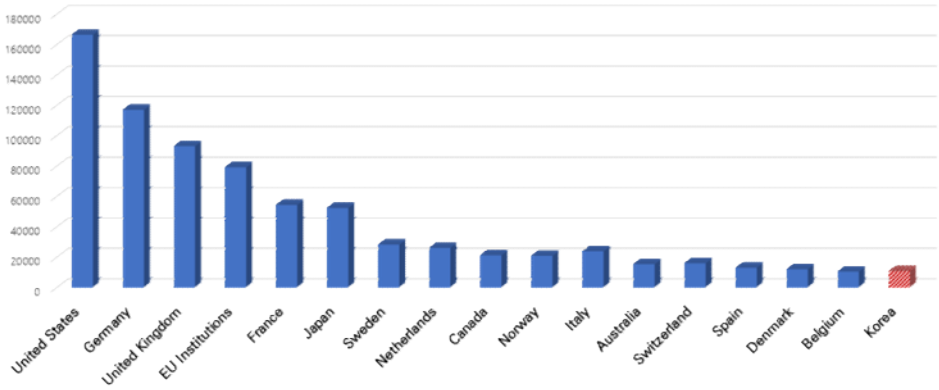
1) 대내 민간재원 규모 및 추세

□ **한국의 경우**, 여타 OECD DAC 회원국 평균 대비 ODA 규모는 다소 적은 편이나 **민간재원 규모 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임.

○ 지난 5년(2015-2019년) 합계 기준, 한국은 OECD DAC 공여국 가운데 ODA 지원 규모는 16위에 그친 반면, **민간재원 유입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DAC 공여국 ODA 지원 순위(2015-2019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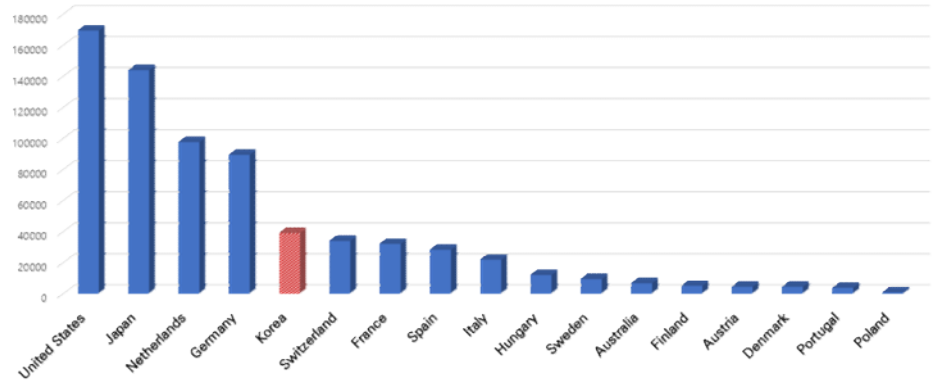
(단위: US Dollar, Millions, 2019)



*출처: OECD Statistics

[그림 3] DAC 공여국 민간재원 지원 순위(2015-2019년 합계)

(단위: US Dollar, Million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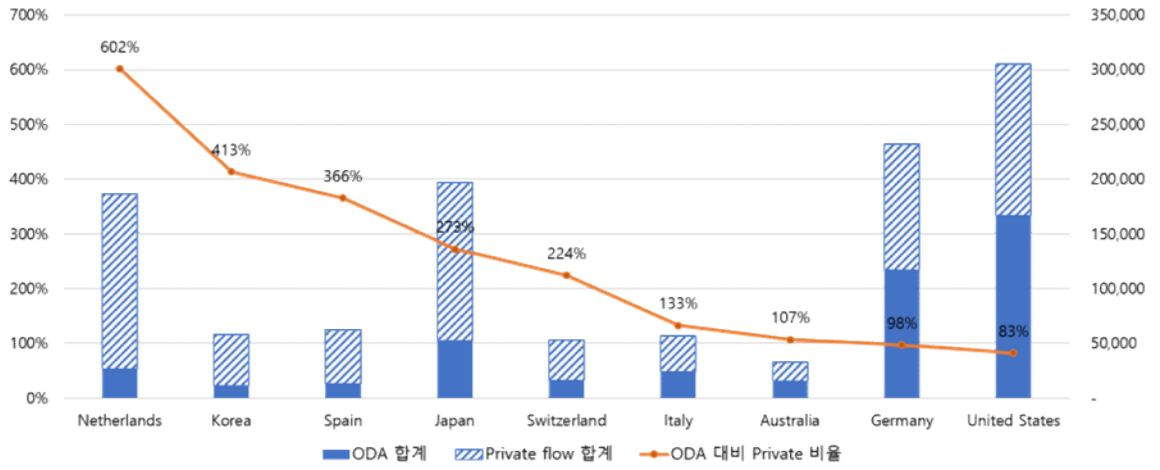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istics

❍ 특히 한국의 대협력국 공적재원 및 민간재원 총 합계 대비 민간재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OECD DAC 공여국 중 2위**에 해당함.

- 최근 5개년(2015~2019년) 합계 기준, 민간재원 규모는 ODA (11,303 Million USD) 규모의 413% (46,708 Million USD)에 해당함.
- 이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고 글로벌화된 민간부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ODA와 민간재원의 결합 가능성이 타 공여국 대비 매우 높은 국가임.

[그림 4] DAC 주요 공여국 ODA 대비 민간재원 규모 (2015-2019년 합계)

(단위: US Dollar, Millions, 2019)



*출처: OECD Statistics

2) 대내 무상협력 분야 민간부문 참여(PSE) 개념 논의 동향

□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논의)**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다양한 개발재원과 이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또한 제시함.

❍ 국제사회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논의를 기반으로, 글로벌혁신펀드(GIF), 개발성과연대채권(DIB) 등 민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개발재원 관련 국외 사례들을 연구하며 한국의 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음.

□ **(PPP와 CSR 형태의 참여방식 논의)** 2011년부터 초기에는 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논의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개발도상국 내 '사회공헌활동'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무상원조 및 금융수단 간의 결합)** 2018년부터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또는 임팩트 투자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혁신적 금융수단의 무상원조 적용방안과 실제 투자기관에 대한 증여를 통해 간접투자 및 보증을 지원한 사례 등 본격적인 PSE 연구가 시작됨.

[표 2] OECD DAC 회원국 재원별 지원 총액(2019년)

(단위: US Dollar, Millions, 2019)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호주
ODA	2,517	32,981	11,720	24,122	5,292	11,984	2,709	312	5,205	2,888
OOF	-4,244	311	-770	14	0	248	0	0	25	523
Export Credits	183	-693	-1,030	-1,948	-1,039	-3	0	0	-1,111	0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13,252	77,887	45,025	18,477	21,988	9,618	10,851	11,952	2,983	1,620
Private Grants	454	37,597	574	1,528	1,251	0	1	0	0	0
Peacebuilding operations	0	0	92	499	26	51	30	0	277	123
합계	**12,162**	**148,083**	**55,611**	**42,692**	**27,518**	**21,898**	**13,591**	**12,264**	**7,379**	**5,154**

3) 대내 민간부문 참여(PSE) 추진 현황

□ **(한국의 PSE 추진 현황)**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0여개가 넘는 다수의 한국 ODA 시행부처에서는 다양한 국내 민간기업의 협력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ODA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1)]

1) PSE 연구 중간보고서 34~38page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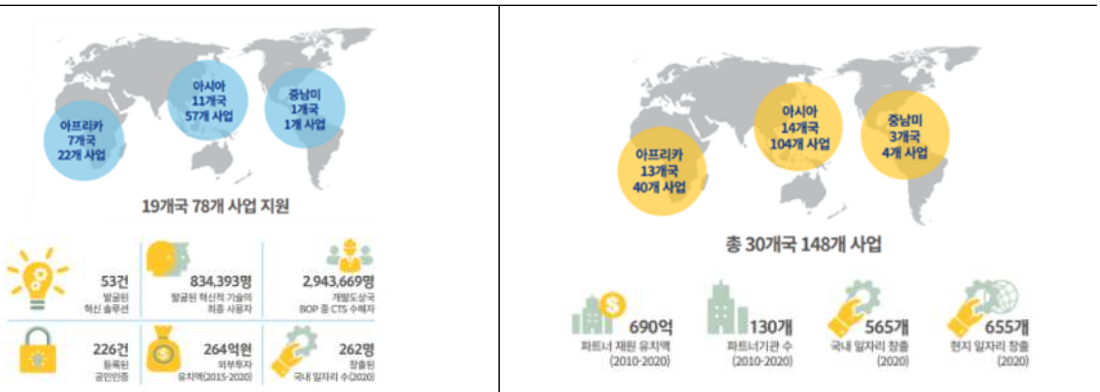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국내 민간기업의 협력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또는 민간기업 협력 ODA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ODA 시행기관은 직접 추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산하기관 및 공모기관이 ODA 사업실시기관(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사업 집행 대행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음.

- (예)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 **(KOICA PSE 추진 현황)** KOICA는 2010년 기업협력사업을 도입하고, 2015년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으로 발전시켜 민간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DIP 프로그램은 파트너에 따라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창의적 기술 프로그램),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됨.

[그림 5] KOICA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사업 지원실적 및 성과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출처: KOICA (2022).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 리플렛(2022).

- KOICA CTS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7년(2015년~2021년) 간 총 78건으로 협력국 BOP 약 29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264억원의 외부투자를 유치함.
- IBS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11년(2010~2020년) 간 총 148건으로, 총 130개 파트너로부터 690억 원의 파트너 재원을 유치함.

나. 대외 여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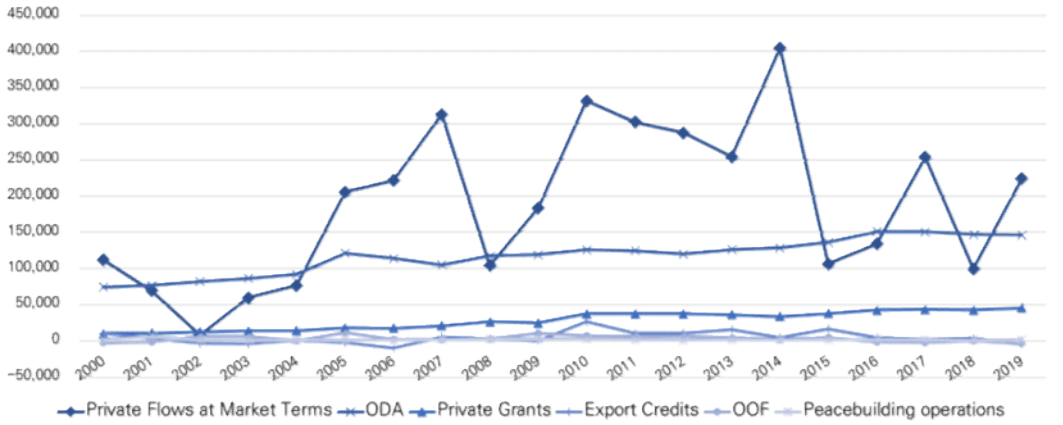
1) 대외 민간재원 규모 및 추세

□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민간재원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및 OOF(Other Official Flow, 기타공적자금)를 합한 것보다 꾸준히 상회해왔음.

○ OECD DAC 공여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자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그림 4]** 참고), 민간유입(Private Flows at Market Terms)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ODA, 민간원조(Private Grants), 수출신용(Export Credits), OOF, 평화유지비 순임.

[그림 6] OECD DAC 공여국 재원별 지원 총액 변화 (2000-2019년)

(단위: US Dollar, Millions, 2019)



*출처: OECD Statistics

2) 대외 무상협력 분야 민간부문 참여(PSE) 관련 논의 동향

□ **(PSE 용어별 기본개념 검토 및 정의)** DAC 회원국 간의 PSE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위해 2016년 OECD DAC가 민간부문 동료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여 다양한 PSE 관련 용어 목록을 검토하고, 용어별 기본 개념을 공식 정의함.

○ 국제사회 내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민간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나,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용어들을 여러 가지 혼합 사용함.

- 각 파트너들이 사용하는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용어별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공식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 **(PSD와 PSE의 개념차이 인식)** 다소 폭넓게 접근된 OECD DAC의 PSE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호주 DFAT가 2020년 PSD와 PSE 개념의 차이점을 소개하였으며, 가장 최근 2022년에는 DCED가 PSE에 대한 세분화된 개념 정의를 발표함.

3) 대외 민간부문 참여(PSE) 추진 현황

□ **(주요 공여국 PSE 추진 현황)**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은 무상원조 부문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3] 주요 공여국 PSE 관련 전략 및 정책

국가	전략/정책 문건	년도
미국	Global Development Allianced	2020
	USAID Policy Framework: Ending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	2019
	Private Sector Engagement Policy	2018
네덜란드	Dutch Good Growth Fund Part: Financing Local SMEs	2019
	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2018
독일	BMZ 2030 Reform Strategy	2020
스웨덴	Public Private Development Partnership	2020
	Sida' s Private Sector Collaboration: Opportunities for Improving, Scaling and Diversifying Methods for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2019
스위스	SDC Handbook on Private Sector Engagement	2021
호주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Guidance Note	2020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Australias' Aid Program: Operational Framework	2019

□ **(국제기구 PSE 추진 현황)** DCED, FAO, UNDP, UNEP,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FAD 등 다양한 국제기구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옴.

[표 4] 국제기구 PSE 관련 전략 및 정책

발행 기관	제목	년도
DCED	Synthesis Note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2022
	A Categorization of Private Sector Engagement Strategies and Comparison with Other Approaches for Working with and through the Private Sector	2019
	DCED Member Agency Policies for PSD: The State of the Art	2017
FAO	FAO Strategy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2021-2025	2021
GEF	Private Sector Engagement Implementation Plan	2020
GPEDC	Effective Private Sector Engagement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2018
IFAD	IFAD Private Sector Engagement Strategy 2019-2024	2019
OECD	Blended Finance Principles	2020
	Reporting Methods For Private Sector Instruments	2018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2016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Engaging the Private Sector for Green Growth and Climate Action	2017
UN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5
UNDP	UNDP's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Partnership Strategy(2018-2022)	2020
	UNDP's Private Sector and Foundations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20	2016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Strategy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2019

3. 무상개발협력 민간부문 참여(PSE) 중장기 추진 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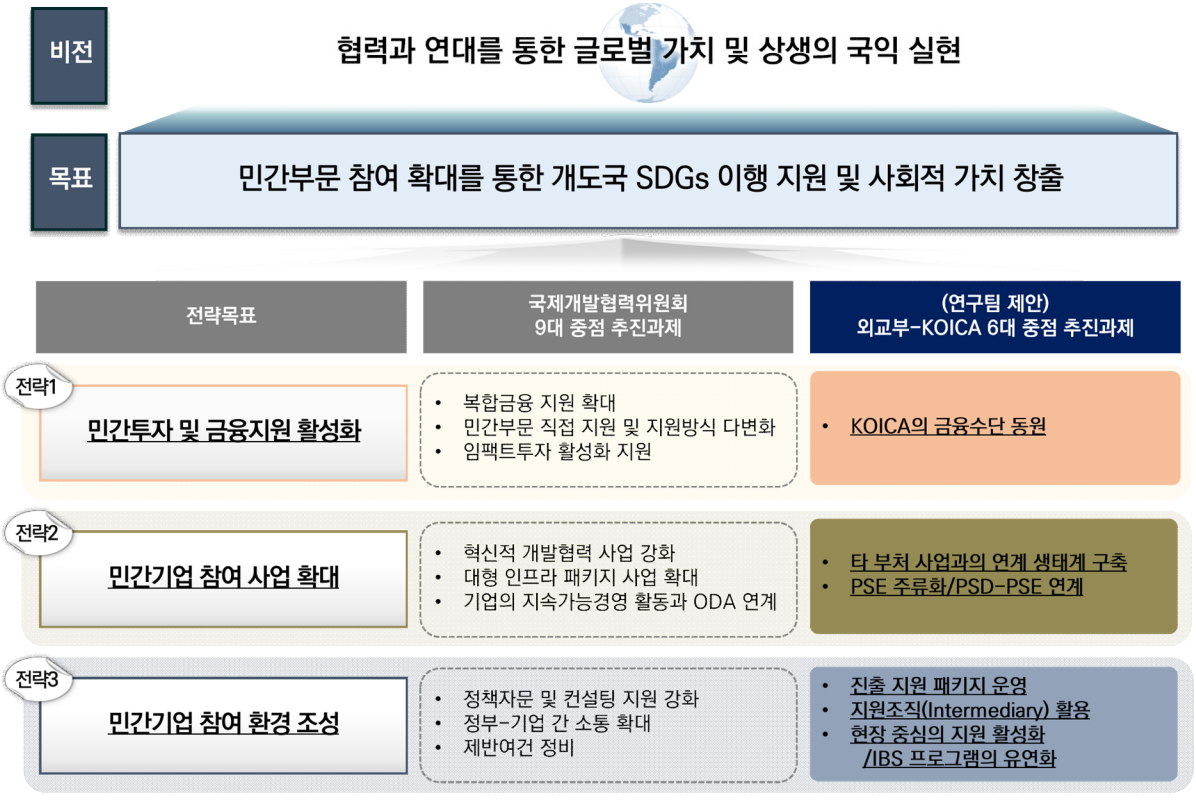
가. 민간부문 참여(PSE) 전략 개요

□ **(범 정부 차원의 PSE 전략)**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 정부 차원의 민간부문 참여(PSE)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3대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 범 정부 차원의 PSE 전략 내 9대 중점추진과제는 전체 한국 ODA의 유무상 부문을 총 망라한 다소 거시적인 차원에서 작성됨.

□ **(연구팀 제안 PSE 전략)** 연구팀은 외교부-KOICA의 비교우위를 깊이 고려하여 범 정부 차원의 기존 전략 목표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6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7] 민간부문 참여(PSE) 중장기 추진 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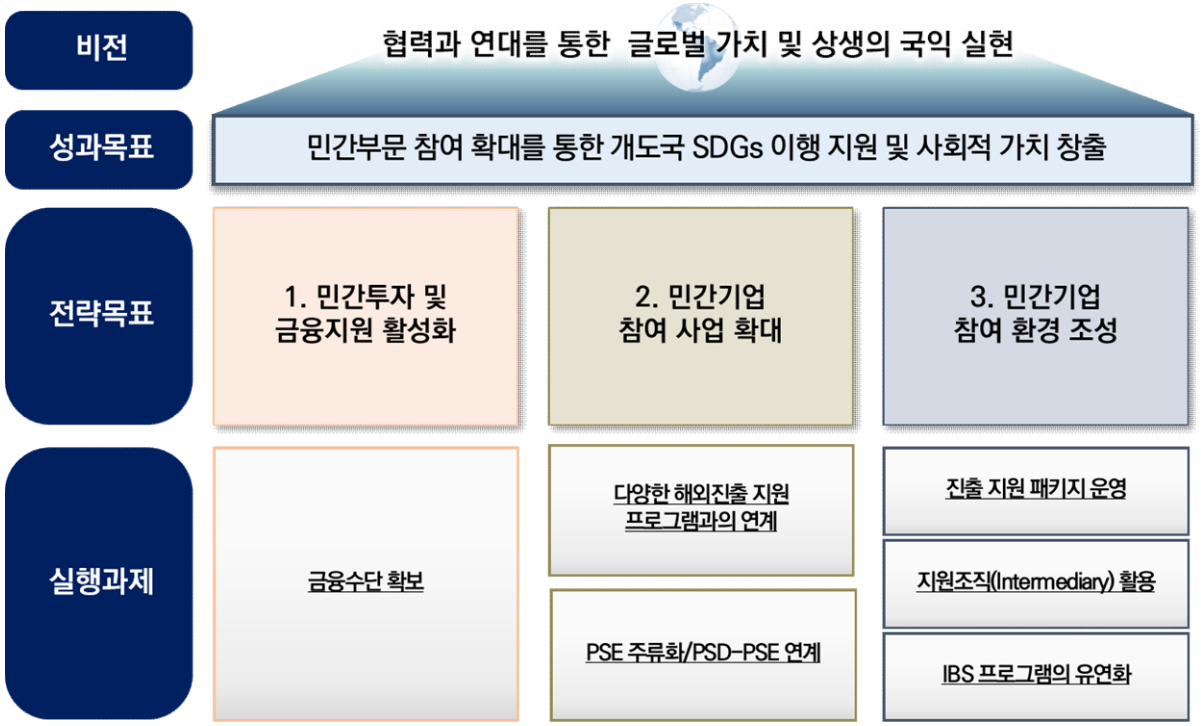


○ (외교부-KOICA 비교우위)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기업협력사업의 경험이 이미 출중하며, 기업협력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민간 생태계와의 교감을 통해 PSE 전문성을 축적해옴.

- (개선방안)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간협력 추진 체제 구축 가능

나. KOICA PSE 중장기 로드맵 수립

[그림 8] 전략 체계 및 목표



□ (무상협력 분야의 PSE) 범 정부 차원의 PSE 3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하되,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의 분석내용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외교부-KOICA 맞춤형 6대 중점추진과제를 [그림 8]과 같이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선진공여국(미국/독일/영국)의 PSE 전략과 사례, △우리나라 PSE 추진 현황과 사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민간기업의 동인 분석, △혼합금융 국제사회 동향 및 사례 연구를 통해 6대 중점추진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시킴.

[그림 9] 단계별 실행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단기 ('23-'24년)
중기 ('25-'26년)
장기 ('27년~)
1.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금융수단 확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확대 및 다자간펀드 참여 적극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 이후 금융지원 (투자 및 대출) 시행
매칭펀드 성격의 무상지원 이후 금융지원 (대출 및 후속 투자) 활성화
혼합금융 제도화 방안 적극 모색
혼합금융 실현을 위한 근거법 혹은 규제 정비
KOICA 혼합금융 활성화
2.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범정부 협의체 공존 및 연계수준 확대
범정부 협의체 지속 운영 및 관계부처 간 전후방 연계
PSE 주류화/PSD-PSE 연계
KOICA 내 타 부서 대상 PSD · PSE 인지 제고
KOICA 내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PSD-PSE 연계방안 모색
PSD-PSE 시너지 도모
3.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진출 지원 패키지 운영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파일럿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보완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기업의 PSE 역량강화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
개발협력 및 비즈니스 정통 외부 전문 컨설팅사 발굴
전문 개발컨설팅 장기 용역 계약 및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 구축
성공모형 발굴 및 확대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V)의 사업 주체로서 기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V)의 사업 주체로서 기능을 위한 근거·규제 정비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의 사업 주체 기능 활성화

1) (추진전략1)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 범 정부 차원의 PSE 3대 전략목표 중, 1대 추진전략인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에 대한 외교부-KOICA의 PSE 중점추진과제로 다음 [그림 10]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그림 10] 외교부-KOICA PSE 중점추진과제 1-1



가) (1-1. 금융수단 확보)

□ 사업 초기 매칭펀드 형태의 무상지원 이후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대출) 또는 후속 투자가 필수적임에 따라, KOICA의 금융수단 도입은 매우 필요하며 시급함.

○ 특히, 스타트업 단계 또는 영세 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IBS 프로그램의 무상 SEED 지원 단계 이후 추가적인 투자유치(또는 매칭펀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국내 VC가 개발도상국 비즈니스에 투자를 지양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또는 개발도상국 전문 VC)로부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KOICA의 직접 또는 간접 (GIF 등) 금융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임.

- 즉, 해당 기업의 업력과 경험에 비추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기업의 책임 영역으로만 두기엔 리스크가 매우 큼.

□ 간접금융지원 및 다자간펀드 참여 확대

○ **(단기과제)** 무상지원(SEED) 이후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무상원조기관을 통한 직접 금융지원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확대 및 다자간펀드 참여 적극 추진

- (다자간펀드 참여) GIF 등과 같은 다자간 PSE 펀드를 조성하거나 기존 펀드에 출자
- (현지 은행과 협업한 보증기금 조성) UNDP와 같은 다자기구에 보증기금 설립을 통해 현지 은행과 제휴하여 PSE 기업에 지원
  - 이는 국별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즉시 가동 가능하나, 이를 위해선 JV 등 기업의 현지화가 필요함.
  - 현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가급적 개발도상국 현지법인 중심의 운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과제)** KOICA가 직접 금융지원이 가능한 부서/기금/자회사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 이후 금융지원(투자 및 대출)을 직접 시행하고 직접 금융지원 활성화

□ 혼합금융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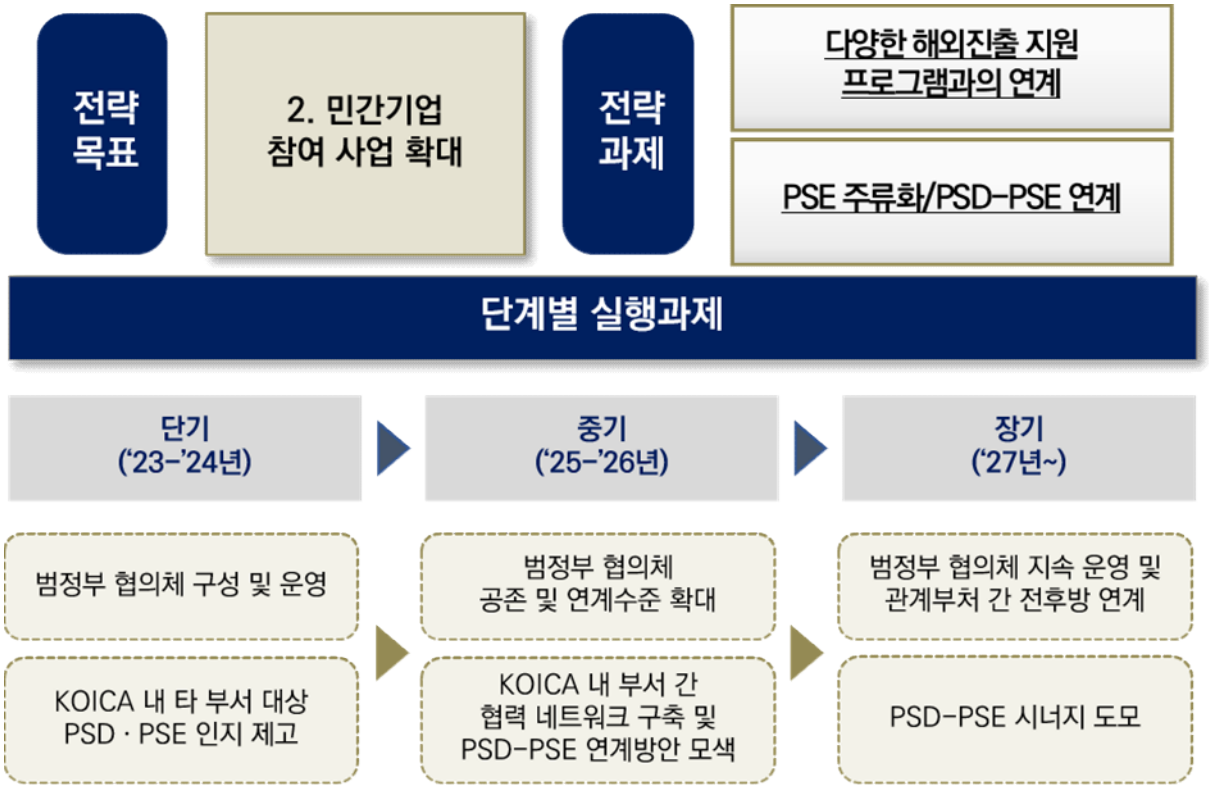
○ **(단기과제)** 현시점 기준 KOICA 내에서 혼합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단기 내 KOICA 내 혼합금융 제도화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중장기과제)** 실제 혼합금융 실행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 및 개선하여 PSE 추진 시 혼합금융 활성화 필요

2) (추진전략2)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 범 정부 차원의 PSE 3대 전략목표 중, 2대 추진전략인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에 대한 외교부-KOICA의 PSE 중점추진과제로 다음 [그림 1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그림 11] 외교부-KOICA의 PSE 중점추진과제 2-1, 2-2



가) (2-1.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생태계 구축)

□ 무상협력분야의 PS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간의 전략적인 상호학습과 각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후방 연계 추진 필요

○ KOICA 외 정부부처 및 타 시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협력분야의 PSE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 시도가 부족

□ **(범 정부 협의체 운영)** 타 시행기관이 자생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홍보, 심사,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운영 방식을 상호 공유하거나, 공존과 연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 내 협의체를 다음 [표 5]와 같이 적극 운영

[표 5] 범 정부 협의체 운영(안)

운영 항목	상세 내용(안)
명칭	국제개발협력 민간부문 협력위원회(가칭) - 국민협 또는 PSE 협의회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외교부(KOICA), 산업통상자원부(KIAT, KEA), 농축산식품부(농정원) 등 부처 및 실무 산하기관
구성 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처 및 시행기관 실무 책임자(과장-단장급)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간사 기관은 협의하에 지정
정례 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PS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학습 및 중복성 제거, 연계 도모

○ **(단기과제)** 현시점 기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무상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처와 지자체별 산발적인 개별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범정부 협의체 우선 구성 및 운영 필요

○ **(중장기과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이후, 중장기적으로 유관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수준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지속 논의하여 전후방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 추구 필요

- (전후방 연계) 각 부처의 PSE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타당성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KOICA IBS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전적 기회로 활용하는 등 부처의 프로그램과 IBS 사업 간 전후방 연계를 적극 추진 필요
  - 타 부처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성(Additionality) 적극 고려
- (예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실증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으로 먼저 시행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후 코이카의 IBS 사업으로 연계 추진

나) (2-2. PSE 주류화/PSD-PSE 연계)

□ KOICA 내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PSE-PSD 간의 시너지를 도모

○ ODA 사업으로 추진한 PSD 기반하에 PSE를 시행하거나, PSE 형태의 기업활동을 통해 시장활성화(PSD)를 유도

- **(PSD-PSE 간의 개념정의)** PSD는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협력국 내의 민간부문 개발을 핵심요소로 고려하며, PSE는 투자를 비롯한 비즈니스 주체의 협력국 내 기업 활동을 핵심요소로 고려함.

[표 6] PSD와 PSE의 구분

구분	PSD(Private Sector Development)	PSE(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념 정의	-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ODA(국가 지원) 또는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의 활동	- 공여국 소재 또는 다국적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파트너 국가에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개발효과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
주체	- 협력국의 민간 부문(기업과 제반 환경을 포괄)	- 민간 기업(협력국, 공여국, 다국적 기업 포함)
주안점	- 민간 주도의 성장(Private sector-led growth)이 최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적 접근 (OECD)	- 민간 비즈니스로 개발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활동에 주목

○ **(PSE 주류화)** 기존 프로젝트 중 비즈니스 연계가 필요하거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PSE 요소를 확대

- (예시) 창업센터 지원 사업은 종료 이후 입주 기업을 보육하고, 투자해주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나,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파트너 국가의 경우, 보육 단계뿐만 아니라 성장(투자) 단계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
  -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해 PSE 프로그램에 참여할 VC 또는 엑셀러레이터를 물색하여 연계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스타트업 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 가능

○ **(PSD-PSE 연계)** 민간기업의 PSE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와 개발목표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PSD 사업을 개발 고려

- (예시) 전기차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인근 국가에서도 폐배터리를 수입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바젤협약상 불가함.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제도 개정 혹은 국가 간 협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PSD형 개발협력 사업을 별도 발굴함으로써 사업성과와 개발성과 모두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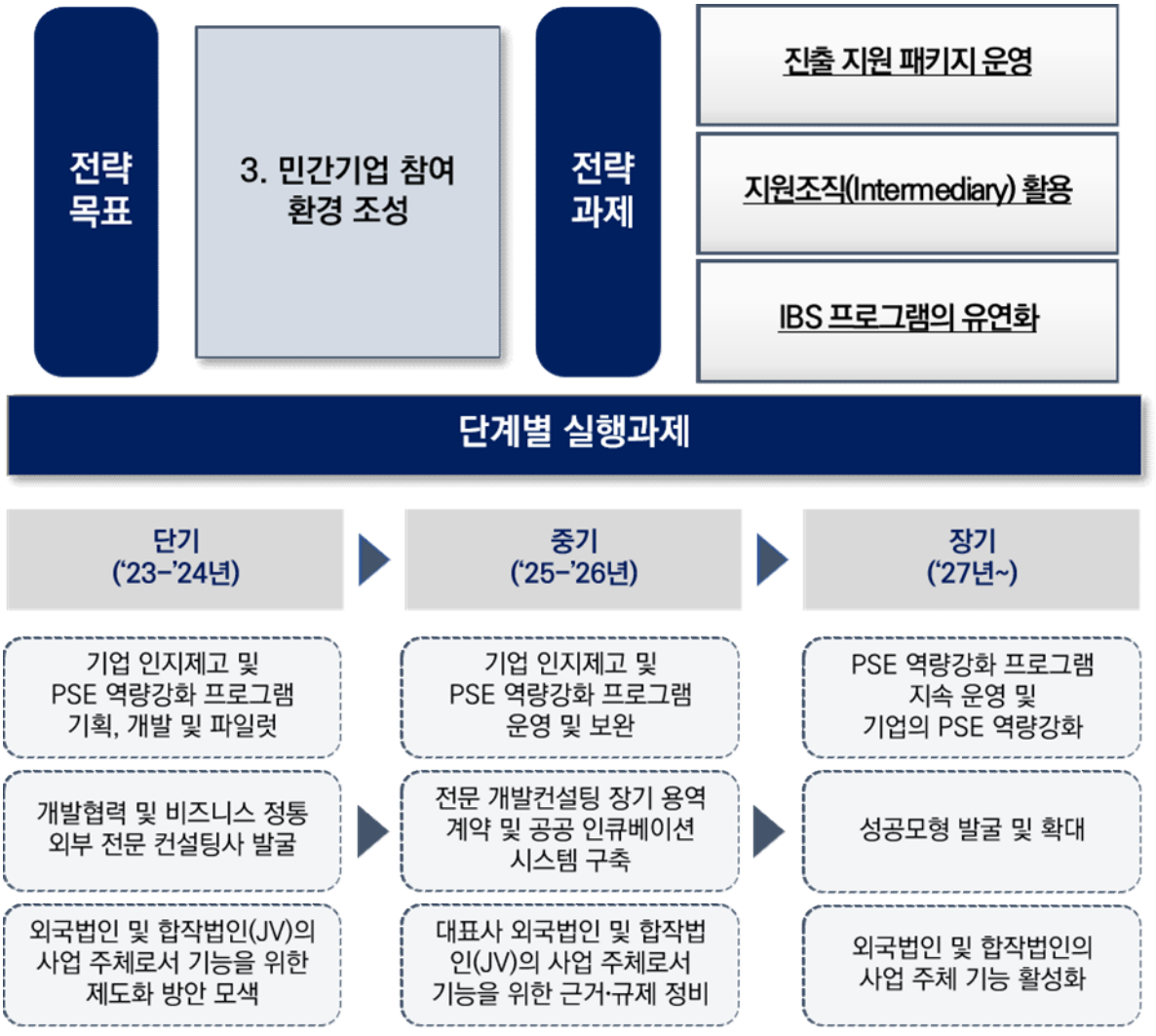
○ **(단기과제)** KOICA 내부의 PSE 주류화 및 PSD-PSE 연계를 위해 KOICA 기업협력실 외의 타 부서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기간 내 PSD 및 PSE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 필요

○ **(중장기과제)** KOICA 내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PSD-PSE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이들간의 시너지 도모

3) (추진전략3)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 범 정부 차원의 PSE 3대 전략목표 중, 3대 추진전략인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에 대한 외교부-KOICA의 PSE 중점추진과제로 다음 [그림 1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그림 12] 외교부-KOICA의 PSE 중점추진과제 3-1, 3-2, 3-3



가) (3-1. 진출 지원 패키지 신설 및 운영)

□ 다음 [표 7]과 같이 진출 지원 패키지를 신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진의 개발협력 및 PSE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

○ PSE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의 포용성 및 개발효과성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본원적 사업성(장기적인 비즈니스 수익성) 확보의 필요성 또한 강조 및 교육 필요

- 이를 통해 보다 우수한 민간기업이 PSE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가능

[표 7] 진출 지원 패키지 내용

프로그램	목적	구체 내용
파트너 국가 수요 발굴	대상국의 수요를 기업에게 적극 제공하여 비즈니스 발굴 활성화	- 기존 또는 신규 PCP 내용 제공 - 종료 사업 중 비즈니스 연계 필요 사업 정보 제공 - 비즈니스 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파트너국가에 문의하여 정보 제공
PSE 전략 워크숍	PSE 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기업 관심 고취	- PSE 프로그램 취지 소개 - 기관별 프로그램 소계 및 연계 방안 안내 - 관심 기업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제공
PSE 컨설팅	기업의 비즈니스에 포용성을 내재화	- 관심 기업 대상 PSE 컨설팅 - 단계별 프로그램 제안 및 참가 지원
해외 진출 네트워킹	파트너국가 공공/민간과 우리나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On/Offline 파트너국가 네트워킹 세션 제공 - 법률 및 회계 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기업과 네트워킹

- 진출 지원 패키지 이외에도 PSE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협의회(가안) 차원에서의 기업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등 또한 추가 고려 가능

○ **(단기과제)** 단기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파일럿(Pilot) 운영 추진

○ **(중장기과제)** 파일럿(Pilot)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환류하고, 단기 내 기획 및 개발한 기업 인지제고 및 PSE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나) (3-2. 지원조직/Intermediary 활용)

□ 우수한 개발컨설팅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효과성 확대, 협력국 현지 상황 및 현지노하우 전수 등 부가성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쉽게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단기과제)** 단기 내 KOICA가 직접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모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 **(중기과제)** 발굴된 역량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사와의 장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하향식/Top-down의 해법으로 지원 대상 예비 기업을 공동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대해 공공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PSE 사업 유입

○ **(장기과제)** 기존의 성공모형을 부각시켜 우리 인력의 개발컨설팅 유입을 통해 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PSE 수행 시장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확대 필요

- (개발컨설팅-민간기업 컨소시움) 개발협력의 PSE는 전문적인 분야로, 민간기업 임직원의 역량이 개발되더라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과의 협업하에 PSE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소시움을 적극 장려 필요

다) (3-3. 현장 중심의 지원 활성화 및 IBS 프로그램의 유연화)

□ 민간기업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내 현지 법/제도, 비즈니스 관행 등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으로,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oint Venture)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기능하여야 함.

○ **(단기과제)** 비즈니스 모델 전 주기적 지원, 행정개선, 현지 네트워킹 지원, 시장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등의 비금융적 인센티브 보완 및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 등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모색

- 비금융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PSE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활용
  - (행정) 공공의 회계검토가 민간기업이 PS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매우 큰 제약요인으로 파악됨.
  - (현지네트워킹) 민간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는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인 것으로 파악됨.

○ **(중장기과제)** 대표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법 및 규제를 정비하여 외국법인 및 합작법인의 사업 주체 기능을 활성화 필요

- 민간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중점 PSE 국가를 선정하여 중점지원책 마련
- (예시) 사무소 전담인력 파견, 법률 데스크 운영, 현지 컨설팅 지원 등

연구보고서 [기업 2023-07-416]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공 개 2023년 11월
책임평가자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 KODAC 곽재성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 기업협력실에 있습니다.
그 외 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기업협력실에 문의 바랍니다.

주관부서 **한국국제협력단 기업협력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 740-0914
홈페이지 www.koica.go.kr

연구보고서
기업 2023-07-416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 기업협력실의 의뢰를 받아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 KODAC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 KODAC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